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 제8권

〈통일교와 독생녀 현상 개정판〉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 현상

김종석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소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 현상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 제8권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 현상**

저자 | 김중석

초판 인쇄일 | 2018년 9월 27일

초판 발행일 | 2018년 9월 28일

개정판 2쇄 인쇄일 | 2023년 10월 5일

개정판 2쇄 발행일 | 2023년 10월 6일

펴낸이 | 김찬영

편집·기획 | 아우내 편집부

펴낸 곳 | 도서출판 아우내

등록 | 2010년 10월 12일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양지말 1길 40

전화 | 070-7561-0677

팩시밀리 | 0303-3444-8151

Copyright © C. E. 2023 by Jongsuk Kim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지은이와의 협약에 따라 인지는 생략합니다.

ISBN 979-11-91852-13-4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 제8권

『통일교와 독생녀 현상』 개정판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 현상

김 종 석

한국메시아운동사연구소

초판 서문

문선명 총재의 종교운동(통일운동)이 일부 기독교 인사로부터 부당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많은 신종교 연구자들은 통일운동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해 세계적으로 성공한 신종교 중 하나로 꼽는다. 창시자의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비롯한 수많은 통일운동 현상과 사건은 신종교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 통일운동은 전형적인 메시아 운동이자 천년왕국 운동이다. 종교적 이상 실현을 위한 지상천국 회복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통일운동 현상의 백미는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이다. 참부모인 창시자와 한학자의 주례에 따라 수천수만 쌍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 참여자들이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참된 가정을 이루겠는가?”라는 창시자의 질문에 일제히 “예”라고 대답하는 현장에 신종교 연구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릎을 “탁” 치며 “이것이 종교 현상이다!”라고 탄성을 질렀을 것이다. 신종교 연구에 문외한이었던 필자도 1992년 8월 25일,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3만여 쌍의 축복결혼식 참여자들과 함께 “예”를 합창하였다.

그런데 마치 태초에 절대자 하나님의 딸 해와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절대자의 창조 이상을 파탄 낸 것처럼, 2012년 창시자 타계를 전후하여 창시자의 원래 교시와는 정반대로 창시자의 가정인 ‘참가정’은 혼란을 겪고 있고, 통일운동은 분열하고 있다. 2018년 9월 통일운동은 분열을 넘어 창시자의 통일운동과는 다른 정체성, 다른 신학의 ‘다른 종교’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정과 통일운동 분열의 중심에 다른 이가 아닌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어머니’인 한학자가 있다.

필자의 인생을 바꾼 통일운동의 핵심 교리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참가

정을 통한 세계평화와 지상천국 실현”과는 달리 이제 통일운동은 분열하여 한학자의 가정연합과 창시자의 7남 문형진의 통일성전, 3남 문현진의 가정평화협회로 갈라진 채 창시자가 세웠던 애초의 정체성과는 다른 현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을 축복가정의 일원인 필자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첫 번째 동기이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절대복종하라는 일부 직업적 통일교인의 요구를 필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창시자의 가르침은 “진실과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고 절대자의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위해 살라라는 것”이었다. 아무 말 없이 분열된 통일운동의 상황에 가슴 아파하는 수많은 다른 축복가정들의 심정도 필자와 다르지 않으리라. 필자는 진실 앞에 언제든지 고개 숙일 각오가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집필 동기는 신종교 연구자로서 갖는 관심이다. 인류 모델의 참가정을 이루어 지상천국을 이루겠다고 통일운동을 창시한 창시자가 타계한 지 불과 6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류 구원의 모델인 창시자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여머니’인 한학자가 참가정 혼란의 중심에서 창시자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독생녀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다. 창시자의 아내가 창시자가 타계한 지 불과 수년 만에 창시자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내세운 예를 필자는 다른 신종교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다. 필자가 이 특이한 현상의 한가운데에서 참여자와 관찰자의 두 가지 입장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로서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필자는 통일교 신앙자라는 장점을 살리되 독생녀 현상을 철저히 객관화하여 기술해 나갈 것이다.

이 책 집필의 또 다른 동기는 UP 선학대학원대학교 김진춘 교수의 논문,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2017.2.7.)”이다. 김진춘 교수는 평생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다. 김진춘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창시자는 원죄를 갖고 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모순된 논리로 창시자의 교시를 이용하였다. 2017년 4월, 김진춘 교수가 교구장들과 나누는 대화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김진춘 교수의 이 논문과 주장이 거의 진리인 양 통일교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김 교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책은 3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이 책의 결론이다. 통일운동 분열의 원인은 한학자와 창시자 사이의 불화이며 통일운동 분열의 결과가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임을 논증할 것이다.

2장은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의 핵심 주제들을 창시자의 교시와 비교하여 한학자의 통일교(하늘부모님성회)는 창시자의 통일운동 근본 정체성과는 다른 새로운 종교현상임을 논증할 것이다.

3장은 통일운동사에서 독생녀 현상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독생녀 현상이 통일운동 분열 과정의 종착지이며, 통일운동사의 독생녀 현상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의 흐름 속에서 독생녀 현상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이 변경되고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이 새로운 신학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최OO, 김진춘, 김항제, 진성배, 문선영과 같은 통일교인 학자들은 독생녀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독생녀 신학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어머니’ 한학자가 어떤 내용의 독생녀 주장을 계속할지, 그리고 그녀의 주장에 따라 이들 학자가 창시자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독생녀 주장을 어떻게 합리화해 낼지 주목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새로운 독생녀 신학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통일교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그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필자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필자의 책은 여러 사람의 참여와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준 많은 통일교 전·현직 간부, 선배 후배 동료 축복가정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원고를 꼼꼼히 읽고 솔직하게 비평해 준 백경언 박사님, 윤송석 형님, 그리고 편집 작업을 함께해준 출판사 편집팀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2018.9.

김종석

개정판 서문

이 책 초판을 쓴 동기 중 하나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생녀론을 체계화하기 위해 김진춘 교수가 작성한 논문,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2017.2.7.)”였다. 창시자가 밝혀 온 통일원리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온 김 교수의 논문은 필자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다. 김 교수는 창시자의 말씀과 통일원리로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논증하고 싶었겠지만,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통일원리와 창시자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는 창시자의 통일원리와 충돌하는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논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를 더욱 놀라게 한 사건은 2017년 4월, 전국 교구장 정책회의에서 김진춘 교수가 한 발언이다. 이날 일부 교구장들이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을 주장하는 김 교수 강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교수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한학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자신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 후 이들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김진춘 교수는 2022년 4월,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독생녀론의 최종 목적이 드러난 소위 <참아버지 꼬리론>을 강의하였다. 이 또한 축복가정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필자가 2016년 『통일교의 분열』을 집필하면서 2013년경부터 본격화된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을 창시자의 통일원리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통일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또 다른 종교현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이후 한학자의 언행 등으로 모두 증명이 되었다고 본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학자의 언행과 여러 사건, 그리고 창시자의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한학자가 창시자와 다른 방향의 정체성을 구체

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는 2000-2003년 무렵이었다. 한학자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창시자와 노골적으로 불화하였고, 통일운동의 핵심 정체성인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하였으며, 장자권 중심의 섭리를 반대했고, 참가정의 형제와 부자(父子)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은 참가정을 중심한 통일운동의 체계를 반대하며 제자 중심의 체제를 도모하던 천사장격 교권주의자들과 해와 사명자인 한학자가 함께 공모한 결과였다. 주관성을 전도한 천사장격 교권주의자와 한학자가 주도해서 초래한 참가정 분열과 통일운동 분열은 태초의 아담 가정에서 벌어진 해와의 타락 사건과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초부터 2012년 창시자 성화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온 통일운동의 참상은 타락한 천사장과 해와가 초래한 6천 년 인류 죄악 역사의 축소판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한학자, 문형진, 문국진, 문인진과 교권주의자들이 반문현진 세력을 형성하여 문현진을 축출함으로써 참가정과 창시자의 섭리적 이상을 파괴해 나왔던 전체 과정이 통일운동 분열과 그 참상의 핵심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참상의 내막을 축복가정들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타락한 해와는 자신의 혈통적 정체성을 망각하고 천사장을 남편이자 아버지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통일운동 분열을 주도한 한학자와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이를 따르는 여러 통일교인들은 하나님 본연의 혈통이 참아버지 문선명 총재를 통해 참가정에 뿌리내리고, 전 세계 인류에게 확대되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지상에 실현된다는 통일운동의 근본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는 한학자를 숭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참가정을 파탄 내고 타락한 천사장의 주관성을 받아 독생녀론과 독생녀 숭배를 주장하는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을 독생녀의 타락이라 규정한다.

한학자의 타락으로 문선명 총재의 재림주 메시아로서의 최종 사명인 기원절과 천일국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학자와 독생녀론자들이 창시자 없이 한학자가 주관한 기원절을 승리한 기원절이라 아무리 강변해도 참부모의 3차 완성 성혼식과 참가정 입적, 이를 조건으로 예정되었던 축복가정의 입적을 위한 완성 축복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학자가 주관한 2013년 음력 1월 13일의 기원절은 3차 아담이자 재림주로 강림한 문 총재의

섭리와 무관한 독생녀 즉위식이라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2023년 5월, 선문대 신학과 교수, 황진수, 오택용, 주재완, 김민지, 안연희가 자신들의 논문을 모아 『독생녀 신학 연구』를 출판하였다. 이들은 창시자의 통일 원리와 한학자의 독생녀론이 같지 않다는 것을 공식화했고, 성평등 시대, 탈가부장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버릴 것과 독생녀론을 창조 이상세계의 새로운 진리로 받아들이고 한학자 독생녀를 숭배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판가리 시대에 참가정 이상을 막기 위해 사탄이 주도할 절대 성(性) 파괴는 여성주의(페미니즘)에서 비롯된다는 창시자 문선명 총재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오히려 페미니즘으로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공격하였다.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사탄과 마귀의 이론으로 통일원리를 비판한 것이다.

이들 교수가 『독생녀 신학 연구』를 한학자에게 바쳤다는 사실은 독생녀론을 중심으로 한 하늘부모님성회가 창시자의 통일원리와 무관한 페미니즘의 독생녀교임을 공식화한 조치와 다름없다.

축복가정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본 필자는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독생녀 현상을 추가로 분석하고 정의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근거로 <통일교와 독생녀 현상 개정판>인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 현상』을 출판하게 되었다. 자료 수집은 관찰자의 객관적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자료에 대한 해석과 비교는 통일원리와 통일운동 분열사를 연구해 온 신앙자이자 학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힌다.

오랜 시간 통일운동 분열과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을 관찰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통일운동 분열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통일운동 분열의 내적 원인은 재림주 참아버지 문선명 총재에 대한 한학자의 불신과 주관성 전도였다. 외적 원인은 90년대부터 문선명 총재가 준비해온, 참가정의 섭리적 장자 문현진 중심의 후계체제를 와해시키고 통일교회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권 세력의 욕심이었다. 그러나 한학자가 『독생녀 신학 연구』를 통해 탈창시자, 탈통일원리를 공식화함으로써 한학자의 하늘부모님성회는 통일운동과 무관한 종교단체로 공식화되었다. 더불어 반문현진 교권 세력이 UCI 탈취를 목적으로 일으켰던 여러 소송도 한학자와 교권 연합인 반문현진 세력의 패소로 완벽히 종결됨으로써 통일은

동의 모든 분열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남아 있는 참가정과 축복가정이 재림주 참아버지 문선명 총재의 통일운동 이상을 다시 실제로 이루어내는 일이다. 내적으로는 창시자가 한학자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한 참부모, 참가정 이상을 다시 이루어 기원절을 하늘 앞에 봉헌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천일국의 주권을 실제로 복귀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중심인물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가정과 축복가정이 복귀된 아벨과 복귀된 가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하나님 혈통의 뿌리인 참가정을 완성할 책임은 하나님과 하나된 참자녀의 몫이다. 참자녀는 참아버지의 성화와 책임분담에 실패한 한학자의 책임분담을 대신해 남아 있는 참부모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축복가정은 참가정과 하나 되어 복귀된 가인권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통일운동 분열의 내막이나 한학자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반섭리, 반원리의 길을 가는 통일교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다. 세속적 삶을 버리고 축복을 받았지만, 통일운동에 동참한 애초의 동기를 잊어버리고, 독생녀 숭배를 효도로 착각한 나머지, 섭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여러 통일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하다. 반섭리, 비원리를 버리고 섭리와 원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2023.7.1.

김종석

차례

초판 서문	5
개정판 서문	8
〈프롤로그〉	19
통일운동	19

제1장 독생녀 현상	21
------------------	----

제1절 소망, 한탄, 그리고 비밀 약속	23
1. 통일운동의 현실; 분열과 혼돈	23
2. 소망	25
3. 제2 교주, 대등한 자리, 그리고 책임분담	26
1) 제2 교주	26
2) 대등한 자리	28
3) 비밀 약속과 최종 일체	29
4) 책임분담	32
5) 창시자의 한탄	35
4. 불화	36
5. 분열	48

제2절 독생녀 인식의 과정	52
1. 2009년부터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한 한학자	52
2. 독생녀 즉위식으로 변질된 기원절	55

1) 기원절의 본래 의미	55
2) 기원절의 조건	57
3) 참부모 완성 성혼식 없이 진행된 한학자의 기원절	60
3. 독생녀론의 기원	62
4. 『사랑의 세계』, 『참어머니 생애 노정』,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에 드러난 독생녀 정체성의 변화	64
1) 『사랑의 세계』 (1987.9.5.)	64
2) 『참어머니 생애 노정』(2012.1.23.)	65
머리말과 발간사에 드러난 한학자의 독생녀론	65
한학자 신격화의 기반	66
3)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2020년)	69
4) 『사랑의 세계』, 『참어머니 생애 노정』,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와 한학자 설교에 드러난 독생녀 정체성 비교	71

제2장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론 73

제1절 창시자가 교시한 독생자·독생녀 75

1. 제1차 독생자·독생녀인 아담과 해와	75
1) 하나님의 아담·해와 창조와 혈통	75
2) 아담·해와의 타락과 독생자·독생녀 자격 상실	76
2. 제2차 독생자 예수와 독생녀 후보 사가랴의 딸	77
1) 독생자 예수	78
예수의 혈통	79
예수의 첫 사명	81
2) 독생자 예수의 아내	82
예수 아내 후보자, 사가랴의 딸	82
예수 아내의 혈통	84
3) 예수의 성혼 실패	86
3. 제3차 독생자·독생녀, 재림메시아와 재림메시아의 아내	88
1) 재림주 출현의 필연성	88
2) 재림주의 출생	89

3) 재림주 출생의 섭리적 의미	92
4) 재림주의 혈통	93
타락한 혈통의 부모에서 출생	94
혈통 복귀 불필요	98
무원죄 출생	99
16세 사명 인식	103
첫 사명	105
5) 재림주의 아내 후보자	108
최선길	108
김명희	110
6) 독생녀 후보자 한학자	112
최선길과 김명희를 대신한 한학자	112
한학자의 정체성과 혈통	112
7) 성혼식과 한학자를 재창조한 7년 노정	114
8) 한학자 독생녀 사명 완수 여부	116
4. 만인 독생자·독생녀	117

제2절 한학자의 독생자·독생녀론 119

1. 독생녀 정체성의 배경: 한학자 하나님 부인론	120
2. 한학자의 독생자·독생녀론	129
1) 아담과 해와	129
2) 독생자 예수와 예수의 아내	130
3) 재림주와 재림주의 아내 독생녀	133
유원죄로 출생한 창시자	133
무원죄 순혈 출생의 한학자 독생녀	136
3. 독생녀론의 주요 내용	139
1) 이원론적 하늘부모님론	139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늘부모님	142
3) “독생녀 탄생이 없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다”	144
4)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다!”	146
5) “아버지는 기원절 6개월 전에 성화하셔야 했다”	148

6) “불교의 미륵불도, 기독교의 재림주도 여성이다”	149
7) 아버님은 사탄 참소 조건의 꼬리를 갖고 있다!	150
4. 한학자의 독생녀 관련 주요 발언	151

제3절 김진춘의 독생자·독생녀론 162

1. 아담과 해와	164
1) 독생자·독생녀의 자격	164
2) 독생자·독생녀와 3대축복	165
3) 아담·해와의 타락과 재창조	165
2. 예수와 예수의 아내	168
1)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예수	169
2)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가 없었다	169
3. 재림주 창시자와 그의 아내	172
1) 재림주인 창시자	172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창시자	172
한학자에 의해 혈통이 복귀된 창시자	173
한학자가 창시자와 결혼해 줌으로써 창시자를 완성해 줌	176
2) 세 번째 독생녀 후보자 한학자	177
무원죄 순혈 독생녀로 출생한 한학자	177
독생녀의 혈통은 창시자에 의해 복귀된 것이 아니다	179
한학자 혈통에 대한 이중적 해석	180
한학자의 개성완성과 어린양잔치	182
4. 참아버지 꼬리론	183
5. 통일원리와 독생녀론 비교	185

제3장 독생녀의 타락 191

제1절 한학자 타락의 정의 193

1. 주관성 전도	195
1) 주관성 전도의 동기; 문헌진에 대한 시기 질투	200

2) 참가정을 파탄낸 한학자	200
3) 한학자와 이혼을 고민한 창시자	203
2. 한학자의 패륜적 발언	205
1) 한학자가 창시자를 업신여김(아래 대화는 문용현의 진술 녹취)	205
2) 이제 그만하시고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206
3) 선모(善母)감이 없다	207
4)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208
3. 한학자 숭배는 타락행위이다	208
4. 한학자를 주관한 천사장격 인물들	210
1) 김효율	211
2) 김효남	211
3) 윤영호	212
제2절 독생녀론에 대한 통일교인들의 반응	214
1. 심층 면접	214
1) 참어머님께 절대복종해야 한다!	214
2) 독기 어린 한풀이이다	217
3) 어머니이니 어쩔 수 없다	218
4)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220
2. 통일교 간부, 교수들의 반응	222
제3절 『독생녀 신학 연구』 비판	230
1. 독생녀론과 페미니즘	230
1) 성평등시대 맞지 않는 통일원리를 버려라	230
2) 양성(남성, 남편)과 음성(여성, 아내)의 위계적 질서는 없다	232
3)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제인 통일원리를 버려야 한다	233
4) 남성다움, 여성다움은 성평등 시대에 버려야 한다	235
5) 하늘부모님성회의 중심은 하늘 어머니이다	236
6) 남성 메시아와 여성 메시아는 각각 주체이다	237
7) 한학자가 구원의 중심이다	239
8) 창시자의 통일원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신학이다	239

9) 독생녀론은 완전한 여성 해방의 시대를 열었다	242
2. 한학자 신격화	243
1)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하고 혈통을 복귀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243
2) ‘하늘부모님성회는 유일무이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243
3) 독생녀론은 최종 계시이자 완성의 진리이다	244
4) 초림 독생녀가 탄생하는 곳에 독생자가 재림한다	245
3. 독생녀론의 모순	246
1) 아담과 해와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246
2) 예수는 보냈고, 예수 아내는 보내지 않았다	247
3) 천일국은 만왕의 왕 독생녀가 다스린다	248
4) 독생녀는 태어나면서 원리도 섭리도 다 알았다	249
에필로그	251
참고문헌	255

〈프롤로그〉

통일운동

일반적으로 문선명 총재(이하 창시자)에서 비롯된 여러 종교현상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출발한 신종교라고 인식되어 창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로 뭉뚱그려 ‘통일교회’로 불렸다. 필자도 여러 권의 책에서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통일교회’ 혹은 ‘통일교’로 명칭을 붙였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창시자가 주도한 운동은 처음부터 단순히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예술, 교육, 산업, 의료 등의 전 분야에서 인류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야 했던 절대자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창시자의 가정, 즉 참가정을 중심으로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지상에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메시아를 중심한 지상천국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상천국, 즉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창시자의 운동은 실로 그 내용과 규모를 고려할 때 상상을 초월한다. 1954년에 창설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비롯하여 백여 개에 달하는 세계적인 기구와 조직들은 절대자의 사랑과 평화이상세계 창건을 위한 숭고한 목적 아래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성, 국제성을 띤 초인종, 초종교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¹⁾

1) 창시자는 초국가적 차원의 평화이상세계 실현을 위해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평화정상회의, 세계평화도서·반도·대륙국가연합, 평화재단, 범세계적인 평화대사 활동, 평화왕국연합, 유엔 갠신운동, 평화유엔, 베링해협 평화왕 터널 및 국제초고속도로 공사, 몽골반점동족평화연합, 천주평화연합 등을 창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 창시자의 지상천국 실현을 위한 종교적, 초종교적 활동 전체를 포함하여 섭리적 이상과 관련한 현상 전체를 ‘통일운동’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가 남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8대교재교본>의 핵심 진리 체계를 ‘통일 원리’로 이름 붙이고자 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창시자가 주도했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통일운동은 공통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아담→예수(제2차 아담)→창시자(제3차 아담)로 이어지는 혈통적 정체성에 대한 믿음 즉, 창시자는 아담이나 예수처럼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현상과 구별되어 통일운동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핵심은 혈통신앙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창시자 타계 후 창시자가 남겨 놓은 통일운동 대부분을 기반으로 창시자의 아내인 한학자가 2020년 5월에 만든 하늘부모님성회는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창시자와 관련한 ‘통일운동’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한학자의 혈통과 독생녀 승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의 개별 신종교로 필자는 보고 있다.

종교적 종교화합일치 운동을 위해 초교파운동, 종교협의회, 세계종교의회, 국제종교재단, 세계종교청년세미나,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경전간행, 초종교세계문화체육대전, 세계종교청년 봉사활동 등을 주도하고 후원하였다. 절대자의 지상천국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참된 가정을 통해 이루진다는 믿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국제축복행사, 교차국제축복식, 혼독회, 청소년 순결운동, 청소년 인성교육 등을 전개하였다. 국제승공연합, CAUSA, 국제안보회의, 통일사상연구원, 평화연구소,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천주평화통일가정당, 국제교육재단 등에 의한 사상과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 한미·한일·일미·한중여성세미나, 자원봉사아원, 국제의료봉사단, 국제구호친선재단을 조직하여 여성 및 구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평화청년연합, CARP, HARP, SFP, STF, 세계대학연맹, 청년포럼, 국제청년학생지도자 교육, 순결교육, 청소년 인성도덕교육 활동 등을 통한 청년학생지도운동을 주도하였고, 세계일보, TWT, MET, TDM, UPI, Good life TV 등을 통한 정론과 도덕 언론창달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전 세계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선문대학교, 브리지포트대학, UTS에 이르기까지의 ‘애천·애인·애국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교육운동을 전개하였고, PWPA, ICUS, 평화기술연구소, 기술평준화운동, 각종 기업체와 유지재단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산업육성운동, 그리고 국제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리틀엔젤스예술단, 유니버설발레단, 일화 천마축구단, 일화 천마여자 축구단, 쓰로카바 축구단, 세네 축구단, 월드 피스컵 대회, 통일무도회, 세계문화체육페스티벌 등을 통한 세계평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1장 독생녀 현상

제1절 소망, 한탄, 그리고 비밀 약속

1. 통일운동의 현실; 분열과 혼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신종교 중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통일운동은 2012년 9월, 창시자 타계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화를 흑자는 남성시대가 가고 새로 도래한 여성시대에 남성인 창시자보다 뛰어난 창시자의 아내(한학자)가 이끄는 혁신 과정이라거나²⁾ 성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탕감복귀시대의 통일신학(창시자의 통일원리)을³⁾ 대신하는 완성시대의 새로운 독생녀 패러다임의 도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창시자 타계를 전후하여 통일운동은 분열하였고,⁵⁾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여머니인 한학자가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⁶⁾ 독생녀 숭배를 주로 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하늘부모님교단과 하늘부모님성회를 잇달아 만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한학자가 3남 문형진 축출을 위해 앞장세웠던 문형진은 한학자와 결별 후 생취리 세계평화통일성전이라는 독립 교단을 만들었고, 한학자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난하고 있다.⁷⁾ 게다가 하늘부모님성회 최측근 간부들의 비리 의혹과⁸⁾ 한

2) Andrew Wilson, "Theological Developments in the FFWPU since the Death of Rev. Moon," *Acta Comparanda*, SUBSIDIA VI, pp. 266-267.

3) 『독생녀 신학 연구』 199쪽.

4) 『독생녀 신학 연구』 27쪽.

5) 자세한 통일운동 분열의 역사는 필자의 『통일교분열실록』 전집 11권을 참조하라.

6) 한학자의 설교, 2014.7.1.; 2014.7.1.; 2016.12.25.

7) 문형진의 설교, 2018.4.25.

8)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0523> 2023-05-21 "윤영호 본부장의 처 이신혜 재정국

학자 자신의 도박 사실이 폭로되는⁹⁾ 상황이 연이어 전개되고 있다. 또 문현진을 몰락시키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현금을 들여 10여 년간 이어온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였고,¹⁰⁾ 하늘부모님성회 소속 일본인 자녀가 아베 전 수상을 암살함으로써 일본 내 종교법인 해산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이에 따른 현금 감소와 인원 감축 및 대규모 인사이동이 강행되어 현장에서는 여러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¹¹⁾ 한학자 신격화에 앞장섰으나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36가정 원로 김영희가 반독생녀를 선언한 후 독자 그룹을 형성하는 듯한 현상도 하늘부모님성회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2000년 초부터 한학자가 창시자의 정체성과 충돌하는 ‘독생녀 정체성(독생녀론)’과¹²⁾ 독생녀 숭배를 목적으로 하늘부모님성회라는 신종교를 만들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독생녀 현상’이라 규정한 바 있다. 필자는 이 책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 현상』을 통해 한학자의 독생녀 인식에서 비롯된 주변 현상과 독생녀론을 통일운동 분열사와 창시자의 가르침 전체를 포괄하는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장-선교본부 통장에서 70억 원 인출해 가지고 감”; “자신이 해고한 윤영호 본부장이 두려워 윤영호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독생녀 TM”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0615>; “윤영호 본부장의 이임식과 독생녀 TM의 연봉은 100억 원 공개 2023-05-29” <https://cafe.daum.net/antiucorruption/ZXsh/249> [통일운동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도박 중독에 빠진 정원주 비서실장-2008년부터 평균 1백만\$(13억원) 이상 도박으로 탕진,”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0547> 2023-06-03; “윤영호 본부장의 라스 베가스 카지노 상습도박 카드 사용,”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0541> 2023-05-30; “통일교는 도박판으로, 통일교 인사는 도박중독자 정원주 제2 비서실장 마음대로”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0609>

9) 「주간문춘」 편집부 2022.12.27. “통일교회 ‘한학자 카지노 의혹’ 전 교회장의 고발 ‘일본인 신자가 현금을 운반했다.’ 12억엔 리스트”

10) 한학자의 하늘부모님성회는 문현진의 UCI를 상대로 제기한 여의도 파크원 소송에서 2014년 최종 패소하였다. 파라과이에서 진행된 파라과이 판타날 토지 소유권 소송(전체 면적은 약 60만 헥타르로 추정)에서 2021년 9월 최종 패소하였고, 미국 UCI 소송에서도 2022년 8월에 이어 2023년 8월 최종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30623744651/en/D.C.-Superior-Court-Dismisses-All-Claims-Against-UCI>, “D.C. Superior Court Dismisses All Claims Against UCI, *Ruling ends 12 years of groundless litigation against religious organization*”

11) 하늘부모님성회 지방 교회에 1명이었던 책임 성직자가 3-4명으로 늘어난 곳도 있다.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일반 교인들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12) 필자가 2006년 『통일교 분열에서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을 나름대로 체계화한 것을 일러 ‘독생녀론’이라고 명명한 이후 선문대 교수 주재완이 2022년 6월, “여성 구원자와 하나님 어머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생녀론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선문대 신학과에서 이수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다. 『독생녀 신학 연구』 102쪽.

2. 소망

창시자가 1935년, 구세의 사명을 인식한 후 그를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적 행위와 사건은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있었다. 창조, 타락, 복귀의 비밀과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구도의 길, 세속적 윤리를 뛰어넘어 절대자의 계시에 복종해야 했던 신화와 같은 복귀의 과정, 공산 치하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초, 『원리원본』을 저술하며 인류 구원의 꿈을 꾸었던 시절,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구세 사업, 1960년 4월, 딸 같은 17세의 한학자를 아내로 맞아 깨어진 참가정을 다시 시작한 일, 1994년 5월, 종교시대를 대표하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간판을 내리고 초종교시대를 대표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새로 시작한 일, 그리고 수많은 행사, 수많은 조직, 수많은 사건 …,13)

창시자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단 하나의 소망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지상에 실현하는 것이었다. 완성한 아담의 입장에서 한 여성을 완성해 참부부, 참부모가 되어 절대자를 부모로 모시는 복귀된 하나님 혈통의 참가정을 이루고, 이 참가정을 만민에게 확대함으로써 지상천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창시자는 확신했다. 이것은 통일운동사의 처음과 끝이라 할 수 있고, 창시자가 깨달은 통일원리의 결론이었다. 물론 이 소망은 창시자의 소망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통일운동에 참여하여 축복결혼에 참여한 모든 통일교인의 소망이었다.¹⁴⁾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어머니’인 한학자도 이것을 소망했기에¹⁵⁾ 1996년 세계평화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한국 대회에서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강연하였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아담·해와가 참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어 참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하나 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참사랑 속에서 아들딸을 갖고 행복하게 살

13) 『참부모님 실록』 2017.2.2.

14) (원본) 『천성경』 1742쪽.

15) 한학자, 『참사랑과 평화의 세계』 2003.1.15.

수 있는 참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이 인간 혈대를 통하여 자자손손 변성함으로써 천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시고 싶으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 참사랑과 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창조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섭리인 복귀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상의 근본입니다.”¹⁶⁾

따라서 창시자가 참된 남편으로서 참된 아내와 참부부가 되고 참된 자녀를 둔 참부모로서 참가정을 실현하는 일은 구원 섭리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인간이 가야 할 복귀섭리의 과정을 창시자는 물론 모든 인류는 반드시 걸어가야 했고, 종의 종에서부터 종·양자·서자·직계 자녀, 그다음엔 어머니·아버지·하나님까지의 종적 8단계 과정과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의 횡적 8단계 과정의 책임을 완성해야 했다.¹⁷⁾

창시자는 소녀 한학자를 참어머니로 찾아 세워 1960년 4월 11일 성혼함으로써 참부모의 길을 출발하였다. 자신의 완성은 물론, 절대자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소녀 한학자에게 전수하고 상속하며 8단계 책임을 다하게 해 창시자와 동위·동등권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조치해 나왔다.¹⁸⁾

3. 제2 교주, 대등한 자리, 그리고 책임분담

1) 제2 교주

창시자는 1990년 3월 27일,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며 한학자를 제2 교주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복귀섭리의 완성 과정과 한학자가 스스로 가야 할 8단계 완성 과정에 따라 여성 전체 해방권이 선포되었고, 1대 교주인 창시자와 함께 제2 교주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며, ‘교주’의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중심으로 누구보다 더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교시하였다.¹⁹⁾ 이후

16) 한학자,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 세계평화과정연합 185개국 결성 한국대회 주제 강연문, 『통일세계』 1996.10. Vol. 308, 55-67쪽.

17) 『말씀선집』 189권 141쪽. 1989.4.1.

18) 『말씀선집』 305권 230쪽. 1988.8.21.

19) 『말씀선집』 201권 128쪽. 1990.3.27.

창시자는 한학자를 제2 교주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²⁰⁾

독생녀 신격화와 독생녀론 체계화에 힘을 쏟은 김진춘은 창시자의 『말씀선집』을 근거로 “교주”의 의미를 ‘통일교회의 주인,’ ‘가르치는 주인’으로 정의하며,²¹⁾ “참부모님 양위분은 통일교회와 세계의 주인이며, 가르침의 주인”이라고 규정하였다.²²⁾ 그러나 창시자의 교시를 종합해 볼 때 ‘교주’의 의미를 ‘통일교와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주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통일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학자가 ‘제2 교주’라는 창시자의 교시는 장자권을 중심한 후계 체계의 전통을 반대해 후계자 자리를 놓고 창시자의 아들과 경쟁하는 ‘자격자’의 의미가 아니다. 창시자에 이어 통일운동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단순한 법적, 종교적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창시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 창시자의 정체성과 전통을 장자권자를 도와 함께 발전시키고, 복귀섭리의 가정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책임을 완수해야 할 ‘참어머니’로서의 사명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창시자 타계 직후 첫 공식 집회에서 한학자는 ‘제2 교주’의 사명과 책임을 정확히 언급한 바 있다. 한학자는 창시자 타계 후 “하늘의 인도 하심을 받아 참아버님을 뵈고 ‘참부모님 성혼’의 은사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복귀섭리를 전개하시어 최후 재림메시아로서 참아버님을 보내주셨고, 참아버님은 스스로의 책임분담으로 진리의 말씀을 규명하셨으며, 탕감복귀를 완성하셨다”라고 천명했다. “한평생을 바쳐 참아버님의 반려자로서 동고동락하며 만남을 헤쳐 나왔다. 그 승리적 터전 위에 참부모님 양위분은 하늘이 주신 섭리적 차원의 동등권, 동거권, 동위권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환기하며, “이와 같은 섭리의 승리권을 위해 최선에 최선을 다하며 한평생 보여주고 지도해주셨던 참아버님의 삶과 전통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또한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 오신 분은 문선명 총재이다. 어느 역사 이래 위대한 분이 당대에 ‘다 이루었다.

20) 『말씀선집』 202권 83쪽, 1990.5.6.

21) 『말씀선집』 361권 310쪽, 2001.11.27.

22) 김진춘,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2018.2.23. 13쪽.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고 내가 완성, 완결, 완료하였다. 이제부터 섭리역사는 새롭게 출발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 세상에 있었느냐?”라고 증언하였다.²³⁾

2) 대등한 자리

창시자는 1991년 9월과 11월에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며 여성을 해방하기 위해 한학자의 어머니 사명을 강조하며 창시자의 길을 따라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처음으로 교시하였다. 그 후 1992년 4월 10일, 세계 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한 후 1992년 12월 26일 7개국을 순회하고 돌아온 한학자를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 세운다고 교시하며²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는 것이 남성들이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의 분신이 된 모든 여성들을 중심 삼고 2세로 태어난 아이들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은 그런 연령권 내, 16세 때에 실수하여 아담·해와가 사랑하여서 아들딸을 낳더라도 하나님이 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을 세워 가지고 어머니의 해방과 2세의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사옵니다.”²⁵⁾

창시자의 교육과 도움으로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 서게 된²⁶⁾ 한학자는 완성한 아담의 아내인 완성한 해와의 입장에서 창시자와 절대 하나 되어야 했고, 완성한 참가정의 참여머니 입장에서 참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참자녀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했으며, 인류의 모델적 가정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책임을 해야 했다. 나아가 가인 세계의 자녀와 여성들을 참사랑으로 해방하는 인류의 어머니 사명을 다해야 했다.

창시자와 한학자는 ‘천지인참부모’로서 2003년 연말 ‘평화의 왕 대관식’과 ‘즉위식’을 하였고, 194개국에 가인·아벨 분봉왕을 파송하였다. 2009년 1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거행한 후 ‘참부모유엔’을 창설하였다. 이는 곧 ‘참

23) 『통일세계』 2012.9. Vol. 495, 80~89쪽.; 한학자의 설교, 2012.9.17.

24) 『말씀선집』 302권 286쪽. 1999.6.26.

25) 『말씀선집』 241권 250쪽. 1992.12.26.

26) “선생님이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어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와가 아담을 끌어갔으니 완성한 아담이 반대로 해와를 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228권 112쪽. 1992.3.26.

혈통 해방권' 아래의 '하나님 황권 확립'을 의미한다. 이어 참부모 성혼 50회 금혼을 계기로 '참부모유엔 안착 및 정착'을 위한 모델 섭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2010년 4-5월, 실체적 만왕의 왕에 재즉위하고, 인류 중생·부활·영생 축복의 천도를 상속하였다.²⁷⁾ 그런 가운데 창시자는 2010년 6월 19일과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천지인참부모님 최종 일체권 완성·완결·완료 기준의 전체·전반·전권·전능시대'를 선포하였다. 한학자를 대등한 자리에 세운 것에 이은 진일보한 조치였다.

3) 비밀 약속과 최종 일체

창시자는 한학자를 자신과 대등한 자리에 세우고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 참된 부부, 참된 부모로서 참사랑의 실체가 되어 지상천국의 출발일인 기원절을 위해 필요한 섭리를 해 나가야 했다. 그 섭리를 위한 조건은 한학자가 창시자와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절대적 소망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생각과 정체성이 완전히 통일된 완전한 아담과 해와의 실체이자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창시자와 한학자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원절의 절대조건이었다. 창시자는 한학자가 참어머니로서 책임을 못 하면 섭리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고 교시하면서도,²⁸⁾ 기원절을 향한 다음 섭리를 위해 2010년 6월 19일과 26일에 창시자와 한학자가 최종 일체를 이루었다고 선포하였다.

“2010년 천력 5월 8일(양력6.19.)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양력6.26.) 새벽 3시 25분 이렇게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을 중심삼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시 25분의 3수는 초부득삼의 3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구약, 신약, 성약의 3시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이제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완결·완료의 기준 위에서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27) 『말씀선집』 614권 184-190쪽. 2009.7.7.

28) 『말씀선집』 607권 310쪽. 2009.2.16.

더불어 알렉산더 헤이그 전 미국 국무장관의 성화식을 계기로 중생, 부활 성화식을 생애노정 중에 완료하기 위한 제1, 제2, 제3 이스라엘 승리식을 한국으로 이양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한국이 됩니다.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으로 발표함으로써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도 한국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는 7월 8일(칠팔절)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주의 모든 경계선이 철폐됩니다. 따라서 자주적 하나님을 중심하고 천지가 밤낮없이 하나님의 치리 하에 천지인 참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²⁹⁾

그런데 참부모 최종 선포 5일 후인 2010년 7월 1일, 창시자는 2010년 6월 19일과 2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창시자와 한학자가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선포’를 하게 된 내막을 털어놓았다. “천력 2010년 5월 15일 아침 3시 35분은 뭐냐? 이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금후의 방침을 비밀리에 어머니와 약속한, 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 나간다고 약속한 시간이다. 그전에는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 하나님과 땅과 세계에 공포를 못 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님을 절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지 않으면 실체말씀선포대회를 못 한다. 천국의 문턱을 둘이 옆으로 같이 넘어가야 된다. 해와가 타락했는데, 그런 해와를 옆에 세우고 죄 없는 어머니와 같이 해서 못 넘어간다.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하였다.³⁰⁾ 당시 창시자는 “밤의 하나님인 무형의 천주부모님과 낮의 하나님인 유형의 천지부모님이 3대권 실체 기반에서 ‘밤·낮의 하나님인 만왕의 왕’ 위상의 천지인부모님으로 정착되기”를 염원하였다. 그 실현기반이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와 함께 성취돼 실체적 천일국과 기원절을 맞고자 하였다.³¹⁾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밀 약속’ 이행을 위해 한학자가 창시자의 뜻을 따르고 참가정 3대권과 함께 참부모유엔 등 기반이 구축돼야 했다.

29) 『평화신경』 198쪽. <제18장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

30) 『통일세계』 2010.7. Vol. 469, “참부모님 말씀,” 2010.7.1. 여수 청해가든, 10-12쪽.

31) 창시자의 교시, 2010.4.12.

“천력 2010년 5월 15일(양력6.26), 그날이 중요해요. 아침 전 3시 25분, 이것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문서입니다. 그것은 밤낮의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천력 2010년 5월 15일 아침 전 3시 35분은 뭐냐? 요 때의 사건을 중심 삼고 여기 한국과 금후의 방침을 비밀리에 어머니하고 약속한, 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서 나간다는 그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어머니가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과 땅과 세계에 공포를 못 했어요.”³²⁾

창시자는 한학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 같은 정체성, 같은 목적을 향해 가겠다는 ‘비밀 약속’을 조건으로 두 사람이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음을 선포하였고, 이 선포를 조건으로 2010년 7월 8일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³³⁾

2010년 9월 3일 안시일, 창시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한학자와 한 ‘비밀 약속’에 대해 다시 언급하였다. “부모님의 가정! 어머니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최종 일체권 위에서 복종하겠다는 선언 밑에서 일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토로한 창시자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뒤집어 놓고 볼 때, 만약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복종하겠다는 선언과 ‘비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선언, 특히 창시자와 한학자가 하나 되었다는 선언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말이다. 그만큼 창시자에게 한학자의 ‘비밀 약속’은 중요했던 것이다.

“맹세문을 비로소 외우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 다 이룬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예요. ... 천지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지인이 저렇게 됐지만, 참부모가 정착실체예요. 맹세문에서 말하는 것의, 맹세문을 외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

부모님의 가정! 어머니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최종 일체권 위에서

32) 『통일세계』 2010.7. Vol. 469, 10쪽.

33) 2010년 7월 8일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가 천정궁 야외 광장과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국내외 평화지도자, 전국 공직자와 식구 등 1만2천여 명 참석하에 194개국 인터넷 생중계로 열렸고 창시자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오찬 후 헬기 편으로 여수로 내려갔고, 이날 오후 5시부터 7월 10일까지 세계지도자 ‘원리본체론’ 특별교육(천주청평수련원, 2천여 명)이 시행됐다. 세계회장 문형진은 개회식에서 <8대교재교본> 및 말씀 상속을 12대륙과 일본 12지구에 수여했다. 창시자는 마지막 날 새벽 여수에서 올라와 7시간 동안 교시하고 참석자와 화동했다.

복종하겠다는 선언 (양6.26. 한학자와의 비밀 약속) 밑에서 일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도 내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야 돼요.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나는 안 쓰러져요. 나를 붙들고 끝까지 믿게 되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하는 순간이 역사의 숙명적 결정시간이라고 선포의 날로서 하나님도 기다려 왔으니 그날을 이 아침에 선포했어요. …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가정맹세가 출현하느니라! … 하나 된 하나님 한 분 주인의 씨가 없기 때문에 황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씨받이를 할 수 있는 근본 하늘땅의 부모가 다시 나서서 선포해 줘야만 비로소 땅은 안정·안착 영원 태평 역만 경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³⁴⁾

창시자와 한학자의 비밀 약속과 이것을 조건으로 한 일체 선언, 그리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는 인간의 5% 책임분담이 면책된 상태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한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창시자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완성하고 복귀섭리의 최종 목표를 이룬 후에야 섭리적 사명자의 책임이 끝난다.

그런데 창시자 타계 후 한학자가 변심해 창시자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통일교는 창시자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여 창시자의 이 봉헌과 선포를 한학자와 창시자의 완전한 일치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 한학자의 생각은 곧 창시자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학자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근거와³⁵⁾ 신격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³⁶⁾

4) 책임분담

창시자는 한학자가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를 넘어 완전히 일체를 이루고, 나아가 하나님 실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5%, 3%의 책임분담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선생님이 이미 마음 세계의 정비를 다 해 뒀어요. 내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뭐 사돈이든 아들딸이든 나는 생각 없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래요.

34) 『통일세계』 2010.9. Vol.472, 6-13쪽.

35) 김영희와 이재석은 『천성경』 개정작업의 정당성을 위해 한학자가 창시자와 일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36) 김진춘, 『참부모의 위상과 가치』 2017.9.9. 14쪽.; 황진수, 『독생녀 신학 연구』 44-45쪽.

어머니가 가야 할 5퍼센트가 남아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해 나왔지만, 최후에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³⁷⁾

“어머니도 이제는 내(어머니)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도 내가 없으면 완성 못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 선생님님이 이루고 난 후에 따라오면서 할 말이지, 상대적 입장에서 대등한 백 퍼센트 기점을 받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답이 못 되는 것을 알지어다. 알겠나?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다 절대가치를 연결했으니 내가 없으면 하나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 하라는 대로 하소.’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한다 이거예요.”³⁸⁾

“어머니의 책임이 몇 단계인데, 지금도 어머니 노릇의 5퍼센트가 남아 있어요. 지금 한 고개를 넘었어요. 그것도 내가 다 넘겨줬어요. 두 고개까지는, 소생·장성권까지는 내가 넘겨주지만, 최후의 완성권은 못 넘겨줘요.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³⁹⁾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살촉인가? 누가 화살촉이에요? 참부모가 둘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도 그래요. 에텐동산의 승리의 패권을 중심 삼고 사탄을 굴복시키는데, 어머니가 못 굴복시켜요. 97퍼센트까지 나갔는데, 3퍼센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 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하나 안 되어 가지고 ‘나 아버지 말 안 들겠습니다.’ 거기에 딱 했으면, 둘이 갈라져 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⁴⁰⁾

“어머니는 탕감의 과정을 치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말도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고달플 때가 많았지만, 나는 늙지 않고 어머니가 고달프다면 어머니를 쉬라고 했어요. 부모의 자리, 오빠의 자리를 지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은공을 안다면 금혼식이 되면 선생님을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97퍼센트까지 넘고 3퍼센트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⁴¹⁾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담판을 해야 돼요. 여자가 음란의 씨를 뿌려놓고 자기를 주장해 가지고 남자 쪽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 가게 된다면, 그게 여자 세계예요. 음란의 왕국이에요. 레버런 문이 그 음란의 왕

37) 『말씀선집』 350권 196쪽. 2001.8.6.

38) 『말씀선집』 491권 247쪽. 2005.3.22.

39) 『말씀선집』 587권 238쪽. 2008.3.15.

40) 『말씀선집』 608권 270쪽. 2009.2.27.

41) 『말씀선집』 610권 30쪽. 2009.4.11.

국에 어머니를 데려가서 ‘어머니도 선생님의 어깨 위에서 꼭대기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의 말에 대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97퍼센트를 어머니에게 다 투입했지만, 3퍼센트만은…. 내가 절대 97퍼센트에 120퍼센트까지 했어요. 23도를 가해서 나한테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없게 될 때는 정자의 씨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통일교회 스승이 가는 최후의 고개, 경계선을 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⁴²⁾

“그래, 하나님은 문 총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참부모가 못 돼요. 혼자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어머니를 자기 아내라고 사랑할 수 없어요. 길러 나가고 있지. 이제 3퍼센트 남았어요, 3퍼센트. 그 3퍼센트를 하는데 나라와 세계 위에서 돼야지, 나라 밖에서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나라 위에서 백 퍼센트 이상에 올라가야 된다고요.”⁴³⁾

특히 2009년 1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이후 “하나님 정자 여행”의 정착에 대한 창시자의 교시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정자의 씨가 있어 아담의 뱃골을 통해 자라고 있었지만, 해와는 아담을 본따서 지었기에 난자의 씨는 없고 정자의 자란 씨가 상대되는 난자를 길러야 된다”라고⁴⁴⁾ 하였다. 그런데 “해와가 타락해 사랑의 길을 전복시켰으므로 하나님은 여자의 영을 거둬 아담을 품었던 뱃골 속에서 그림자 모양으로 길러 나왔다. 제2아담 예수님 때 사가랴 가정에서 신부를 길러 예수님 상대가 되면 뱃속의 그늘 아래 숨겨 놓은 본연의 해와 영을 집어넣는다. 예수님은 이복형제인 세례요한의 누이동생과 성혼해 정자의 씨를 심으려고 했다. 아담 옆에서 여자의 신성을 중시하고 해와를 키워 둘이 장성해 결혼할 때 하나님 중심하고 영육이 하나 된 자리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런 정자가 없으니 천사장의 아들딸이 제멋대로 했다”라고⁴⁵⁾ 하였다. “하나님에서 출발한 정자의 여행길이 수천만 년 됐지만 정착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며, 하나님 중심한 부부 사랑이나 본연의 정자가 좋아할 수 있는 오목 볼록의 기준도 착지하지 못했고,

42) 『말씀선집』 610권 139-140쪽. 2009.4.22. 위경 『말씀선집』에 이 말씀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43) 『말씀선집』 614권 95쪽. 2009.7.13.

44) 『말씀선집』 610권 173쪽. 2009.4.23.

45) 『말씀선집』 610권 174쪽. 2009.4.23.

타락을 안 한 아버지 정자의 씨를 뿌려보지 못했다”라고⁴⁶⁾ 말했다.

5) 창시자의 한탄

한학자가 종적 8단계, 횡적 8단계를 완성하고 승리한 인류의 참여머니가 되어 그것을 절대조건으로 기원절을 준비해야 했던 창시자는 한학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 5일 창시자는 “그전에는 어머니가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말씀을 안 하다가 2010년 6월 19일과 6월 26일에 겨우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2011년 11월 5일까지 지키지 않았기에, 창시자는 “눈을 뜨고 있다는 그 눈이 불쌍하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코가 불쌍하고, 말하고 있는 내 귀와 내 머리와 사지백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라고 한탄하였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도 그 자리를 해결 못 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아들딸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 어린양잔치를 꿈꿔왔던 예수도 우리 앞에 못 나타나요. 탕감의 선물을 다 했다고 선물에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인데, 정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도 없어서 그 아래에 천주대회 종결이 없는 겁니다.

5월 15일(양력 2010.6.26.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문서)을 넘어서 12일간 5월 27일(양력 2010.7.8.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이에요. 2010년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안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 못 했습니다.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못 갔는데 그걸 발견하겠다는 사실은 꿈에도 없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눈을 뜨고 있다는 그 눈이 불쌍하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코가 불쌍하고 말하고 있는 내 귀와 내 머리와 사지백체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⁴⁷⁾

창시자는 자신이 왜 불쌍하다고 말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왜 신세를 한탄하였을까? 창시자에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2010.7.8.)’는 하나님께 드리는 ‘탕감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정착할 수 있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 창시자와 한학자가 완전히 일체된 상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루어져야

46) 창시자의 교시, 2010.4.30.

47) 『통일세계』 2011.11. Vol. 486, 5쪽.

“천주대회 종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섭리 일정은 2010년 6월 26일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한 비밀 약속을 지킬 때 가능했다.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12일간 2010년 7월 8일까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를 완료해야 했다.

창시자는 일련의 과정과 정확한 날짜를 가리키며, 거기에 이 ‘말씀’(최후에 선언한 비밀문서)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사람”을 “지금까지 발견 못 했다”라고 하였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최후에 선언한 비밀문서”에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선포”와 “천주대회 종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창시자를 깊은 한탄에 빠뜨린 것은 ‘비밀 약속’을 조건으로 창시자와 한학자가 하나 되었음을 선포했고, 그 조건으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말씀선포대회’를 했는데, 정착 한학자는 그 ‘비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한학자는 창시자의 뜻을 거부한 채 자기 뜻대로 창시자를 주관하고 장자권자인 문현진을 축출하며 통일운동을 지배하고자 했다. 창시자와 하나 되지 못한 한학자와 그녀를 둘러싼 천사장격 교권 세력들은 수많은 비극적 사건을 만들어 내었고, 통일운동 분열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창시자는 “참부모 정착도 천주대회 종결도 없다”라고 한탄했다.⁴⁸⁾

4. 불화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의 출발과 종착점은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창조 이상의 가정인 참가정이다. 통일운동에서 참가정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시작되고 전수되어 지상에 뿌리를 내려 창조 이상의 지상천국이 실현되는 성소(聖所)이다.⁴⁹⁾ 참가정은 참아버지, 참어머니, 참자녀가 절대자의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위기대를 완성함으로써⁵⁰⁾ 실체화된다.

따라서 복귀섭리의 중심인물로서 자신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부모로 인

48) 방정원, 『기록, 2대왕과 독생녀』 92-93쪽.

49) 『말씀선집』 259권 318쪽. 1994.4.24.; 343권 194쪽. 2001.1.29.

50) 『원리강론』 34쪽.

식한 창시자와 창시자에 의해 선택된 아내 한학자는 각각 완성한 아담과 완성한 해와로서 완전히 하나 된 부부가 되어 참가녀와 함께 참가정을 이루어야 했다. 완성한 참가정은 복귀섭리의 목적이며, 완성한 참가정의 출현은 복귀섭리의 종결과 창조이상세계가 시작되는 기원절의 조건이었다.⁵¹⁾

아담과 해와가 참가정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해와가 절대자 하나님과 아담을 배신하고 천사장과 비원리의 영적 혈연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⁵²⁾ 창시자는 참아버지로서 참어머니 후보자 소녀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함으로써⁵³⁾ 참어머니로 완성하여 하나님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였다.⁵⁴⁾

“그런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되는 것이냐? 참남편의 부인이 되는 그날부터 대접을 받는 게 아니예요. 열일곱 살 난 어머니를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나이가 67세입니다. 선생님의 나이는 90세예요. 그것도 맞춥니다. 어머니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참어머니,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⁵⁵⁾

한학자의 완성을 위해 창시자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한학자를 기르고 재창조하고 교육하였다고 한다.⁵⁶⁾ 그러나 그 과정은 창시자나 소녀 한학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2010년 6월, 참가정의 분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때 창시자가 한학자에게 애원하듯 내민 ‘비밀 약속’은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참가정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으며, 참가정 완성을 통한 기원절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약속이었다.

그러나 통일운동 분열 과정 전체를 분석해 볼 때 한학자의 약속 이행 거부는

51) 『말씀선집』 270권 244쪽. 1995.6.7.

52) 『원리강론』 88쪽.

53)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절대복종만 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다. 왜냐면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던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려면 해와가 아담에게 완전히 주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선집』 18권 272쪽. 1967.6.12.; “어머니의 전통은 절대복종하는 것밖에 없더군요.” 『말씀선집』 72권 200쪽. 1974.6.16.

54) 『말씀선집』 607권 310쪽. 2009.2.16.

55) 창시자의 교시, 2009.10.15.

56) 『말씀선집』 17권 322쪽. 1967.4.10.

일찍부터 예견된 사태였다. 심우옥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⁵⁷⁾ ‘비밀 약속’ 훨씬 이전인 2000년 초부터 창시자와 한학자의 불화는 심각한 상태였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어머니가 자기 생각을 갖고 등지를 틀게 되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거기에 안 걸려요. 정 그러면 그것을 타고 넘어가요. 산을 다시 만든다구요. … 어머니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자기 중심 삼고 아버님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아니예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절대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 산을 다시 만든다구요. 이제 완성시대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책임 못 하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후계자가 꼭 차 있다는 거예요.”⁵⁸⁾

“여기에 어머니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이제는 어머니하고 갈라서 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지금까지 물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판 사람 가정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계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산했다가 다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⁵⁹⁾

“어머니가 복귀돼야 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복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시는 참아버지가 혼자 와 가지고 지상에서 참어머니를 세우는 거예요.”⁶⁰⁾

“지금도 내가 어머니한테 돈의 전권을 주었어요. 현금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받지 내가 안 받아요. 그렇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예요. 하늘에 보고를 하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써야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다가는 걸려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 알라구. 한 톨이라도 전부 다 기록을 남겨 가지고 어디에 썼다 하는 걸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나라를 찾은 후에, 세계를 찾은 후에 금전도 관리할 수 있는 전권시대가 선생님에게로 넘어온다구요.”⁶¹⁾

57) 한학자의 최측근으로서 수발을 들던 72가정 임도순의 아내 심우옥은 2013년 10월 무렵, 자신의 자서전 집필을 도우려 왔던 윤OO에게 “어머니는 40대 때와 60대가 달라요. 그동안 참어머니는 참고 지내오셨는데, 지금은 참지 못하세요”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심우옥은 한학자의 심경변화를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드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변화와 다르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한다. 당시 참가정의 분위기와 한학자의 심리 상태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심우옥의 증언은 2004년과 2005년 당시 통일운동 분열의 초기 상황과 원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58) 『말씀선집』 312권 179-180쪽. 1999.10.15.

59) 『말씀선집』 433권 139쪽. 2004.1.26.

60) 『말씀선집』 333권 15쪽. 2000.9.24.

61) 『말씀선집』 466권 246-247쪽. 2004.8.31.

“정자 난자가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진 그 정자가 출발해 가지고 몇천만 년이에요. 자리를 못 잡았어요. 참여자의, 사랑의 상대의 난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 여자의 자궁에 그런 정자를 키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혼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후보자를 세워 가지고 훈련을 시킬지 몰라요. 과부가 됐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선생님을 아는 사람은 선생님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도 알아요. 축복을 해 줘 가지고 바람을 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의 문을 열어 줘 가지고, 궁전 문을 열어서 비밀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놀음을 한다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왕후를 겁탈할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틀림없이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진짜 아내의 자리에 모실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어머니를 길러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따만큼 길러 오기에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모르지. 어머니가 다 들을 거예요. 또 들으면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머니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안 할 수 없어요.”⁶²⁾

“선생님은 어드렐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완전히 하나 됐다고 봐요? 완전히 하나 돼 나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복중에서 쌍태예요.”⁶³⁾

“통일교회에 중심이 있어요? 가정적 중심이 있어요? 선생님도 아직까지 어머니 중심 삼고 넘을 수 있는 고개를 넘기 위해서 악착같이 참는 거예요. 눈앞이 뛰쳐나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헛발을 깨물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길러서 이상적인 아내를 만드는 것이 세계 통일보다 더 어려워요. ‘우주 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몰라요. 지금 듣고 있을 거라구요. 이제부터 알아야지. 엇그제 한 얘기, ‘선생님은 원리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 이상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서. 서슴지 않고. 선생님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잊어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수가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름을 잊어버리고 얼굴을 잊어버려요. 털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나는 여

62) 『말씀선집』 479권 156-157쪽. 2004.12.4.

63) 『말씀선집』 488권 58쪽. 2005.2.20.

전히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⁶⁴⁾

“비로소 참부모가 와서 하나님과 하나 돼 가지고 몸뚱이를 영원히 찾기 위해서도 고생을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어머니를 다시 창조,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가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⁶⁵⁾

“어머니, 알겠나? 어머니 책임, 아버지 책임을 알아야 돼요. 이 못된 것들, 왕권도 상속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 사탄이 때려잡아요. 미국에 있어서 누군가? 요전번에 여성연합 회장 하던 사람이, ‘아버님이 어머니를 존경하느냐, 숭배하느냐?’ 할 때 이 간나가 숭배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더라구요. … 요즘에는 여자들을 내세우니까 여자가 제일인 줄 알고 어머니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부모님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 광정환! 「예.」 김효율! 공금이 있으면 어머니가 달란다고 해서 아버지 몰래 갖다 지불하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최후의 결정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보고할 때도 반드시 와서 아버님이 같이 있거든, 아버님이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가 같이 모셔 가지고 아버님 앞에 보고하게 되면 어머니와 하나 되지, 어머니를 중심 삼고 아버님이 하나 되는 것은 타락 아니예요? 원리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을 속이는 법이 없어요. 한 대로 했지. 내 하는 것을 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없어요.”⁶⁶⁾

“어머니, 똑똑하게 알아보라구. 하나님이 어머니를 중심 삼고 선생님보고 하나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마음자리에 남편을 중심 삼고 하나 된 후에 그 남편과 하나 된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돼요. 천만인이 그렇게 믿고, 천만인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늘땅에 하나의 왕권 즉위식이, 평화의 왕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해 봐요. 여기 간부랬지? 통일교회 간부야? 무슨 간부야? 여자 셋 쓴 간부(姦夫)야? 그래, 사탄 세계의 아들딸들이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은 왜냐? 어머니를 통하게 되면 무사하거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하거든. 그래 보라구요. 그거 전부 다 깨져 나가요. 그 후손은 이미 결판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⁶⁷⁾

“우리 엄마는 자기가 여섯 살 때인가 길 가던 스님이 나타나 가지고 딸 하나

64) 『말씀선집』 488권 156-157쪽. 2005.2.21.

65) 『말씀선집』 489권 27쪽. 2005.2.25.

66) 『말씀선집』 489권 27-29쪽. 2005.2.25.

67) 『말씀선집』 489권 222-223쪽. 2005.3.2.

가진 대모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딸이 크게 되면 육해공군을 움직이는 세상의 왕초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⁶⁸⁾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몸과 더불어 맹세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살아오더라도 어머니는 그런 맹세를 안 하고 따라와요. 나는 지켜나가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만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러냐 생각하는 거예요. … 지금까지 사는데 어머니가 백 퍼센트 다 잘했다고 보나, 못할 수 있는 때도 있다고 보나? 어머님이 미국 나이로 17세에 결혼했어요. 원리 공부니 무엇이나다 못 했어요. 또 어머님은 될 수 있는 대로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해요.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⁶⁹⁾

“어머니를 택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 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어요. 국가 기준에서. 세계 넘어갈 때까지 어머니가 완전히 아버지과 하나 돼야 해요. 어머니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세상의 여자와 같은 입장에 금식도 안 시키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처음 듣지? 7일 금식을 안 했어요. 전도도 안 시켰어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⁷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대담한지 몰라요. 이런 원리원칙을 중심 삼고 하늘나라의 천법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대변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수도룩한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끔 내가 울타리를 해 줘 가지고 소생시대부터 국가 해방권까지도 어머니를 보호해줄 책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되는 그것이 자기 울타리권과 대등한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들어준 울타리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 타락한 여자로서 어떻게 참부모의 부인 자리에 나가? 참 종의 부인 자리도 못 돼 가지고 쫓겨 다니고 그래요. 그걸 죽여 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세워요? 그럴 수 있는 망령된 행동이 어디 있어요?”⁷¹⁾

창시자의 『말씀선집』에서 발견되는 ‘참부모’ 불화의 흔적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⁷²⁾ 비록 인류의 모델 가정의 모델 부부, 모델 부모로서 책임을 완수하고자

68) 『말씀선집』 491권 258쪽. 2005.3.22.

69) 『말씀선집』 492권 19쪽. 2005.3.29.

70) 『말씀선집』 499권 235-236쪽. 2005.7.3.

71) 『말씀선집』 614권 28쪽. 2009.7.12.

72) 『말씀선집』 341권 33-34쪽. 2000.12.29.; 341권 113-114쪽. 2000.12.31.; 342권 100쪽. 2001.1.10.; 343권 57-58쪽. 2001.1.15.

했지만, ‘인간’ 문선명과 한학자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개인 성격 차이에서 오는 서로의 섭섭함이 없을 수가 없었겠지만,⁷³⁾ 창시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갈등은 섭리적 무지에서 비롯된 한학자의 역주관과 불복종 때문이었다.⁷⁴⁾

“여러분은 참부모님과 같이 살지도 않았고 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참부모님을 공식 석상에서 보실 수 있었겠죠. 두 분이 같이 노래하시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셨겠죠. 그것이 여러분이 참부모님을 볼 수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뒤의 일들을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스트 가든 뉴하우스의 거실로 경배식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공포의 도가니요. 뉴하우스로 이사했을 때쯤에 저는 5살 아니 8살 정도의 꼬마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천사장들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꼭꼭 숨겨진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일 참부모님의 성혼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처럼 행복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실은 고통과 고뇌로 차 있었다면, 천사장들은 만일 이러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식구들이 더는 참부모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참아버님을 통해 참어머님께로 가차 없이 부어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노여움뿐이었습니다. 성령의 노여움!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여성 식구들이 모두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님들도 두려움에 다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들을 두 눈으로 봐 있어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가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자 사진, 사진 찍자. 웃어요! 사진 잘 찍어야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시는 어머님 주변에 모두가 모였을 때를 말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장들은 참어머님께 다가가서는 ‘어머님! 어머님의 고통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너무 하신다.’ 그 말은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너무 가혹하시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더 많이 눈물을 쏟아내셨죠.”⁷⁵⁾

특히 문형진은 한학자로부터 축출당한 후 설교에서 (어머니 한학자에게 속은

73) 『말씀선집』 348권 86쪽, 2001.7.6.

74) 『말씀선집』 345권 200쪽, 2001.6.18.; 345권 260-261쪽, 2001.6.21.

75) 문형진의 설교, 2015.3.15.

것을 고백하며) 창시자 말년, 창시자와 한학자의 불화는 극에 달했고, 불화의 원인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고,⁷⁶⁾ 기존 통일교 교리와 충돌하는 한학자의 한(恨)과 독생녀 인식이었다고 고백하였다. 문형진의 주장은 창시자의 교시와 함께 독생녀 현상이 구체화한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

“참어머님을 조종하는 천사장 무리들이 참어머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독생녀라고 믿게 하고, 참아버님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믿고 말씀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그러한 일련의 것들을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한평생 원리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안 했어도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천정궁이 완공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전과 다른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내가 참아버님을 만들었다’라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은 유일한 독생녀라고 믿게끔 하고 설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유일한 독생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난 원죄 없는 혈통을 타고났지만, 참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용포가 입혀지시고, 왕관을 쓰시고, 왕권상징의 지휘봉도 친히 드시고, ‘이제는 참어머님의 치리시대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다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참어머님은 독생녀이다’입니다. ‘나도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지 몰라도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일련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어머님의 자리를 떠나신 행동입니다.”⁷⁷⁾

“저는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신은 승리하신 참어머님입니다. 재림주의 아내이시고,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이것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⁷⁸⁾

76) 문형진의 설교, 2015.11.17.

77) 문형진의 설교, 2015.3.29.

“세상에! 그 한을 주관 못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착각을 주관 못 하셔 가지고 ‘내가 독생녀, 나는 아버님 구원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뒤에서…’ 이러한 미친 내용에 빠져 가지고 … 세상에! 이제는 역사에 욕먹는 여성의 길을 갔네요.”⁷⁹⁾

“아버님은 수천 번 말했던 것처럼, ‘너 한학자 이혼할 거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학자가 본인의 영광을 추구함으로써 아버님을 떠났어요. 내 어머님이지만 이제 참여머님이 아닙니다. 한학자는 아버님을 떠났어요. 이제는 모든 영계의 심판을 받는 여자가 됩니다.”⁸⁰⁾

비록 한학자가 창시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한학자 신격화에 몰두했던 문형진과 일부 통일교 간부들, 그리고 통일교인 학자가 있었고,⁸¹⁾ 창시자가 ‘비밀 약속’을 조건으로 한학자와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였지만, 2012년에 들어서 창시자와 한학자의 불화는 극에 달했다. 혼동회에서 창시자가 한학자를

78) <https://youtu.be/-3CDWvjliYg>. 문형진의 설교, 2015.4.12.

79) <https://www.youtube.com/watch?v=Ol1PmfXpZuM>. 문형진의 설교, 2015.5.26.

80) <https://www.youtube.com/channel/UCzraSWvk4rP34fD7CSOOHdw>.

문형진의 설교, 2015.6.2.

81) 이재석은 2013년 1월 20일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개최된 일본 지도자회의 때 창시자와 한학자는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으며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없고, 나아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다고 말하며, 통일교는 참부모를 신앙대상으로 하는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통일세계』 2013.2. Vol. 501, 75-76쪽.; 오택용은 “참여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셨고 실제 하나님의 자리까지에 오르셨습니다. 참여머님의 완성의 결과는 정분합작용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실체적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일체가 되면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여머님이 정분합작용에서 말하는 통일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여머님은 참여머님의 자궁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성(性)’의 기원이 됩니다”라고 한학자를 신격화하였다. 『통일세계』 2010.6. Vol. 468, 71쪽.; 석준호는 “특별히 금년 2010년은 참부모님 성혼 50주년 금혼의 해, 참아버님의 90회 탄신, 참아버님 홍남 감옥 출감 60주년, 천기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최종적인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모든 책임과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하신 만왕의 왕 천지인참부모님으로 정착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내용을 지상과 천상, 천주 앞에 선포하시기 위해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선포대회를 아홉 차례나 거행하셨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일세계』 2010.11. Vol. 474, 29쪽.; 문형진은 2012년 9월 17일 창시자 성화식 직후, “참여머님은 해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딸 여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 여왕의 자리를 모두 복귀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체를 쓰고 유형으로 현현하시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는 분은 하나님과 참아버님이 투영되어 보이시는 참여머님으로서 삼위일체의 실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천상의 문은 지상의 참여머님을 통해 열려 있으며 밤의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창시자는 지상의 실체로 계시는 참여머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역사를 계속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신천신지의 새 나라의 희망이 되시고, 인류의 참여머님이시고, 참아버님과 최종 일체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어 참아버님의 실체 역사를 하시는 천지인참부모님을 열렬한 환영과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XlvxjvP2rM&list=PLNuaEszlMDudyBp6mGfdlW0ghmDZX-1ug&index=4>

너무나 강하게 질타하자 어느 때부터 혼독회 입구에서 참석자들의 휴대폰 등 전자 기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2012년 1월 19일 혼독회에 참석한 익명의 통일교 간부는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한학자를 심판하는 창시자의 교시를 전해 주었다.

“천지인삼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따로 놀다가는 망한다. 아버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안주(어머님 고향)와 한 씨(어머님 성씨)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나를 무시하고, 너희 놈들이 나를 허재비 만들지 말라구!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너희 놈들(어머님을 추종하는 자녀님과 측근 간부 및 교회 지도자 지칭)도 다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나와 딴 길을 가고 있다. 이놈들! 하늘 꼭대기(천지인삼부모)가 둘이 아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버님과 따로 논다. 아버님 모르는 어머니는 있을 수도 없다. 그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은 도깨비다. 이놈들! 아버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하나님만이 외로운 아버님과 함께 있다. 아버님 주변에 아무도 없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기다려야지. 아버님이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다니!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너희 놈들! 누더기 쓰고 다니지 마라!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어머니가 ‘내 말 들어라!’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 딸도 없어! 어머니도 따로 놀아! 어머니 따라다니는 이놈들! 효진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자기식대로 하느냐?’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늘로써 선포한다.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 아버님께 절대복종해야 한다.”⁸²⁾

2012년 1월 21일, 1,800가정 축복 36주년을 기념하는 혼독회에서도 창시자

82) 이날 혼독회 참석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런 말씀을 내리신 후 아버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을 탁상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아버님을 바라보고 서게 하신 다음 앞줄 의자에 앉아있던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 김효율, 4명을 나오게 하시어 어머님 뒤에 두 줄로 나란히 세우시고 혼독회에 참석한 모든 식구와 함께 손을 들어 절대복종을 맹세케 하시고, 어머님에게 재차 대답하라고 다그치자 “예!”라고 대답을 들으신 후 모두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게 하시어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시키시는 특별한 역사를 하시었다. 카메라 녹음기 반입 금지인 데다가 기억의 한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참석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용 면에서 충실을 기했지만, 더 세밀한 것은 앞으로 평일기획의 동영상 자료나 역사편찬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한 번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고도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제2, 제3 편을 공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월 30일.”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9033>; <https://youtu.be/X5a5GAfs0Gw>.

는 한학자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교시를 쏟아냈다.

“한학자 어머니가 자기 조상이 문 총재 조상보다 더 낮다고 하고 있다. 어렵 없는 소리…,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힘없는 여자 식구들이고, 남자들(문형진 문국진과 간부들)은 어머니를 따르면서 뭐든지 어머니와 의논하니 이게 교회 망치는 길이었다. 교회 남자 놈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의논하고, 어머니가 모든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2년 1월 24일 천복축제 천복 성초·성염 전수식에서 창시자가 행사에 대해 역정을 내며 성염을 한학자에게 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한학자는 불쾌해했다. 갑자기 창시자는 한학자가 최선길(문성진 모친)과 같다고 질타하였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 보지를 못했어. 문 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야.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똑같아,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입니다.”⁸³⁾

2012년 9월 3일, 타계 직전까지 창시자는 한학자가 완성하고 절대복종하여 자신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⁸⁴⁾ 한학자가 창시자와 하나 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시자 성화 직전 참가정 분열의 원인을 마치 유언처럼 남긴 창시자의 아래 교시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이 일족을 앞에 세우고 선생님이 넘어서서 자리 잡아야 돼요, … 타락할 때에 여자들이 넘어갔으니 이번에 모든 걸 책임지고 참여머니 중심 삼아서 직계 자녀들의 중심을 넘어간 자리에 여성 지도자들이 부모님 모시고 에덴동산 타락 이전에 본연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 지금까지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딸을 지금까지 내 버렸어. 사탄 세계에 있는 너희들 발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아들들 축복 받았더니 천국 못 들어갈 만큼 돼 가지고 자기 아들딸들을 중심 삼고 선생님의 아들딸들을 밟아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구. 망국지종들이야, 선생님 아들들도 선생님 가정이 완전히 짓밟혀 버린 거야, 너희들은 무슨 굶어 죽

83) <https://www.youtube.com/watch?v=nh-gwvR-U28>. 천복식 행사. 2012.1.24.

84) <https://youtu.be/cyZdDdunAsc>. “영원한 승리의 패권적 하나의 통일의 사랑 완결의 이상 천국을 완결해 같이 가주기를 비나이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저의 두 부부 절대 정상의 정오정착 승리를 지켜나가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천화궁 특별의식, 2012.4.14.

기 전에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며. …

그것은 도둑질해다가 자기 아들딸 먹이느라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으니 자기 아들딸 희생시키면서 가인이 죄 가운데 축복받은 이것이 천국 들어가도 못 가 …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너희들한테 천만 배 빛으로 너희들을 산채로 모래에 죽이더라도 자기 아들딸을 부를 수 없는 … 비참한 그 아들딸을 중심하고 부모님도 고생하고 부모님 아들딸까지도 줄로 묶어 가지고 밟아 치워버리는 마음대로. 세상에. 너희들 같은 놈들은 없었어, 누시엘 보다도 더 무서운. 에덴동산에 타락, 누시엘이 다 뒤집어 놓았어, 천상세계에 대표였던 누시엘이 그런 놈이야. 주인이 주인 될 수 있는 미래에 17년만 지나면 천하가 다 선생님 휘하에 치리 받을 것을 다 알면서도….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별의별 고생을 다 했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몇백 번 잡아 죽이려고 틀을 만들어 놓고 창을 만들어 놓고 족제비 틀을 만들어 놓고. 나 치어 죽지 않아요. … 영육의 아버지가 내 마음 가운데 지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철옹성 같은 배수진을 쳐 가지고 잡으려 해도 난 날아다녀,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나를 안고 날아다녀...”⁸⁵⁾ (창시자 성화 한 달 보름 전 2012.7.19. 훈독회)

“주인이 누구고 위애가 누구고 여자가 위가 될 수 없어 까꾸로 되었어 이게. 어머니가 근본을 다 버렸어. 올라가야 할, 배때기에 올라갈 것이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자를 차버렸어.”⁸⁶⁾ (창시자의 생전 마지막 훈독회, 2012.8.3.)

“오늘 최종적인 완성의 완결을 지어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종료하는 시간을, 정성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갖추어 가지고 본연의 에덴동산 타락이 없는 동산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담의 아내가 잘못되고, 아담의 책임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방·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부모님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딸 중심 삼고 종족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가지고 387 나라만 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⁸⁷⁾ (2012년 8월 13일 창시자의 마지막 기도)

85) 창시자의 천정궁 훈독회, 2012.7.19. <https://youtu.be/pMvK1vJFF34>

86) 창시자의 천정궁 훈독회, 2012.8.3. <https://youtu.be/Q4BJR1VcBv4>

87) 『통일세계』 2012.9. Vol. 495, 49쪽.

창시자는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 그리고 참가정을 해체하고 교권을 지키려는 최고 간부들에 의해 고립된 상태에서 참가정의 분열, 통일운동 분열의 원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성화함으로써 다음 섭리를 위한 퇴로를 만들어 놓았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과 창시자의 교시를 근거로 볼 때 창시자와 한학자의 불화는 단순한 인간적 갈등을 넘어 통일운동과 창시자의 근본 정체성이 부정되는 불화였으며, 복귀섭리의 뿌리인 참가정의 근간이 흔들려 창시자의 사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파국을 초래했다.

5. 분열

1990년대 창시자는 ‘2세섭리시대’를 선언하며 2세를 중심한 통일운동 조직 운영을 결정하였다.⁸⁸⁾ 이에 따라 1998년, 창시자는 통일이 2세권과 참자녀를 대표하여 당시 29세였던 3남 문현진을 후계자이자 4차 아담권 시대의 중심인물로써 조직의 중심에 세우고 참가정과 통일운동 조직 전체를 이끌도록 지시하였다.⁸⁹⁾

창시자의 장남 문효진은 아내 홍난숙과의 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남 문홍진은 사망하였던 상황에서 3남 문현진은 일찍부터 창시자의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해왔다.⁹⁰⁾

88) 창시자는 1991년 11월경 ‘모자협조시대’를 선포했고, 1993년 1월 3일 종교시대권인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어선 성약시대를 선포했으며, 1994년 5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설하였다. 1997년 9월 11일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선포하였고, 1998년 2월 2일 새로운 성약시대와 1999년 9월 14일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선포하였다.

89) <https://youtu.be/imSqcGb-rls>. 이날 창시자는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념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하셨는가 생각할 때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삼대를 중심 삼고 하늘의 공적인 책임을 임명한다는 것은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타락한 사람들은 죽일 수 없고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탕감복귀라는 마지막 페이지. 사탄혈통을 단절해 가지고 깨끗이 청산한 후에 하늘의 직계 자녀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렇게 연계 받을 수 있는 그 바통을, 여기서 출발이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 희망의 한 날로써 이들을 현진 앞에 맡겨 해주는 것이다. 아멘 !”이라고 말했다. 문현진은 취임사에서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나오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을 제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의 취임을 통해 마침내 저는 부모님의 성스런 개혁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90) “내가 현재 어머니 대회, 피엘에이(PLA:순결운동)에 참석했는데 잘 생각했어. 그 길은 누가 반대해도 가야 돼. 침단을 가야 돼. 부모님보다 앞장서서 가라구. 누가 받들고 나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받들어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들 중에 부모님의 뜻을 따라 카프(CARP:전국대학원리연구회)를 효진 오빠가 책임진 거야. … 효

창시자 가정의 분열이 표면화되기 전, 최소 2007년까지만 해도 창시자가 문현진을 통일운동의 유일한 후계자로 세웠던 것은 전체 통일교인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고, 어머니 한학자의 후원과 협조로 창시자를 대신하여 3남 문현진을 중심한 통일운동 체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창시자는 1990년대 말경부터 한학자를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 세웠고, 제2교주로 인정한다고 말한 것과는 별도로 어머니인 한학자와 아들이 함께 책임하는 ‘모자협조시대’가 끝났고, 아버지와 아들이 책임하는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였다. 창시자는 어머니의 책임이 필요 없다고까지 교시하였다. 제2교주나 어머니 책임분담 완수는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다음 섭리인 부자협조시대의 발판이었을 뿐, 부자협조시대의 중심은 창시자와 문현진이지 한학자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지금까지의 복귀역사에 있어서는 모자가 협조해 나왔는데, 그 모자협조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탕감의 역사는 모자, 어머니와 아들딸이 희생되어 가지고 복귀했지만, 9·9절을 선포해 가지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운세로 들어가서 통일되는 날에는 부자협조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없어도 됩니다. 어머니는 얼마든지 찾아 세울 수 있습니다.”⁹¹⁾

“지금까지 탕감복귀시대는 모자협조시대였습니다. 이제부터의 천국시대는 부자협조시대입니다. 어머니 의견이 통하질 않아요. 아버지 의견이 절대 통하게 되어 있지. 알겠어요? 통일교회도 ‘어머니가 선생님보다 낫다. 어머니가 선생님보다 낫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어머니가 선생님 위인가, 선생님 아래인가? 광정환! 「밀이십니다.」 그거 그런 거라고요. 이제부터의 천국시대는 부자협조시대입니다. 어머니 의견이 통하질 않아요. 아버지 의견이 절대 통하게 되어 있지. 알겠어요?”⁹²⁾

진 오빠가 지금 책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현진 오빠가 하니만큼 현진 오빠를 절대시해야 되겠다구. 인진이니 예진이니 효진이니 성진이와 비할 게 아니야. 절대복종해야 돼. 선생님 대신으로 세웠어. 그것을 알고 앞으로...” 『말씀선집』 324권 142쪽. 2000.6.18.; “장자권·부모권·왕권이예요. 나라 중심이예요. 장자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 가정에 축소 시키면 아버지 어머니 장자예요. 장자가 못 하면 차자가 하는 거예요. 현진이가 그 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말씀선집』 324권 196쪽. 2000.6.24.

91) 『말씀선집』 303권 264쪽. 1999.9.9.

92) 『말씀선집』 311권 291쪽. 1999.9.13.

“모자협조 기반 위에서 어머니가 승리했기 때문에 자식을 내세우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세워져 제3시대의 재림 아버지 입장을 중심 삼고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재림 이상 판도 가정 기반이 결정되므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 천상천하 천지인(天地人) 세계의 해방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맹세 1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여기서 결정 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총결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모델이 되어 있으니 국가 기준의 내적 모델 형태에 있어 각자의 가정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조건이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자협조지요? … 이래서 하나 되면 어머니는 장자에게 맡겨 주기 때문에 부자협조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협조시대가 되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요?”⁹³⁾

돌이켜 볼 때 문헌진을 중심한 창시자의 ‘부자협조시대 선포’와 관련한 교시는 2대 교주로 인식한 한학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기 때문에 창시자, 즉 남성에 억압받아 왔다고 믿은⁹⁴⁾ 한학자가 현재 창시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통일원리를 버리고 독생녀 정체성의 독생녀론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성회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⁹⁵⁾ 만약 남성인 창시자를 대신하여 아들인 문헌진이 통일운동의 중심이 된다면 여성인 자신이 지배하는 종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학자는 혈통을 중심한 후계 체계 대신 교권과 제자 중심의 후계 체계를 도모하던 교권 세력과 손을 잡고 장자권을 계승한 문헌진을 제거하기 위해 문헌진의 동생 문형진과 문국진을 끌어들었다. 이후 여러 사건의 배후에서 문헌진을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간 패륜아’로 선전함으로써 창시자와 문헌진을 이간하고 통일교인들과 문헌진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지난 십 수년간의 통일운동 분

93) 『말씀선집』 314권 229쪽. 2000.1.5.

94) “나를 교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독생자 독생녀는 동등해,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심한 거야.” 한학자의 설교, 2014.10.27.

95) 한학자의 설교, 2014.11.20.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참어머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본류를 타지 못한 사람이고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한학자의 설교, 2018.8.14.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잘 넘기에도 시간도 안타까운데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리에 가느냐? 앞으로 더 이상 구세주가 없다. 책임 못하면 탕감을 받아야 한다. 탕감하지 못하면 앞으로 못 간다. 그 가족들 모두 마찬가지로이다. … 독생녀와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열 과정이 비극적인 것은 어머니 한학자가 형제간, 부자(父子)간 갈등을 조장했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현진을 축출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원리적인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창시자를 속이고 진행된 2007년 미국 총회장 임명 사건, 2011년부터 시작한 여의도 파크원 소송, 2009년 3월 속초 영계 거짓 메시지 사건, 신동모의 요청으로 급조되어 창시자의 침실에서 촬영된 이단자·폭파자 비디오를 비롯하여 문현진과 박정환을 상대로 한 30여 건의 소송, 창시자 성화 전후에 일어난 여러 사건 등은 통일운동 분열을 주도한 반문현진 세력들의 비도덕성과 비종교성을 폭로하기에 충분하다.⁹⁶⁾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 한학자가 문현진을 축출하기 위해 불러들여 이용한 문국진과 문형진을 또 축출한 사건이다. 현재 두 형제는 미국 필라델피아 생취리에 ‘세계평화통일성전’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종파를 만들어 활동하며 자신들과 창시자는 한학자에게 속았고, 한학자가 창시자를 안락사하려 했다는 폭로를 비롯해 통일운동 분열의 원인이 한학자였다는 다양한 근거를 뒤늦게 폭로하고 있다.⁹⁷⁾ 심지어 문형진 문국진 두 형제는 한학자를 ‘참어머니’에서 끌어내리고 창시자의 제자이자 90세가 넘는 강현실을 창시자와 강제로 영혼 결혼을 올리게 했고,⁹⁸⁾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으로 한학자를 저주하고 있다.⁹⁹⁾

96) 통일운동 분열의 내막은 필자가 쓴 『통일교 분열과 생명나무(2023)』와 『통일교분열실록(2011)』 전집 11권을 참고하라.

97) 문형진의 설교, 2015.7.8.; 2015.11.7.; 문국진의 언급, 2016.4.11.

98) <https://youtu.be/1rY2Rx2qBHE>. 2017년 9월 23일 강현실을 ‘승리한 참어머니’라 선언한 채 창시자와 영혼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이 성혼식을 ‘참부모의 제3차 완성 성혼식’으로 명명하였다.

99)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통일교의 분열』, 『통일교분열실록』 전집 11권을 참고하라.

제2절 독생녀 인식의 과정

1. 2009년부터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한 한학자

2014년부터 구체화한 독생녀론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운동의 핵심 정체성인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다. 창시자는 유원죄 타락 혈통을 태어나 독생자가 아니며, 창시자가 유원죄로 출생한 한학자의 혈통을 복귀해 준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무원죄의 독생녀로 출생한 한학자가 유원죄 재림주 후보자로 출생한 창시자와 결혼해 줌으로써 창시자의 혈통을 복귀해 주었다는 것이 독생녀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창시자는 이미 2009년부터 누군가가 주관성을 전도하며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하고 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우리 어머니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해요.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 보라고요. 갈라졌지….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있어요? …

원리를 해석도 못 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 순혈이냐, 무슨 혈이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선생님의 피가 뭐 어떻다고? 타락 전에 피를 더럽혔나? … 내가 어머니란 작자, 재림주라는 작자를 왜 밝히지 못했겠어요? 밝히면 다 없어져야 해요. 쫓아버려야 해요, 문 닫고. 하나님도 인류를 놔둬 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참부모까지 문 닫아버려야 돼요. ‘참부모 되는 너라도 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진 사람인데, 남아진 것까지 없애버리려고 했지,

세우려고 안 했어요.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발판이 어디 있어요?”¹⁰⁰⁾

“눈앞에 있어서 내가 다 해줘서 깨끗하다고요. 여기도 보라고요. ‘나 이상,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고 내가 제일이니까 아버지도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래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어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하지를 않아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게 되면 까무러치고 굴러떨어지기 때문이에요.”¹⁰¹⁾

“지금도 어머니를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넘어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훈모도 그거 알아야 돼. 대모님한테 물어 보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사나. 참부모로서 모셨던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느냐.”¹⁰²⁾

“여러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타락 어떻게 하지만, 천만에…! 선생님은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해와가 타락했지만, 해와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뱃속에 남아 있었던 선생님의 영과 실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중심 삼고 재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도 타락한 씨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¹⁰³⁾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된 생각으로 선생님도 타락의 핏줄이 연결됐다고 하면서 여기에 한 페이지라도 보충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과 의논 없이 여러분이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영계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생님께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부모 이외의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¹⁰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다 모릅니다. 참부모, 참하나님, 사탄은 압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문 총재를 모를 텐데, 문 총재가 타락의 핏줄에서 연결된 사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하나님의 가슴에 되돌려서 상대를 사방의 땅끝에서 찾아야 됩니다. 초부득삼(初不得三)입니다. 한 번에 못 하면 두 번째 하고, 두 번째에 안 돼도 세 번째에는 된다는 겁니다.”¹⁰⁵⁾

“문 총재도 타락한 핏줄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길러왔습니다. 문 총재는 타락의 핏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면서 다

100) 『말씀선집』 608권 303쪽. 2009.2.28.

101) 『말씀선집』 608권 307쪽. 2009.2.28.

102) 이 단락 말씀은 원본 『말씀선집』에는 있으나 2012년 4월에 수정한 위본 『말씀선집』에는 삭제되어 있다. 『말씀선집』 608권 306쪽. 2009.2.28.

103) 『말씀선집』 615권 85쪽. 2009.8.14.

104) 창시자의 교시, 2009.10.13.

105) 창시자의 교시, 2009.10.19.

알았습니다. 생이지지(生而知之)나 학이지지(學而知之)라고 하는데, 천이지지(天而知之)가 있습니다. 천이지지라는 말도 내가 지은 것입니다. 참부모라는 말도 내가 지은 말입니다.”¹⁰⁶⁾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은 타락한 후손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도 타락한 후손이니 핏줄을 복귀해야 된다.’ 할 수 있는데, 타락한 핏줄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복귀하나?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¹⁰⁷⁾

“선생님 자신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타락한 해와의 난자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구세주가 못 됩니다. 타락한 세계의 혈통적인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재림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정자의 핏줄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타락을 안 한 아버지 정자의 씨, 그 씨는 아직까지 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의 문 총재도 타락한 핏줄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예요. 타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길러 나왔습니다. 6 마리아니 100 마리아가 있더라도 전부 다 사랑 관계를 못 맺습니다. 사랑 관계를 맺는 것은 대표적인 존재인 한 분입니다.”¹⁰⁸⁾

창시자 면전에서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현재 공개적으로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하고 있는 한학자의 언행을 비추어 볼 때 참가정 분열과 통일운동 분열의 정점을 찍던 2009년 초,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한학자뿐이다.

창시자를 속이면서까지 한학자와 공모하여 문헌진 축출에 앞장섰던 문형진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서 2009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을 통해서도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이 이미 2009년에 구체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버님 성화 전) 천전궁 벽난로 앞에서 참부모님 양위분과 함께 앉아 있던 그때 대화를 저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타락한 핏줄이잖아.’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 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시어 할 말을 잃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천사장, 당신네들은 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요. 이것은 식구들이 몰라야 하는 이야기들이겠지요? 그렇지요? 또한, 참부모님의 관계가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어떠했는지

106) 창시자의 교시, 2010.1.27.

107) 창시자의 교시, 2010.2.7.

108) 창시자의 교시, 2010.4.30.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지요. 아이피스티브(ipeacstv) 관련자들에게 ‘이 비디오는 유출되면 안 된다. 휴대폰을 다 꺼라. 찍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어머니,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과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¹⁰⁹⁾

2. 독생녀 즉위식으로 변질된 기원절

1) 기원절의 본래 의미

창시자는 1998년 직계 아들 문현진을 후계자로서 섭리의 중심에 세우고, 다음 섭리를 위한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하였다. 2001년 1월 13일 오전 7시, 천주청평수련원 천성왕림궁전에서 185개국 국가메시아 및 선교사, 중심 교인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가 거행됐다. “참부모 승리권을 배경으로 6천년간 한에 사무친 하나님께서 본연의 왕권을 찾아 완전 해방·석방되고 하늘 주권”이 수립되었다고 창시자가 교시했다. 천법의 기초인 혈통 보존, 인권유린 금지, 공금과 국가재산 약취 금지, 본(本)이 되는 가정완성을 선언하였다. 참부모를 중심하고 하나님왕권즉위식이 거행됨에 따라 천일국 시대가 열린 것이다. 창시자는 “절대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쌍쌍이 하나 되고 영·육계가 일체를 이룬 아벨 왕권의 나라, 초종교·초국가·초인종·초NGO·초유엔 기반의 평화통일 이상 천국이 바로 천주평화통일국(천일국)”이라고 교시하였다.¹¹⁰⁾

2010년 2월 19일, 창시자는 자신의 종교적 이상과 통일운동의 목적,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일국’이 2013년 음력 1월 13일 ‘기원절(基元節)’을 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였다.¹¹¹⁾ 그리고 창시자와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한학자의 책임이 기원절의 절대적 조건임을 교시하였다.

“오늘 부모님의 어인(御印)칠 것을 지시해서 인주까지 준비하라고 그랬지? 지금 하고 있지? 찍었나? 「예.」 딱, 나는 다 준비했어요. 이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여는 길 참가정, 문선명! (기원절까지) 4년 몇 개월이 남았어요. 이때까지 어머니가 책임 할 수 있는 도수를 마치지 못하면, 문제

109) 문현진의 설교, 2015.3.15.

110) 『말씀선집』 357권 180쪽. 2001.10.30.; 358권 22쪽, 76쪽. 2001.11.1.

111) 『통일세계』 2010.2. Vol. 465, 56쪽.

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고이 무사히 내가 책임을 다 닦아놨으니, 이것까지 했으니 어머니도 내가 분하다고 화풀이하지 않고 주먹을 들어 치지 않는 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자를 딸로 모셔다가 키워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할머니를 만들어야 되고, 여왕의 자리까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인 자리까지 키워야 돼요. 그 길은 참부모밖에 몰라요. 참부모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 없으니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키워서 그렇게 해야 돼요.”¹¹²⁾

“이번 6월 이후부터 3년 반이 남았다고요. 그 기간에 모든 이상(理想)의 새로운 뜻의 목표와 새로운 섭리적 유토피아의 정착지를 정해야 할 것인데…”¹¹³⁾

천일국은 천년왕국에 비유될 수 있고, 기원절은 선천시대가 끝나고 지상천국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말세의 심판 날’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천일국은 누군가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가정들이 가인권 양자로서 아벨권 자녀인 장자권자와 하나 되어 책임을 다해 직접 이루어야 하는 섭리의 최종 목표였고, 창시자의 섭리적 이상이 이루어지는 때였다.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원절에 대한 창시자의 간절함과 책임 의식이 그의 자서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구십 평생을 바쳐 살아온 본인의 생애는 오직 천주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여 부모의 자리에 다시 찾아드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65억 인류를 이끌고 지상·천상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부의 삶이 어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 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대천주적 혁명기입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¹¹⁴⁾

창시자의 교시를 종합해 볼 때 기원절의 의미는, “① 참가정 3대권이 완전히 정착한 토대 위에 전 인류 축복을 통한 혈통 전환을 완수하고, ② 하나님 조국광복과 참부모유엔 정착 기반을 이루어, 명실공히 천상과 지상에 참사랑 왕권의 실

112) 『말씀선집』 607권 310쪽. 2009.2.16.

113) 『말씀선집』 611권 262-263쪽. 2009.5.15.

114)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경기: 김영사, 2009) 표지 글.

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출발 되는 기원의 날”로 요약된다. 공포 당시 한자는 ‘기원절(起源節)’이었으나, 2011년 10월 17일 ‘기원절(基元節)’로 변경되었다. 기원절 선포한 당일을 묘사한 기록에 따르면 창시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를 바꾸고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 천국을 창건해야 하는 대혁명기”라고 하며 “더 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다.¹¹⁵⁾

2) 기원절의 조건

창시자는 2011년 9월 2일 천정궁과 팔각정에서 기원절의 절대조건을 교시하였다. 창시자는 이날 2013년 음력 1월 13일에 예정된 기원절에 ‘참부모 완성 성혼식’과 축복가정들의 ‘입적 축복식’이 있으며, 축복가정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창시자도 아직 참부모가 되어 축복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인정한 결혼을 해보지 못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¹¹⁶⁾ 다시 말해 기원절의 절대조건은 절대자 하나님이 주례하는 참부모의 완성 성혼식과 참가정 입적이며, 이를 조건으로 축복가정도 하나님의 직계 자녀가 되는 입적 축복식이 가능하다고 교시하였다.

“... 사탄 세계의 그물을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야. 축복받고 진짜 뒤집어져야 돼. 바로 되야 돼. 선생님도 1차, 2차 축복은 했어요. 3차가 마지막. 참부모가 되어 가지고 축복받은 적 없습니다. ... 멀지 않아 우리의 D-Day가, D-Day 알죠? 2년 몇 개월? 응? 엇그제 5개월하고 1년 5개월, 아마 4개월 23일쯤 됐을 거야. D-Day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알아요?

참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결혼해 본 적이 있느냐? 엄마. 결혼해 본 적 있어요? [소생, 장성, 완성] 다 했어? [D-Day] 참부모의 D-Day라는 말은 세상천지가 자다가 깬 존재는 참부모님의 결혼식 날 자는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물안의 고기들은? 참석하고 싶겠나? 안 싶겠나? [참석하고 싶습니다.]

다 달아버리고 쫓아버리고. 참부모 되기 위해서 환영해 본 적 있었어? 내가 말하는 게 맞잖아? 참부모가 결혼식 해봤나? 안 해봤나? 거짓 부모가 참부모

115) 『통일세계』 2010.2, Vol. 465, 56쪽.

116) https://youtu.be/kC_8aJ8Ytbw.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나 93세, 아직까지 결혼식 못 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도 없어요.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결혼식이 없어. 너희들은 언제 결혼할래? 참부모가 결혼 못 했는데 누구한테 결혼을 받을래? 참부모의 날이 너희들 결혼 날이 되는 걸 몰라. 지금까지 원리를 잘못 알았어. 그날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필요합니다] 나 필요 없어. 생각하면 끔찍해....”

창시자의 이날 교시를 통해 당시 창시자가 처한 섭리적 상황과 기원절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거짓 부모가 참부모가 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다. 참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없다”라고 교시하였다. 창시자 부부가 완성한 참부모로서 기원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성 축복(진짜 결혼)을 받을 때 모든 축복가정도 함께 입적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친자가 될 수 있다는 교시이다. 다시 말해 기원절에 예정된 창시자와 한학자의 완성 축복은 제3차 아담인 창시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탕감복귀의 전 과정이 종료되는 조건이며, 기원절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의미이다.¹¹⁷⁾ 이것을 위해 창시자는 노심초사 날짜를 세며 한학자와 비밀 약속과 참부모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조건적 선포를 해서라도 기원절을 하늘 앞에 봉헌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참가정의 분열과 한학자의 불신으로 기원절 1년 4개월을 앞둔 2011년 9월 2일의 상황은 참담하였다. 공개된 이 날 영상 속 창시자와 한학자의 표정을 통해 그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창시자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전에는 어머니가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는 말씀을 안 하다가 2010년 6월 19일과 6월 26일에 겨우 약속했는데,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2011년 11월 5일까지 지키지 않았기에, 눈을 뜨고 있다는 그 눈이 불쌍하고, 숨을 쉬고 있는 내 코가 불쌍하고, 말하고 있는 내 귀와 내 머리와 사지백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라고 토로하였다.¹¹⁸⁾

이와 함께 2007년 4월에 남긴 창시자의 교시를 통해 기원절 성립의 또 다른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창시자는 2007년 참가정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17) 『통일세계』 2011.10. Vol. 484, 25-26쪽.

118) 『통일세계』 2011.12. Vol. 486, 5쪽.

한학자에게 줄서기 하는 1세 간부들과 창시자를 대하는 한학자의 달라진 태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선집』에 남겨 놓았다. 특히, 창시자 없이 한학자 홀로 기원절을 집전할 수 없으며, 기원절 혈통 복귀의 주체는 한학자가 아니라 창시자라고 한 교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창시자는 아마도 한학자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할 것과 통일운동의 전통을 파괴할 가능성에 대해 모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원절은 아버님 없이는 집전할 수 없다.”

“분봉왕이 되든 무엇이 되든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가 합해서 어머니를 중심 삼고 절대복종할 수 있는 한 몸 돼 가지고 그다음에는 누구한테 들어가는냐? 어머니 혼자 못 바쳐요. 그걸 부모님이 받아 가지고 부모님 것으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요. ... 바쳐드려야 할 것이 2013년 1월 13일이예요. 13년 1월 13일 그렇지요? (예) 그때는 그래야 돼요. 바쳐드려야 돼요. 바친 다음에는 없어요. 대통령이고 무엇이고 그때 직위가 하늘나라의 직위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때 직위는 하늘나라에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서 새 출발이예요.”¹¹⁹⁾

“기원절에 타락한 혈통을 탕감(복귀)해 주는 주체는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탕감해 줄 수 없다.”

“어머니의 두 손을 중심 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13년 1월 13일 전에 끝을 맺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동원되어서 타락해 가지고 혈통이 이렇게 된 것을 비로소 탕감하는 데는 어머니가 탕감하는 것이 아니예요. 남자가 탕감해요. 남자가 책임자거든. 남자가 주인 돼 있으니 주인이 책임져 가지고 탕감해 줘 가지고 탕감할 수 있는 패가 없어지는 거예요.”¹²⁰⁾

“어머니는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 기원절에 아버님에게 봉헌해야 한다.”

“어머니가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에덴동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전에 서서... 남편을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쫓아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가인 아벨의 싸움 끝에 묶어 가지고, 어머니가 그 모든 실패한 것을 꺾매 가지고 선생

119) 『말씀선집』 561권 230쪽. 2007.4.26.

120) 『말씀선집』 561권 232쪽. 2007.4.26.

남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칠 때가 2013년 1월 13일이예요.”¹²¹⁾

“재림주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할 수 없다.”

“세계적인 기반의 천주시대에 재림주가 오셔야 할 텐데, 재림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어머니가 와서 해요? 가정에서 타락시킨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천주 완성의 어머니의 책임을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느 왕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녀석이든지 그래요.”¹²²⁾

3) 참부모 완성 성혼식 없이 진행된 한학자의 기원절

2014년 이후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나뉘 독생녀론의 체계를 갖추어 온 10여 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 더 정확하게 말해 독생녀론은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13년 1월 7일 기원절을 한 달여 며칠 앞두고 한학자는 천정궁 3층 혼독실에서 기관기업체 간부 약 150여 명을 모아 놓고 ‘2013 섭리 기관 활동 보고 및 신년하례회’를 주관하였다. 그녀는 김효율을 모든 조직과 제도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 언급하며,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호칭을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¹²³⁾ 그리고 절대자의 호칭 변경을 기원절 전에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한학자의 이날 지시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독생녀론의 근거가 되는 이원론적 하늘부모님론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13년 2월 22일(음력 1월 13일) 한학자는 창시자가 복귀섭리를 완결하고 창조이상세계를 위해 노심초사 준비해 온 기원절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주관하며, “경외하옵는 하늘부모님, 만왕의 왕이신 천지인참부모님. 평화의 왕이시여,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늘부모님께 고하노니 국호를 천일국으로 정하였으며, 국화는 장미와 백합으로, 국조는 학으로, 천일 국기와 천일 국가를 하늘 앞에 봉정

121) 『말씀선집』 563권 154쪽. 2007.5.13.

122) 『말씀선집』 573권 52쪽. 2007.8.21.

123) “... 내가 직접 관여합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하늘부모님’으로 바뀌요.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예요. 이게 내 본심에 물어본 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교가 아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나갑니다.”

하였나이다. 오늘 2013년 1월 13일을 기하여 천일국 원년을 선포합니다”라는 언급으로 천일국을 선포하였다.

참석한 축복가정들은 흰색 드레스와 예복을 입고 영문도 모른 채 양창식과 김린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천일국참부모님 천일국 즉위식’과 ‘천일국기원절입적축복식’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한마디로 말해 ‘참부모 완성 성혼식’은 없었다. 한학자가 주관한 이 날의 기원절은 독생녀 즉위식에 불과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일교인들은 한학자의 기원절에 참부모 완성 성혼식이 있었고, 축복가정의 입적축복식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창시자의 앞선 교시처럼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주체가 된 기원절은 섭리적으로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원죄를 탕감해주는 입적 축복식을 한학자 혼자 집전해서는 안 되었다.

놀랍게도 최근 한학자는 기원절과 관련하여 창시자의 교시와 정반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재림메시아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원절 선포를 6개월 앞두고 아버님이 성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나? 새 시대 새 역사는 누가 선포했나? 이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¹²⁴⁾

“아버님 성화 후에 기원절 선포는 누가 했나? 독생녀 참여머니가 천일국 원년을 선포했다. 그리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나 효진이나 홍진이나 부모님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자로서 일하고 있다 하는 영통한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 독생녀를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¹²⁵⁾

“메시아의 책임을 진 사람은 독생녀를 만나야 돼. 독생녀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한 판단으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통일교 60년 역사를 보면 내가 집에서 말 안 해도 알 거야. 아버님 성화 후 천일국은 누가 열었나? 아버님이 천상에 가기 전에 나에게 할 말은 ‘고맙소’였다. 참부모는 영원해. 이것을 바로 정리 못하시고 가신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이상한 아들이 나왔어. 앞으로 섭리의 완성의 모델은 독생녀 참여머니이다. 알겠나?”¹²⁶⁾

창시자가 성화한 지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원절을 한학자 혼자 주도했

124) 한학자의 설교, 2018.9.15.

125) 한학자의 설교, 2020.10.11.

126) 한학자의 설교, 2020.11.11.

다는 점과 창시자 성화 직전 안락사를 계획했다는 점, 그리고 기원절 관련 한학자의 언급을 함께 고려할 때 한학자는 일찍부터 기원절을 창시자 없이 주도하여 탕감복귀시대를 종료한 유일한 존재로 남고자 했다.

그러나 기원절이라는 섭리적 일정과 의미를 일찍부터 교시하고 준비한 사람은 한학자가 아니라 창시자였다는 점에서 창시자 없는 한학자의 기원절은 탕감복귀 섭리 시대의 종결과 창조이상세계의 출발과는 거리가 먼 행사였다. 한학자의 기원절은 참가정을 파탄 내고 섭리를 망친 한학자의 주관성 전도에 따른 타락의 증거일 뿐이다.

3. 독생녀론의 기원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 문인진 그리고 1세 교권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반문현진 세력이 서로 결탁하여 주도한 통일운동 분열과 독생녀 현상은 한 사람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의 결탁과 반창시자, 반문현진의 독생녀 현상은 1998년 7월, 창시자가 새로운 섭리 시대의 중심이자 후계자로 문현진을 세우고 통일운동의 유무형의 자산을 문현진에게 집중시키는 가운데 문현진의 강력한 개혁 작업이 표면화된 직후에 시작되었다. 반문현진 세력은 각기 다른 야망을 꿈꾸고 있었지만, 문현진 축출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 문인진이 창시자를 속이고 문현진 축출에 앞장섰지만, 가장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비원리적인 집단은 1세 최고위 간부들, 곧 교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의 무지와 비원리적 야망, 자만심, 오만함, 질투심, 자기 연민을 악용해 부자간, 모자간, 형제간을 이간해 참가정을 파탄 냈고, 결국 참자녀 전체를 통일운동에서 축출한 후 한학자를 독생녀 망상에 빠뜨렸고 통일교(하늘부모님성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은 문형진과 문국진의 증언이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통일교회의 공식 영매이자 한학자의 생모 홍순애의 영매인 김효남에서 비롯되었다. 김효남은 섭리와 원리에 무지하고 오만한 한학자의 마음에 한학자 모계의 종교적 우월감과 무원죄 독생녀의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1995년부터 시작된 김효

남의 영적 역사는 자연스럽게 한학자의 관심을 받았고, 한학자는 김효남을 환생한 어머니로 믿었다.

영매 김효남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통일운동의 종교적 풍조를 무속적이고 기복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통일교인들을 김효남의 조상해원식에 의존하게 했다. 전세계 대부분의 통일교인들은 모계와 육계 430대까지 조상해원을 하도록 교육받았고,¹²⁷⁾ 김효남은 조상해원식을 일본 통일교인들의 정서에 맞게 종교적 이벤트로 특화해 엄청난 현금을 거두어들였다. 이는 통일교회의 영감상법과 함께 비정상적인 현금 체계의 원인이었고, 아베 암살 사건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학자에게 독생녀 정체성을 열어준 사람이 김효남이었다면, 창시자 성화 전후 한학자를 신격화하며 하나님 부인론과 독생녀론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해 창시자의 정체성 파괴에 앞장섰던 사람은 오택용, 김진춘, 김항제, 문선영 등이었다.

한학자는 문현진의 초종교적 정체성이나 혈통 인식과 섭리 인식 그리고 개혁적 성향이 완전히 드러나던 2003년(한학자의 환갑) 이후 1세 고위 간부들과 결탁했고, 각자의 야망을 숨긴 채 문현진 축출을 위한 반문현진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첫 작업은 2005년 1월, 문형진과 문국진을 불러들여 형제간의 갈등 프레임을 만들어 창시자와 문현진을 이간하는 것이었다.

문국진 문형진 두 형제는 통일교 지배의 기회를 준 어머니 한학자에 대한 보답으로 반문현진 세력과 하나 되어 참부모(한학자) 신격화와 문현진 축출에 앞장섰다. 또 그들은 아버지가 통일운동의 유무형 자산을 형 문현진에게 집중한 것을 섭리가 아닌 세속적으로 이해했고, 이에 대해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형을 적대했다. 물론 한학자나 문형진 문국진은 1세 교권주의자들의 허수아비가 되어 아버지를 속이고 고립시키며 문현진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자신들의 행위가 오늘날과 같

127) 이는 거의 종교적 협박에 가까웠다. 1-7대까지는 직계, 모계 각 70만 원, 8대 이후 7대마다 5만 원 이상의 현금을 했고 430대까지 올라간다. 여기에서 모인 엄청난 자금은 김효남 일가의 비자금과 청평 일대의 각종 건물 건축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6월에 5천억 원 이상 투입되어 완공된 천정궁은 김효남의 대표적 업적으로 알려졌고, 외적으로 한학자의 위대함과 특별한 지위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완공되고 창시자가 한남동에서 서울로부터 1시간여 거리 떨어진 청평으로 이주하자 한학자와 김효남에 의해 모든 정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결국, 이곳은 창시자의 감옥이었고, 문현진 축출을 위한 정보 왜곡의 장소였으며, 통일운동분열의 온상이었다.

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현실로 돌아올 줄 아마 몰랐을 것이다. 더구나 문국진과 문형진은 그들이 형에게 저질렀던 모욕과 배신을 어머니와 반문현진 세력들로부터 그대로 돌려받게 될 줄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한학자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과 통일원리를 파괴하는 발언을 창시자 성화 직후부터 공공연히 발설한 것은 아니다. 2013년 11월 21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공직자 총회에서 “아버님 말씀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될 존재는 3대가 독녀의 집안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한 것이 창시자 타계 후 한학자의 첫 독(생)녀 언급으로 보이고, 2014년 초까지는 문형진과 오택용을 비롯한 통일교 교권 세력들의 주장을 따라 주로 한학자 자신은 창시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룬 존재이니 자신의 지시가 창시자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한학자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독생녀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2014년 6월 14일, 김효남 등과 함께 유럽 스위스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직후부터였다. 그 이후 2016년 12월 공개적으로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창시자와 참가정을 저주하였다.

4. 『사랑의 세계』, 『참어머니 생애 노정』,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에 드러난 독생녀 정체성의 변화

1) 『사랑의 세계』 (1987.9.5.)

이 책은 창시자와 한학자가 1960년 성혼 후 27년이 지나 만 44세가 된 한학자의 어머니 사명을 드러내고 강조할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창시자와 한학자, 한학자의 생모 홍순애 그리고 원로 강현실 등의 증언을 중심으로 서술되었고, 한학자를 승리한 어머니로¹²⁸⁾ 규정했다. 비록 이 책이 독생녀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학자 출생의 신비와¹²⁹⁾ 하늘과의 일문일답¹³⁰⁾ 등을 강조하였고, 그녀는 일찍

128) 『사랑의 세계』 139-140쪽. “1976년 이후 어머니는 완전한 승리의 기준에 도달하셔서 완전한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129) 『사랑의 세계』 34-35쪽. “그들 교단(허호빈 복종교)은 재림주님을 마중하는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신부를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존재했습니다. … 그동안 그 사명은 3대에 걸쳐 인계되었는데 그들 계시의 마지막 정점으로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 그 여자 영능자(허호빈)는

부터 참어머니 예정자였음을 언급하고 있지만,¹³¹⁾ 창시자를 대하는 당시(1987년) 한학자의 관점, 사명 인식, 섭리관, 원리관은 창시자의 통일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현재의 가부장제와 남성 혐오와 같은 독생녀 자의식의 조짐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¹³²⁾

“서양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동양에서는 맹목적인 복종이라기보다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전 가족이 같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도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와 나라도 같은 입장입니다.”¹³³⁾

2) 『참어머니 생애 노정』(2012.1.23.)

머리말과 발간사에 드러난 한학자의 독생녀론

이 책의 출판 목적이 한학자 신격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문형진의 발간사와 석준호의 머리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문형진은 “참어머님은 성스러운 참어머님, 완성한 해와, 성령을 움직이시는 분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소개하면서, 한학자를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가, 예비된 신부, 인류의 참어머님”이라고 규정했다. 문형진은 한학자의 가장 위대한 것을 인간 조상이 타락한 이후 완성된 해와로서 창시자와 부부 일체를 이루어 인류 역사 이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참어머니 상을 확립한 것이라 말하며 한학자의 섭리적 위상을 높였다. 이 책이 발간된 2012년 1월은 참가정과 통일운동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고,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 등 반문현진 세력이 연합하여 창시자를 고립시키고 문현진을 통일운동에서 축출하던 때였다. 이러한 점을

제가 여섯 살도 안 되었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신부가 되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여자 영능자는 그때 여섯 살도 안 된 어린 소녀가 하늘의 신부가 되는 운명을 받고 있다는 계시를 늘 받고 있었습니다.” 한학자의 이러한 언급은 독생녀 자의식의 뿌리가 ‘이용도의 새예수교→김성도의 성주교→허호빈의 복종교→홍순애의 한학자’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130) 『사랑의 세계』 33-34쪽.

131) 『사랑의 세계』 36-37쪽.

132) 『사랑의 세계』 112쪽.

133) 『사랑의 세계』 67쪽.

고려한다면 이 책에서 한학자의 섭리적 위상을 높이는 문형진의 발간사는 그리 놀랍지 않다.

문형진의 발간사와 석준호의 머리말에 현재 독생녀론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준호는 “① 참아버님이 참부모가 된 것은 참어머님이 탄생해서 영원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② 참어머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어 만유를 치리하는 만왕의 왕의 위상과 권위를 갖추었다. ③ 2010년 7월 8일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대회’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시어 만왕의 왕 천지인참부모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고 정착 완료하시고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다. 참부모님께서는 이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복귀섭리를 완성·완결·완료하셨음을 선포했다. ④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의 신부 사명과 인류의 참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 ⑤ 참어머님은 하나님의 실체 입장까지 나갔다. ⑥ 백만 번 천만 번을 생각한다 해도 참아버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또 참아내시며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 속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애써 오신 그 한과 사연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볼 때 석준호의 머리말은 오택용이 대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내용이 현재 독생녀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해 이미 이 책은 독생녀론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학자 신격화의 기반

한학자 자의식의 뿌리가 조한준 설화임을 설명하는 한학자의 설교가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¹³⁴⁾ 특히 부친 한승운의 환상을 통해 한학자의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¹³⁵⁾ 사탄이 한학자의 탄생을 위협했다는 이야기,¹³⁶⁾ 허호빈이 한학자가 하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홍순애의 증언,¹³⁷⁾ 하얀 저고리를 입은 늙지 않은 할머니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축복해 주었다는 한학자의 이야기,¹³⁸⁾ “이분은 천지간에 신성한 분이십니다. 두 가지의 큰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134) 『참어머니 생애 노정』 22-24쪽.

135) 『참어머니 생애 노정』 44쪽.

136) 『참어머니 생애 노정』 45쪽.

137) 『참어머니 생애 노정』 46쪽.

138) 『참어머니 생애 노정』 47쪽.

그런데 도(道)로 성공해야 크게 되지,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반대로 역적이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제주도 시절 낯선 남자의 이야기,¹³⁹⁾ “아,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이 한국에 보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한 창시자의 독백¹⁴⁰⁾ 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것의 의도 또한 이미 준비되고 예정된 한학자의 섭리적 위상을 암시해 한학자는 창시자에 의해 복귀된 해와가 아니라 이미 하늘이 준비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한학자 신격화의 핵심 토대는 이 책에서 자세히 언급된 한학자의 출생 전후의 신비 현상, 어린 시절의 신비 현상, 성혼 전후의 신비 현상과 성혼 후 한학자가 겪은 고생과 재림주의 아내로서 해 나왔던 절대복종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이전 창시자가 주도한 섭리에 따른 한학자의 위상 변화, 책임분담 완료와 관련한 창시자의 여러 교시는 한학자 신격화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초기 독생녀론자들이 한학자 신격화를 위해 사용한 창시자의 핵심 교시가 이 책에 언급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제1 교주,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2 교주다 이거예요. (박수) 지금까지는 여자들이 남자를 따랐지요? 이제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선교 부 같은 데에 어머니를 척 보내게 되면 왜 아버님은 안 왔소? 하고 물으면 안 돼요.(201-126)”¹⁴¹⁾

“1991년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를 기점으로 섭리는 장자권 복귀시대에서 부모권 복귀시대로 전환 되었으며 참아버님의 뒷자리에서 재창조의 과정을 묵묵히 걸어오신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의 옆자리에 오르시는 기대를 완성하게 되었다”¹⁴²⁾

“‘본인과 본인의 아내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세계적 차원의 참부모 선포였다.”¹⁴³⁾

“참부모님께서서는 이러한 아시아평화여성연합 대회의 기반 위에, 1992년 4월 10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세계 72개국 여성 대표 및 전국 여성들

139) 『참어머니 생애 노정』 54-55쪽.

140) 『참어머니 생애 노정』 62쪽.

141) 『참어머니 생애 노정』 127쪽.

142) 『참어머니 생애 노정』 131쪽.

143) 『참어머니 생애 노정』 139쪽.

1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평화여성연합창설대회 및 아시아평화여성연합 서울대회를 거행하였으며, 이날 참어머님께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에 추대되심으로써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이후 참아버님의 옆자리에 오르셨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¹⁴⁴⁾

“이 자리에서 문 총재가 어머니에 대해서, 한학자 씨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등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남녀평등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 삼고 남녀평등권 시대라는 거예요. (302:215) 표창패: “참된 부모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¹⁴⁵⁾

“2001년 1월 13일에 거행된 ‘하나님왕권 즉위식’은 참부모님 성혼 제1차 40년 노정에서 승리한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하나님 왕권 즉위식’은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의 ‘뒷자리’에서 출발하여 ‘옆자리’, ‘대등한 자리’를 거쳐 같은 자리에 이르시어 참아버님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 토대 위에 거행된 것이다.”¹⁴⁶⁾

독생녀론자들이 인용한 창시자의 교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복귀섭리 완성을 위한 창시자의 책임분담만큼 한학자의 참어머니 사명도 절대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학자는 사명 완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특히 1999년 6월 14일 창시자가 남녀평등권 시대를 언급하며 한학자에게 참된 부모의 사명 완수를 치하하는 표창장까지 하사했다.

그런데 창시자는 한학자를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 세우고(1992년), 제2 교주로 인정했으며(1990년), 참어머니 사명 완수의 표창장까지 수여했지만(1999년 6월), (1999년 9월) 어머니인 한학자와 아들이 함께 책임 하는 ‘모자협조시대’가 끝났고, 아버지와 아들이 책임 하는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며, 어머니의 책임이 필요 없고,¹⁴⁷⁾ 어머니의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는 언급까지 하였다.¹⁴⁸⁾

창시자의 이러한 교시와 섭리적 사건을 종합해 볼 때 한학자가 아들(문현진)을 성장시켜 섭리의 중심에 세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했으니 그것으로 한학자의 섭

144) 『참어머니 생애 노정』 144쪽.

145) 『참어머니 생애 노정』 177쪽.

146) 『참어머니 생애 노정』 194쪽.

147) 『말씀선집』 303권 264-265쪽. 1999.9.9.

148) 『말씀선집』 311권 291쪽. 1999.9.13.

리적 사명은 끝이 났고,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협조하는 역할을 창시자가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생녀론자들은 한학자에 대한 창시자의 이러한 교시와 섭리적 조치를 마치 창시자가 한학자에게 전지전능한 능력과 모든 책임분담 면제를 인정했고,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섭리가 아니라 남녀평등시대를 맞아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섭리를 이끌어 나가야 했다고 왜곡했다.¹⁴⁹⁾

결론적으로 창시자의 기대와 바램은 한학자의 주관성 전도를 위한 욕망과 서로 충돌하였고, 한학자는 부자협조시대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다. 아들 문현진의 섭리적 사명을 방해하고 창시자에 반역해서라도 자기중심의 섭리를 고집했다. 2006년까지 잘 참아 나왔지만, 창시자와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창시자의 아래 언급과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보여준 한학자의 언행은 한학자의 주관성 전도와 섭리적 사명 실패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여자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우리 어머니 교육하는 데 피땀을 흘렸겠나, 안 흘렸겠나? 눈이 뒤집어지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손이 조막손이 되더라도 평소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진짜 아버지같이, 진짜 선생같이, 진짜 왕같이 교육하지 않으면 다 틀어진다. 그래도 63세(2006년)까지 잘 참았지.”¹⁵⁰⁾

3)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2020년)

이 책은 외적으로는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을 일반화하고 내적으로는 한학자 신격화와 창시자 이후 섭리의 주인이 한학자임을 내외에 각인시킬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창시자 타계를 전후해 한학자가 주도해 벌어진 분열의 내막을 모르는 통일교인들은 이 책으로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수많은 섭리적 사건과 업적은 창시자와 통일교인들이 헌신한 결과이었음에도 한학자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되었다는 점, 창시자 타계 이후 한학자 독생녀 선포를 위해 기획한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7개국 복귀 행사는 윤

149) 한학자 설교, 2019.7.2.

150) 『말씀선집』 498권 130쪽. 2005.6.4.

영호가 기획한 늘 하던 대규모 보여주기 행사에 불과했다는 점, 이를 천일국 안착과 국가 복귀를 위한 위대한 승리로 포장했다는 점 등의 비판은 차치하고, 이 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머리말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독생녀론의 핵심과 독생녀론의 페미니즘적 성격이 적나라하게 머리말에 드러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인 하늘부모님이 되는 것이었다.

② 인간의 타락으로 하늘부모님의 위상이 아닌 하나님의 남성적인 하늘 아버지의 위상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③ 따라서 하나님의 여성적인 하늘 어머니의 위상은 은폐되었고, 하나님은 하늘부모님이 되지 못하였다.

④ 서양에서 촉발된 페미니스트 운동이 남성 지배에 항거하는 단순한 혁명적 운동으로 전략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한학자는 그동안 본연의 하나님 위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지구 곳곳을 다니며 하늘 섭리의 진실(독생녀론)을 알리는 데 모든 것을 투입했다.

⑤ 진실(독생녀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녀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미친 듯이 세상을 품고 또 품으려 다녔다. 참사랑을 가슴에 품었기에 비난과 핍박, 반대와 멸시의 상처는 내 가슴 어디에도 없다.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당대에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매듭짓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⑥ 나는 언제나 ‘하늘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異名)을 통해 얘기한다. 하늘 섭리의 마지막 한때,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섭리를 전개해 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중심에 놓은 섭리는 지금 태평양 문명을 결실을 맺고 있다.

⑦ 그 중심에 독생녀가 탄생한 대한민국이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한민족은 하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것은 하늘의 천명(天命)이요, 천비이다.

⑧ ‘독생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처음으로 솔직한 삶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학자 자서전의 서론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 부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2020년 1월 전까지 공개된 한학자 독생녀론의 핵심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을 기획한 독생녀론자들이 독생녀론의 사상적 배경이 페미니즘이라고 밝혔고, 창조주를 일원론적 존재가 아니라 이원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독생녀론을 천비요 섭리의 진실이라고 주장한 점¹⁵¹⁾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 서문과 본문에 포함된 한학자의 주장이 독생녀론의 개론이라 한다면 2023년 5월 신문대 신학대 교수 5명이 쓴 『독생녀 신학 연구』는 독생녀론의 각론이라 할 수 있다.

4) 『사랑의 세계』, 『참여머니 생애 노정』,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와 한학자 설교에 드러난 독생녀 정체성 비교

	『사랑의 세계』	『참여머니 생애노정』	『한학자 자서전』	한학자 독생녀론
하나님관		페미니즘 신관 하늘부모님,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늘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늘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메시아관		아담 메시아 해와 메시아		한학자(여자)가 메시아다
한학자 정체성	간택된 신부 참여머니	참여머니 하나님 부인	독생녀 참여머니	독생녀, 우주의 어머니, 재림주, 미륵불
창시자와의 관계	메시아가 간택해 참여머니로 재창조	하나님-참여아버지- 참여머니 일체	6천 년 만에 초립한 독생녀	창시자가 한학자 간택한 게 아니라 한학자가 창시자를 간택
원죄				한학자 무원죄 독생녀 출생 창시자 유원죄 독생자 아님
경전				원리강론의 창조론, 재림론, 참부모론 다시 써야 함

151)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 4~9쪽.

제2장 통일원리로 본 독생녀론

제1절 창시자가 교시한 독생자·독생녀

1. 제1차 독생자·독생녀인 아담과 해와

1) 하나님의 아담·해와 창조와 혈통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 특히 복귀섭리 인식의 출발은 절대자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참가정에서 출발한다. 인류의 참부모인 하나님이 우주 창조의 동기인 참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여¹⁵²⁾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해와를 유일한 자녀로 창조하였다는 믿음은 통일운동 신념 체계가 출발하는 가장 기본적 전제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과 유일한 딸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는 절대자의 독생자·독생녀로서 하나님이 절대 사랑한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혈통을 물려받은 참된 자녀였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실체로서¹⁵³⁾ 창조목적인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할 존재였다.

창시자의 교시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 아담을 본(本)으로 해와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한 주체로서¹⁵⁴⁾ 대상으로 창조된 해와와 참사랑으로 하나 되어 완성해야 했다. 창시자는 이러한 과정은 아담이 해와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고 교시하였다. 비록 현재 독생녀론자들이 아담·해와

152) 『말씀선집』 82권 241쪽. 1976.1.31.

153) 『말씀선집』 10권 325쪽. 1960.11.27.

154) 『말씀선집』 240권 238쪽. 1992.12.13.

의 창조 순서에 대한 창시자의 교시를 성평등과 가부장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지만, 이는 창조원리와 복귀원리의 기본 전제이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 가지고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구요. 그건 흙덩이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람 같은 꼴은 했지만,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인된 창조 이상 법도로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아담만, 아담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¹⁵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은 해와를 창조했고, 해와는 아들딸을 창조하는 거예요.”¹⁵⁶⁾

2) 아담·해와의 타락과 독생자·독생녀 자격 상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해와가 아담의 주관 대신 천사장의 주관을 받아 영적인 불륜관계를 맺고 영적 타락을 한 후, 아담과 다시 육적 혈연관계를 맺으며 주관성을 전도함으로써 아담과 해와는 영적, 육적으로 타락하였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독생자·독생녀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을 부모로 인식하는 사탄의 자녀로 전락하였다.

통일원리는 천사장의 질투심이 타락을 초래해 타락성 본성의 뿌리가 되었고, “첫째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 둘째, 자기 위치를 떠난 것, 셋째,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 넷째, 범죄행위를 번식하는 것”과 같은 타락성 본성이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비록 해와가 천사장과 불륜한 관계를 맺어 타락했어도, 만약 아담이 해와의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종적 관계를 지켜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본으로 해와를 창조한 창조원리에 따라 아담을 통해 다른 해와를 재창조할 수 있었다고 창시자는 교시했다.¹⁵⁷⁾ 그랬다면 그렇게도 기나긴 복귀섭리의 과정은

155) 『말씀선집』 65권 190쪽. 1972.11.19.

156) 『말씀선집』 405권 209쪽. 2003.2.11.

157) 『말씀선집』 66권 138쪽. 1973.4.22.

불필요했다는 것이다.¹⁵⁸⁾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해와에 대하여 ‘이년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 하고 해와를 배척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해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구요. 나무의 종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따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해와는 아담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해와 하나 만들기관 지극히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해와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사탄 세계에서 여자, 신부를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¹⁵⁹⁾

독생자·독생녀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제2 축복을 완성하지 못함으로써 참부부, 참부모가 되지 못한 채 사탄의 가짜 혈통을 번식하며 원죄와 악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¹⁶⁰⁾

2. 제2차 독생자 예수와 독생녀 후보 사가랴의 딸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원리는 완성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하여 참가정을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생자·독생녀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창조 이상 실현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재창조하여 섭리를 다시 시작하는 복귀섭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⁶¹⁾ 하나님 창조 이상의 절대적 출발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재창조를 위해 아담을 대신한 한 남성의 출현은 복귀섭리 출발의 절대조건이었다.¹⁶²⁾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할 때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야 해와를 만드는 것입니다.”¹⁶³⁾

158) “해와는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완성한 주체(主體)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대상(對象)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섭리(復歸攝理)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마저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계승한 인류가 오늘날까지 번식하여 내려온 것이다.” 『원리강론』 89쪽. 〈제2장 타락론〉

159) 『말씀선집』 66권 138쪽. 1973.4.22.

160) 『말씀선집』 23권 163쪽. 1969.5.18.

161) 『말씀선집』 7권 292쪽. 1959.10.11.

162) 『말씀선집』 217권 107쪽. 1991.5.12.

“지금까지 단 하나의 남성 아담을 만드는 데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으나, 지금까지 완성한 남성, 완성한 여성이 없었습니다. 완성한 남성, 완성한 아담이 나오면 거기서 완성한 해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성한 아담이 나오면 완성한 해와도 출현할 수 있는 거라구요.”¹⁶⁴⁾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 가운데서 복귀섭리를 출발하실 때에, 물론 일시에 그러한 세계를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러한 민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러한 씨족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혹은 일시에 그러한 가정을 찾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의 남자를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복귀섭리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습니까? 하나의 여자를 찾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남자를 찾는 역사였습니다. 하나의 남성을 찾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¹⁶⁵⁾

1) 독생자 예수

창시자의 교시에 의하면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 탄생한 후아담은 바로 예수였다. 하나님의 첫아들 아담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모든 정성이 투입되어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아담과 같은 혈통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때를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수고와 정성을 들였다고 창시자는 교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땅을 대표하여 영원불변의 사랑의 실체로 세워지는 그 하나의 중심은 우리 인간과 만물이 다 같이 만나야 할 소망의 뿌리인데, 그러한 소망의 뿌리로, 영원불변한 사랑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심 존재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천 년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이 땅에는 하늘의 사랑을 소개하기 위해 수고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난과 역경의 신앙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려는 사랑의 기준과 연결시키기 위해 수고한 수많은 성현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들의 수고

163) 『말씀선집』 21권 195쪽. 1968.11.20.

164) 『말씀선집』 230권 120쪽. 1992.4.26.

165) 『말씀선집』 30권 211-212쪽. 1970.3.23.

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중심인 예수 한 분이 오시기를 바라고 행한 수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족과 민족과 국가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¹⁶⁶⁾

창시자는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완성할 수 있는 핏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후 4천 년간 핏줄을 맑히는 절대자의 섭리 가운데 예수는 사탄에게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 사랑의 핏줄, 독생자로 탄생했으며,¹⁶⁷⁾ 이것이 재창조 복귀섭리의 시작이라고 교시하였다.

“그래서 생명의 뿌리가 되는 새로운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난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해와를 다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찾는 데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아담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해 놓고 해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¹⁶⁸⁾

예수의 혈통

예수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자 타락 혈통의 어머니, 마리아의 복중에 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기 위한 혈통 복귀의 과정을 거쳐 원죄 없이 출생하였다.¹⁶⁹⁾ 아담·해와 타락 이후 번성한 인류의 타락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함으로써 복귀섭리의 최종 단계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통일운동 신념 체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기성 기독교의 신념 체계와 크게 다른 부분이다.

마태복음 1장 서두(序頭)에 기록된 예수의 조상 중 음녀(淫女)로 볼 수 있는 밧세바, 다말, 룻, 라합을 통해 예수는 복중에서 혈통이 복귀되어 탄생했다고 창시자는 교시하였다.¹⁷⁰⁾ 예수의 조상 중 네 음녀 관련 비사(祕史)와 함께 예수 출생의 비밀은 창시자의 혈통 복귀 인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창시자의 교

166) 『말씀선집』 2권 60쪽. 1957.2.24.

167) 『말씀선집』 347권 249쪽. 2001.7.5.

168) 『말씀선집』 37권 90쪽. 1970.12.22.

169) 『말씀선집』 224권 250쪽. 1991.11.24.

170) 『원리강론』 538쪽.

시에 의하면 예수 어머니는 원죄 있는 마리아였고, 예수의 아버지도 원죄 있는 사가랴였다.¹⁷¹⁾ 다시 말해 예수의 조상과 부모는 타락한 혈통과 핏줄의 원죄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은 아담·해와하고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해요?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완성한 아담·해와하고 수천 대 더럽혀진 타락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독생자라는 예수 중에서 누가 더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본래의 거룩한 것하고 타락한 혈통을 타고 나온 예수 중에서 누가 더 가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담·해와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¹⁷²⁾

“그러면 신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기독교와 그 외의 탄 종교가 다른 점은 무엇이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나? 그것은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도 타락한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신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타락의 후손인 마리아의 복종을 통해서 태어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원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¹⁷³⁾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과 문 선생의 조상은 근본이 달라요. 예수는 몇천 년 전이에요? 2천 년 전인데, 다르다는 거라고요. 다른 기원이 뭐냐? 인류 조상 자체에서부터 근원이 타락한 이후에 다르다고 하면 그 말이 어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계 이전에 하나님 속에 생각하던 심정적 핏줄이 동할 수 있는 방향이 순과 같이 자라 왔지만, 순이 물밖에 나가지 못해서 퍼지지 못했어요. 전파도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광명한 천지를 맞아서 그 세계를 점령하는데 물 밖으로 못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가 예수의 권유를 받아 가지고 문 총재 됐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낫다고요. 예수의 비밀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요.”¹⁷⁴⁾

비록 조상과 부모가 타락한 혈통의 원죄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는 인간 조상이

171) 『말씀선집』 235권 236쪽. 1992.9.20.; (원본)『천성경』 1727쪽.

172) 『말씀선집』 234권 325쪽. 1992.8.27.

173) 『말씀선집』 22권 239쪽. 1969.5.4.

174) 『말씀선집』 553권 203-204쪽. 2007.1.26.

타락한 이후 처음으로 사탄과는 무관히 원죄 없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 아들의 씨 즉, 참아버지가 되어야 할 씨로 태어난 아담과 같은 독생자, 성자, 그리고 구세주였다.¹⁷⁵⁾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난 입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사탄과 접하는 것이 원죄인데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넘어 태어나신 분이기에 때문에 원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¹⁷⁶⁾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씨, 참아버지가 되어야 할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이 착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¹⁷⁷⁾

하나님이 예수를 원죄 없는 존재로 출생시킨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과 다를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따라 아담이 완성한 남성으로 성장하여 제1 축복을 완성한 후, 완성한 여성인 해와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참부모가 되는 제2 축복을 완수해야 했던 것과 같이 재창조 복귀섭리의 완성을 위해 예수도 후아담으로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예수의 첫 사명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상에 출생시킨 목적대로 타락한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지상에 실현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으로 완성한 하나의 가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개성을 완성한 독생자로서 타락한 세계에서 한 여인을 찾아 재창조하여 아내로 맞아 이상 가정을 이루어야 했다.

“그러면 예수는 이 땅 위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남자로서 인류의 대표자요, 하늘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고 온 분이요, 하나님을 대신한 독생자라는 겁니다. 알지요? 「예」 그 독생자가 와서는 뭘 할 것이냐 하면, 해와를 창

175) 『원리강론』 153쪽.

176) 『말씀선집』 22권 257쪽. 1969.5.4.

177) 『말씀선집』 288권 131쪽. 1997.11.26.

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주관을 행사해서 해와를 주관했더라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해와한테 거꾸로 주관을 당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해와를 이 땅 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나의 어머니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¹⁷⁸⁾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나?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아담을 찾기 위한 것이요, 잃어버린 아담을 찾아서 잃어버린 해와를 재창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하여 예수 자신이 아담으로서 지음 받은 기준에서 해와를 아담이 해와를 잃어버렸으니, 아담 대신 사명을 짊어지고 온 예수는 해와를 이 땅 위에서 다시 찾아 가지고 참된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소원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¹⁷⁹⁾

2) 독생자 예수의 아내

예수 아내 후보자, 사가라의 딸

창조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이상 실현을 위한 예수의 첫 번째 사명은 완성한 아담의 입장에서 완성한 해와와 같은 존재를 아내로 맞아 참가정을 이루어 참부모가 되는 것이었다.¹⁸⁰⁾ 이것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었으며 어린양잔치는 그 출발이었다.¹⁸¹⁾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목적 실현을 위해 남성 아담이 먼저 존재해야 했고, 배필이 될 여성 해와가 반드시 존재해야 했던 것과 같이 아담을 대신한 예수에게 배필이 될 여성은 반드시 존재해야¹⁸²⁾ 했다. 이것은 독생자 예수의 아내를 독생녀(후보자)로 부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¹⁸³⁾

창시자의 교시에 따르면 사가라 가정과 요셉 가정의 협조를 받아¹⁸⁴⁾ 마리아는 그 집안의 딸 중에서 예수의 아내를 선택하여¹⁸⁵⁾ 예수가 결혼할 수 있도록 협조

178) 『말씀선집』 156권 221쪽. 1966.5.25.

179) 『말씀선집』 153권 221쪽. 1964.1.3.

180) 『말씀선집』 4권 15쪽. 1958.2.16.

181) 『말씀선집』 8권 317쪽. 1960.2.21.

182) 『말씀선집』 38권 68-69쪽. 1971.1.1.

183) 『말씀선집』 7권 304쪽. 1959.10.11.

184) 『말씀선집』 220권 169쪽. 1991.10.19.

해야 했고,¹⁸⁶⁾ 가장 합당한 예수 아내 후보자는 사가라의 딸이었다.¹⁸⁷⁾ 특이한 것은 타락한 해와를 대신하여 예수의 아내가 될 존재에 대해 기독교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창시자도 그녀를 어떤 인물로 특정하지 않고 단지 사가라의 딸, 혹은 ‘사가라 집안 사돈의 팔촌 내(內) 딸’ 중의 하나로 교시했다는 점이다.

“예수의 친척들 가운데 딸이 있나 찾아보고 그런 딸이 있으면 그들을 모아서 기대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걸 못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친척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의 누이동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예수를 뱀 다음 시중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수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의 누이동생이나 사돈의 팔촌 내에 딸이 있었으면,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 그리고 누나가 있었으면 그 누나와 세 사람이 하나 되어 예수보다 나이 어린 그 친척의 딸과 인연 맺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한 여성을 재창조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¹⁸⁸⁾

이 말은 복귀섭리의 중심인물인 예수가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한 여인을 택하여 교육하고 재창조하고 복귀함으로 써 그 여인을 독생녀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예수가 책임졌던 재창조 섭리임을 교시한 것이다.

“재창조원리를 두고 볼 때 여자란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아담을 통해서 재창조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했지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해서 기성교회에서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가 없다는 말도 하지만 말이예요, 그런 미친 해석이 없더군요. 그게 뭐예요? 뺏다는 건 본떠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책을 대할 때 ‘책에서 골자를 빼라.’ 그러지요? 골자를 빼라는 것은 뭐냐? 본 될 수 있는 것을 빼라는 겁니다. 본떠서 만들었다구요. 그러므로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 길러야 된다고요.”¹⁸⁹⁾

185) “마리아는 장가가야 할 예수의 입장을 알아서 사돈네 팔촌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까지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처녀라는 처녀는 전부 다 불러서 예수의 신부를 간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선집』 40권 49쪽. 1971.1.16.

186)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의 신부는 자기의 친척 가운데에서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선집』 22권 286쪽. 1969.5.4.

187) 『말씀선집』 277권 208쪽. 1996.4.16.; 282권 220쪽. 1997.3.13.

188) 『말씀선집』 39권 101쪽. 1971.1.10.

예수 아내의 혈통

창시자의 교시 중에서 주목할 점은 예수의 아내가 될 여자는 예수와 달리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그런 원칙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합리화한 김진춘의 주장과 가장 상충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¹⁹⁰⁾

“이래서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탄 세계의 혈통을 전환시켰습니다. 안 그래요? 혈통을 전환시킨 자리에 왔지만, 예수의 상대 될 수 있는 신부는 혈통 전환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¹⁹¹⁾

“후아담, 즉 복귀된 본연의 아담 예수가 나왔으니 복귀된 해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가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창조원칙에 의해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해와가 태어나는 데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해와가 종의 입장에 탕감복귀하려면 예수가 아담을 복귀 완성한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¹⁹²⁾

아담이 해와를 교육하고 창조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죄 없이 태어난 예수는 타락 세계에서 원죄 있는 한 여자를 찾아 세워 뜻 앞에 절대복종시켜 아담이 상실한 주관성을 회복함으로써 그녀의 혈통을 맑히고 복귀하고 재창조해야 한다고 창시자는 교시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 섭리는 아담을 재창조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찾았어요. 4천 년 만에 나온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독생자예요. 핏줄을 맑혀 가지고 왔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맑혀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원리 말씀을 들어 보면 핏줄을 맑혀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핏줄을 맑힌 그 남자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핏줄을 맑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아담이 해와의 말을 들어 가지고 핏줄을 더럽혔으니 해와를 절대복종시켜 가지고 핏줄을 맑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줄을 받을 수 있는, 종적인 기준에서 90 각도의 여성이 될 때 여기서 사랑의 천지조화가,

189) 『말씀선집』 115권 133쪽. 1981.11.8.

190) 김진춘,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 22쪽.;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30쪽.

191) 『말씀선집』 140권 150쪽. 1986.2.9.

192) 『말씀선집』 38권 68-69쪽. 1971.1.1.

혈족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벌어지고 전후·좌우·상하의 구형의 형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수직과 연결되는 거예요.”¹⁹³⁾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후아담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다면 후해와는 어디 있나요? 첫 해와를 사탄이 빼앗아 갔으니 사탄 세계에서 후해와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족속권 내에서 해와를 녹여 가지고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와서 종 새끼의 딸로 취급해 가지고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일대의 사명이예요.”¹⁹⁴⁾

“창조원리를 중심 삼고 보면,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 해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빼앗긴 해와를 빼앗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아다가 재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정을 알거나 했습니까?”¹⁹⁵⁾

그래서 예수가 혈통을 맑게 한 남자로서 이 땅에 와 가지고 혈통을 중심 삼고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담을 중심 삼고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 내리치고 원수같이 취급하더라도 절대복종하는 해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¹⁹⁶⁾

“그 해방권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으로 묶어 났기 때문에 해방권만 되면 한 남성을 통해 가지고 탕감복귀역사, 재창조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는 해와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찾아서 재창조해야 된다는 겁니다.”¹⁹⁷⁾

창시자의 교시를 종합해 볼 때 예수의 혈통 복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 아내의 혈통을 복귀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었다.

“아담을 복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성약시대를 거쳐 나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했던가 하는 이유는 아담을 복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를 복귀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바

193) 『말씀선집』 325권 149쪽. 2000.6.30.

194) 『말씀선집』 154권 89쪽. 1964.4.7.

195) 『말씀선집』 19권 331쪽. 1968.3.29.

196) 『말씀선집』 139권 311쪽. 1986.1.31.

197) 『말씀선집』 114권 79쪽. 1981.5.17.

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해와의 자리와 신약시대 해와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약시대 해와의 자리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함께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아담의 자리에 있는 남자들만 택하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등... 신약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해와의 자리에 있는 여자들은 바른 조건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¹⁹⁸⁾

“예수님은 제2의 아담, 즉 후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중심 삼고 해와를 창조하였으니, 이 후아담을 중심 삼아서 후해와를 세워야 했었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해와는 누가 세워야 하느냐? 아담이 세워야 합니다. 해와가 타락할 때 아담이 책임을 못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해와를 아담이 찾아 세워야 합니다. 탕감원칙에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¹⁹⁹⁾

3) 예수의 성혼 실패

이러한 재창조 원칙에 따라 예수는 반드시 아내를 만나 성혼해야 했으나 예수는 성혼에 이르지를 못하였다. 창시자는 예수가 남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2:4)”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혼인에 무관심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⁰⁰⁾ 이미 예수의 아내로 가장 적합한 여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 가정 그리고 사가랴 가정이 예수의 성혼을 위해 협조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예수의 성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⁰¹⁾

창시자의 교시에 따르면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의 책임분담 실패에 따라 예수는 세례요한과 12제자를 중심으로 대안적 섭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의 양자이자²⁰²⁾ 세 천사장의 입장에 있던²⁰³⁾ 예수 제자의 책임분담 실패로 예수

198) 『말씀선집』 52권 178쪽. 1971.12.29.

199) 『말씀선집』 17권 190쪽. 1966.12.18.

200) 『말씀선집』 14권 52쪽. 1964.5.3.

201) 『말씀선집』 36권 255쪽. 1970.12.6.

202) 『말씀선집』 69권 145쪽. 1973.10.26.

203) 『말씀선집』 160권 84쪽. 1968.8.11.

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지상천국 실현의 뿌리인 이상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 구원과 다음 섭리를 위한 조건만을 세우게 되었다.²⁰⁴⁾

만약 독생자 예수가 독생녀가 될 아내와 함께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했던 참가정을 이루어 참자녀를 낳아 참부모가 되었다면 모든 인류는 예수의 직계 혈통에 접붙여 중생하였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 혈통의 지상천국은 실현되었을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제자인 베드로와 교황청 중심의 기독교 역사는 불필요했다는 것이 창시자의 교시이다.²⁰⁵⁾

“기독교가 수백 교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겠구만요? 그걸 좋아해요? 「아니요.」 만일 예수님이 결혼을 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직계 아들딸이 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졌겠어요? 예수님의 직계 아들딸로 한 교파가 되었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로마 교황청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황 해 먹겠어요? 「아니요」 베드로가 그 높음하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아들한테는 전부 다 복종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의 아들이 베드로한테 굴복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겠어요? 생각해보자구요. 예수님의 아들에게 베드로가 굴복하지 예수님의 아들이 베드로를 따라가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으면, 예수님의 씨족이 나왔으면 그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라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직계라구요. 이걸 누가 점령하느냐 이거예요. 그 직계가 역사시대에 세계로 뻗어져서 그들과 결혼을 하면 전부 다 하늘의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가 여기에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나오면 전 세계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단일민족이 된다 이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주먹구구로 믿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²⁰⁶⁾

독생자 아담과 독생녀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 제2 축복을 이루지 못했고, 후아담 독생자 예수도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의 책임 실패로 참부모와 참가정을 이루지 못해 예수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실패하여 연장되었다.

204) 『말씀선집』 13권 182쪽. 1964.3.15.; 『원리강론』 162쪽.

205) 『말씀선집』 209권 215쪽. 1990.11.29.

206) 『말씀선집』 82권 140쪽. 1976.1.4. 창시자의 이 교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일운동 분열이 제자 승계를 주장하는 법통주의자들의 반발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시자의 직계 혈통의 참자녀와 참가정의 가치를 부정하고 유명무실화하려는 제자 그룹인 법통 교권주의자들이 통일운동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대한 창시자의 근본 인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3차 독생자·독생녀, 재림메시아와 재림메시아의 아내

1) 재림주 출현의 필연성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으로 완성한 한 남성과 한 여성을 통해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자 절대 예정이었기²⁰⁷⁾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과 예수를 대신하는 또 다른 남성을 출생케 해 아담과 예수의 실패를 탕감 복귀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찾아오는 구원 섭리를 해 나올 수밖에 없다.²⁰⁸⁾ 이런 이유에서 창시자는 그 남성을 독생자,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 참 아버지, 참부모로 규정하였고,²⁰⁹⁾ 창시자 자신이 바로 그 남성이라고 교시하였다.²¹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였고, 예수의 혈통을 복중에서부터 복귀하는 섭리를 책임지고 나왔던 것과 같은 원리로 예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혈통과²¹¹⁾ 참사랑의 씨, 참생명의 씨, 참 아기씨를 소유한 재림주의 출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었다.

“혈통 전환, 제일 중요한 것이구만. 참부모가 돈 보파리를 가져온다고, 무슨 보파리를 가져온다고? 참부모가 올 때 무엇 가지고 온다구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참사랑! 뼈를 중심 삼고 가족을 씨 가지고 내장, 하늘의 재창조의 순결한 그 모델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생식기 씨인 참사랑의 씨, 참정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자 그것은 무한이에요. 하늘도 이걸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를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²¹²⁾

“그러면 참아버지는 재림주인 동시에 뭐예요? 메시아, 그다음에 구세주예요. 이름이 많지요. 이것은 도대체 뭘 하는 패입니까? 도대체 왜 구세주가 필요하고, 메시아, 재림주가 필요하고, 참아버지가 필요해요? ... 참사랑을 가지고 오는

207) 『말씀선집』 288권 128쪽. 1997.11.26.

208) 『말씀선집』 88권 134쪽. 1976.8.10.

209) 『말씀선집』 252권 230쪽. 1994.1.1.

210) 『말씀선집』 456권 90쪽. 2004.6.27.

211) 『말씀선집』 563권 287쪽. 2007.5.22.

212) 『말씀선집』 427권 216쪽. 2003.12.6.

것이요, 참생명의 씨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신부 된 통일된 세계,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한 신부로서의 이 세계를….”²¹³⁾

“본연의 생명의 씨는 오시는 재림주예요. 아버지예요.”²¹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분담이지만, 오시는 메시아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분담에 속하는 것이다.”²¹⁵⁾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는 무엇을 해왔느냐? 참된 아들 하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아들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도주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교주들 가운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부 남자지요? 이것은 참된 아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시켜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 백 단계…. 이렇게 올라가 최후의 바톤을 이어 받아 가지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인공, 아들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아들이 나와 가지고 참된 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²¹⁶⁾

2) 재림주의 출생

재림주인 창시자는 1920년 경신년(庚申年) 음력 1월 6일(양력 2.25.) 자시(子時)에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남평 문씨 문경유 님과 연안 김씨 김경계 님 슬하 13남매 중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선한 조상의 핏줄”을 지닌 가문 배경을 이뤘은 양가 문중에서는, 그 대표 인물로 등장하는 창시자의 탄생에 대해 다양한 예고와 증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창시자의 문정홀 증조부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옥(善玉)’이란 호를 얻었고, 택함을 받은 집, 복 받을 집이라는 평판을 얻었다. 특히 “후손 가운데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 집안에 쓸 만한 사람이 나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생전에 자주 하였다고 한다.

213) 『말씀선집』 232권 111쪽. 1992.7.3.

214) 『말씀선집』 199권 100쪽. 1990.2.15.

215) 『원리강론』 164쪽.

216) 『말씀선집』 41권 28쪽. 1971.2.12.

문치국 조부도 늘 높은 덕으로 선행을 쌓아 존경받았다. 손자인 창시자의 어린 시절에 “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인즉, 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하였다.

애국지사요, 기독교 목사였던 문윤국 종조부는 고향 시절에 종손자인 창시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과 기대로 후원하였다. 조부이나 종조부는 창시자가 문중의 뿌리 인물로서 가문을 일으키는 책임자요, 장차 중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백룡과 같은 큰 인물이 될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시자가 8, 9세 전에 집안 어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창시자의 부친 문경유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신의 있고 선량하고 인정이 많아 그 덕을 입은 이들이 많았다. 평소 손금을 잘 보았던 부친은 창시자 출생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명한 날에 아들을 낳으리라. 내 손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아들을 낳는다고 쓰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자생(子生) 영감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부친에게 있어서 아들 창시자는 “세계 최고의 아들”로 미리 정해져 태어난 존재였다.

창시자의 외가 문중에서도 창시자에 대해 모두 기대했고, 일가 어른들은 다른 형제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창시자를 출세시켜야 한다며 후원했다. 김백홍 외조부는 창시자의 부친에게 번번이 “작은 애 잘 키우면 나중에 덕 본다”라고 했고, 문경천 당숙은 “큰집 작은 애는 왕이 아니면 역적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특히 외가 마을 대산리 일대에서는 “오봉산 정기를 받은 묘두산 아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광복 후 남하한 그 고장 사람들은 창시자의 모친이 묘두산 아래로 시집가서 낳은 창시자가 바로 그 아기 예수라고 말했다고 한다.

1919년 3.1운동 이전 3년간 창시자의 생가 앞 노간주나무에는 날마다 금계(金鷄)가 앉아 울고 갔다고 전한다. 집 앞 솔밭에는 따오기가 3년 넘게 울다가 3.1운동 후 소리를 그쳤다고 한다. 이는 모두 창시자 출생 전의 일이었다.

이 무렵 창시자를 수태한 모친은 친정 대산리 근처 제석산(帝釋山) 산정으로부터 승천하는 한 쌍의 황룡(黃龍)을 생시와 같이 선연하게 목격했다. 본래 창시자

의 증조부는 바다의 쌍룡이 승천하는 몽시(夢示)를 받고 창시자의 대 항렬을 ‘용(龍)’자로 했다고 하는데, 이때 모친은 산상 황룡의 승천을 현시로 본 것이다. 고향 시절 어느 날 모친은 이런 경이로운 체험담과 함께 평소 창시자의 앞날에 대한 하늘의 계시와 영적 체험들을 당사자인 어린 아들에게 은밀히 전해 주었다고 한다.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가 나한테 비밀 얘기를 해 주는데, ‘너, 세상에 얘기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라.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집안의 비밀로 돼 있는데, 그것을 네가 알게 되면 천하가 너를 환영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이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도 선생님은 열일곱 시간 기도하고 점심을 안 먹어요.”²¹⁷⁾

이런 체험을 해 온 창시자의 모친은 여러 자녀 중 둘째 아들인 창시자에게 각별한 기대로 애정을 쏟았고, 아직 하늘 뜻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모자협조의 기반을 자연적으로 세운 입장이었다. 창시자의 형 문용수는 철저한 신앙에 몰입해 만사를 기도로 해결했고, 나라의 시운을 예견하기도 했다. 특히 아우인 창시자에 대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남자”라고 했다. 절대적 신뢰와 후원을 통해 자연적으로 장차 장자권 복귀의 주인공을 일찍이 알아본 것이다.

영통 했던 김경기 숙모는 조카인 창시자의 장래를 내다보고 “내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네가 다 살리겠구나.” 하며, 친자식들보다 극진하게 후원했다.

모친이 어린아이인 창시자를 안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주위 사람들이 유난히 창시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안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렇게 잘생긴 아기를 한번 안아 보면 복 받아 우리 집이 좋을 건데”라며 돌려보는 바람에 마음 졸이며 다녀왔다고 한다. 관상 보는 한 의사 노인은 어린 시절 창시자를 보고 나자 당장에 사위 삼겠다고 야단한 적도 있었다. 문중 안팎에서 나타난 이런 경이로운 사례들은 대부분 창시자가 16세 이전, 특히 탄생 전후 연달아 일어난 일들이었다.²¹⁸⁾

217) 『말씀선집』 592권 32쪽. 2008.6.3.

218) 『천일국 창국 섭리사』 (미발간자료) 27-28쪽.

3) 재림주 출생의 섭리적 의미

통일원리는 제1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제2 이스라엘 세계 기독교에 이어 재림 섭리를 위해 택함을 받은 제3 이스라엘을 한민족(韓民族)으로 보고 있다. 창시자의 교시에 의하면, 한민족은 반만년 고난 역사 속에 심오한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숭앙하며 고통과 한의 심정을 상속한 천손민족(天孫民族)이다. 또 하나님을 원초 조상으로 모셔 온 한민족의 정신과 전통 속에는 공생·공영·공의의 혼이 살아있으며, 반만년 역사 동안 이민족을 침략하거나 약탈하지 않은 홍익인간의 맥이 뛰고, 인간 삶의 근본 덕목인 충·효·열의 혼이 살아 숨 쉰다고 교시하였다.

이런 숭고한 전통들은 우연히 역사상에 나타난 한낱 사건들이 아니라, 하늘이 한민족을 준비하고, 그 전통 위에 메시아를 세우기 위한 기대를 조성하는 섭리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한반도에 조성된 민족적·국가적 기대 위에 창시자가 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일원리의 섭리적 관점이다.

또,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창시자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시대적 혼란상이 정점에 달한 때인 1920년 이 땅에 출생했다. 통일원리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은 궁극적으로 재림메시아가 지상 탄생할 세계적 탕감기대를 이룬 섭리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세계적인 혼란 정세 아래 한국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 40년간 일제로부터 압제를 받았다. 안중근(1879-1910) 의사를 위시한 아벨적 입장의 애국지사들이 광복을 위해 헌신할 때 창시자의 종조부 문윤국은 민족운동에 투신했고, 이로 인해 일가가 시련을 함께 겪었다고 한다.

특히 1919년 3·1 운동은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인 애국지사들이 거사한 봉기였다. 유관순(1904-1920) 열사의 순국은 섭리적으로 보아 타락한 해와의 죄를 탕감하기 위한 순결한 민족적 해와 형 여성의 숭고한 희생이었다. 악주권의 강점기에 독립 주권을 선포한 실체 기반과 민족적 피의 제물을 조건 삼아 한민족의 정기가 삼천리강산을 뒤덮고 세계만방을 울리는 시운을 타고 창시자가 출생하였다. 이는 창시자 실제 생명의 지상 안착을 위한 참예한 선악의 싸움에서의 하늘

편 최종 승리를 의미한다.

“세계 사람들은 선생님의 핏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조상들의 희생한 터 위에 연결돼 있습니다. 희생은 썩는 것입니다. 썩는 데에 생명의 씨를 심으면 비료가 됩니다. 역사시대에 수난을 받고 고통을 받은 그 민족은 생명의 씨를 받아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 수난받는 지역에서는 성인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주장, 의로운 나라, 의로운 주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²¹⁹⁾

통일운동은 한민족 280여 성씨 가운데 창시자 출생의 천운을 받은 섭리적 장손 혈족이 남평 문씨 문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대대로 전해온 창시자 가문의 가훈은, “팔도강산에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는 누구든 후히 대접해 보내라”라는 것이었다.

4) 재림주의 혈통

통일원리에 의하면 하나님 혈통으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였고, 이를 복귀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예수는 유대 민족과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의 책임을 못 해 어린양잔치를 못 한 채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결국 재림주를 중심한 섭리 시대로 연장되고 말았다.

결국, 재림주는 예수 때까지 이루어 놓은 복귀섭리의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창조 이상을 완성할 중심인물로 왔고, 그 재림주가 창시자라는 것이 통일원리의 가르침이다. 특히, 재림주인 창시자는 예수처럼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핏줄을 정화하는 과정 없이 태생부터 참된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어받아 예수 가 태어나 장성할 때까지의 승리적 기반 위에 바로 선다고 교시하였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 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적인 기대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다 하신 신부를

219) 『말씀선집』 334권 232쪽. 2000.9.30.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²²⁰⁾

타락한 혈통의 부모에서 출생

예수가 타락 혈통의 원죄 있는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났으나 원죄 없이 출생한 것처럼 창시자는 자신의 혈통도 그렇다고 교시하였다.

“그러면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이 아담이 같은 이름이에요. 1대 아담, 2대 아담, 3대 아담! 3대 아담 하더라도 그 근본 태어난 것이 아무리 재림주든 메시아더라도 타락한 혈통을 통해 타락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 가지고, 하늘의 선지자가 있고 뭐 있더라도 남자하고 정자의 씨를 가르고 성별시켜 태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메시아가 못 돼요. 조상의 대 수천 대 성별된 거기에 있어서 정자의 씨, 하나님의 정자, 여자의 모든 빛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정자를 키울 수 있어 가지고 해산한 것이 어머니예요. 남자 키우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²²¹⁾

“하나님과 참부모 사이에 있어서 막힌 것이 뭐냐 하면, 혈통 중에서 선생님 자체가 본연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예요. 알겠어요? 사탄 세계 어머니 계통을 밟아 나온 거예요.”²²²⁾

“선생님 자신도 하나님의 피살하고 생명과 핏줄에 연결되어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건적인 인물이 돼서 태어났지만, 조건과 실체가 얼마나…. 조건적인 탕감이에요. 전체 완전적인 탕감이 없어요.”²²³⁾

“선생님까지도 태어나기를 사탄 세계의 핏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제거시켜 가지고, 정화하고 정화하고 올라온 거예요.”²²⁴⁾

“선생님도 타락한 핏줄에서 태어났어요.”²²⁵⁾

“‘핏줄의 주인’ 해봐요. 「핏줄의 주인!」 여러분의 핏줄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 세계의 핏줄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마저도 사탄의 핏줄이 있었기 때문에

220) 『말씀선집』 277권 211쪽. 1996.4.16.

221) 『말씀선집』 474권 327쪽. 2004.11.4.

222) 『말씀선집』 463권 170쪽. 2004.8.1.

223) 『말씀선집』 479권 143쪽. 2004.12.4.

224) 『말씀선집』 430권 185-186쪽. 2004.1.2.

225) 『말씀선집』 478권 216쪽. 2004.12.1.

그걸 싫어해서 나라를 떠나고 부모를 떠난 거예요.”²²⁶⁾

뒤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합리화하는 김진춘은 창시자가 “타락한 혈통의 부모를 통해 출생하였다”라고 교시한 사실을 한학자 무원죄 출생과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김진춘은 “놀랍게도 『말씀선집』에는 참아버님의 혈통에 대한 양면의 말씀, 즉 하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말씀과 타락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하늘 혈통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씀과 타락 혈통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씀도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자신을 포함한 식구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는 “탄생 때 사탄 참소나 원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탄생 때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거나 사명을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모호한 주장을 하였다.²²⁷⁾

또, 김진춘은 “참아버님은 원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탄생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타락 혈통만 지니고 태어난 보통 타락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탄생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탄생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가 주장하는 “원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과 “보통 타락 인간과 전혀 다르다”라는 주장, 그리고 “메시아 되기 위한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나, 창시자가 원죄를 갖고 출생했음을 말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김진춘은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에 맞추어 창시자는 유원죄 타락 혈통으로 태어나 독생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예수나 창시자가 원죄 있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창시자의 교시는 ‘예수와 창시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해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독생자 메시아가 혈통 복귀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한학자나 김진춘이 무원죄 출생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예수도 마찬가지이며, 무원죄 출생이라 주장하는 한학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나 창시자조차 책임분담의 탕감 노정으로 혈통을

226) 『말씀선집』 538권 26쪽. 2006.9.8.

227) 김진춘,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 34-36쪽.

말히는 과정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탕감이 필요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짓 사랑으로 거짓 부모가 나와서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핏줄인데, 이 더럽혀진 핏줄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을 누가 탕감하느냐 하면, 인간들이 탕감해야 돼요. 인간으로 오시는 그 주인 되는, 인간 자체의 주인으로 오는 재림주도 사탄의 혈통을 타고 왔다고요. 사가라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예수의 조상이 멜기세덱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몰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타락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도 탕감 노정을 거쳐가야 돼요. 수난을 받아 가지고 나라를 극복해야 돼요. 종교 역사에 그런 사실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앎으로 말미암아 다 아는 거예요.”²²⁸⁾

창시자는 출생 이후 16세에 이르기까지 창조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직계 왕자로 자랐다고 인식하였다. 또, 본래 하나님이 아기로 짓던 아담의 인연으로 태어나 16세 아담 타락 이전 본성의 계대를 이었고, 16세에 이르러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창시자는 자력의 책임분담으로 섭리사적 구약·신약·성약시대에 막힌 탕감조건을 청산하고 종적·횡적 8단계 사탄혈통 세계를 구원해 본연의 하나님 나라를 찾아 세워 완전 승리에 이르렀다고 인식하였다. 종적 8단계는 종의 종·종·양자·서자·친자·부부·부모·하나님까지, 횡적 8단계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까지를 일컫는다. 6천 년 복귀섭리사의 3시대 대표자로서 이런 8단계를 넘어 핏줄을 맑히지 않고는 하나님 본연의 핏줄을 완전히 연결할 수 없다고 창시자는 보았다. 창시자는 타락 혈통의 개체성 근원은 종적 8단계로 석방권을 완성하고, 그 연대성 환경은 횡적 8단계로써 해방권을 완성한다고 교시하였다.

“선생님도 하나님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타락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점불여야 돼요. 점불하려면 허물을 벗어야 돼요. 8단계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²²⁹⁾

228) 『말씀선집』 444권 197쪽. 2004.4.4.

229) 『말씀선집』 459권 239-240쪽. 2004.7.13.

“그래, 선생님은 개인·가정·종족·민족..., 8단계를 중심 삼고 다 청산지었다구요. 그런데 본래의 아담이 언제 타락했느냐? 16세에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 될 때까지는 본연의 아담의 몸이에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본연적인, 타락하지 않은 완성을 향한 남자였습니다.”²³⁰⁾

창시자는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로서 아담과 해와가 일으켜 6천 년 동안 이 어은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랐던 종적 횡적 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과 원죄 청산 과정을 의심하는 한학자에게 창시자는 이러한 교시로 경고하였다.

“우리 어머니보고도 얘기해 보라고요, 함부로 사나. 어머니도 삼팔선을 넘어야 돼요. 당신은 당신 가야 할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다고 해서 가 보라고요. 갈라졌지. 1 퍼센트, 0점 몇 퍼센트 차이 나도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문을 같이 들어가야 돼요.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어요. 같이 쫓겨났다고요. 지옥 밀창으로 같이 갔다고요.

선생님이 타락의 피를 받았느냐, 깨끗한 피를 받았느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신이 있어요? 16세에 타락했으면 타락하기 전, 해와의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 대신 자리에서 역사시대의 대표로 책임 맡고, 소생단계의 대표자, 장성단계의 대표자, 완성단계의 대표자, 전부 다 8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6천 년 그 대표의 핏줄을 맑히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대신 하나님 핏줄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원리를 해석도 못 하는 사람들이 뭐 선생님이 순혈이나, 무슨 혈이나?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선생님의 피가 뭐 어떻다고? 타락 전에 피를 더럽혔나? 16살에 한 것이 뭐예요, 결심한 내용이지? 그 시(‘영광의 면류관’)가 무슨 뭐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넘느냐 못 넘느냐 하는 싸움의 선언문이에요, 그게. 그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해 보라고요.

내가 어머니란 작자, 재림주라는 작자를 왜 밝히지 못했겠어요? 밝히면 다 없어져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문 닫고. 하나님도 인류를 놔둬 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참부모까지 문 닫아버려야 돼요. ‘참부모 되는 너라도 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진 사람인데, 남아진 것까지 없애버리려고 했지,

230) 『말씀선집』 265권 142쪽. 1994.11.20.

세우려고 안 했어요.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발판이 어디 있어요?”²³¹⁾

특히, 창시자가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 태어나 아담이 타락한 16세를 넘어 하나님의 핏줄을 8단계로 연결하는 사명을 예수로부터 받은 때가 16세 되던 부활절 새벽이었다.

“선생님도 16살 때 예수님이 뭐예요? 16살 때 타락했으니 그 고개,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 소명적 책임을 전수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소명적 책임을 미완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나라고요. 그 한계선을 넘을 수 있었던 부활절 새벽에 전수식이 끝났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와 같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림주, 하나님의 직계 아들딸을 사탄이 죽일 수 없어요.”²³²⁾

혈통 복귀 불필요

창시자는 예수와 달리 자신은 혈통 복귀가 필요 없다고 교시하였다. <8대교재 교본>에 포함된 창시자의 이 언급은 예수의 혈통보다 창시자의 혈통이 더 귀하다는 의미이며, 창시자는 자신의 혈통을 완성의 혈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탐감 길 줄거리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 달라요. 열여섯 살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나? 예수님은 독생자 돼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예요.”²³³⁾

“그러니까 이만한 기반, 선생님에 대해서는 예수와 같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올 때 그런 준비를 하나도 하나님께서 해주지 못했어요. 예수가 도와줬나, 하나님이 도와줬나? 종교의 성인들이 못 도와줬어요. 나는 독출파(獨出派)예요. 핏줄이 달라요. 예수는 타락한 혈통이 되었지만, 선생님은 태어나기를… 생이지지(生而知之) 학이지지(學而知之) 그다음에 뭐이라고? 뜻, 천이지지(天而知

231) 『말씀선집』 608권 303쪽. 2009.2.28.

232) 『말씀선집』 598권 94쪽. 2008.9.19.

233) 『말씀선집』 499권 235~236쪽. 2005.7.3.

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그 일을 전부 다 한 거예요.”²³⁴⁾

“타락한 후에 남자나 여자나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정자가 없어요. 정자가 없다구요. 타락한 후에 태어난 여러분은 담으로 말하면 무정란이에요. ... 그러니 유정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인 되는 재림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래 주인, 그러면 예수가 재림주와 뭐가 다르냐? 예수는 무정란 세계에서 싸워 가지고 이겨서 유정란 씨를 옮겨 받았는데, 선생님은 태어나기를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권 내에서 자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를 죽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근본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²³⁵⁾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혈통과 선생님의 혈통이 달라요. 예수의 혈통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구요. 본래 완성한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아담의 혈통, 그다음에 예수의 혈통, 재림주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재림주를 완성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시대 · 장성시대 · 완성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주 가운데는 삼 시대의 열매를 대신한 가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놓으면 아담 열매의 자리, 예수 열매의 자리, 재림주의 열매까지도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²³⁶⁾

무원죄 출생

창시자가 예수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재림주도 “죄악의 혈통을 받은 여인(어머니)의 몸에서 탄생하여 지천한 자리에서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죄악의 혈통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죄와 무관한 무원죄 출생의 존재”인 것처럼 재림주도 그렇다는 것이다. 또 창시자는 “하나님이 수천 대(代) 정자와 난자를 성별하고 정자의 씨를 가르는 방법으로 원죄 없는 메시아를 출생시켰다”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면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이 아담이 같은 이름이에요. 1대 아담, 2대 아담, 3대 아담! 3대 아담 하더라도 그 근본 태어난 것이 아무리 재림주든

234) 『말씀선집』 502권 138쪽. 2005.7.27.

235) 『말씀선집』 502권 154쪽. 2005.7.28.

236) 『말씀선집』 563권 287쪽. 2007.5.22.

메시아더라도 타락한 혈통을 통해 타락한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나 가지고, 하늘의 선지자가 있고 뭇 있더라도 남자하고 정자의 씨를 가르고 성별시켜 태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메시아가 못 돼요. 조상의 대, 수천 대 성별된 거기에 있어서 정자의 씨, 하나님의 정자, 여자의 모든 빛을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정자를 키울 수 있어 가지고 해산한 것이 어머니예요. 남자 키우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²³⁷⁾

“그러므로 철장(鐵杖)으로 만국(萬國)을 다스릴 남자(男子)는 곧 말씀을 가지고 만왕(萬王)의 왕(王)으로 만국(萬國)을 다스리려(사 9/6-7) 다시 오시는 주(主)님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이 주(主)님은 여인(女人)의 몸에서 탄생(誕生)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여인(女人)이라함은 타락(墮落)된 죄악(罪惡)의 혈통(血統)이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니 복음서(福音書)를 보면 그 첫머리에 예수님이 족보(族譜)를 기록하였고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조상(祖上)에 사음녀(四淫女)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었다. 그 이유는 특히 만민(萬民)의 구주(救主)는 죄악(罪惡)의 혈통(血統)에서 탄생(誕生)하셔서 죄악혈통(罪惡血統)의 손(孫)을 구(救)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表示)하기 위(爲)함이었다.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도 죄악(罪惡)의 혈통(血統)을 받은 여인(女人)의 몸에서 탄생(誕生)하시어 지천(至賤)한 입장(立場)에서 몸을 일으켜 이 고난(苦難)의 길을 거치어서 하늘 보좌(寶座)의 영광(榮光)의 자리에까지 올려간다는 뜻을 표시(表示)한 것이다.”²³⁸⁾

“예수님의 아들딸이 있어요? 사랑을 중심 삼고 상대도 못 맞은 예수예요. 그래서 어린양잔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린양잔치는 역사의 종말 시대에 참부모가 와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한 핏줄의 연대를 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가 열여섯 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타락한 이후에 핏줄을 전환시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 총재는 타락한 세대의 핏줄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열여섯 살부터 이룬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죽 나 혼자 가더라도, 믿지 않고도 내가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가주는 자리이니 거기는 신앙이니 무슨 나라가 없습니다.”²³⁹⁾

“이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문 총재가 아느냐? 하늘이 가르쳐

237) 『말씀선집』 474권 327쪽. 2004.11.4.

238) 『원리해설』 196쪽.

239) 『말씀선집』 492권 172쪽. 2005.4.15.

줘서 압니다. 문 총재에 대해서 세상에서 ‘문 총재도 타락한 핏줄을 이어받았다.’ 하는데, 아니에요. 해와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핏줄은 보호해 나 왔습니다. 아담이 재창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²⁴⁰⁾

“여러분이 ‘문 총재도 타락의 피를 받았다.’ 하면 안 돼요. 아담·해와가, 해와가 타락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핏줄이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뽑아다가 타락시킬 수 없어요.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자기의 갈 길을 다 알고 있어요.”²⁴¹⁾

“하나님의 혈통을 타지 않고는 이 땅 위에 오시는 재림주가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²⁴²⁾

“하나님은 남성적 주체라고 했지요? 그러니 남자가 중심입니다. 왜 남자가 중심이냐? 아기씨,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씨는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핵이에요, 핵. 사랑의 씨앗도 생명의 핵과 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거라구요. 생명의 씨가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핵심적인 정착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되는 곳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²⁴³⁾

“이런 점에서 복귀섭리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할 인간의 씨, 본연의 아기씨를 찾느냐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간부(姦夫) 된 사탄의 거짓 사랑으로 유래된 생명과 혈통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일체 된 구세주, 참부모(창시자)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²⁴⁴⁾

“타락한 해와의 난자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구세주가 못 됩니다. 타락한 세계의 혈통적인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재림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정자의 핏줄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타락을 안 한 아버지 정자의 씨, 그 씨는 아직까지 씨를 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일교회의 문 총재도 타락한 핏줄 가운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타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길러 나왔습니다.”²⁴⁵⁾

240) 『말씀선집』 613권 262쪽. 2009.7.7.

241) 『말씀선집』 613권 309쪽. 2009.7.9.

242) 『말씀선집』 494권 140쪽. 2005.5.1.

243) 『말씀선집』 226권 174쪽. 1992.2.4.

244) 『말씀선집』 277권 202쪽. 1996.4.16.

“선생님의 뱃속에 있는 정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속에 묻혀 있던 정자는 하나님의 고통과 더불어 선생님의 고통, 복증서부터 고통…. 선생님이 태어나게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영적인 어머니가…. 그거 뭐라고 해요? 무슨 거리라고 그래요? 여자가 정자를 받기 위한 거예요.”²⁴⁶⁾

이렇듯 창시자는 “부모 하나님 참사랑 골수와 직결된 정자 난자의 핏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본연의 하나님 창조 역사에 의해 예수님의 복귀된 혈통과는 별개 혈통으로서 창조 본연의 하나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왔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시자는 자신의 혈통적 기원을 예수와의 혈통적 연계성을 뛰어넘는 독보적 가치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예수처럼 “탕감 길 줄거리 핏줄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독생자 탄생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원의 섭리적 유래와 영적 기원, 천이지지(天而知之)의 천부적 준비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창시자의 혈통 인식은 한학자와 김진춘이 주장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창시자는 태중 수정에서부터 16세 이전까지도 자신의 핏줄은 본연의 하나님 직계 핏줄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로부터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받은 16세 때와 무관하게 자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왕자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탕감 길 줄거리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 달라요. 열여섯 살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²⁴⁷⁾

“그러니 선생님의 핏줄이 달라요. 예수의 핏줄과 달라요. 16살까지 자연 핏줄로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골수 내용의 전통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핏줄을 타고 나왔어요. 가문을 보면 놀라운 가문이라구요.”²⁴⁸⁾

“16세 전, 타락하기 전, 본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핏줄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16세에 하늘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핏줄이 달라요. 예수의 핏줄과 선생님

245) 창시자의 교시, 2010.4.30.

246) 『말씀선집』 610권 140쪽. 2009.4.22.

247) 『말씀선집』 499권 236쪽. 2005.7.3.

248) 『말씀선집』 557권 46쪽. 2007.2.25.

의 핏줄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의 남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 있는 핏줄, 근원이 있어요?

선생님은 학이지지(學而知之)가 아니고, 생이지지(生而知之)가 아닙니다. 천이지지(天而知之)입니다.”²⁴⁹⁾

결국, 창시자는 자신을 성약시대 제3차 아담으로 왔으며 섭리적 위상에 따라 아담·예수·재림주 3시대를 망라한 완성 혈통이자, 3시대를 넘어선 4대 심정권의 시대에 총체적 열매를 대신한 본성 본연의 가치적 존재로 왔다고 인식하였다.²⁵⁰⁾

창시자의 혈통 인식은 창시자를 원죄 있는 타락 혈통으로 규정하는 한학자의 주장이나 그녀의 독생녀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일 참아버님이 메시아 사명 인계 없이 탄생 때부터 메시아 입장에 서려면 예수님과 같은 혈통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김진춘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96년 당시 모자협조시대의 중심인물로서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서 제2 교주로 인정받던 한학자가 창시자와 동일한 원리관, 섭리관, 특히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에 대한 동일한 인식으로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참사랑과 생명의 씨를 가진 아담을 잃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새로운 씨를 가진 아들을 찾아 세워야 합니다. 창조 때 아담을 먼저 지었듯이, 재창조섭리인 복귀섭리도 타락과 무관한 아들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사상의 근본입니다.”²⁵¹⁾

16세 사명 인식

한학자는 창시자 타계 후 자신을 무원죄 순혈로 출생한 독생녀라 주장하는 반면, 창시자를 유원죄 타락 혈통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말씀”을 연구해 온 김진춘은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16세에 예수로부터 구세주의 사명

249) 『말씀선집』 541권 199쪽. 2006.9.30.

250) 『말씀선집』 563권 287-288쪽. 2007.5.22.

251) 한학자,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 세계평화가정연합 185개국 결성 한국대회 주제 강연문, 『통일세계』 1996.10. Vol. 308, 55-67쪽.

을 인계받았다는 창시자의 교시를 근거로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한학자와 김진춘의 독생녀론은 신앙자들에게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시자의 메시아 인식이 유아기 혹은 유년기임을 알 수 있는 창시자 교시가 발견됨은 물론이고, 창시자의 혈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누군가를 “재판장 노릇을 하는 도적놈의 새끼”라고 질책하는 창시자의 교시도 발견된다.

“임자네들이 선생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죄 있는 선생님을 써먹겠어요? 열여섯 살까지 아담·해와의 핏줄이 틀리지 않아요. 왜 열여섯 살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열여섯 살까지는 타락을 안 했습니다. 그 계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이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교주의 노릇을 하고, 핏줄을 바로잡겠다고 하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이 가르쳐줬습니다. 핏줄이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안 물어봤겠어요? 말도 말라고 해요, 말도 말라고. 내가 물어보는데 하늘이 말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늘이 책임진다는 그것을 꿈에도 생각 안 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알아 가지고 재판장 노릇을 하겠다는 녀석들이 다 있습니다. 도적놈의 새끼라고요. 그래, 선생님의 말을 들어 가지고 손해를 본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뿌레기를 중심 삼고, 그 이름을 타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출세도 한 것 아니에요?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판을 그으면서 얘기해 보자구요.”²⁵²⁾

“어두움 가운데서 자라 나온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기본이 되었던 거기서부터 발전해 나온 하나님이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는 모셔 나왔습니다. 타락의 혈통과 관계없이 모셨습니다. 내가 세 살, 두 살 때 기도하게 되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²⁵³⁾

창시자의 이러한 교시에도 불구하고, “혈통 전환, 나는 모태부터다. … 아버지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다. 알았어? 그것을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²⁵⁴⁾ 한학자와 “사실 참아버님이 탄생 시

252) 『말씀선집』 608권 276-277쪽. 2009.2.27.

253) 창시자의 교시, 2010.3.7.

254) 한학자의 설교, 2014.7.1.

천명을 받았다는 내용은 『말씀선집』 전체를 통하여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김진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창시자의 교시나 원리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부인하는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김진춘이 창시자의 교시를 왜곡하지 않고는 합리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원리를 버리고 창시자의 교시를 왜곡해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을 합리화하는 김진춘의 태도는 수십 년 동안 창시자를 ‘참아버지’로 고백하며 물심양면 혜택을 입어 온 신앙자의 도리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창시자의 교시를 종합해 볼 때 창시자가 16세에 예수로부터 구세의 사명을 받은 사건은 창시자의 원죄 여부와 무관한 사건이며, 무원죄로 출생한 창시자가 아담이 타락한 시점을 극복한 터전에서 사명을 공식적으로 깨달은 사건이었다.

첫 사명

제2 축복을 실패한 아담과 예수를 대신하여 복귀섭리를 완결지어야 할 재림주인 창시자는 완성한 아담인 독생자로서 한 여성을 찾아 재창조를 위한 혈통을 복귀하여 어린양잔치를 하고 참자녀를 낳아 참부모가 된 후 참가정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지상천국을 완성해야 한다.

재창조 원칙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 입장의 독생자 혈통 문제를 책임지면, 독생자는 해와 입장인 독생녀의 혈통 문제를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림주의 해와 복귀는 타락하지 않은 입장의 아담이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원칙과 같으며, 예수가 예수의 아내를 복귀하는 원칙과 동일한 재창조 과정이다. 결국, 창시자는 독생자이자 참부모로서 타락 세계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한 여자를 선택하여 잘 기르고 교육하고 혈통을 전환해 참가정의 참어머니로 복귀해야 했다.

“여러분같이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40세까지 혼자 살 게 뭐예요? 처녀가 수두룩했어요. 박사가 없나, 별의별 훌륭한 여자들이 없나...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 아담이 해와를 창조하는 거와 같이 다시 길러내야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어머니 만든 거라고요.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뭐 이러구 저러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²⁵⁾

“그렇기 때문에 영육을 갈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은 해와를 창조했고, 해와는 아들딸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반대로 복귀돼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인과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벨에게 희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연 굴복시키는 길을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²⁵⁶⁾

“그러면 실제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애초에 아담을 중심 삼고 해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을 중심 삼고 해와가 창조되었지 해와를 중심 삼고 아담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실체의 아버지 입장인 완성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해와를 다시 만들어 내는 역사를 통해 해와의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²⁵⁷⁾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가지고 해와를 지었다 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해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적인 역사 과정의 인연을 횡적으로 전개시킨 증거자들의 모든 복을 빼앗아 와 가지고 그것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횡적인 출발의 인연을 상속받았다는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비로소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니까 곡절이 있을망정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

어머니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를 택할 때, 세우는 조건은 반드시 20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될 자격도 없고 어머니 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²⁵⁸⁾

“그것이 뭐냐 하면 메시아 재림사상입니다. 그러한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해와를 지을 수 없다. 이렇다구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 가지고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구요. 그건 흙덩이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람 같은 꼴은 했지만,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인된 창조 이상 법도로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아담만, 아담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대신 탐감복귀하는 것이 재림메시아입니다. 재림사상입니다. 재현 메시아입니다. 그런 분이 재림메시아, 재현 메시아입니다. 재림이나 재현이나 마찬가지로

255) 『말씀선집』 89권 313쪽. 1976.12.4.

256) 『말씀선집』 405권 209쪽. 2003.2.11.

257) 『말씀선집』 36권 145쪽. 1970.11.25.

258) 『말씀선집』 157권 26쪽. 1967.2.1.

지라고요. 둘째 번 나타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와야만 비로소 하나님
이 원하는 해와,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²⁵⁹⁾

“그러한 아버지가 이 땅 위에 와 가지고 어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남자는 참여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는데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구요? 「참남자가요.」 왜요? 하
나님이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
문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 그래 가지고, 참남자가 참여자
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저 두들겨 패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여자는
절대복종을 해야지, 가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요 간나, 해와야!
너 옛날에 아담을 망치게 했지? 이놈의 간나야!’ 이러면서 두들겨 패고 짓이키
고 그래도 거기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웃음) 그거 쉽겠어요, 어렵
겠어요? 「어렵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정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참부모’라
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²⁶⁰⁾

“그래서 여자들은 뭐예요? 주체예요, 대상이예요? 「대상입니다.」 창조적 전통
에 의해서 대상입니다. 성경에도 말이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
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아담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빼서
만들 게 뭐예요.”²⁶¹⁾

“선생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거쳐왔는
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을 거쳐왔습니다. 해와는 남자인 아
담을 본따서 지었지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지었다는 것은 본따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갈 길을 닦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수난 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야 모르지, 나만 따라오면
되니까.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적 소행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입니
다.”²⁶²⁾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지었다고 했지요. 여자를 완전
히 뜻 앞에 일치화시킬 수 있게끔 거느려야 돼요. 여자의 말 듣게끔 안 돼 있습
니다.”²⁶³⁾

“왜 그래야 되느냐?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지었다고 그러지요? 아담의 갈비

259) 『말씀선집』 65권 190쪽. 1972.11.19.

260) 『말씀선집』 104권 56쪽. 1979.3.28.

261) 『말씀선집』 108권 44쪽. 1980.6.15.

262) 『말씀선집』 208권 327쪽. 1990.11.21.

263) 『말씀선집』 211권 348쪽. 1991.1.1.

뼈를 뽑아서 지었다고 했는데, 갈비뼈를 뽑은 게 뭐예요? 본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시는 주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부 다 심정적 사랑을 잃어버린 것 아니예요? 사랑의 심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부활권이 벌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전부가 선생님 중심 삼고… 세계로 보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가 있는 데 남자는 아담을 대표했고, 여자는 해와를 대표했습니다. 이 해와의 심정을 묶어 가지고 대표의 자리에 오면 남자의 심정을 대표한 열매와 같은 입장에서 부모님이 서 가지고 남자들의 모든 복잡한 것을 탕감해서 걷어치우고 새로운 씨를 뿌려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교회입니다.”²⁶⁴⁾

“앞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주님은 와 가지고 자기의 상대를 재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해와에 대한 주관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탕감 복귀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담이 해와를 재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에 의해 재창조되려면 재림주님에게 절대복종해야 합니다. … 사탄의 참소 조건을 남기는 자리에 서는 해와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복종해야 합니다. 절대복종하여 세상 것을 전부 부정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절대시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여성을 찾아오는 분이 재림주님이라는 것입니다.”²⁶⁵⁾

5) 재림주의 아내 후보자

최선길

창시자는 1943년 일본 유학 후 귀국하여 하늘의 지시에 따라²⁶⁶⁾ 정주군(定州郡) 관주면(觀舟面) 관삽동(觀插洞)의 해주(海州) 최씨(崔氏) 명문가의 규수 최선길(崔先吉: 1925-2008)과 맞선을 보았다. 가장 먼저 길하다는 축복된 이름, 알뜰하고 투철한 성격,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까지 치른 독실한 신앙 경력을 가진 여자 세례요한 격 상대가 최선길이였다. 그리고 1943년 12월, 어떠한 고생길도 감수

264) 『말씀선집』 224권 80쪽. 1991.11.21.

265) 『말씀선집』 138권 251쪽. 1986.1.24.

266) “선생님이 뜻을 알고 나서 성진이 어머니와 결혼한 것도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영계의 지시하에서 만난 거구요. 그 사람 이름 최선길입니다.” 『말씀선집』 49권 154쪽. 1971.10.9.; “성진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고 뜻을 배반하고 그랬지만, 처음에는 영계가 다 가르쳐 주었다구요.” 『말씀선집』 277권 95쪽. 1996.3.31.

하기로 다짐받고 약식의 약혼 후 이듬해 1944년 5월 4일 창시자와 최선길은 결혼하였고, 1946년 4월 2일 신혼살림을 하던 서울 상도동에서 아들 문성진을 낳았다.

1946년 5월, 하늘의 지시에 따라 재림주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창시자와 최선길의 부부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²⁶⁷⁾ 창시자는 약혼식 때 맹세한 최선길을 믿고 하늘의 섭리를 위해 가정을 떠나야 했다고 한다. 그 후 평양 개척 전도와 대동보안서, 흥남 감옥 수난과 탈출을 거치며 국가적 메시아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최선길 문성진 모자가 창시자와 다시 상봉한 것은 헤어진 지 6년 만인 1952년 11월 부산 범내골 토담집에서였다.²⁶⁸⁾ 한 집안의 가장(家長) 역할만을 기대하던 최선길의 요구와 달리 아담과 예수의 사명을 대신해야 했던 재림주로서 최선길과 아들 문성진을 대하는 창시자의 입장은 최선길의 희망과 달랐다. 이런 까닭에 창시자가 최선길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⁹⁾ 결국 “3년만 기다려 보라”는 창시자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선길은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의 가족 3인의 공증 하에 1957년 1월 8일 협의이혼에 이르렀다.

만약 최선길이 창시자의 메시아 사명을 이해하고 협조하였더라면 통일교회의 어머니가 되었을 것이라고 창시자는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결국, 해와가 아담에게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주관성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길은 타락한 해와와 같은 입장에서 재림주 아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완성한 독생녀가 되지 못하였다.

“본래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환영했더라면 지금의 어머

267) 『말씀선집』 562권 231쪽. 2007.5.7.

268) 『말씀선집』 145권 45쪽. 1986.4.30.

269)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있을 때 어미하고 처남이 이혼장 가지고 와서 ‘당신 믿다가는 우리 문종들 전부 다 거지가 되겠고, 우리 최 씨네 딸은 그러한 문 씨네 종자는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발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 가지고 나왔는데, 와서 땡강 부리고 하기 때문에 이혼해 줬지요. 나는 책임을 다 했다고요. 내가 그런 여편네한테 신작으로 뺨을 맞지 않았나, 별의별 놀음 다 당했다고요. 소크라테스 부인이야 우리 성진 어머니가 나를 반대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말씀선집』 145권 43쪽. 1986.4.30.

나가 어머니 되지 못했을 거라고요. 성진 어머니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²⁷⁰⁾

“그때 선생님을 모셨다면 그 일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어머니 됐을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성진이라고 선생님하고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성진이 어머니 최씨가 복 받아요, 최씨가. 최씨 일족이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들이 축복받아요.”²⁷¹⁾

“어머니가 성신과 실체 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고 선생님이 아들딸하고 하나 됐으면, 가정적 가인 아벨, 가정적 가인 부모, 실체 부모가 나와 가지고 됐으면, 통일교회는 핏박도 안 받아요. 그랬으면 성진이 어머니가 참여머니가 돼요. 이 어머니(한학자)는 없는 거예요.”²⁷²⁾

“원래는 최선길이가 책임 못 했어요. 절대 선생님을 따라와야 된다고요.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다시 세워야 했던 거예요.”²⁷³⁾

“효진이는 셋째 아담격이다. 성진 어머니가 반대함으로 희진 어머니를 만났고, 희진 어머니가 반대하므로 효진 어머니를 만났다. 성진이는 타락한 아담 복귀형이요, 희진이는 실패한 예수의 복귀형이요, 효진이는 완성한 아담형이다. 효진이를 중심으로 하여 흥진, 현진 세 아들이 있어야 한다.”²⁷⁴⁾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들딸뿐이지만 선생님은 복잡합니다.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성진 어머니가 뜻을 못 세워 나왔기 때문에 삼대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진이는 아담형이고, 희진이는 예수형이고, 효진이는 재림주형입니다. 즉, 소생, 장성, 완성입니다.”²⁷⁵⁾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따랐으면, 2차대전 이후에 성진 어머니를 중심 삼고 문충재를 그 위에 세웠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가 아니에요.”²⁷⁶⁾

김명희

270) 『말씀선집』 337권 18쪽. 2000.10.16.

271) 『말씀선집』 272권 23쪽. 1995.8.30.

272) 『말씀선집』 357권 27쪽. 2001.10.25.

273) 『말씀선집』 319권 218쪽. 2000.3.20.

274) 『말씀선집』 30권 243쪽. 1970.3.24.

275) 『말씀선집』 34권 107쪽. 1970.8.29.

276) 『말씀선집』 427권 35쪽. 2003.12.2.

최선길의 책임분담 실패로 완성한 해와인 독생녀는 없었지만, 창시자는 완성한 아담의 입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해와를 찾아 세우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창시자는 1954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후 2차 7년 노정에서 해와를 다시 찾는 2차 가정 섭리를 주재하였다. 그 주인공은 문희진의 모친 김명희였다.

김명희는 1930년생, 평북 삭주 출신으로 선친이 목회자인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환경에서 성장했다. 1947년 남하한 뒤 온갖 시련과 난관 속에서 모친과 동생들을 돌보며 신앙과 공부를 계속했다. 1952년 부산 피란 때 연세대에 입학해 공부하다가 1953년 9월 서울 수복 후, 숙모 양윤신 씨의 권유로 그 언니 양윤영 교수와 함께 창시자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1954년 1월, 부산 영도 부흥회 중 입교한 뒤 뜻길에 헌신하였다.

창시자는 김명희의 입장을 후아담인 예수 시대 사가랴와 엘리사벳 앞의 마리아 입장이라고 하였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한 하늘의 지시에 절대 순종해 약혼자 요셉을 속이고 제사장 사가랴로부터 예수를 수태해 출산했다. 천사장이 속여서 빼앗아 간 하늘의 혈통을 복귀해 원죄 없는 본연의 아담을 찾아오는 섭리였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당시 섭리적인 아담 국가, 이스라엘 앞에 해와 국가 입장인 애급으로 피신해 탕감 노정을 거쳐 돌아왔다.

김명희는 바로 그 예수 가정의 역사에 맺힌 곡절을 탕감하는 운명 길을 걸었던 것이다. 섭리적 요셉 입장의 청년 식구 동창생 오 씨를 동행해 해와 나라 일본에 밀향한 뒤 그의 협조 속에 1955년에 창시자의 아들 문희진(文喜進)을 낳고, 극난한 모험의 탕감 길을 3년 넘게 거쳤다.

김명희와 오 씨는 이대 연대 사건의 회오리가 몰아치는 촉급한 상황에 1955년 6월 24일 부산항 근처에서 출항에 성공해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와카마츠(若松) 섬에 기착했다. 그곳에서 얼마간 지낸 뒤 후쿠오카현(福岡縣) 고쿠라(小倉)로 옮겨 1-2개월을 지내다가 다시 도쿄(東京)로 올라갔다. 도쿄에서도 불안과 긴장의 환경에서 거처를 여러 번 옮겨 지내던 중 1958년 7, 8월경 밀입국혐의로 붙잡혀 나가사키의 오오무라(大村) 수용소로 이송되어야 했다. 그러나 수용소로 이송되기 직전 도쿄 경찰의 배후 사주로 인한 이웃 일본인의 침범 가해로 메시아의 아내 입장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김명희는 좌절된 마리아 입장에 처하고 말

았다. 최선길을 대신하여 완성한 해와 독생녀가 되어야 했던 김명희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6) 독생녀 후보자 한학자

최선길과 김명희가 재림주의 아내 독생녀 사명에 실패했지만, 창시자는 완성한 아담으로서 완성한 해와와 함께 반드시 인류의 모델적 참가정을 실현하여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실패한 두 해와 독생녀 사명자를 대신하여 창시자가 세 번째로 찾아 세운 해와 독생녀 사명자는 바로 한학자였다.

창시자가 40세에 가까워지자 통일교회 여자 신도들은 하늘의 계시 가운데 어린양(창시자)의 배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시자와 결혼하고 싶어 생명을 걸어놓고 덤벼드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²⁷⁷⁾ 1960년 4월 11일, 만 40세였던 창시자는 당시 17세였던 한학자(韓鶴子)를²⁷⁸⁾ 창시자(어린양)의 신부로 선택했다.²⁷⁹⁾

복귀섭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확신한 창시자는²⁸⁰⁾ 어린양의 신부인 한학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다.

최선길과 김명희를 대신한 한학자

독생자인 창시자의 배필로서 독생녀가 되어야 했던 최선길, 김명희의 책임분담 실패로 한학자가 그 대신자로 선택되었지만, 창시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최선길이나 김명희가 창시자 아내의 책임을 다했다면 한학자는 결코 창시자의 아내가 될 수 없었다. 창시자와 한학자의 만남이나 성혼은 결코 예정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이다.²⁸¹⁾

한학자의 정체성과 혈통

277) 『참부모님 생애노정 4』 26-29쪽.

278) 통일교 공식 자료에 의하면 한학자는 1943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안주군에서 부친 한승운, 모친 홍순애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자랐으며, 한국전쟁 때 남하하여 제주도, 춘천, 서울 등지에서 모친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통일교 입교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간호전문학교(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279) 『참부모님 생애노정 4』 20쪽, 25쪽, 26쪽.

280) 『말씀선집』 557권 46쪽. 2007.2.25.; 541권 199쪽. 2006.9.30.

281) 『말씀선집』 357권 27쪽. 2001.10.25.

창시자는 한학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많은 교시를 <8대교재교본>에 남겨놓았다. 창시자의 교시에 의하면 아담이 해와를 창조해야 했고, 예수가 예수 아내의 혈통을 복귀하여 재창조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한학자가 좋은 혈통적 배경과 정성 속에서 남다르게 태어났지만, 타락한 혈통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녀를 교육하고 혈통을 복귀시켜 완성한 해와인 독생녀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은 창시자의 책임이었다.

“핏줄을 맑힌 그 남자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핏줄을 맑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아담이 해와의 말을 들어 가지고 핏줄을 더럽혔으니 해와를 절대복종시켜 가지고 핏줄을 맑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줄을 받을 수 있는, 종적인 기준에서 90 각도의 여성이 될 때 여기서 사랑의 천지조화가, 혈족이 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벌어지고 전후좌우상하의 구형의 형태가 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수직과 연결되는 거예요.”²⁸²⁾

“여자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우리 어머니 교육하는 데 피땀을 흘렸겠나, 안 흘렸겠나? 눈이 뒤집어지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손이 조막손이 되더라도 평소 자세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진짜 아버지같이, 진짜 선생같이, 진짜 왕같이 교육하지 않으면 다 틀어진다. 그래도 63세까지 잘 참았지.”²⁸³⁾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아는가? 말해 보라.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다. 동산 가운데 구정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 답변하기 힘들다. 그러려면 별거 없다. 나오는 물을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것이다. 동산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집어넣어 그것을 여과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수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²⁸⁴⁾

“그래,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세계에 넘어서 가지고 가야 할 심정의 세계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곳에서 하게 되면 언제나 행복할 수 없다구요, 언제나. 그러니 핏줄이 하나 되어야 돼요. 핏줄이 하나 되는 데는 남자의 핏줄과 여자의 핏줄이, 핏줄이 다른 사람 둘이 부

282) 『말씀선집』 325권 149쪽. 2000.6.30.

283) 『말씀선집』 498권 130쪽. 2005.6.4.

284) 『말씀선집』 461권 26쪽. 2004.7.1.

덧치게 된다구요.”²⁸⁵⁾

한학자는 주관성을 전도하여 타락한 해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함으로써²⁸⁶⁾ 창시자와 하나 되어 혈통이 복귀되어 완성한 후, 우주를 대표하는 어머니이자 구세주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책임을 진 존재였다.²⁸⁷⁾ 다시 말해 원죄 없이 복귀된 혈통으로 태어난 창시자는 하나님을 대신한 완성한 남성, 남편, 오빠, 아버지의 입장에서 타락한 여성을 대표하는 한학자를 딸 같은 아내로 맞아 혈통을 복귀하고 참자녀를 낳아 세상 구원의 모델인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참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다.

통일원리가 제시하는 복귀원칙과 창시자의 교시에도 불구하고 한학자는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 할 수 없어, 나는 원리를 다 알고 있었어”라고 주장했고,²⁸⁸⁾ 김진춘이 “참아버님에 의하여 참어머님이 원죄 청산 또는 혈통 전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참어머님의 혈통 전환과 원죄 청산은 예수님처럼 모자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²⁸⁹⁾ 주장한 것은 한학자와 김진춘의 섭리 인식이 창시자의 섭리 인식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7) 성혼식과 한학자를 재창조한 7년 노정

엄밀히 말해 창시자가 독생자로서 독생녀 후보자와 처음 성혼한 것은 1943년 최선길과 한 결혼이었다. 최선길과 김명희가 독생녀 사명에 실패함에 따라 창시자는 세 번째 독생녀 후보자인 한학자와 1960년 4월 11일(음력 3월 16일) 성혼식, 즉 메시아의 어린양잔치를 하였다. 창시자는 1945년 한국해방 이후 14년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서 개인적 탕감 노정 끝에 이날 성혼함으로써 메시아·구세주·재림주 그리고 참부모로서 가정을 중심한 새로운 차원의 섭리 노정을 출발하였다.

285) 『말씀선집』 553권 204쪽. 2007.1.26.

286) 『말씀선집』 18권 272쪽. 1967.6.12.

287) 『참부모님 생애노정 4』 53-54쪽.

288) 한학자의 설교, 2014.9.12.; 2014.10.17.

289) 김진춘,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 49쪽.

창시자는 “메시아는 하나님 참사랑의 혈통으로 강림하는 완성의 모델적인 존재로서 전체 인류를 접붙여 똑같은 열매를 맺으러 오신다.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재창조하시고, 메시아는 먼저 그 상대인 지상의 신부를 재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핏줄을 받을 수 있는 종적인 90각도 기준의 여성이 되면 천지 사랑의 조화로써 혈족이 번식돼 나간다. 재림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참아버지를 메시아로 재창조하시고 신부 후보자를 준비하시면 참아버지는 그를 맞아 참어머니로 재창조하신다”라고 교시하였다.²⁹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한 해와를 재창조하고, 예수가 타락한 해와 입장인 예수 아내를 재창조하고, 재림주가 타락한 해와 입장인 재림주의 아내를 재창조하는 근본 과제는 혈통 정화에 있었다.²⁹¹⁾ 창시자는 원죄 없는 아담 입장의 독생자로 왔으며, 17세 소녀 한학자는 가문과 신앙 배경에서 좋은 혈통과 정성의 터 위에 태어났지만, 근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출생하였다고 창시자는 보았다. 그리고 창시자가 구세주로서 어린양잔치를 해야 할 즈음 한학자는 여러 신부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창시자에 의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창시자는 한학자의 혈통을 전환하는 근본 섭리를 시작함으로써 한학자로 하여금 독생녀 입장과 자격과 가치를 찾게 하였다.

“3대 여자들이 하나 돼 가지고 어머니가 되겠다고 야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축복해 줘 가지고 3년 동안 외박살이 시키지 않았어요?”²⁹²⁾

창시자는 1960년 어린양잔치 이후 1968년 ‘하나님의 날’을 선포할 때까지 ‘7년 노정’을 비롯하여 창시자 전 생애에 걸쳐 섭리 기반이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배경에서 한학자를 ‘가정적 어머니’에서 ‘천주적 어머니’의 위상까지 재창조하는 노력을 하였다.²⁹³⁾

“창조 전 시대부터 구약시대 · 신약시대 · 성약시대와 제4차 아담권의 시대까

290) 『말씀선집』 227권 371쪽. 1992.2.16.; 243권 177쪽. 1993.1.3.

291) 『말씀선집』 437권 196쪽. 2004.2.11.

292) 창시자가 한학자와의 성혼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축복은 혈통 전환을 의미한다. 『말씀선집』 298권 97쪽. 1999.1.1.

293) 『말씀선집』 316권 135-136쪽. 2000.2.21; 『참부모님생애노정』 제4권 53-54쪽.; 제10권, 122-127쪽.

지 다섯입니다. 다섯 고개의 부인들이 합해야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되는 것이냐? 참 남편의 부인이 되는 그날부터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열일곱 살 난 어머니를 지금까지 5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나이가 67세입니다. 선생님의 나이는 90세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참 어머니,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있는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²⁹⁴⁾

“이게 무슨 말이냐? 1960년도를 중심 삼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는데 왜 10대의 어머니를 모셨느냐 이거예요. 완성기준을 못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데려와 가지고 7년 노정에 어머니를 내정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편에서 빼앗아 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와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완성기준까지 올라올 기간에 해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심정적인 상대기준을 결정지어야 되는 것입니다.”²⁹⁵⁾

“1차 7년 노정 기간은 선생님이 완성한 하나의 남성으로 어머니를 맞아 가정적인 승리를 결정짓는 때였다. 하늘의 혈족이 이 땅 위에 나와 인류 앞에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혈족이 선생님 가정을 중심한 축복가정이었다. 축복가정은 선생님 가정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한다.”²⁹⁶⁾

“통일교회 7년 노정도 선생님을 중심삼은 것이 아니라구요. 어머니를 중심삼아 가지고 어머니를 완성시키는 노정입니다. 타락은 뭐냐? 아담이 해와를 주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한 아담에 의해 누구를 창조했느냐? 해와를 창조했으니 그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7년간입니다.”²⁹⁷⁾

8) 한학자 독생녀 사명 완수 여부

해와의 타락으로 아담은 창조 이상인 참가정을 이루어보지 못했고, 예수도 성혼 실패로 참가정을 이루어보지 못했다. 복귀섭리의 곡절과 하나님의 한을 너무나 절절히 알고 있었던 창시자는 복귀섭리를 완결해야 할 ‘재림주’로서, ‘참아버지’로서, 나아가 ‘참부모’로서 참가정을 반드시 이루어 지상천국의 출발점으로 삼

294) 창시자의 교시, 2009.10.15.

295) 『말씀선집』 159권 147쪽. 1968.3.7.

296) 『말씀선집』 30권 243쪽. 1970.3.24.

297) 『말씀선집』 68권 154쪽. 1973.7.29.

고자 했다. 그래서 참가정 완성은 창시자의 첫 소망이자 마지막 소망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창시자는 세 번째 독생녀 사명자였던 한학자가 독생자인 창시자에 절대복종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어 참여머니로서 참자녀를 잘 교육하여 참된 가정을 이루어 주길 기대했으나, 한학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창시자의 교시를 비롯한 많은 자료는 그녀가 복귀섭리 완성의 동반자로 선택되었으나 창시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불신했는지, 창시자가 교시해 온 통일원리와 전통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더구나 창시자와 통일운동 정체성의 뿌리와도 같은 참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해와가 주관성을 전도하여 아담 가정이 깨졌던 불행한 역사가 6천 년 복귀섭리를 종결해야 했던 창시자의 가정에서 2000년 초부터 재현되었다.

창시자는 한학자의 불신과 무책임을 여러 차례 질책하였고 교육했다. 그녀가 창시자의 아내로서, 참가정의 참여머니로서 완성하여 인류의 참여머니가 되기를 진심으로 창시자는 바랐다. 한학자의 실패는 참가정의 실패이며, 창시자를 중심한 복귀섭리의 실패가 되기 때문이었다.

비록 한학자와 독생녀론자들은 한학자의 종교적 위상을 창시자의 권위와 카리스마 위에 세우기 위해 한학자와 창시자가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막은 그것이 아니었다.²⁹⁸⁾

4. 만인 독생자·독생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해와와 이들의 사명을 대신하여 출현한 예수와 예수의 아내, 그리고 창시자와 창시자의 아내는 개성을 완성한 후 참된 가정을 이루고 참된 부모가 되어 참된 자녀와 후손을 번식하여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지상에 정착해야 할 인류의 독생자·독생녀, 참부부, 참부모의 모델이었다.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첫아들 독생자인 아담과 첫 딸 독생녀인 해와의 후손으로서 본연의 인간 책임을 다해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야 했던 3대축복을

298) 한학자의 책임분담 실패가 초래한 통일운동 분열의 내막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자의 책, 『통일교 분열과 생명나무』와 『통일교분열실록』 전집 11권을 참고하라.

이루고, 나아가 지상천국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 3대축복을 이룬 남성(남편)과 여성(아내)은 본연의 독생자·독생녀이다. 창시자도 독생자·독생녀의 이상은 아담과 해와, 예수와 예수의 아내, 재림주와 재림주의 아내만의 이상이 아니라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이루어야 할 보편적 이상이라고 교시하였다.

“여러분이 성자 해방권을 중심 삼고 예수가 독생자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로 독생자와 독생녀가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밖에 모른다.’ 할 수 있는 출발을 해야지 그 가외는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가정이라는 거예요.”²⁹⁹⁾

“예수교가 어떻게 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느냐? 이게 수 수계끼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러한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아 가지고 독생자와 독생녀를 삼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이예요. 이것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인류가 필시 소원하는 본분이라고 할진대는, 하나님이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와서 선포했고, 가르쳐 준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종교는 세계적 종교가 아닐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³⁰⁰⁾

“참된 인생길이 무엇이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참된 아들딸, 즉 독생자·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독생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³⁰¹⁾

299) 『말씀선집』 393권 83쪽. 2002.9.29.

300) 『말씀선집』 160권 273쪽. 1969.5.17.

301) 『말씀선집』 41권 201쪽. 1971.2.15.

제2절 한학자의 독생자·독생녀론

창시자의 아내이자 하늘부모님성회의 교주인 한학자는 자신을 독생녀로 규정한 채 통일원리와 다른 차원의 ‘독생녀론’을 주장하고 있다. 2013년 11월 21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공직자 총회에서 “아버님 말씀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될 존재는 3대가 독녀의 집안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라는 언급이 창시자 성화 후 한학자의 첫 독(생)녀 언급이지만, 창시자 타계 훨씬 전부터 한학자는 창시자의 교시와 다른 정체성을 주장했으며, 이는 창시자의 큰 고민이었다.³⁰²⁾ 그 후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과 관련한 언급은 점점 횡수가 많아졌고, 창시자의 교시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한학자의 독생자·독생녀 주장의 핵심은 “창시자는 타락 혈통의 유원죄로 탄생하여 16세에 독생자 입장이 된 존재이고, 한학자 자신은 복중에서 혈통이 복귀되어 순수한 혈통의 무원죄로 출생했으며, 한학자가 창시자와 혼인해 줌으로써 창시자의 혈통을 복귀해 주었다”로 요약된다.

결론적으로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 특히 그녀의 혈통 인식은 창시자의 혈통 인식과 완전히 다르다. 이는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이 통일운동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한학자의 정체성으로 변경되고 있는 하늘부모님성회를 창시자의 통일운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의 또 다른 종교로 보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일찍부터 독생녀론자들이 창시자의 혈통과 종교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학자를 신격화했던 정황이 창시자의 여러 교시와 문형진의 설교 등에서 파악된다.³⁰³⁾

302) <https://www.youtube.com/watch?v=MljXewZmlgc>. 문형진의 설교, 2015.3.15.

303) 『말씀선집』 608권 276-277쪽. 2009.2.27.; 608권 303쪽. 2009.2.28.

1. 독생녀 정체성의 배경: 한학자 하나님 부인론³⁰⁴⁾

한학자 신격화 작업의 문을 본격적으로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문형진이다. 문형진은 2010년 10월 18일 청평에서 일본 통일교회 목회자를 상대로 설교하는 중에 “마호메트는 부인이 11명이었고, 가장 어린 부인은 9살이었지만, 이슬람은 이것을 감추지 않는다. 물론교 교주도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두었는가. 아버님께서는 인류의 신랑으로 오셨다. ‘6 마리아’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창시자와 관련한 ‘6 마리아’는 통일교회 창립을 전후하여 창시자의 혈통 복귀행사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통일교의 혈통 복귀행사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통일교 용어이다.

문형진이 ‘6 마리아’를 언급한 배경은 2011년 4월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의 지시로 오택용이 미국 통일교의 축복가정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드러났다.³⁰⁵⁾ 교육 교재의 제목은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새로운 창조사〉였다.³⁰⁶⁾ 이 강의와 교재 안에 ‘6 마리아’의 섭리적 의의와 한학자가 ‘6 마리아’의 섭리적 사명을 모두 넘겨받아 완수했고, 창시자의 상대자로서, 딸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까지 어떻게 오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까지 올라 결국에는 승배 대상인 신이 되었는지를³⁰⁷⁾ 설명하고 있다.

오택용의 교육 내용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일교 기관지인 월간 『통일세계』에 연재된 오택용의 〈특별기고〉, 〈특별기획시리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³⁰⁸⁾ 이것은 2012년 1월에 발간된 『참어머님 생애노정』의³⁰⁹⁾ 한학자 신격화

304) 『통일교의 분열』 252-262쪽을 그대로 인용함.

305) 문형진과 한학자의 지시로 미국에서 했던 것과 같은 교육이 이미 2011년 2월에 유럽의 축복가정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에 앞서 2011년 1월 17일부터 4월까지 오택용과 용진현이 UCI와 문형진을 비난하는 세계 순회 교육을 한 바 있었다.

306) 오택용의 PPT 강의 〈True Parents' Life Course And History of New Creation〉.

307) 오택용은 “한학자가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 참아버님, 참어머님, 천주천지천지인참부모 삼위일체가 완성되고 한학자는 삼위일체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부인이 된 이후 하나님은 본체적 본체, 참부모님은 본체적 실체가 되어, 전체·전반·전권·전지·전능·절대·유일·불변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08) 『통일세계』 2010.1.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중심한 섭리 이해,” 72-82쪽.; 4월호: “아벨유

논리로 확장되었다. 『통일세계』 2010년 1월호에서 오택용이 말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에 관한 주장은 한학자 신격화 논리의 전제(前提)로 볼 수 있고, 6월호의 “하나님 창조목적의 완성”에 관한 주장은 그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월호에서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가 “남성격과 여성격의 관계로만 존재한다”라는 전제(前提)를 설정해 놓고, 남성격 주체인 하나님이 여성적인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한 입장의 한학자와 결혼함으로써 절대 성(性)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³¹⁰⁾ 창조목적의 완성이라는 결론(結論)을 유도하면서,³¹¹⁾ 한학자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신격화했다. 오택용은 창시자를 하나님의 체(體)로, 한학자를 하나님의 실체 신부로 주장했다.

하나님의 정자가 창시자를 통해 한학자의 자궁에 정착하는 것이 바로 절대 성(性)이라는 오택용의 주장은 비록 창시자의 교시에서 비롯된 듯 보이지만,³¹²⁾ 얼마 후 전개되는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과 신격화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오택용의 이 주장은 창시자의 종교적 가치를 낮춤으로써 한학자 신격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시자는 절대자에게 빌려준 몸으로 전략하고, 한학자는 창시자의 부인이 아닌 하나님의 부인이 되기 때문이다. 오택용의 주장과는 달리 『원리강론』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삼대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데 있었

엔 정착 대관식과 금혼식 및 승화축제의 의미,” 67-73쪽.; 5월호: “메시아 참부모 만왕의 왕과 나,” 62-75쪽.; 7월호: “천지인 참부모 정착 말씀 실체 선포대회,” 52-63쪽.

309) 『참어머님 생애노정』 (서울: 성화출판사, 2012).

310) 『통일세계』 2010.3. Vol. 465, 98쪽. “창조목적은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결혼해야 한다. … 2009년 6월 1일 이후 7년 노정의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 하나님의 구원 섭리 목적은 하나님의 정자 여행을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자가 지상에 착지할 기반을 만들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슬픈 구원 섭리역사다. 이제 그 한이 풀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은 참아버님의 체를 쓰고 실체 신부인 참어머님을 맞아 하나님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결혼식 직후부터 절대 성(性)이 출발한다. 절대 성(性) 완성은 하나님의 결혼식으로부터 출발한다.”

311) 『통일세계』 2010.6. Vol. 468, 72쪽.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체를 쓰고 해와를 아내로 맞아 ‘절대 성(性)’을 중심 삼고 첫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 성(性)’을 통해서 직접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입니다. … ‘아벨유엔 정착 대관식 금혼식 및 승화 축제’(2010.4.29-5.9)에서 금혼식은 참어머님을 하나님 부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거룩한 성혼예식이었습니다.”

312) 『말씀선집』 606권 256쪽. 2009.1.15.

던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³¹³⁾ 따라서 통일원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과 한학자의 결혼이 아니라 완성한 남성과 아버지를 대표한 창시자와 완성한 여성과 어머니를 대표한 한학자의 완성 축복결혼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자’에 대한 창시자의 교시는 일관되게 주장해 온 ‘참부모,’ ‘참가정’ 이상(理想)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오택용의 ‘하나님 부인론’이나 ‘절대 성(性)’ 등의 개념은 창시자의 종교적 가치나 통일운동의 정체성을 벗어나 있다. 따라서 오택용의 주장은 한학자 신격화를 위해 창시자 교시의 특정 개념을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통일세계』 2010년 6월호에서 오택용은 “절대자 하나님과 창시자, 그리고 한학자, 이 셋은 한학자의 자궁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³¹⁴⁾

“참어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셨고, 실체 하나님의 자리까지에 오르셨습니다. 참어머님의 완성의 결과는 정분합작용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실체적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일체가 되면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정분합작용에서 말하는 통일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참어머님의 자궁에서 하나가 됩니다. ... 완전한 자리에 오르신 참어머님은 (2008.5.14.)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전반·전권·전능의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그 결과 참아버님은 메시아에서 참부모로, 참부모에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아벨유엔정착 대관식 금혼식 및 승화 축제’(2010.4.29-5.9)에서 금혼식은 참어머님을 하나님 부인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거룩한 성혼예식이었습니다.”³¹⁵⁾

313) 『원리강론』 44쪽.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를 보시고 즐기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세계를 주관하라(창1:28)고 하신 삼대축복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14) 오택용의 한학자 자궁 내 삼위일체 주장은 2009년 1월 15일 오전 천정궁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서 “천지인부모 천주안식권에서 절대 성과 참아버님의 사랑의 정자와 참어머님의 자궁을 중심삼은 난자, 이 셋이 하나 되어서 참혈통권의 승리적 우주를 재창건할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재차 선포 선언하나이다. 아주!”라고 한 창시자의 언급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315) 『통일세계』 2010.5. Vol. 467, 71-72쪽. 문형진은 2011년 12월 4일 천복궁 일요일 예배 비디오 설교에서 “2012년 1월 28일(음력 1월 6일) 참부모님 탄신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은 하나님과 참어머님이 결혼하여, 참어머님이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위해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으로부터 건지기 힘든 수행을 받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 설교를 통해 한학자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결혼식과 하나님 부인이 되기 위한

오택용의 글에 언급된 “정분합작용,” “삼위일체”의 개념은 『원리강론』이나 창시자가 교시한 개념과 다르다. 『원리강론』에 따르면 정분합작용은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과정과 창조목적은 이루는 과정적인 현상이고, 정분합작용의 결과와 목적은 사위기대 완성이다.³¹⁶⁾ 정분합작용의 결과를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오택용은 통일교의 교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다. 원리강론의 창조원리에 의하면, “정분합작용(正分合作用)에 의하여 삼대상목적(三對象目的)을 이룬 사위기대(四位基臺)의 터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³¹⁷⁾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성신도 하나님의 이성성상(二性性相)으로부터 실체로 분립된 대상으로 서 가지고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合性一體化)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三位一體)이다”라고³¹⁸⁾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먼저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아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는 과정적 조건이며,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지 못한 삼위일체로는 결코 창조목적은 완성할 수 없다.³¹⁹⁾

더욱이 오택용은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참어머님의 자궁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절대 성(性)의 기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참어머니’(한학자)가 전체·전반·전권을 행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결과 창시자가 메시아에서 참부모로, 참부모에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한학자의 완성이 창시자 완성의 조건이고, 이는 “한학자가 창시자를 완성했다거나 한학자가 창시자의 혈통을 복귀했다”라는 독생녀 주장의³²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³²¹⁾

신부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택용은 강의에서 한학자가 책임을 다 완수하였고, 실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이미 2010년에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부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316) 『원리강론』 34쪽. “이와 같이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정(正)을 중심으로 이성(二性)의 실체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과 그리고 그의 합성체가 각각 삼대상목적을 완성하면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된다.”

317) 『원리강론』 33-35쪽.

318) 『원리강론』 237쪽.

319) 『원리강론』 238쪽.

320) 2016.12.25. 천정궁에서 가진 ‘17인 강현실 대책모임’의 한학자 발언.; 2016.12.30. 천정궁에서 갑자기 소집된 430가정 이상 원로여성 모임의 한학자 발언.

321) 오택용이 『통일세계』에 기고한 글의 결론은 “① 하나님의 아끼씨가 독생녀의 자궁에 안착해야 하나님이

그런데 오택용의 강의 주제였던 2011년 금혼식의 ‘한학자와 하나님 결혼식’은 결국 창시자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³²²⁾ 결국, 오택용이 ‘아벨유엔정착 대관식 금혼식 및 승화축제’(2010.4.29.-5.9.)에서 한학자가 하나님 부인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한 주장은 한학자 신격화를 위해 급조한 주장임이 증명되었다. 2011년 한학자의 ‘하나님 결혼식’이 수포(水泡)가 되자 문형진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2012년 1월 28일(음력 1월 6일), 창시자 부부 생일에 “하나님의 결혼식이며 완성급 성혼식인 ‘천지인참부모님 성혼식’을 지구성 최대의 축제로서 성대하게 거행할 것”이라고 선전했다.³²³⁾

계획을 연거푸 바꾸어 문형진의 통일교는 2012년 1월 23일 하나님 부인인 한학자와 ‘하나님’과의 결혼을 다시 기획했다.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2012년 1월 23일’에 맞추어 『참어머님 생애노정』이라는 책을³²⁴⁾ 발간하였다.

완성한다. ② 하나님은 지상에서 형상적 여성적 대상을 만나 결혼식을 해야 한다. ③ 결국, 하나님의 창조목적 완성은 피조 세계 전체를 대표한 한학자와 하나님이 혼인해야 완성된다. ④ 아버님 정자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머니의 자궁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의 완성이 없다”로 요약된다.

322) 『통일세계』 2011.4. Vol. 466, 71쪽. “이번에 거행된 금혼식은 참어머님이 실체 하나님의 위상을 갖고 거행하는 성혼예식이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실체 하나님 아버지의 위상을 지니신 참아버님과 실체 하나님 어머니의 위상을 지니신 참어머님의 성혼예식인 것이다”라고 한 오택용의 주장은 『참어머님 생애노정』 260쪽에 “참부모님의 성혼 50주년을 기념하는 금혼식은 단순한 금혼식이 아니었다. … 금혼식 이후 섭리의 목적과 방향은 참부모님의 완성적 성혼식인 2012년 ‘천지인참부모님 성혼식’을 향해 있다”로 수정 되었다.; 2011년 12월 4일 문형진은 천복궁 일요일 예배 비디오 설교에서 “2012년 1월 28일(음력 1월 6일) 참부모님 탄신일에 거행되는 결혼식은 하나님과 참어머님이 결혼하여, 참어머님이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행사이다. 이 행사를 위해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수행을 받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며, ‘한학자와 하나님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323) 『통일세계』 2012.4. Vol. 487, 29쪽. “기원절이 정말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초(2012년 1월 1일)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부모님의 성탄이요, 참어머님의 고하입니다. 또한 참부모님의 완성적 성혼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혼식입니다.”; 『통일세계』 2011.10. Vol. 482, 27쪽. “이제 기원절까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천기 3년 천력 1월 1일은 참부모님 양위분의 탄신일입니다. 특별히 내년은 참어머님께서 칠수를 맞으시는 섭리적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이날을 중시하고 참부모님께서는 성혼식을 다시 거행하십니다. 이 성혼식은 1960년, 2003년에 이은 3차의 성혼식이며 완성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천기 3년에 거행될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월 초하루 이날로부터 우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일 동안 다양한 탄신 경축 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제3의 성전이요 종교통일의 기반이며 아벨유엔 섭리를 완성시킬 성전인 천복궁에서 천복축제가 성대히 열리게 됩니다.”

324) 이 책 발행일이 석준호의 주장과 같이 한학자의 “하나님 부인 결혼식”인 2012년 1월 23일이라는 사실은 이 책이 기획된 의도가 “하나님 부인 결혼식,” 즉 한학자 신격화임을 알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석준호와 문형진은 하나님 부인 결혼식의 날짜(창시자의 생일)를 음력 1월 1일과 음력 1월 6일로 각기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석준호가 날짜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문형진이 발간사를 썼고, 석준호가 머리말을 썼다.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3장까지 기존에 발간된 『참부모님 생애노정』 등의 한학자에 대한 창시자의 언급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고, “제4장 천지부모님 성혼식과 천주평화연합 창설”과 “제5장 천정궁 입궁 대관식과 천지인참부모님 성혼식”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통일세계』에 연재한 오택용의 기고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³²⁵⁾ 책 전체의 논지는 한학자 신격화를³²⁶⁾ 구체화하고, 2011년에 이루지 못한 한학자의 ‘하나님 성혼식(결혼식)’을 집중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비록 창시자의 언급에서 신격화의 근거를 찾고 있지만, 통일교의 신학적 주요 개념을 왜곡하거나 비약하고 있다.³²⁷⁾ 2012년 1월 23일(음력 1월 1일)을 ‘하나님 성혼식’으로 예측함으로써 창시자의 인식이나 통일교의 역사 인식과 전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³²⁸⁾ 특히, 오택용의 『통일세계』 연재물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신격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창시자의 ‘말씀’은 전혀 신격화와 무관한 예도 있었다.³²⁹⁾

『참어머님 생애노정』을 통해 문형진과 통일교가 선전해온 2012년 1월 23일(음력 1월 1일) “하나님의 결혼식”도 불발되었다. 통일교는 모든 참석자에게 예복을 갖추게 하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청하여 예식을 준비한 채 그날 아침까지 이를 성사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창시자의 진노와 반대

325) 『참어머님 생애노정』 257-258쪽.; 『통일세계』 2010.1. Vol. 463, 78쪽. 오택용 기고문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중심한 섭리 이해”

326) 『참어머님 생애노정』 저자의 신격화 논리는 “참아버님의 완성 → 참부모 완성 → 참부모 일체 → 참부모는 하나님의 실체 → 참어머니도 하나님의 실체 → 참어머니와 하나님의 결혼식 → 참어머니는 하나님의 신부”로 확장되었고, 결국 독생녀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327) ‘실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창시자의 『말씀선집』 원문에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서 오택용만 이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체를 썼다,’ ‘하나님 부인’ 등과 같은 용어도 창시자의 『말씀선집』 전체에서 파악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념 조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28) 이 책 전체의 주제는 2012년 1월 23일 (천기 3년 1월 1일) ‘하나님 성혼식’으로 알려진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식’에 집중되어 있다. 저자는 이날을 한학자의 하나님 결혼일로 기정사실로 하여 한학자(참어머님)가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올라 실체 하나님의 자리를 완성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는 한학자 신격화의 공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혼식도 창시자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29) 오택용은 『참어머님 생애노정』 207쪽에서 “천지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결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말씀선집』 422권 274쪽을 제시하지만, 『말씀선집』 원문의 의미는 오택용의 주장과 무관하다.

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왜 창시자는 문형진과 오택용 그리고 한학자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하나님 결혼식을 반대했는가? 2012년 1월 23일 전후 창시자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부인론’을 앞세워 한학자와 문형진, 오택용 등이 창시자 몰래 하나님 결혼식을 은밀히 준비하던 2012년 1월 19일경 천정궁 혼독회 분위기는 심각하였다. 창시자는,

“어머님은 아버님과 다른 별개의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누시엘 보다도 더욱 무서운 존재이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이 녀석들...”

이라고 하며 한학자를 창시자 앞에 세우고, 그 뒤로는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 김효율 4명을 세운 채 창시자에게 절대복종을 맹세하는 의식을 시켰다고 한다. 한학자의 불순종을 창시자가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천지인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따로 놀다가는 망한다, 아버님이 불려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안주(어머님 고향)와 한 씨(어머님 성씨)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나를 무시하고, 너희 놈들이 나를 허재비 만들지 말라구!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너희 놈들(어머님을 추종하는 자녀님과 측근 간부 및 교회 지도자 지칭)도 다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나와 딴 길을 가고 있다. 이놈들!, 하늘 꼭대기(천지인 참부모)가 둘이 아니다, 어머니 마음이 아버님과 따로 논다, 아버님 모르는 어머니는 있을 수도 없다, 그 어머니를 따르는 놈들은 도깨비다. 이놈들!, 아버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다. 이놈들!, 하나님만이 외로운 아버님과 함께 있다. 아버님 주변에 아무도 없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기다려야지, 아버님이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다니!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너희 놈들! 누더기 쓰고 다니지 마라!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어머니가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다, 나는 지금 혼자야! 아들, 딸도 없어! 어머니도 따로 놀아! 어머니 따라다니는 이놈들! 효진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불쌍하다. 어머니는 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자기식대로 하느냐?’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늘로써 선포한다. 어머니는 이 시간 이후 아버님께 절대복종해야

한다.”³³⁰⁾

또,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천정궁 혼독회에서 창시자는

“한학자 어머니가 자기 조상이 문 총재 조상보다 더 낫다고 하고 있다. 어렵 없는 소리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힘없는 여자 식구들이고, 남자들(자식과 간부들)은 어머니를 따르면서 뭐든지 어머니와 의논하니 이게 교회 망치는 길이 었다. 교회 남자 놈들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의논하고, 어머니가 모든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아이들도 나 모르게 하는 것 있으면 다 걸린다구! 가서 똑똑히 전하라구!”³³¹⁾

라는 요지로 혼독회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한다. 또 문형진이 추진한 1월 24일 천복 축제에서 창시자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아버님께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결재를 득한 후에 어머니께 보고해야 한다. 이 일을 거꾸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알겠느냐? 왜 앞서 나가느냐? ...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자를 만들어 보지를 못했다. 문 총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야. 이 어머니가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못해,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똑같애, 성진이 어머니나 이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입니다.”³³²⁾

라고 말하며 한학자를 질타하였다. 창시자는 한학자가 창시자를 속이고 ‘하나님 결혼식’을 강행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한학자가 완성한 해와, 창시자의 참된 부인, 참자녀의 참된 어머니

330)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9033>. 2012년 1월 19일과 21일 혼독회 장면이 익명으로 공개되었지만, 작성자는 통일교 전직 공직자 K 씨였다. 2016년 9월 24일 필자는 창원에서 K 씨를 만났다. 그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S 씨의 목격담을 직접 들은 대로 인터넷 카페에 익명으로 공개하였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내리신 후 아버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를 탁상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아버님을 바라보고 서게 하신 다음 앞줄 의자에 앉아 있던 석준호, 윤정로, 황선조, 김효율, 4명을 나오게 하시어 어머니 뒤에 두 줄로 나란히 세우시고 혼독회에 참석한 모든 식구와 함께 손을 들어 절대복종을 맹세케 하시고, 어머니에게 재차 대답하라고 다그치자 ‘예!’라고 대답을 들으신 후 모두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게 하시어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시키시는 특별한 역사를 하시었다. 카메라, 녹음기 반입 금지인 데다가 기억의 한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참석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용 면에서 충실을 기했지만, 더 세밀한 것은 앞으로 평일기획의 동영상 자료나 역사편찬위원회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한 번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고도 계속 침묵을 지키다면 제2, 제3편을 공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2년 1월 30일.”

331) <https://youtu.be/RPpZWqVj62k>. 공개된 영상에는 이 장면이 삭제되어 있다.

332) <https://www.youtube.com/watch?v=nh-gwvR-U28>. 천복식 행사 2012.1.24.

입장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창시자는 한학자가 그토록 소망한 ‘하나님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³³³⁾

『참어머님 생애노정』이 목회학자 김항제와 문선영이 쓴 것으로 보이는 4개 논문을 부록으로 실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이 논문들이 “통일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³³⁴⁾ 전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논문의 내용과 그 이후에 전개된 한학자의 독생녀 주장, 그리고 한학자의 〈천일국 헌법〉³³⁵⁾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논문이 독생녀론이나 천일국 헌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논문들은 기독교 페미니즘 신학의 관점에서 통일원리를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들은 창시자의 정체성이나 통일운동의 교리, 전통 등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 여성주의(페미니즘) 신학자가 한학자 신격화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³³⁶⁾ 특히 “참어머니 하나님론,” “참부모 메시아론,” “참어머니 메시아론”에서 이 논문 저자(김항제, 문선영)는 통일교 교리로만 설명되는 용어와 개념을 기독교 신학과 통일원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용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지 전개는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참어머님 생애노정』의 재료가 된 오택용의 강의와 이 책 부록의 논문들은 독생녀론의 또 다른 재료가 되었고, 〈8대교재교본〉을 훼손하고 한학자 하늘부모님성회 경전인 〈천일국 3대 경전〉을 합리화하는 논거가 되었다.

333) 『말씀선집』 607권 310쪽. 2009.2.16.; 614권 28쪽. 2009.7.12.; 499권 235-236쪽. 2005.7.3.

334) 『참어머님 생애 노정』 284쪽. “부록에 수록된 논문은 선문대학교 김항제 교수와 문선영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통일교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기를 하였지만, 결국 이 논문들은 독생녀론의 씨앗이 되었다.

335) 2013년 7월 12일 ‘천일국헌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되었고, 천일국 헌법 전문에 명기된 ‘완전한 남녀평등을 추구하고’의 어구는 『참어머님 생애노정』 부록에 실린 논문의 영향으로 보인다. ‘남녀평등’은 국민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세부조항 중 부분 항목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전문에 포함한 것은 다소 어색하다. 그렇게 명시해놓은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그 앞에 ‘완전한’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보면, 창시자와 아무런 차등 없는 한학자의 ‘완전한’ 위상과 권한을 강변하면서, 본 헌법안 전반에 걸쳐 구체화 된 한학자의 절대 권력의 이념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안은 문제가 되었는지 삭제되었다.

336) 『말씀선집』 367권 275-276쪽. 2002.1.23.; 425권 137쪽. 2003.11.11. “여권시대라고 해서 여자들이 왕조라며 남편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왕권이 아니다. 하나님과 참부모가 세운 원리원칙에 의한 법을 따라가야 된다. 참어머님이 황적 동위권에 서더라도 주체인 참아버님 지도를 받는다”라고 교시하며 창시자는 페미니즘의 남녀평등 개념을 비판한 바 있다.

2. 한학자의 독생자·독생녀론

한학자는 창시자 타계 이후 현재까지 특정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며 창시자의 교시와 다른 독생녀 정체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창시자 타계 직후부터 ‘독(생)녀’ 언급을 처음 시작한 2013년 11월경까지 한학자의 설교는 주로 창시자와 일체를 이룬 창시자를 대신한 통일교 제2 교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한학자는 자신의 혈통이 창시자의 혈통보다 우수하고, 창시자는 타락한 혈통의 유원죄로 출생하였으며, 자신은 순혈 무원죄로 출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한학자가 창시자와 결혼해 줌으로써 혈통을 복귀해 주었고, 완성해주었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고, 2022년 4월, 창시자와 참가정의 권위를 완전히 말살하는 내용의 ‘참아버지 꼬리론’으로 이어졌다. 주목할 것은 2023년 9월 현재, 한학자는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과 종교적 권위를 파괴하는 독생녀론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아담과 해와

아담과 해와에 대한 한학자의 설교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다. 그녀는 “하나님은 원죄 없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통해 인간의 참부모가 되려고 하셨습니다.³³⁷⁾ 이들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한 길을 보고 완성한 자리에 나아가야 했다. 완성한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너희 부부가 참부모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입장에 서지 못함으로써 타락하였고, 혈통이 달라졌다”³³⁸⁾ 요약된다.

아담·해와에 대한 한학자의 이 단순한 교시가 창시자의 교시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아담과 해와가 창조된 순서와 타락의 동기와 과정, 아담이 해와를 교육하고 창조해야 했다는 점,³³⁹⁾ (해와 타락 후) 타락의 반대경로를 따라 아담이

337) 한학자의 설교, 2015.5.21.

338) 한학자의 설교, 2015.7.23.

339) 『말씀선집』 89권 313쪽. 1976.12.4.

해와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점, 후아담인 재림주가 재림주의 아내를 키우고 교육하여 재창조해야 한다는 점³⁴⁰⁾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 해와의 타락은 대상인 해와가 주체 아담의 주관성을 전도하였다는 점,³⁴¹⁾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야 했던 가정적인 사위기대,³⁴²⁾ 이것을 위한 해와의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을 일절 생략한 채 오로지 아담과 해와는 독생자독생녀로 창조되었음만을 강조하고 있다.³⁴³⁾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학자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무원죄 순혈 독생녀 주장과 차후 독생녀 신격화를 염두에 둔 것이며,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보인다.

2) 독생자 예수와 예수의 아내

아담·해와의 타락으로 아담을 대신하는 예수가 독생자로서 무원죄 순혈로 탄생하였고, 아담의 배필인 해와 같은 예수의 배필이 반드시 있어서 제2 축복을 완성해야 했다는 한학자의 주장은 창시자의 교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기필코 하나님은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은 외롭고 한 많은 슬픔의 탕감복귀섭리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 년이 걸렸을까요? 4천 년 만에 그렇게도 인류가 소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주변의 환경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사가랴 가정, 마리아가 하늘의 섭리를 몰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다시 와서는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양잔치! 이날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인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었더라면, 독생녀를 만나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와 그 주변의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 인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중심 한 하나의 세계,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340) 『말씀선집』 68권 154쪽. 1973.7.29.

341) 『말씀선집』 156권 221쪽. 1966.5.25.

342) 『원리강론』 44쪽, 54쪽.; 『평화신경』 27쪽.

343)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만 창조했던가요? 아담·해와입니다.” 한학자의 설교, 2014.7.1.

니다.”³⁴⁴⁾

예수와 예수의 아내에 대한 한학자 교시의 특징은 아담과 해와 타락 이후 하나님은 무원죄 순혈의 독생자만이 아니라 무원죄 순혈의 독생녀도 준비해 길러왔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³⁴⁵⁾ 점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학자는 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책임을 못 함으로써 예수가 “독생녀를 찾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³⁴⁶⁾ 마치 예수의 아내 사가랴의 딸이 출생해 있었지만,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는 성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독생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³⁴⁷⁾ 한학자의 이러한 태도는 혼란을 일으킨다. 창시자의 교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한학자는 다른 설교에서 “예수가 성혼을 못 해 독생녀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내가 될 여자가 존재했지만, 예수가 성혼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했기³⁴⁸⁾ 때문이다.

한학자의 설교대로 예수의 아내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인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예수는 원죄 있는 여자와 혼인을 요청했다는 말이고, 이는 원죄 없는 독생녀를 하나님이 길러왔다는 한학자와 김진춘의 주장을 모순에 빠뜨린다. 만약 원죄 없이 태어났다면, 창시자가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과는 달리 6,000년 만에 초림으로 독생녀로 태어났다는 한학자의 주장도 모순에 빠진다.

김진춘은 예수의 아내 될 한 여자(사가랴의 딸)가 태어났으나 혈통 복귀를 통해 원죄 없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독생녀가 아니었고, 결국

344) 한학자의 설교, 2017.4.12.

345)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4천 년 동안 탕감복귀해 나오시면서 타락하지 않았던 온전한 혈통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독생자만 창조해 나왔겠습니까? 독생녀를 창조해 나오셨습니까.” 한학자의 설교, 2014.6.14.; “하늘이 타락한 인류를 찾아 세우기 위한 노력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4,000년 동안 탕감복귀해 나오시면서 온전한 타락하지 않았던 온전한 혈통을 찾아 나오셨어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어, 그러면 하늘은 독생자만 창조해 나왔겠는가. 독생녀를 창조해 나오셨어요.” 한학자의 설교, 2014.5.17.

346) 한학자의 설교, 2014.12.20.; 2015.2.21.; 2015.8.29.; 2015.12.06.; 2016.5.7.; 2016.7.7.; 2016.7.16.; 2016.8.23.; 2016.10.6.; 2016.11.30.; 2016.12.4.; 2017.2.25.; 2017.3.29.

347) 한학자의 설교, 2017.3.29.; 2017.2.25.; 2017.3.29.; 2017.4.12.; 2017.4.30.; 2017.5.27.

348)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서너 번 당신이 결혼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환경권을 만들어드리지 못했고 그 책임을 못 했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한학자의 설교, 2016.10.4.

원죄 없는 예수는 원죄 없는 독생녀와 성혼할 수 없었다고 해석하여 한학자의 모순된 주장을 합리화하였다.³⁴⁹⁾

김진춘의 해석도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첫째, 마리아와 사가랴가 책임을 못 해서 예수가 성혼할 수 없었다는 말은 사가랴 딸의 복중 혈통 복귀의 책임이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에 있다는 말과 같다. 사가랴 딸의 원죄를 마리아와 사가랴의 책임을 통해 벗을 수 있다는 주장은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교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창시자는 예수의 아내 될 여자는 예수와 같은 혈통 복귀의 과정이 필요 없다고 교시하였다. 창시자의 교시는 하나님이 독생녀를 길러 온 것이 아니고, 독생녀의 혈통 복귀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 책임은 예수에게 있었다.

“이래서 혈통을 복귀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탄 세계의 혈통을 전환시켰습니다. 안 그래요? 혈통을 전환시킨 자리에 왔지만, 예수의 상대 될 수 있는 신부는 혈통 전환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³⁵⁰⁾

“후아담, 즉 복귀된 본연의 아담 예수가 나왔으니 복귀된 해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가 어떻게 나와야 하느냐? 창조원칙에 의해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지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해와가 태어나는 데는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해와가 종의 입장에 탕감복귀하려면 예수가 아담을 복귀 완성한 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³⁵¹⁾

둘째, 만약 예수의 아내 될 사가랴의 딸이 반드시 복중 혈통 복귀를 거쳐 무원죄로 출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원죄로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가 성혼할 수 없었다면, 예수는 태생적으로 제2 축복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라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물론, 한학자나 김진춘은 현재까지 이러한 모순과 의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어찌 되었건, 예수의 아내에 대한 한학자의 인식은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다. 한학자의 설교와 김진춘의 독생녀론 합리화 시도 전체를 고려할 때, 예수는 무원죄로 출생했고, 예수 아내 사가랴 딸은 유원죄로 출생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의

349)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017.2.17. 230쪽.

350) 『말씀선집』 140권 150쪽. 1986.2.9.

351) 『말씀선집』 38권 68-69쪽. 1971.1.1.

도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하나님에 의해 한학자는 무원죄 순혈로 출생했고, 창시자는 유원죄로 출생했음”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며, “예수가 예수의 아내를 재창조해야 했다”라거나 “예수가 예수 아내의 혈통을 복귀해야 했다”라는 창시자의 교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재림주와 재림주의 아내 독생녀

유원죄로 출생한 창시자

한학자는 예수 재림의 목적을 독생녀를 만나 어린양잔치 즉, 결혼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하며,³⁵²⁾ “창시자는 유원죄 타락 혈통으로 태어나 예수를 대신하여 독생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이고, 한학자 자신은 6천 년 만에 하늘이 준비하여 복중에서 혈통이 복귀되어 무원죄 순혈로 탄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녀가 창시자와 혼인해 줌으로써 창시자를 참아버지로 완성했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복중에서부터 3대 독녀 모계로 혈통을 전환하여 원죄를 청산하고 순혈로 탄생한 독생녀다. 그런데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아버님은 여러 형제를 두고 있다. 아버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면 그 형제들도 원죄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다.”³⁵³⁾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 받은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³⁵⁴⁾

“여기 앉은 참어머님은 6천 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다 증거가 있다. ... 혈통 전환, 나는 모태부터다. ... 아버지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다. 알았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2천 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신 역사이다. ...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가르쳐줬다. 참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천 년간의 시간을 보내서 하늘이 애타게 찾

352) 한학자의 설교, 2015.5.30.; 2015.8.29.; 2015.10.24.

353) 한학자의 설교, 2016.12.25.

354) 한학자의 설교, 2016.12.30.

오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여러분이 알았나? 몰랐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은 나를 만나 행운이다.

… 그리고 청평 일에 이려고 저러구 말하지 마라. 대모님의 특별권한이다. 이것은 하늘이 성별(聖別)해서 길러 나오는 독생녀 가문이야 알겠어? 판 분들은 아버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못 한다. 대모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육신을 빌려 일하는 훈모에 대하여 이려고 저러고 말하지 말라. 알겠나?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알겠나?”³⁵⁵⁾

가정연합이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을 주장하는 한학자의 설교 영상이나 설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진춘의 논문이나³⁵⁶⁾ 한학자의 설교를 들은 일부 원로들의 증언을³⁵⁷⁾ 통해 한학자 독생녀론의 핵심이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창시자가 유원죄로 출생하였다는 한학자의 주장은 한학자 독생녀 정체성의 핵심 내용이고, 창시자의 정체성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다. 또 이는 한학자의 하늘부모님성회를 창시자의 통일운동과 무관한 종교로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된다.

한학자의 설교를 합리화하기 위해 김진춘은 자신의 논문에서 창시자 스스로가 혈통적 정체성을 이중으로 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³⁵⁸⁾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시자는 아담과 예수 그리고 자신의 혈통적 정체성과 복귀의 원칙을 분명하고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교시해 왔다는 점에서도 한학자의 설교가 창시자의 교시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학자의 독생녀론에서 주목할 점은 16세에 예수로부터 구세의 사명을 부탁받았다는 창시자의 교시를 근거로 그녀가 창시자의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자격출발을 16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⁹⁾

독생자·독생녀는 원죄 없는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한학자의 주장을³⁶⁰⁾ 근거로 볼 때, 창시자가 16세에 독생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주장은

355) 한학자의 설교, 2014.7.1.

356)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42쪽.

357) 한학자의 설교, 2016.12.25.; 한학자의 설교, 2016.12.30. 430쌍 이상 축복가정 부인 모임.

358)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32쪽, 241-242쪽, 243쪽, 244쪽.

359) 한학자의 설교, 2016.6.5.; 2016.8.22.; 2016.10.4.

창시자는 출생 시 독생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비록 한학자가 2016년 12월 이후 2021년까지 공개적으로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16세에 독생자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반복적인 주장과 교육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듯 “창시자는 유원죄로 출생한 존재”임을 암시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독생자는 예수와 같이 복중 복귀를 통해 하늘 혈통의 순수한 무원죄로 출생해야 한다”라는 한학자의 주장은 창시자는 독생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며, 더구나 “아버지(창시자)는 독생자가 틀림없다”라고 주장하는 한학자의 발언도³⁶¹⁾ 모순이며³⁶²⁾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또 한학자는 자신과는 달리 16세에 사명자 출발을 한 창시자는 메시아의 사명을 출발하기 위하여 탕감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말하는 탕감은 창시자가 북한에서 감옥 생활한 것과 『원리원본』을 완성하는 것이었고, 그 과정은 독생녀를 만나 참부모가 되기 위한 필연적 탕감이었다는 것이다.

“재림메시아로서 출발하는 데 있어서 탕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북에서 감옥에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늘은 감옥으로써 끝나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죠. 이미 독생녀는 탄생했기 때문에 아버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군에 의해서 (아버님께서는) 남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산에서 아버님은 독생자로서 말씀을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독생자의 책임입니다. 그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반하에 1960년대 독생녀를 만나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³⁶³⁾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 할 독생녀의 성장 기간 시간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었어. 알겠어요? (예. 박수) 그때 아버님은 남한에 계셨어요. 가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늘은 이북으로 가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흥남 감옥에

360) 한학자의 설교, 2014.5.17.; 2015.8.19.; 2016.6.14.; 2018.3.16.

361)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내가 밝히지만, 아버님은 독생자가 틀림없습니다.” 한학자의 설교, 2017.10.25.

362) 한학자가 독생자·독생녀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복중 혈통 복귀 후 출생”을 김진춘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한학자의 주장이 모순인 이유는 그녀의 주장이 통일원리나 창시자의 교시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며, 한학자가 논리적 체계 없이 독생녀 정체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모순된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합리화하려는 김진춘의 노력은 결국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363) 한학자의 설교, 2016.10.4.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유엔군에 의해서 남하하게 되셨잖아요.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님이 16세에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다시 오마한 소원은 뭐예요.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 알겠어요? (예)”³⁶⁴⁾

1946년 5월 27일 하늘의 계시에 따라 가족을 떠나 평양행을 선택했던 창시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학자의 주장은 창시자의 섭리 인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창시자는 하늘의 계시에 따라 최선길 여사와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 성진이 태어난 상황이었다. 창시자의 북한행이 독생녀 한학자를 만나기 위한 재림주 사명자의 탕감이 동기였다면 최선길 여사와의 결혼이나 성진의 출생 등은 하늘의 섭리와 무관한 창시자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⁶⁵⁾ 물론 한학자의 이 주장도 창시자의 인식과 완전히 다르다.

뿐만이 아니라 창시자가 부산에서 『원리원본』을 완성한 사건을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탕감조건이라고 한학자가 주장한 것도 창시자를 중심한 복귀섭리 노정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원죄 순혈 출생의 한학자 독생녀

한학자는 창시자가 유원죄 타락한 혈통으로 태어난 것과는 달리 자신은 예수와 같이 복중 혈통 복귀 과정을 거쳐 순혈 무원죄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님이 아담·해와 타락 이후 예수를 준비해 온 것과 같이 예수의 아내도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을 거쳐 준비해 왔으나,³⁶⁶⁾ 예수가 아내를 만날 수 없는 환경(혈통이 복귀된 여자가 부존재, 남녀 불평등의 시대)이었고,³⁶⁷⁾ 어린양잔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재림의 시기에 복중에서 혈통이 복귀되어 원죄가 없는 독생녀가 탄생해야 했는데 탄생하지 못했다.³⁶⁸⁾ 그래서 6,000년간 하나님이 따

364) 한학자의 설교, 2023.6.28.

365) 한학자의 설교, 2016.12.30.

366) 한학자의 설교, 2014.5.17.

367) 한학자의 설교, 2015.2.21.; 2016.5.7.; 2016.7.16.; 2016.8.19.; 2016.10.6.; 2016.10.4.; 2016.10.22.; 2016.12.16.; 2017.1.6.; 2017.2.5.; 2017.2.23.; 2017.2.25.; 2017.4.12.; 2017.4.30.

368) “탕감복귀섭리 노정에서 찾아야 할 인간의 책임은 참부모가 되는 자리야. 독생자 한자리 가지고는 안 돼. 사탄과 관계없는 독생녀의 자리가 있어야 돼. 4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탕감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듯이 나 역시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 한학자의 설교, 2016.2.24.; “나는 6천 년 만에

로 길러온³⁶⁹⁾ 독생녀가 있었으니 바로 그 독생녀가 한학자 자신”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혈통적 정체성과 관련한 한학자의 이러한 인식은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다.

첫째, 예수의 아내가 될 여자는 예수와 같이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을 통해 출생해야 했던 것처럼 재림주의 아내도 무원죄로 출생해야 한다는 한학자 주장의 근거는 기독교 성경을 포함, 〈8대교재교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 아내 후보자의 혈통과 관련한 창시자의 교시도 한학자의 주장과 다르다.

특히 창시자가 교시한 예수 아내의 조건은 ‘사가랴 집안의 딸’이라는³⁷⁰⁾ 정도였고, 그 여자는 “혈통 전환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³⁷¹⁾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해와를 대신한 예수 아내의 출생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³⁷²⁾ 해와를 찾아 그녀를 교육하고 혈통을 복귀하여³⁷³⁾ 완성하는 것은 마리아와 사가랴 집안 그리고 예수의 책임이었다.³⁷⁴⁾

따라서 복중 혈통 복귀를 예수의 아내가 될 여자가 갖추어야 할 혈통적 조건이라고 한 한학자의 주장은 통일원리나 창시자의 교시와 무관하다. 예수는 사가랴의 딸 중 하나를 아내로 맞아 그녀를 교육하고 혈통을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한 해와로 재창조해야 했다.

둘째, 한학자는 “하나님이 재림주의 아내가 될 독생녀를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을 통해 따로 길러 왔”으며 그녀 자신이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독생녀라고 주장한다.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6천 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야.”; 한학자의 설교, 2015.10.6. “하늘은 6천 년간의 기나긴 섭리역사 가운데 한민족을 통해서 독생녀 하나님의 딸 원죄와 상관없는 독생녀를 찾으셨습니다.” 한학자의 설교, 2016.10.5.; “하늘의 숨은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나는 자신 있게 말해. 나는 독생녀야.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 역사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상.” 한학자의 설교, 2016.11.18.

369) “하나님은 4천 년 만에 독생자는 찾아 세웠지만 독생녀는 찾아 세우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독생녀를 보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녀를 따로 길러 나오셨다.” 한학자의 설교, 2014.7.1.; 『참부모경』 1.1.2:8.

370) 『말씀선집』 277권 208쪽. 1996.4.16.

371) 『말씀선집』 140권 150쪽. 1986.2.9.

372) 『말씀선집』 52권 178쪽. 1971.12.29.

373) 『말씀선집』 347권 172쪽. 2001.7.4.

374) 『말씀선집』 17권 190쪽. 1966.12.18.

한학자의 이 주장은 우선 통일원리의 예정론과 다르다. 아담과 해와의 실수로 시작된 복귀섭리에서 예수를 대신한 창시자가 제2 축복 완성을 위해 아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림주인 창시자는 첫째 아내인 최선길과 혼인을 하였고, 그녀가 실패하자 김명희가 필요했고, 김명희의 실패로 한학자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예수의 아내나 재림주의 아내는 절대 예정의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해 예수와 예수의 아내가 책임을 다하여 성혼하였더라면 재림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재림주의 아내는 절대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학자의 책임분담 실패에 대해 창시자는 그녀와 이혼을 언급한 적도 있다.³⁷⁵⁾ 한학자가 책임을 못 하면 다른 ‘어머니 사망자’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예수 아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의 아내가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을 통해 출생해야 한다는 근거는 오로지 한학자의 주장뿐이며 창시자의 <8대교재교본>에는 없다. 재림주인 창시자는 한학자 이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독생녀 예비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두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하늘이 유일하게 한학자를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독생녀로 준비했다면 한학자 출생 당시, 재림주인 창시자의 아내로 선택된 최선길과 김명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 사건은 부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책임 실패는 유일한 독생녀 한학자를 위해 절대 예정된 사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언급과 완전히 충돌한다. 창시자는 만약 최선길과 김명희가 책임을 다했다면, 재림주 아내로서 한학자의 자리는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따라서 하늘이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독생녀 한학자를 준비하고 예정했다는 한학자의 주장은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다.³⁷⁶⁾

한학자는 자신의 독생녀 정체성이 창시자의 삶과 교시와 충돌하자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³⁷⁷⁾ 창시자의 통일원리 전체를 부인했고, 자신의 독생녀 정체성이 창시자의 교시와 다름을 인정하였다.

375) 『말씀선집』 479권 156-157쪽. 2004.12.4.; 문형진의 설교, 2015.3.15.

376) 『말씀선집』 272권 23쪽. 1995.8.30.

377) 한학자의 설교, 2016.12.30.

셋째, 한학자는 조모(祖母) 조원모, 모(母) 홍순애 그리고 한학자 3대에 걸친 모계의 종교적 혈통 내력을 자신의 복중 혈통 복귀와 무원죄 출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창시자는 한학자와 성혼 후 한학자에게 참여머니 가치를 교육하며 홍순애와 조원모의 종교적 삶과 관련하여 한학자의 출생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한학자가 혈통 복귀를 통해 무원죄로 출생했음을 언급한 바는 없다.

재림주 아내로서 책임에 실패했기 때문에 최선길에 대해 그리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창시자는 최선길과의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에 의한 결혼이었고,³⁷⁸⁾ 최선길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참여머니, 즉 독생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³⁷⁹⁾ 다시 말해 한학자의 등장은 절대 예정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한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창시자와 처음으로 결혼한 최선길은 독생녀 후보자였기 때문에 그녀도 무원죄 순혈이어야 마땅하다.³⁸⁰⁾

3. 독생녀론의 주요 내용

1) 이원론적 하늘부모님론

종교가 비종교 집단과 구별되는 현상 중 하나는 ‘숭배’ 대상의 유무이다. 숭배 대상은 인간과 구별되는 초자연적 존재나 절대적 존재를 의미하며, 특정 종교 신념 체계의 동기이다. ‘숭배’는 숭배 대상에 대한 예배, 찬송, 기도 등의 의례를 포함하여 숭배 대상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통일운동 창시자는 절대자와 관계 맺음을 종교적 숭배행위가 아니라 “절대자를 인간의 부모로 모시며 절대자 자녀로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의 행위로 규정”하였다.³⁸¹⁾

통일운동 창시자가 교시해 온 절대적 존재는 인간의 근원적 존재인 부모로서의 ‘하나님’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남성적 주체로 정의되는³⁸²⁾ 일원

378) 『말씀선집』 49권 154쪽. 1971.10.9.

379) 『말씀선집』 272권 23쪽. 1995.8.30.

380) 『말씀선집』 608권 86쪽. 2009.2.20.

381) 『말씀선집』 356권 202쪽. 2001.10.16.

론적 존재이다. 창시자는 절대자의 ‘어머니’ 속성을 비중 있게 교시한 바 있지만,³⁸³⁾ 절대자를 ‘아버지’로³⁸⁴⁾ 불렀다.

“하나님의 성상은 남자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여자적인 어머니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남자와 여자의 이성(二性)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³⁸⁵⁾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입니다.」 뭣이야? 하나님은 혼자…. 박정민인지 무슨 정민인지 둘이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어머니하고 두 분입니다.」 그게 둘인가 하나지. 두 성품이 들어가 있지. 그 박정민이 양심 있어, 없어? 「있어요.」 몸통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둘인데 합해 가지고 박정민이 여자 하나예요. 성품은 둘이 있지만 체(體)는 남성적 주체로 계신다 이거예요.

그 남성적 주체라는 게 뭣이야? 여성적 주체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여성적 주체가 있으면 또 다른 남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원론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원론에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일원론이 되려니 이 남성 여성의 중화체(中和體)로서 주체적인 성품을 가진 남성형으로 계신다 이거예요.”³⁸⁶⁾

창시자의 교시에 의하면 생물학적 남자는 하나님의 본양성을 대표하고, 생물학적 여자는 하나님의 본음성을 대표한다.³⁸⁷⁾ 모든 존재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나

382) 『원리강론』 27쪽.

383) “하나님의 성상은 남자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여자적인 어머니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남자와 여자의 이성(二性)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원본)『천성경』 1114쪽.; 『말씀선집』 114권 13쪽. 1981.5.14.; 118권 33쪽. 1982.4.26.; 창시자의 교시 중 “하나님 어머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무형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로 분립 되어 현현하였을 때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된다”라고 교시하였다. 이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실체화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된다는 교시이다.; “종횡이 갖추어지는 자리에서 인간과 아담·해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 종적인 아버지요, 아담·해와는 몸의 아버지인 동시에 횡적인 어머니예요.” 『말씀선집』 148권 39쪽. 1986.10.4.

384)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주체(男性格 主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불러 그 격위(格位)를 표시하는 것이다.” 『원리강론』 27쪽.;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 닮았다고요? 원리에서 누구 닮았다고 그랬나요? 「우리 인간」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뭐라고요? 「중화적 주체」 중화적 주체로 계시면서 격위(格位)는 남성격이다 이겁니다.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요.」 남성이라면 어떤 남성이예요? 왜 남성이예요? 왜 남성격이라고 그래요? 「…」 거 왜 남성격이라 했냐구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 거 말 잘했어요. 주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176권 304쪽. 1988.5.13.

385) (원본) 『천성경』 1114쪽.; 『말씀선집』 114권 13쪽. 1981.5.14.; 118권 33쪽. 1982.4.26.

386) 『말씀선집』 182권 63쪽. 1988.10.14.

개념인 성상은 절대적 존재의 본성상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존재의 유형적인 질료나 물질적 특성은 절대적 존재의 본형상에서 비롯되었다.³⁸⁸⁾ 창시자는 절대자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논증 가능하다고 보았고, 통일원리의 창조론과 통일사상의 원상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교시하였다.

그런데 한학자는 2013년 1월, 통일원리의 절대적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부모님’이라고 선언하였다.³⁸⁹⁾ 비록 창시자가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의 부모,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완전한 중화적 존재로 교시해 왔지만, 숭배 대상으로서의 절대적 존재는 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었다. 절대자의 명칭 변경이 충분한 합리화 없이 창시자 타계 직후 한학자에 의해 간단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논란 속에서 하늘부모님성회 소속 학자들은 이를 논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⁹⁰⁾

2018년 2월부터 한학자는 절대적 존재를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자 남성적 주체인 (일원론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각각 존재한다”라고 교시하기 시작하였다. 창시자의 교시로 볼 때 한학자가 정의한 “하늘부모님”은 이원론적 존재이다.³⁹¹⁾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보아 인간 세계를 보아, 남성적인 주체가 아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셔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³⁹²⁾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이

387) 『말씀선집』 13권 67쪽. 1963.10.17.

388)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은 본성상(本性相), 본형상(本形狀)이라고도 하며 이 양자를 합하여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성상은 피조물의 무형적, 기능적 측면의 근본 원인이며 본형상은 피조물의 유형적, 질료적 측면의 근본 원인이다.” 『통일사상』 39쪽.

389) <https://youtu.be/-kGVXJQu8a8>.

390) 주재완, “하나님 참부모론,” 2017 천일국 학술원 국제 심포지엄, 172-176쪽.; “참부모 하나님론,” 2018 천일국 학술원 국제 심포지엄, 211-212쪽.; 조응태, 『하늘부모님 성화의 역사』 (평택: 우리출판 기획사업부, 2021); 김민지, “가부장제의 위기와 참가정사상에 대한 연구” 『통일사상연구』 Vol. 9, 2016. 161-184쪽.

391) 철학자들이 말하는 일원론과 이원론의 다양한 개념과는 별도로 창시자가 말하는 일원론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하나라는 의미이며, 이원론은 창조주가 둘이라는 의미이다.

392) 한학자의 설교, 2018.2.21.

십니다.”³⁹³⁾

“하나님의 창조를 놓고 볼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1남 1녀 창조하셨어요. 창조! 탄생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놓고는 아버지만이 못 만들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표현은 원리강론에서도 그래요. 중화적 존재! 그러나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만 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나나요? 어머니가 없으면 태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축복가정이니까 아기를 가졌을 거예요. 남자가 아무리 정자를 가지고 있어도 난자를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간단한 원리를 놓고 2천 년 동안 기독교 섭리는 허상입니다. 성부·성자·성신만 해도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굳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자면 성부가 있으면 성모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일체는 창조목적을 이룬 참부모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내가 발표했습니다.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습니다.)”³⁹⁴⁾

한학자는 절대자의 명칭이나 속성 변경의 심오한 종교적 이유나 배경 설명 없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일원론적인 ‘하나님’과 이원론적인 ‘하늘부모님’의 차이는 창시자가 교시한 통일원리 근본에³⁹⁵⁾ 대한 논쟁과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원론적 하늘부모님에 대한 한학자의 설교는 통일원리와 달라서 한학자의 하늘부모님성회가 창시자의 통일운동과 다른 정체성의 신종교 현상으로 파악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³⁹⁶⁾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하늘부모님

한학자는 아담·해와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원죄 없는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통해 인간의 참부모가 되려고 하셨다.”³⁹⁷⁾ 이들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한 길을 보고 완성한 자리에 나아가야 했다. 완성한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너희 부부가 참부모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입장

393) 한학자의 설교, 2018.2.23.

394) 한학자의 설교, 2018.9.15.

395) 『말씀선집』 182권 63쪽. 1988.10.14.

396) 2023년 5월, 독생녀론 논쟁을 위해 발간된 『독생녀 신학 연구』를 분석해 보니 한학자가 절대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보이고, 하나님 어머니 실체가 한학자라는 주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397) 한학자의 설교, 2015.5.21.

에 서지 못함으로써 타락하였고, 혈통이 달라졌다”라는³⁹⁸⁾ 주장만을 반복한다.

한학자의 설교 전체를 통틀어 아담과 해와의 주체-대상 관계, 아담과 해와가 창조된 순서와 타락의 동기와 과정, 아담이 해와를 창조하고 교육해야 했다는 점,³⁹⁹⁾ (해와의 타락 후) 타락의 반대경로를 따라 아담이 해와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 아내의 원리적 관계나 후아담인 재림주가 재림주의 아내를 키우고 교육하여 재창조해야 한다는 점⁴⁰⁰⁾ 등에 대한 언급 또한 한학자의 독생녀론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의 창조원리적 질서와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주체인 남편과 대상인 아내의 원리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주체-대상 인식은 철저하여 자식(인류)은 부모(하나님)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는 통일교인들이 한학자에게 절대복종해야 하는 근거이다.

또 해와의 타락은 대상인 해와가 주체 아담의 주관성을 전도하였다는 점,⁴⁰¹⁾ 아담과 해와가 이루어야 했던 가정적인 사위기대,⁴⁰²⁾ 이것을 위한 해와의 책임 등에 대한 언급도 일절 한학자의 독생녀론에서는 생략되어 있고, 오로지 아담과 해와는 독생자·독생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만 강조된다.⁴⁰³⁾

한학자의 이러한 태도는 무원죄 순혈 출생과 독생녀 신격화를 염두에 둔 교리적 전제였고, 창시자가 평생 설파해 온 통일원리에 대한 반발이었으며, 문선영과 김항제가 주장한 여성주의(페미니즘) 신학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398) 한학자의 설교, 2015.7.23.

399) 『말씀선집』 89권 313쪽. 1976.12.4.; 231권 295쪽. 1992.6.7.; 405권 209쪽. 2003.2.11.

400) 『말씀선집』 68권 154쪽. 1973.7.29.; “선생님은 개인 복귀노정을 거쳐 60년대부터 성혼식을 중심 삼고 가정복귀의 터전을 닦아왔습니다. 예수가 가정, 즉 해와를 길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어머니를 길러야 했습니다.” 『말씀선집』 39권 105쪽. 1971.1.10.; “선생님은 하늘 앞에 세워져 가지고 당감복귀의 길을 다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가졌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재창조해야 됩니다. 창조 복귀하는 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선집』 74권 256쪽. 1974.12.31.; “그래 가지고 결혼해서 어머니를 내가 길러 온 거예요. 나이 어린 어머니를 전부 재창조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이중으로 해 나온 거예요.” 『말씀선집』 90권 127쪽. 1976.10.21.

401) 『말씀선집』 156권 221쪽. 1966.5.25.; 68권 154쪽. 1973.7.29.

402) 『원리강론』 44쪽.; 54쪽.; 『평화신경』 27쪽.

403)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만 창조했던가요? 아담·해와입니다.” 한학자의 설교, 2014.7.1.

3) “독생녀 탄생이 없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다”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함으로써 해와의 타락을 탕감하고 창시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 참가정 완성을 위해 책임 다하기를 소망했던 창시자는 한학자의 무지와 불신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하고 질책했다. 창시자는 자기 연민과 자기 숭배에 빠진 한학자를 향해 최선길과 김명희가 사명을 다했다면 한학자는 참여머니가 될 수 없었으며,⁴⁰⁴⁾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는 완성 못 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도 교시했다.⁴⁰⁵⁾ 어머니를 숭배하는 것은 원리를 벗어난 것이며,⁴⁰⁶⁾ 재림주가 할 수 있는 일을 한학자는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⁴⁰⁷⁾ 창시자는 성화 직전까지 한학자에게 3% 책임이 남아 있고, 아버지가 주체이자 중심이니⁴⁰⁸⁾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교시했다.⁴⁰⁹⁾

그러나 창시자의 교시와는 달리 한학자는 스스로를 6천 년 만에 초립한 하나님에 예정하신 유일한 독생녀이며, 독생녀 탄생이 없으면 메시아가 올 수 없고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면 독생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재림메시아가 독생녀(한학자)를 탄생시키는 것도 아니며, 메시아 후보자는 많았는데,⁴¹⁰⁾ 한학자가 창시자를 선택해 결혼해 줌으로써 창시자를 독생자 참여아버지로 완성시켜 주었으니 구원을 주는 메시아는 독생녀 한학자라고 주장하였다. 창시자가 책임을 다 못해 이상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러나 2천 년 전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의 어린양잔치할 상대자를 찾아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을 통한, 기독교 기반을 통한, 하나님이 과거 2천 년 전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하셨듯이, 6천 년 만에 ‘내 딸이다’ 할 수 있는 독생녀가 탄생됐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⁴¹¹⁾

404) 『말씀선집』 272권 23쪽. 1995.8.30.; 『말씀선집』 357권 27쪽. 2001.10.25.

405) 『말씀선집』 491권 247쪽. 2005.3.22.

406) 『말씀선집』 489권 27-29쪽. 2005.2.25.

407) 『말씀선집』 573권 52쪽. 2007.8.21.

408) 『말씀선집』 295권 158쪽. 1998.8.19.

409) 『말씀선집』 295권 158쪽. 1998.8.19.

410) 원로 목사 김명대 독생녀론 강의(전남 화순 통일교회), 2012.11.27

411) 한학자의 설교, 2018.11.11.

“나는 6천 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6천 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야.”⁴¹²⁾

“6천 년 탕감복귀섭리의 말미에 독생녀 참여머니가 탄생이 된 것은 인류 앞에 마지막입니다.”⁴¹³⁾

“메시아는 2천 년 전에 왔었고 재림메시아는 메시아의 책임을 하는 입장이라면 독생녀는 6천 년 만에 탄생된 초림이야.”⁴¹⁴⁾

“하나님은 4천 년 만에 독생자는 찾아 세웠지만 독생녀는 찾아 세우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독생녀를 보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녀를 따로 길러 나오셨다.”⁴¹⁵⁾

“2천 년 만에 ‘다시 오마!’한 그 재림메시아를 맞기 위한 중심은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이 없는데 메시아는 올 수 없어요. 통일교 50년 역사! 기독교의 환경권이 받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면을 교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고 유럽선교 50주년, 그때 가서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독생녀다!’ 유럽 UN에 가서 말했어요.”⁴¹⁶⁾

“과거 예수님이 ‘다시 오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메시아의 자격 중에 제1은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에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면 아버님은 독생자는 아니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⁴¹⁷⁾

“독생녀 없이 재림메시아 완성 못 한다. 독생녀 만나서 참부모자리로 나갔다. 이제 여러분들은 독생녀에 대해서 100% 믿나?”⁴¹⁸⁾

“재림메시아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게 아닙니다.”⁴¹⁹⁾

“그러나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한 면만 바라봤습니다. 종교의 완성도 인간의 완성도 우주의 어머니, 참여머니, 독생녀를 맞지 못하면 타락한 인류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⁴²⁰⁾

412) 한학자의 설교, 2015.10.6.

413) 한학자의 설교, 2018.3.2.

414) 한학자의 설교, 2019.11.13.

415) 한학자의 설교, 2014.7.1.

416) 한학자의 설교, 2017.12.21.

417) 한학자의 설교, 2018.9.15.

418) 한학자의 설교, 2018.8.14.

419) 한학자의 설교, 2018.9.15.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느니라.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를 인정 안 하고 어머니 말을 거역하게 되면 탄생이 안 되잖아. 응? 마지막이야.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⁴²¹⁾

“특히 참여머님을 부정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어머니를 통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인침을 받지 않고는 하늘부모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누가 용서할 수 있어?”⁴²²⁾

“아버님은 책임을 못 하고 가셨다. 지상에서 말씀만 선포하셨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다. 참자녀들이 나에게 못 오는 것은 아버님 책임이다. 여러분은 이제 이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도 두지 말라.… 불교의 미륵도, 기독교의 재림주도 여성이다. 1960년 내가 참부모의 자리에 오르기도 6천 년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질까 봐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아 왔다.”⁴²³⁾

“아버님 성화 후에 기원절 선포는 누가 했나? 독생녀 참여머니가 천일국 원년을 선포했다. 그리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나 효진이나 흥진이나 부모님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자로서 일하고 있다 하는 영통 한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 독생녀를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⁴²⁴⁾

“메시아의 책임을 진 사람은 독생녀를 만나야 돼. 독생녀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한 판단으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통일교 60년 역사를 보면 내가 집어서 말 안 해도 알 거야. 아버님 성화 후 천일국은 누가 열었나? 아버님이 천상에 가기 전에 나에게 할 말은 ‘고맙소’였다. 참부모는 영원해. 이것을 바로 정리 못하시고 가신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이상한 아들이 나왔어. 앞으로 섭리의 완성의 모델은 독생녀 참여머니다. 알겠나?”⁴²⁵⁾

4)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다!”

창시자는 1960년 한학자와의 성혼 이후 1968년 ‘하나님의 날’을 선포할 때까지 ‘7년 노정’을 비롯하여 창시자 전 생애에 걸쳐 섭리 기반이 단계적으로 발전

420) 한학자의 설교, 2018.2.21.

421) 한학자의 설교, 2018.9.15.

422) 한학자의 설교, 2018.3.1.

423) 한학자의 설교, 2020.6.1.

424) 한학자의 설교, 2020.10.11.

425) 한학자의 설교, 2020.11.11.

하는 과정에서 한학자를 ‘가정적 어머니’에서 ‘천주적 어머니’의 위상까지 재창조하는 노력을 하였다.⁴²⁶⁾ 아담을 믿지 못하고 주관성 전도로 타락한 해와를 탕감 복귀하기 위해 후해와의 입장에 있었던 한학자가 맡은 가장 큰 책임분담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하고 창시자와 완전히 하나 되어 참자녀와 함께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창시자가 한학자와 비밀 약속까지 하며 성화 직전까지 한학자의 책임 완수를 고대했는데, 한학자에게 남은 마지막 3%의 책임은 한학자가 창시자와 하나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자신보다 23살이나 어린 딸 같은 소녀를 아내로 맞았던 이유였고, 한평생 한학자를 교육하며 정성을 쏟은 이유였다. 그러나 한학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복종하겠다는 비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를 보라구요. 어머니를 이 자리까지 모시기 위해 내가 얼마나 땀 흘리 녹았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이라구요. 우리 내외간이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 이면에는 복잡다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없었으면 선생님이 어머니와 만날 수가 없어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 어머니가 될 사람은 20대가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18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세를 하루라도 거치면, 만으로 넘어서면 안 돼요. …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3년을 거쳐 19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장하는 대로 선생님이 따라가면 다 망쳐 버려요. …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⁴²⁷⁾

창시자의 교시와 심우옥의 증언 그리고 한학자의 언행 등을 고려해 볼 때 한학자는 환갑(2003년)을 전후하여 창시자가 교시한 복귀섭리의 원칙과 창시자와의 관계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 같은 한학자를 교육해 온 과정과 방법을 창시자가 여자(한학자)를 무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심지어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속였다고 창시자에게 항의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회가 안팎이 하나 안 됐어요. 어머니 하나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운하게

426) 『말씀선집』 30권 243쪽. 1970.3.24.; 68권 154쪽. 1973.7.29.; 159권 147쪽. 1968.3.7.; 316권 135-136쪽. 2000.2.21.; 325권 149쪽. 2000.6.30.; 405권 16-17쪽. 2003.2.28.; 447권 64쪽. 2004.4.29.; 『참부모님생애노정』 제4권 53-54쪽.; 제10권 122-127쪽.

427) 『말씀선집』 231권 23-24쪽. 1992.5.31.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 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말하면, 눈을 이렇게 높이 떠요. 자기 눈이 올라가려고 그래요.”⁴²⁸⁾

결국, 창시자가 성화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학자는 자신의 독생녀 정체성을 주장하며 참아버지와 참어머니의 관계, 주체와 대상의 관계, 그리고 해와의 타락성을 탕감해야 하는 섭리적 책임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독생자독생녀는 동등해,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심한 거야. 그렇게 되게 환경이 나를 도왔다면 대모님인 유모야...”⁴²⁹⁾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혼돈이 있을 수 없고 결가지가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길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나왔어요. 나는 하늘부모님의 딸로 태어났고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원리라든가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필코 하늘 부모님의 꿈! 이루어 드리겠다 생각했어요.”⁴³⁰⁾

5) “아버지는 기원절 6개월 전에 성화하셔야 했다”

한학자는 창시자를 유원죄로 출생한 여러 독생자 후보 중 한 명으로서 16세에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아 독생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6천 년 만에 초림으로 태어난 독생녀가 창시자의 원죄를 복귀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해 복귀섭리의 주체는 재림주인 창시자가 아니라 한학자 자신이라는 말이다. 이는 창시자가 교시해 온 복귀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이다.

창시자는 한학자를 만나기 전 자기(창시자) 중심한 판단으로 일을 벌여서는 안 되었다는 말에서부터,⁴³¹⁾ 창시자가 기원절 6개월 전에 성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원절을 독생녀가 선포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달리 말한다

428) 『말씀선집』 597권 163쪽. 2008.9.9.

429) 한학자의 설교, 2014.10.27.

430) 한학자의 설교, 2018.3.16.

431) 이 말은 창시자가 최선길과 성훈해 문성진을 출산한 일 등을 의미한다.

면 한학자가 기원절을 선포해야 하는 하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창시자는 기원절 전에 반드시 영계에 가야 했다는 말이다. 물론 한학자의 인식은 창시자의 섭리적 인식이나 “아버지 없이 기원절을 봉헌할 수 없다”라는 창시자의 교시와 완전히 다르다.⁴³²⁾

“분봉왕이 되든 무엇이 되든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체가 합해서 어머니를 중심삼고 절대복종할 수 있는 한 몸 돼 가지고 그다음에는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어머니 혼자 못 바쳐요. 그걸 부모님이 받아 가지고 부모님 것으로서 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요. ... 바쳐드려야 할 것이 2013년 1월 13일이예요. 13년 1월 13일 그렇지요? (예) 그때는 그래야 돼요. 바쳐드려야 돼요. 바친 다음에는 없어요. 대통령이고 무엇이고 그때 직위가 하늘나라의 직위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때 직위는 하늘나라에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에서 새 출발이예요.”⁴³³⁾

“아버님 말씀을 놓고도 그래. 이거 못해놓으면 후대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돼. 다. 기원절 선포를 6개월 앞두고 아버님이 성화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나? 새 시대 새 역사는 누가 선포했나? 이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선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놓고 정선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느니라.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를 인정 안 하고 어머니 말을 거역하게 되면 탄생이 안 되잖아. 응? 마지막이야.”⁴³⁴⁾

6) “불교의 미륵불도, 기독교의 재림주도 여성이다”

한학자는 창시자가 책임을 다 못하고 성화하였고, 참자녀들이 독생녀를 몰라보는 것조차 창시자의 잘못이며, 불교의 미륵불도, 기독교의 재림주도 여성인 ‘독생녀 한학자’라고 주장하였다.

“아버님은 책임을 못하고 가셨다. 지상에서 말씀만 선포하셨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다. 참자녀들이 나에게 못 오는 것은 아버님 책임이다. 여러분은 이제 이

432) 『말씀선집』 561권 230쪽. 2007.4.26.

433) 『말씀선집』 561권 230쪽. 2007.4.26.

434) 한학자의 설교, 2019.9.15.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도 두지 말아라. ... 불교의 미륵도, 기독교의 재림주도 여성이다. 1960년 내가 참부모의 자리에 오르기도 6천 년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질까 봐,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아 왔다.”⁴³⁵⁾

7) 아버님은 사탄 참소 조건의 꼬리를 갖고 있다!

한학자는 2022년 4월 17일 청평 월드센타에 전 세계 하늘부모님성회 공직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프랑스식 디저트를 해 먹이며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창시자가 사탄의 참소 조건으로 영계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참소 조건은 한학자 자신을 만나기 전 최성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것임을 암시했다. 그리고 창시자를 해방하기 위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가 천일성전을 봉헌하기 전에(어-허-) 세상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참부모 가정에 일어난 결과를 놓고 볼 때 참 하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참부모로서, 많은 축복가정을 탄생시키는 참부모로서 이상하게 꼬리를 달고 가는 일이 왜 생겼을까? 그래서 이번 2일간에 특별 정성을 들이면서(음성이 높아지심) 아버님을 해방해 드립니다.(네- 박수)

그래야만 돼!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천일국 안착과 더불어서 이제 주권복귀, 세계복귀를 해 나가는 노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따라다녀서는 안 돼!

여러분들의 정성이 영계에서 지상에서 조건을 세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사하시어 잘못된(? 생략하심) 바로 잡아서 하늘부모님 본래 창조 이상 그 자리로, 실현하시는 그 자리로, 서실 수 있는 참아버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탄의 참소 조건을 받지 않는 참 아버님이 되도록 정성을 들여서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박수-) ... 이제 여러분들이 이틀간 천심원에서 모든(것을) 회개(해결?)를 보고 완전히 참아버지를 해방시켜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이틀간 교육을 잘 받으세요. (네-) 전체 선교본부도 총동원돼서 교육 받아야 될 거야.”

창시자와 한학자의 어린양잔치 이전에 있었던 창시자의 종교적 사건, 특히 창

435) 한학자의 설교, 2020.6.1.

시자와 최선길의 성혼 등을 인간적으로 이해한 한학자의 이날 언급이 처음은 아니었지만,⁴³⁶⁾ “꼬리를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창시자의 섭리적 위상을 조롱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한학자의 이날 지시에 따라 2022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김진춘의 교육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김진춘은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 특강에서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혈통 복귀를 위한 창시자의 섭리적 행보를 사탄의 참소 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김진춘의 이날 강의는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의 최종 결론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진춘은 강의를 통해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창시자의 삶 전체를 부정하여 통일교인들과 창시자를 완전히 이간하고 한학자 독생녀가 만든 종교, 즉 하늘부도님성회의 교리적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2019년 7월 서울 한 식당에서 전 세계일보 기자였던 남창룡이 필자에게 전해준 이야기를⁴³⁷⁾ 통해 한학자와 김진춘의 ‘꼬리론’ 발언의 최종 목표가 창시자의 종교적 권위와 참가정의 섭리적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세속 세계의 반통일운동 집단까지 끌어들이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4. 한학자의 독생녀 관련 주요 발언

2012.9.19. 한학자는 문형진이 아니라 자신이 통일교를 통치한다고 선언하였다. 창시자를 완성한 장본인은 한학자 자신이라고 천명하였다.

2013.1.1. 한학자는 남자(아버지)보다 여자(어머니)가 낫다고 말했다.

2013.1.14. 한학자 자신이 탕감을 줄여 준다고 말했다.

2013.1.21. “나는 낮의 하나님 위치에 있다.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2013.4.15. “이제는 음의 시대가 드러나는 때야. 여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때가 됐어”

436) 한학자의 설교, 2020.11.11. “하늘의 섭리는 지상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독생자의 사명을 하실 분은 재림메시아. 그렇다면 메시아의 책임을 가지신 분은 독생녀를 만나야 돼. 독생녀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한 판단으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통일교회 6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누누이 집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알 거야.”

437) 남창룡은 전직 공중파 방송국 PD로부터 한학자의 지시로 당시 실세 윤O와 선문대 퇴직교수 최O와 함께 창시자의 종교적 행위를 세속적 관점에서 폭로하는 다큐멘타리를 기획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3.6.10. (개정) 『천성경』, 『평화경』 출판 기념식이 있었다.

2013.8.15. “내가 그랬어요. 탕감복귀섭리역사는 내가 종료시켰어요.”

2013.11.15. “어머니는 위대하다. … 위대한 어머니가 더 많으면 좋겠나? 몇 있는 아버지가 많으면 좋겠나? 아버지 침팬지는 자기 살겠다고 새끼를 희생시키지만, 어머니 침팬지는 자신을 희생해 아들을 살린다. 어머니는 강하다. 위대하다.”

2013.11.21. “아버님 말씀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될 존재는 3대가 독녀의 집안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대모님도, 나도 독녀입니다.”

2013.12.1. 한학자는 조한준 설화를 언급했다. “천자 대신에 천녀, 딸을 보내주마”

2013.12.3. “아버님 혼자 재림메시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성 한 분 가지고는 안 돼”

2014.5.17. “독생자가 탄생 되면서 섭리역사가 독생녀와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기독교의 2천 년 섭리역사는 뭐냐? 신부 찾아 나오는 종교입니다.”

2014.6.14. “하늘은 독생자만 창조해 나왔겠는가. 독생녀를 창조해 나오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 신부를 찾아 나온 역사였다.”

2014.6.22. “하늘은 독생자만 가지고는 안돼. 독생녀. 독생녀를 길러 찾아 나오시는 섭리역사가 6000년. 알아요? 역사상에 독생자는 남아 있는데 독생녀는 없어. 기독교 섭리역사는 신부 찾아 나오는 역사라고 그랬죠? 독생녀를 찾아 길러 나오는 섭리역사다. 결국은 내가 못 하면 아버님도 완성 못 해. 참어머니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탄생될 수가 없어.”

2014.7.1. “독생자가 있으면 독생녀도 있어야 한다. 참어머니는 6천 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혈통 전환 나는 모태부터다. 아버님은 예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독생자의 자격이다.”

2014.9.12. “나는 하늘부모의 보호권에서 자란 자야. 모태부터 타락한 인간 들하고는 분리됐어. 나한테 누가 원리 말씀 하나 안 해줘도 나는 내 스스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간다. 이것(타락의 혈통을 벗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야. 독생녀 밖에 못 해. 아버님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스위치(혈통 전환) 된 거야.”

2014.10.27. “대모님 역사는 아무나 못 합니다. 하늘이 길러온 가정이고, 독

생녀를 탄생시킨 특별한 가문입니다.”

2014.11.20.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신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다.”

2014.12.12. “참어머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본류를 타지 못한 사람이고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2014.12.20. “2천 년 기독교 섭리역사는 독생녀 찾아 나오는 섭리역사야.”

2015.2.21. 한학자는 독생녀를 비판하는 문형진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2015.5.10. “학은 장생 동물이며 욕심내지 않는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실제 하지 않는다.”

2015.8.29. “하나님의 창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암술과 수술, 남자와 여자 인데 독생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생녀를 탄생시켜야 했는데 그 책임을 못 했어요”

2015.10.9. “2천 년 기독교 섭리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역사이기도 하다.”

2015.12.6. “내가 말했듯이 기독교 2천 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라는 것을 말했어요. 독생녀는 사탄 세계에서 분별한 하나님의 딸로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리가 나왔습니다.”

2016.2.13. “2천 년 기독교 섭리역사는 독생녀를 준비하는 섭리역사였습니다.”

2016.2.24. “아버님께서는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독생자의 자리를 인계받으셨어.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면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재림메시아가 되는 것 아니야. 책임 있어. 책임분담.”

2016.3.17. 김진춘은 “참부모님의 성혼과 독생녀”라는 논문에서 한학자는 무원죄 순혈 독생녀 출생, 창시자는 유원죄 타락 혈통으로 출생했음을 주장했다.

2016.4.21. “육천 년 만에 1960년 당신이 찾아 세우신 독생자 독생녀로 참부모님의 이름이 지상에 탄생되었습니다.”

2016.5.7. “이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고대하던 6천 년 만에 독생녀를 찾으셨습니다.”

2016.6.5. “4천 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길러 나오셨듯이 독생녀 기반을 닦아 나오는 한 민족을 택해 세우셨습니다.”

2016.7.7. “독생녀 탄생은 6000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부모로 탄생시킨 거야.”

2016.8.22. 문예진은 논문, “양성평등 회복의 필요성-하나님을 ‘하늘 아버지’ 이자 ‘하늘 어머니’로 이해하기”에서 창시자의 『원리강론』을 비판하였다.

2016.8.23. “참부모님이 지상에 재세 시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탕감... 탕감 아십니까?”

2016.10.4. 창시자가 한학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학자가 탕감복귀를 거친 창시자를 선택해 독생자로 만들어주었으며 참부모가 되게 만들었다고 한학자가 주장했다.

2016.10.5. 한학자 자신은 6천 년 만에 무원죄로 출생한 독생녀이며 섭리를 최종 완성한다고 주장했다.

2016.10.6. “하늘은 6천 년이라는 기나긴 섭리역사 가운데 이 한민족을 통하여 독생녀, 하나님의 딸, 원죄와 상관없는 독생녀를 찾았다.”

2016.10.10. “2천 년 후에 6천 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야”

2016.10.22.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의 위상은 오직 한때 한 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금 현재 ‘참부모’뿐입니다.”

2016.11.30. “기독교 2000년 섭리역사는 독생녀 자리를 만들어 나온 섭리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12.4. “하나님은 하늘부모이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아니다. 독생녀는 독생자의 아내”

2016.12.25. “아버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버님이 원죄 없이 출생하셨다면 그 형제자매들도 그럴 것이 아닌가”

2016.12.29. 유경석은 한학자의 25일 발언을 부인(否認)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6.12.30.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 받은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2017.1.3. “기독교 섭리역사는 어린양잔치를 위한 상대자, 독생자 앞에 독생

녀를 찾아 나온 섭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시는 재림메시아의 환경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독생녀 기반을 위해서 이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2017.1.6. “섭리역사! 2000년 기독교 섭리는 독생녀를 준비해 나오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역사입니다. 하늘은 그때 탄생하지 못했던, 그때 찾지 못했던 독생녀 기반을 닦아 나오는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이 한국입니다!”

2017.2.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어요. 다시 와서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다시 오실 때 ‘독생녀를 만나 참부모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2017.2.7. 김진춘은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라는 논문에서 독생녀인 한학자는 무원죄, 순혈로 출생했고, 독생자인 창시자는 유원죄, 타락한 혈통으로 출생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7.2.25. “독생녀는 6천 년 만에 하늘이 탄생시켰고, 독생녀가 참부모로서 하늘부모의 꿈, 인류의 소원을 참부모로서 이루어내겠다.”

2017.3.29. 김진춘은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이라는 자료집을 공개하였다. 이 자료집에서 창시자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언급만 있고 2016년 3월 17일 논문과는 달리 유원죄 출생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생략되었다.

2017.3.29. “독생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고, 창시자는 재림메시아의 사명을 인계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했다. 독생녀를 만나 성혼하는 자리가 완성한 독생자 참부모가 되는 자리였다.”

2017.4.12.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사람은 예수와 독생녀뿐”

2017.5.6. “그러나 하늘은 독생녀 기반을 찾을 수 있는 한민족을 택하셔서 모든 탕감조건을 벗고 원죄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독생녀를 찾았습니다.”

2017.5.14. “오늘날에 예수님이 바라시고 만나야 할 독생녀, 독생녀를 탄생시킨 대모님은 책임을 했습니다.”

2017.5.27. “인류 역사 가운데 4천 년 만에 하늘이 독생자를 찾으셨고, 6천 년 만에 찾은 사람이 독생녀, 나야!”

2017.6.19.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왜 나는 이북에서 내려오게 하고 아버님은 이북으로 가라고 하셨겠어요? 아버님은 왜 이북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요? 아버님은 소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버님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독생자의 자격을 갖추 수 있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나의 경우에는 날 때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2017.6.30. “오늘날의 인류 역사는 참부모를 만나야 되는데 참부모 만나기 전에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2017.7.15. “아시아에 한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독교 기반을 중심하고 1943년에 독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2017.7.17. “모든 면에서 독생녀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2017.9.9. “새로운 진실(독생녀 출현) 앞에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2017.11.4. “1960년에 이미 섭리를 다 알았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 가정연합은 저녁의 시대였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독생녀가 출현했음을 세상에 당당히 알려야 한다.”

2017.9.23. “내가 지상에 없으면 축복해 줄 사람이 없다.”

2017.10.15. “기독교의 본질은 독생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017.10.25. “내 탄생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을 알아요.”

2017.11.4. “이제는 더 이상 저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독생녀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2017.11.11. “나는 여러분들과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아담·해와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일문일답했어요. 내 탄생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2017.11.16. “독생녀의 출현은 하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역사이다. 이것이 ‘하늘섭리로 본 인류 역사의 진실’이다.”

2017.11.23. “그동안 통일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환경을 갖추지 못해서 독생녀 출현을 말 못 하고 기다려 나왔다. 밝혀야 할 말씀을 밝히지 못했다. 나, 독생녀로 말미암아 책임 다 할 기회가 왔다. 독생녀를 중심으로 나간다.”

2017.12.15. “인류는 벼랑 끝에 와 있다. 그들에게 구세주는 독생녀 ‘나’이다. 순결한 지도자는 나를 알아본다.”

2017.12.21. “재림메시아를 맞기 위한 중심은 독생녀 탄생이다. 독생녀 탄생

이 없는데 메시아는 올 수 없다.”

2018.1.5. “여러분들이 독생녀 진리를 알리지 않고 있을 때 나는 내 스스로 내가 독생녀라고 외쳤다. 미국 성직자들은 이 소식에 환호하였다.”

2018.1.20. “세상에서도 어머니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못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우주의 참여머니다!”

2018.2.21. “창조주 하나님은 남성적인 주체가 아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셔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종교의 완성도 인간의 완성도 우주의 어머니, 참여머니, 독생녀를 맞지 못하면 타락한 인류로서 구원이 없다.”

2018.2.23.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2018.2.24. “나는 2천 년 전에 모시지 못했던 독생녀이다. 나는 과학자들에게 나는 우주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다.

2018.2.28. “독생녀에 의해 성약시대가 시작되었고, 독생녀가 기원절을 선포하였다.”

2018.3.1. “나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주의 어머니야. 독생녀를 부정하면 용서가 없다. 참부모 제세 시에 후계자는 없다. 참부모를 중심한 하나의 세계야. 영원히.”

2018.3.2. “6천 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는 인류의 마지막 독생녀이다. 더 이상 참부모도 없다.”

2018.3.16. “성약시대는 과거이다. 지금은 독생녀가 선포한 천일국 시대이다. 후계자는 없다. 나는 하늘부모님의 딸로 태어나 성장했다. 아무도 나에게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생물의 탄생은 남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야. 탄생시킬 수 있는 분은 어머니야.”

2018.4.29. “다시 오마 한 재림메시아는 1960년에 독생녀를 만나 참부모 자리에 올랐습니다.”

2018.6.22. “하늘이 보우하사 제가 1943년에 태어났어요. 기독교 배경에 3대가 독실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많은 증거와 사실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천 년 만에 하늘이 찾으신 독생녀로 탄생 되었다는 말입니다.”

2018.8.14. “독생녀를 더 알려라. 참자녀가 독생녀를 모르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다. 독생녀 없이 재림메시아 완성 못 한다. 나이 든 2세 중 독생녀를 거

역하는 회색분자를 찾아 용서하지 말라. 독생녀를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독생녀와 하나 안되면 천국 못 간다. 너희에겐 독생녀 밖에 없다.”

2018.9.5. “독생녀가 탄생되어야 재림주가 행동 개시한다.”

2019.4.20. “아버님은 독생자 자리에 나가기 위해 이복으로 가는 책임을 했다.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 말씀을 찾고 신도를 찾아야 한다. 나는 태어나면서 섭리를 알았다. 내가 아니면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 채워진 단추를 풀기까지 50년이 걸렸다. 2대, 3대, 대를 이어 독생녀에게 충성하라.”

2019.7.15.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2019.7.25. “아버님이 이복으로 간 것은 절대복종 독생자가 되는 과정이다. 독생자는 아니다.(독생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원리를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원리강론 후반 재림론은 참부모론으로 바뀌야 한다. 창조원리도 수정해야 한다. 다시 오마한 재림메시아 앞에 독생녀가 나타나야 한다. 여자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여자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섭리 완성이 될 수가 없다. 섭리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시작한다. 참자녀가 독생녀를 몰라 보는 것이 부끄럽다. 참부모는 영원히 한 분이다.”

2019.8.10. “독생녀가 와야 재림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야. 독생녀가 나타나야 독생자가 책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기원전 천일국은 독생녀가 열었다. 독생녀와 하나 되는 사람이 승리자다. 나는 독생녀 참여머니 우주의 어머니이다.”

2019.8.19. “창조원리에 하늘부모님을 드러내야 한다. 후반 재림론은 참부모론으로 변경해야 한다. (독생녀를 모르는) 2대권은 지나가 버렸다. 3대권을 직접 지도 교육해서 중심인물로 세울 것이다. 책임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독생녀와 하나 되라.”

2019.8.29. “통일교 원로들은 남성 중심이다. 창조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독생녀는 모든 탕감을 벗어난 자리에서 완전히 원죄가 없는 하늘부모님의 딸로 태어났다. 이것에 이의를 달아서 안 된다.”

2019.9.1. “4년 전 내가 독생녀라 주장할 때 여러분은 믿지 않았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나?”

2019.9.15. “나는 독생녀로 탄생했다. 원리강론은 하나님을 중화적 존재, 아

버지로 표현한다. 아버지만으로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는다. 정자만 갖고 난자 없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2천 년 기독교의 허상이다. 성부가 있으면 성모가 있다. 아버님은 타락을 벗어나지 못한 자리에서 탄생했다. 예수님에 의해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아버지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면 독생자가 아니다. 재림메시아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 알았지만,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아 나온 것이다. 기원전 선포 6개월 전에 아버님이 성화한 이유를 알겠나? 새 시대는 누가 선포했나?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2019.11.13. “지금부터 신학자들은 독생녀를 연구하라. 재림메시아는 메시아 책임을 하는 입장이고, 독생녀는 6천 년 만에 초림으로 탄생했다. 신학자들은 독생녀 참여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하늘의 섭리 완성을 위해 노력함을 당당히 증거하라. 두고 보겠다.”

2019.11.22. “인류 역사의 종교, 기독교 문화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타락한 인류로서는 하늘부모님 앞에 나갈 수 없다.”

2019.11.28.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아버지께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둘지 모르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몸입니다. 독생녀 우주의 어머니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길은 하늘부모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12.28. “나는 하늘의 섭리를 알았기에 다시 오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사명을 갖고 오신 문선명과 1960년에 성혼을 했습니다.”

2019.12.29. “독생자 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섭리의 완성을 보고 새 시대를 연 사람은 독생녀, 참여머니이다.”

2020.1.30. “나는 3대, 4대, 5대 내려가도 영원한 왕엄마이다.”

2020.2.15. 한학자는 문용현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재림주가 무슨 재림주예요. 그게 무슨 재림주예요. 시골의 ... 골목길의 골목대장도 못 되는데 무슨 재림주예요. 충모님 그만치 대접했으면 됐지. 무슨 충모님이야.”

2020.2.18.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6천 년 만에 독생녀 참여머니로 탄생한 섭리의 마지막 완성을 보는 이 순간 이 자리는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야 돼. 무조건 겸손해야 돼. 그 길만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와 같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마지막으로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줘. 알겠나!”

2020.2.18. “내가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이야. 미래가 없어. 나는 그게 두렵고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마음, 한 뜻, 한 형제야 알겠나?”

2020.4.1. “더 이상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이 아닌 하늘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트 처치(Heavenly Parents Church)’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각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세요!”

2020.5.8.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 (헤븐리 페어런트 홀리 커뮤니티).”

2020.6.1. “아버님은 책임을 못 하고 가셨다. 지상에서 말씀만 선포하셨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다. 참자녀들이 나에게 못 오는 것은 아버님 책임이다. 여러분은 이제 이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도 두지 말라... 불교의 미륵도, 기독교의 재림주도 여성이다. 1960년 내가 참부모의 자리에 오르기도 6천 년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질까 봐 내가 말하지 않고 참아 왔다.”

2020.10.11. “아버님 성화 후에 기원절 선포는 누가 했나? 독생녀 참여머니가 천일국 원년을 선포했다. 그리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나 효진이나 흥진이나 부모님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자로서 일하고 있다 하는 영통을 한다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 독생녀를 거역하면 용서가 없다.”

2020.11.11. “메시아의 책임을 진 사람은 독생녀를 만나야 돼. 독생녀 만나기 전에 자기 중심한 판단으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통일교 60년 역사를 보면 내가 집어서 말 안 해도 알 거야. 아버님 성화 후 천일국은 누가 열었나? 아버님이 천상에 가기 전에 나에게 할 말은 ‘고맙소’였다. 참부모는 영원해. 이것을 바로 정리 못 하시고 가신 분이 아버님이기 때문에 이상한 아들이 나왔어. 앞으로 섭리 완성의 모델은 독생녀 참여머니이다. 알겠나?”

2022.4.17. “그래서 내가 천일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세상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참부모 가정에 일어난 결과를 놓고 볼 때 참 하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참부모로서, 많은 축복가정을 탄생시키는 참부모로서 이상하게 꼬리를 달고 가는 일이 왜 생겼을까? 그래서 이번 2일간에 특별정성을 들이면서 아버님을 해방해 드립시다. 그래야만 돼!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천일국 안착과 더불어서 이제 주권 복귀, 세계복귀를 해 나가는 노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따라 다녀서는 안 돼! 여러분의 정성이 영계에서 지

상에서 조건을 세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사하시어 잘못된, 바로 잡아서 하늘부모님 본래 창조 이상 그 자리로, 실현하시는 그 자리로, 서실 수 있는 참 아버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탄의 참소 조건을 받지 않는 참 아버님이 되도록 정성을 들여서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5.18. “창조주의 본질은 하늘부모님이야. 생명의 원천은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이 돼. 남성은 0.001% 어머니는 99.999% 하늘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는 하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어. 원리강론에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야. 이것 아니야. 그것 바로잡아야 해.”

2023.5.23. “(아버님은) 예수님의 소명을 받아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한 재림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할 분입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3절 김진춘의 독생자·독생녀론

김진춘은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논증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 자료집이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진춘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철저히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신격화하고 독생녀론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글에 드러난 핵심 내용과 논지는 한학자의 독생녀론과 거의 일치한다. 주목할 부분은 한학자 독생녀론의 근거를 한학자와 창시자의 교시에서 찾으면서도 서로 모순일 경우 창시자의 교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춘이 비록 물리학자이지만 창시자가 교시한 통일원리와 ‘말씀’을 평생 연구했기 때문에 창시자의 ‘말씀’ 외에는 독생녀론을 논증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한학자의 설교만을 근거로 논증할 수는 없으니, 창시자의 교시와 ‘말씀’을 불가피하게 왜곡해서라도 이용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창시자의 교시로 독생녀론을 논증하려고 한 김진춘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통일원리와 복귀원리 전체에서 파악되는 독생녀 관련 창시자의 교시가 한학자의 “독생녀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17일 천일국 지도자 총회 특강에서 김진춘은 “참부모님 생애: 참어머님의 성혼과 독생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녀를 독생녀라고 주장하며 한학자를 신격화하였다. 한학자는 재림주의 아내로 예정되어 3대에 걸쳐 복중 복귀를 통해 순혈 무원죄로 탄생한 독생녀이며,⁴³⁸⁾ 개성을 완성했고,⁴³⁹⁾ 재림주와 성혼

438) 김진춘, “참부모님 생애: 참어머님의 성혼과 독생녀,” 15쪽. 김진춘은 한학자의 무원죄 출생 주장의 근거로 창시자가 언급한, “그러면 재림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재림시대는 완성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

하여 참부모가 되어 최종적으로 ‘천지인참부모’가 됨으로써 완성·완결·완료하였다고 김진춘은 주장하였다.

김진춘의 발표에서 한학자 무원죄 출생의 전제로 제시한 “또, 참부모는 반드시 원죄와 상관없는 자리에서 탕감과정을 거친 터전 위에서 탄생한다. (22-240, 69.5.4.)”의 원문은 김진춘의 의도와는 달리 한학자 무원죄의 근거와 무관하다. 김진춘은 “참부모는 사탄 세계의 혈통과 관계없다. 참부모도 타락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복귀할 수 없다(610권 09.4.10.)⁴⁴⁰⁾”라고 주장하며, 한학자 무원죄 출생의 근거로 제시한 원문도⁴⁴¹⁾ 김진춘의 의도와는 무관해 보인다. 즉, 이 원문의 ‘참부모’는 한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시자만을 의미하고 있다. 창시자의 『말씀선집』을 왜곡하거나 특정 내용만을 활용하는 김진춘의 태도는 한학자의 무원죄 출생을 증명하기 위한 김진춘의 불순한 의도를 폭로한다.

한학자가 2016년 12월, 430가정 이상 원로 부인 식구를 초청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창시자의 유원죄 타락 혈통을 언급한 직후인 2017년 2월 7일, 김진춘은 효정학술원 창립총회에서 논문,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2016년 3월에 발표한 자료를 논문 형식으로 재가공한 것으로서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가장 공들여 설명했다. 특히, 김진춘이 “창시자는 유원죄, 타락한 혈통으로 출생했으며 한학자와 성혼함으로써 완성하였다”라고 주장한 점에서 이전 자료집과 큰 차이가 있다.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2017년 4월, 김진춘이 창시자의 유원죄 타락 혈통을 기정사실로 하여 강의하자 현장 교구장들이 반발하였다.⁴⁴²⁾ 이를 반영하여 김진춘

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부, 즉 그 어머니는 어떠한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타락한 세계의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35권 217쪽. 1970.10.19.”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39) 김진춘, “참부모님 생애: 참어머니의 성혼과 독생녀,” 18쪽, 44쪽.

440) 김진춘은 독생녀론을 논증하기 위해 특이한 방법으로 창시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창시자의 『말씀선집』의 권수와 날짜만 제시하고 정확한 쪽수를 밝히지 않았다. 『말씀선집』을 활용할 수 없거나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면 김진춘이 인용한 창시자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김진춘이 쪽수 없이 제시한 창시자의 『말씀선집』의 내용을 필자는 장시간에 걸쳐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다.

441) 『말씀선집』 610권 13쪽. 2009.4.10.

442) 김진춘과 교구장들의 논쟁 녹음 파일. 2017.4.24. 교구장들이 반발하자 김진춘은 자신의 독생녀론 강의가 한학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은 2018년 3월 29일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이라는 자료집을 이전에 발표한 자료와 논문을 재구성하여 통일교 간부들과 전현직 목회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하계도 김진춘은 이 자료집에서 창시자가 유원죄, 타락 혈통으로 출생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빼고 창시자의 유원죄 타락 혈통 출생을 암시만 하였다.

교구장들의 반발과 독생녀론을 확신하지 못한 탓인지 김진춘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2022년 한학자의 지시를 받고 소위 ‘아버님 꼬리론’을 강의함으로써 논란의 중심에 다시 섰다.

1. 아담과 해와

1) 독생자·독생녀의 자격

김진춘은 창시자의 『말씀선집』과 한학자가 만든 소위 천일국 3대 경전인 『개정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논증하기 위해 애를 썼다. 특히 창시자의 『말씀선집』을 검색해 필요한 근거를 찾고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춘의 독생자·독생녀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격이다. 김진춘은 아담과 해와의 창조 및 타락 순서나 주체·대상의 원리적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절대자에 의해 첫 자녀로 창조된 타락 전의 아담과 해와를 독생자·독생녀의 전형으로 보고, 독생자·독생녀의 자격과 기준을 정의하였다. 그는 독생자·독생녀 자격자라면 “복증 혈통 복귀를 통해 원죄 없이 순수한 혈통으로 출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독생자·독생녀는 사탄이 참소할 조건이 없고 원죄가 없으며 타락과 무관하다. 그러므로 독생자·독생녀에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하늘 혈통), 사탄의 참소 조건 없음, 원죄 없음, 타락 관련 없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들(독생자·독생녀)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set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⁴⁴³⁾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김진춘이 제기한 독생자·독생녀의 자격은 한학자의 독

443)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18쪽.

생녀론을 합리화하고, 한학자를 무원죄 순혈의 독생녀로, 창시자를 유원죄 타락 혈통의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임의의 전제일 뿐, <8대교재교본>에 기록된 창시자의 교시와 무관하다. 따라서 김진춘의 독생자·독생녀론은 한학자의 독생녀론의 경우와 같이 필연적으로 창시자의 교시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2) 독생자·독생녀와 3대축복

김진춘은 첫 독생자·독생녀인 아담과 해와의 사명을 3대축복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지 않다.

“독생자·독생녀는 창조 본연의 성장 과정을 거쳐 제1 축복인 개성완성의 노정을 가게 되고, 나아가 제2 축복인 가정완성을 하게 된다. 독생자·독생녀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에 의한 탄생의 터 위에서 3대축복의 길을 가게 되며, 결국 참부모와 참가정을 토대로 한 3대축복의 이상이 완성된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이는 하나님→탄생→3대축복→이상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독생자·독생녀는 탄생에 관련되므로 3대축복과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⁴⁴⁴⁾

다시 말해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격 완성은 개성을 완성하고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써 참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혈통의 자손을 번식하여 지상에 천국을 이루어야 완료된다. 따라서 3대축복을 이루지 못한 독생자·독생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생자·독생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락한 천사장격 교권주의자들과 하나 되어 반문현진 세력을 형성하여 주관성을 전도한 채 창시자를 속이고, 형제를 이간하고, 부자를 이간해 참가정을 파탄 냈을 뿐만이 아니라 독생녀 승배를 위한 하늘부모님성회를 만든 한학자가 과연 독생녀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김진춘은 답해야 한다.

3) 아담·해와의 타락과 재창조

김진춘은 독생자·독생녀인 아담과 해와가 제2 축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함

444)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21쪽.

으로써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불가피하게 시작되었고,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창조하는 입장에서 독생자·독생녀를 함께 (동시에) 복귀했다고 주장한다. 또, 복귀된 독생자·독생녀는 어린양잔치를 통해 참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담은 독생자, 해와는 독생녀였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의 타락에 의해 독생자·독생녀가 상실되었다. 아담은 독생자인데, 타락했으므로 독생자가 없어졌고 독생녀가 없어졌다. … 따라서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잃어버린 독생자·독생녀를 무엇보다 먼저 복귀해야 한다. 즉, 사탄의 거짓사랑, 거짓생명, 거짓혈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지닌 독생자·독생녀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은 장구한 복귀섭리역사를 통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독생자·독생녀를 찾는 수고와 정성을 다하셨다. 찾아진 독생자·독생녀는 개성완성을 통하여 어린양잔치를 함으로써 참부모로 현현한다”⁴⁴⁵⁾

김진춘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시자의 교시 중 “독생자는 독생녀를 찾아와야 한다,”⁴⁴⁶⁾ “독생녀를 찾아 길러야 한다,”⁴⁴⁷⁾ “하나님의 맏아들인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었다. 사탄이 독생녀를 빼앗아 갔는데 독생자는 그걸 찾기 위해 오신 분이다”와⁴⁴⁸⁾ 같은 창시자의 교시를 인용한 것만 본다면 그의 주장이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⁴⁴⁹⁾

그러나 김진춘은 창시자의 교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였다. 아담과 해와의 창조 순서와 타락의 과정, 아담과 해와에 대한 주체·대상의 원리적 관계 등을 김진춘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창시자의 『말씀선집』의 앞뒤 문맥을 생략한 채 특정 부분만을 인용함으로써 그 진의를 왜곡하였다.⁴⁵⁰⁾

445)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23쪽.

446) 『말씀선집』 482권 275쪽. 2005.1.14.

447) 『말씀선집』 115권 133쪽. 1981.11.8.

448) 『말씀선집』 347권 47쪽. 2001.7.3.

449)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23쪽.

450) 예를 들어 김진춘은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23쪽에서 창시자의 『말씀선집』 115권 133쪽의 내용 중 “하나님의 맏아들인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었다. 사탄이 독생녀를 빼앗아갔는데 독생자는 그걸 찾기 위해 오신 분이다”를 인용하였지만, 실제 원문은 “하나님의 혈통을 지닌 독생자를 통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독생녀를 논증하기 위해 김진춘은 창시자의 말씀을 왜곡 인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창시자는 절대자가 아담을 창조한 이후 아담을 본(本)으로 해와를 창조했으며, 이것은 아담이 해와를 창조한 것과 같은 의미임을 여러 번 교시하였다. 복귀는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아담을 먼저 재창조하면 자동으로 해와는 재창조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담을 재창조하면 해와는 아담에 의해서 재창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재창조의 우선 목적도 다름 아닌 잃어버린 아들(아담)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창시자는 교시하였다. 그 아들이 해와를 대신하는 한 여성을 찾기 때문이다. 창시자는 심지어 아담만이라도 타락하지 않았다면 해와를 복귀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라고까지 교시하였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해와에 대하여 ‘이년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 하고 해와를 배척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해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구요. 나무의 종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따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해와는 아담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해와 하나 만들기가 지극히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해와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사탄 세계에서 여자, 신부를 찾아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책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⁴⁵¹⁾

비록 독생녀론자들이 이를 남성 중심 가부장제의 구태의연한 교시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배척하고 있지만, 이 교시는 아담(남성)과 해와(여성)을 창조한 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복귀해 나가는 원칙이고, 예수와 예수의 아내, 재림주와 재림주 아내의 관계와 복귀과정을 이해하는 기준이다.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할 때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야 해와를 만드는 것입니다. … 먼저 다시 만드는 과정, 즉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창조목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천주의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는 분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⁴⁵²⁾

“지금까지 단 하나의 남성 아담을 만드는 데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으나, 지금까지 완성한 남성, 완성한 여성이 없었습니다. 완성한 남성, 완성한 아담이

451) 『말씀선집』 66권 138쪽. 1973.4.22.

452) 『말씀선집』 21권 195쪽. 1968.11.20.

나오면 거기서 완성한 해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성한 아담이 나오면 완성한 해와도 출현할 수 있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이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선생님은 횡적으로 그런 수준에 서 있다구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다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여성세계는 이 선포시대에 맞추어 해방을 맞는 것입니다.”⁴⁵³⁾

그런데 김진춘은 창조원리와 복귀원리의 근간이 되는 인간 창조의 순서나 재창조의 순서를 고의로 생략한 채 단지 “하나님은 독생자·독생녀를 찾아야 한다”라는 한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독생자와 독생녀는 같은 가치의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이 주장은 독생자와 독생녀 재창조 과정의 핵심인 독생자와 독생녀의 혈통 전환의 과정이 다르다는 창시자의 교시를 왜곡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결국 김진춘은 창시자의 교시와 다른 한학자의 주장을 근거로⁴⁵⁴⁾ 초림 독생자(예수)의 혈통 전환과 초림 독생녀(한학자)의 혈통 전환은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가치로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원리와 다른 한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통일원리와 다른 한학자의 주장을 논증해야 했으니 김진춘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예수와 예수의 아내

김진춘은 스스로 규정한 독생자·독생녀 자격, 즉 “복중 혈통 복귀를 거쳐 원죄 없이 태어나야 독생자·독생녀”라는 기준으로 예수와 예수 아내의 혈통적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인간 조상인 아담·해와가 독생자·독생녀의 신분을 상실하고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의 실체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복귀하기 위해 제2 아담과 제2 해와로 오는 초림 메시아 예수님과 그의 부인이 될 사람은 하늘 혈통을 다시 찾기 위한 혈통 전환의 과정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4,000년이라는 장구한 복귀섭리역사를 통해 초림 메시아 예수님을

453) 『말씀선집』 230권 120쪽. 1992.4.26.

454) “하늘은 독생녀도 창조해 나오셨음으로 독생자가 탄생 되면서 섭리역사가 독생녀와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다. … 찾아진 독생자의 자리는 상실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상속이 가능하지만, 독생녀의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학자의 설교, 2014.6.14.

하늘 혈통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혈통 전환의 노정을 걸으셨다. 즉 탕감복귀 노정을 통해 하늘 혈통만을 지닌 독생자 예수님을 찾으셨다. 하나님은 리브가와 다말 그리고 마리아의 절대신앙, 절대복종의 토대 위에서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하늘 혈통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킴으로써 아담이 잃어버린 독생자의 자리를 복귀한 것이다.”⁴⁵⁵⁾

1)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예수

김진춘은 창시자의 교시와⁴⁵⁶⁾ 한학자의 주장과⁴⁵⁷⁾ 마찬가지로 예수는 비록 타락 혈통의 마리아 복중에서 태어났지만, 복중 혈통 전환의 과정을 통해 무원죄로 태어난 독생자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예수는 “개성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말씀의 실체가 되어 도성인신(道成人身)한 존재”라는 창시자의 교시와 『원리강론』의 언급을 김진춘이 그대로 받아들였다.⁴⁵⁸⁾

김진춘의 주장에 따르면 독생자로서 개성을 완성한 예수는 독생녀를 찾아 결혼하여 참부부, 참부모가 되어 참가정을 중심한 이상세계, 곧 천국을 창건해야 했으나, 독생녀를 찾지 못하여 결혼하지 못했고 결국, 인류의 참부모가 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사망하였다는 것이다.⁴⁵⁹⁾ 예수가 독생녀를 만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참부모가 되어 타락 인류를 중생시켜 원죄 없는 인간으로 복귀시켰을 것인데 독생녀를 만나지 못해 실패하였다고 한다.

2)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가 없었다

예수의 아내에 대한 김진춘의 주장은 매우 특이하고 논리적 모순으로 가득하다. 예수 아내가 독생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첫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준비해 온 것처럼 하늘이 길러 온 여성이어야 하며, 둘째, 예수가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원죄 없이 출생한 것처럼 예수의 아내도 복중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진춘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 두 조

455) 김진춘, “참부모님이 독생자·독생녀 연구,” 227쪽.

456) 『말씀선집』 274권 126쪽. 1995.10.29.; 137권 18쪽. 1986.1.1.

457) 한학자의 설교, 2014.6.14.; 2014.7.1.; 2014.9.12.; 2014.12.20.; 2014.12.21.; 2016.10.6.

458) 『말씀선집』 504권 327쪽. 2005.8.20.; 『원리강론』 229쪽, 65쪽, 231쪽, 130쪽, 229-230쪽, 394쪽.

459)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30쪽.;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 20-21쪽.

건을 만족하는 여성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독생녀 자격을 갖춘 여성을 만날 수 없었고, 어린양잔치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생녀가 되어야 할 예수님의 신부 후보자에 대한 (참아버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목해 본다. 독생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혈통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 세계의 혈통을 전환시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상대가 될 신부는 혈통 전환의 역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마리아의 복증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탄 세계의 혈통을 전환시켰습니다. 혈통을 전환시킨 자리에 왔지만, 예수의 상대 될 수 있는 신부는 혈통 전환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복잡하대구요.’(140권 86.2.9.)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친, 즉 독생녀 자격을 갖춘 신부가 없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실체 성신은 없게 되었고, 어머니신(神)으로서 성신이 실체 없이 물 같은 성신, 불같은 성신으로 분리워지고 있다.”⁴⁶⁰⁾

김진춘이 혈통복귀를 통한 무원죄 출생이라는 독생녀의 자격을 언급하고 예수가 없죄 없는 독생녀를 만나지 못해 어린양잔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2000년 전 하늘이 준비했지만,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태어나지 못한 독생녀, 예수가 2000년 전에 만나야 했던 그 독생녀, 다시 말해 2000년 동안 하늘이 준비한 초림 독생녀가 바로 한학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학자와 김진춘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창시자는 물론 과거 한학자조차 “예수의 아내가 될 여성은 사가라의 딸, 즉 세례요한의 여동생이었고, 예수가 이 여성과 혼인하지 못한 것은 이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가라 가정과 마리아가 예수의 혼인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한 바 있다.⁴⁶¹⁾

460) 김진춘, “독생자·독생녀 참부모님,” 22쪽.

461) 한학자,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 세계평화과정연합 185개국 결성 한국대회 한학자 주제 강연문, 『통일세계』 1996.10. Vol. 308, 64-66쪽. “아담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장형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사가라의 딸, 세례요한의 여동생인 것입니다. … 그들이(마리아와 사가라 가정) 믿음을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흐를 때에 예수님이 바라신 신부를 맞는 일을 도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 이리하여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 독생녀론을 주장하는 한학자나 김진춘의 주장대로 2000년 전 혈통이 복귀되어 원죄 없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 예수의 어린양잔치가 불가능했다면 사가랴 가정과 마리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예수는 태생적으로 어린양잔치를 할 수 없었고, 참아버지도, 참가정의 사위기대도 이룰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사명 실패가 예정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과 결론은 통일원리의 예정론과 충돌하고, 창시자의 교시와도 다를 뿐만이 아니라 복귀섭리 전체의 내용을 모두 변경할 때나 가능하다.

예수의 아내, 즉 독생녀 자격에 대한 김진춘의 잘못된 전제는 그의 독생녀론을 통일원리와 창시자, 나아가 한학자가 그동안 설교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인도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김진춘의 주장은 통일원리나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다. 예수의 아내가 될 여자는 원죄 없는 독생자 예수와 달리 하늘이 길러 온 여성이 아니었다.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교시에 따르면 구약 4천 년의 과정은 메시아인 독생자 예수 한 명을 위한 역사였으며, 독생자 예수가 예수의 아내를 선택하고 교육하고 재창조하여 혈통을 복귀해 다음 섭리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었다. 예수의 입장은 타락한 해와의 주체인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입장과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후아담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다면 후해와는 어디 있나요? 첫 해와를 사탄이 빼앗아 갔으니 사탄 세계에서 후해와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족속 권 내에서 해와를 녹여 가지고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 와서 종 새끼의 딸로 취급해 가지고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일대의 사명이예요.”⁴⁶²⁾

“창조원리를 중심 삼고 보면,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 해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빼앗긴 해와를 빼앗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아다가 재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정을 알거나 했습니까?”⁴⁶³⁾

462) 『말씀선집』 154권 89쪽. 1964.4.7.

463) 『말씀선집』 19권 331쪽. 1968.3.29.

“그래서 예수가 혈통을 맑게 한 남자로서 이 땅에 와 가지고 혈통을 중심 삼고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담을 중심 삼고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저 내리치고 원수같이 취급하더라도 절대복종하는 해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⁴⁶⁴⁾

“그러면 메시아는 와서 뭘 해야 되느냐? 통일교회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재창조 역사입니다. 아담을 본파서 해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책임분담적 사명을 못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해와를 재창조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⁴⁶⁵⁾

김진춘은 예수의 혈통 복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 아내의 혈통을 복귀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었다라는⁴⁶⁶⁾ 창시자의 교시에도 불구하고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위해 통일원리를 버렸다.

3. 재림주 창시자와 그의 아내

1) 재림주인 창시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창시자

김진춘은 창시자가 16세에 예수로부터 사명을 인계받음으로써 메시아의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원죄가 없는 입장이 되었고 독생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참아버님은 이러한 미완성의 초림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음으로써 재림메시아가 되었다. … 메시아의 신분과 자격을 갖게 된 참아버님에 대해 사탄은 참아버님에 대해 참소할 수 없게 된다. … 참아버님은 원죄가 없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 그러므로 참아버님은 독생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 참아버님은 독생자의 입장에서 개성완성하여 참사랑의 말씀 실체가 되었고, 어린양잔치를 통하여 제2 축복을 완성한 인류의 참아버지가 되었다”⁴⁶⁷⁾

464) 『말씀선집』 139권 311쪽. 1986.1.31.

465) 『말씀선집』 125권 222쪽. 1983.3.27.

466) 『말씀선집』 52권 178쪽. 1971.12.29.

467)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33-234쪽.

또 김진춘은 초림 메시아인 예수의 정체성을 “초림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로 탄생 되어 하늘 혈통만을 지니므로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고 따라서 원죄가 없이 탄생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위상이다”라고⁴⁶⁸⁾ 정의 하며,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이 예수와 달리 유원죄 출생이라고 암시했다. 다시 말해 창시자는 원죄 없는 독생자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16세에 예수로부터 사명을 물려받음으로써 “메시아와 독생자의 자격을 얻었고, 16세 이전에는 메시아나 독생자의 위상과 품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우리는 참아버님이 재림한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기 이전에 혹시 탄생 때부터 메시아 사명을 출발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 왜냐하면 탄생 시 혹은 16세 이전에 메시아 사명을 실질적으로 출발했다면 그때 이미 독생자의 위상과 품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즉, 그 시점에서 하나님 입장의 아들이 되고 온전히 하늘 혈통만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게 되므로 원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 또한, 그 시점에서 타락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메시아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아 탄생 때 혹은 16세 이전에 출발했다는 내용이 『말씀선집』 전체를 통하여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참아버님의 메시아 사명을 출발한 것은 탄생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한 16세였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발견된다.”⁴⁶⁹⁾

그러나 김진춘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8대교재교본>에 기록된 창시자의 교시와 완전히 다르며 지금까지 통일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통일원리의 내용과도 다르다. 한마디로 말해, 한학자의 주장을⁴⁷⁰⁾ 제외하고 김진춘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창시자의 말씀이나 통일원리적 근거는 없다.

한학자에 의해 혈통이 복귀된 창시자

김진춘은 창시자가 예수와 달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복중 혈통 복귀를

468)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35쪽.

469)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38쪽.

470) “아버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다.”한학자의 설교, 2014.7.1.; “아버님께서서는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독생자의 자리를 인계받으셨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한학자의 설교, 2016.2.4.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창시자의 교시에서 찾고 있다.

“즉, 참아버님은 타고나기를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처럼 핏줄을 맑혀 태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혈통 전환으로 장자권이 됐지만, 참아버님은 혈통 전환을 하지 않고 부모 자리에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통 복귀를 통한 역사적인 고통을 거쳐 나왔지만, 참아버님은 그 길을 안 가도 된다. ‘선생님은 타고나기를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것처럼 핏줄을 맑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500권 05.7.11.) ‘예수님은 혈통 전환을 위해서 장자권이 됐지만, 선생님은 혈통 전환을 하지 않고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492권 05.4.7.) ‘예수님은 사랑을 중심삼은 장자권복귀에 있어서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참 1.12.:22, 876.1.31.) ‘예수님은 혈통 복귀를 통한 역사적인 고통을 거쳐 나왔지만, 선생님은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493권 05.4.25.)”

그러나 김진춘이 인용한 창시자의 이 교시는 창시자가 자신의 유원죄 혈통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는 예수가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무원죄로 출생할 수 있었던 혈통이었던 것과는 달리, 창시자 자신은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 없이 무원죄로 출생한 존재이며, 예수의 혈통보다 더 나은 혈통임을 교시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혈통과 선생님의 혈통이 달라요. 예수의 혈통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구요. 본래 완성한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아담의 혈통, 그다음에 예수의 혈통, 재림주의 혈통이 있는 거예요. 재림주를 완성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시대·장성시대·완성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재림주 가운데는 삼 시대의 열매를 대신한 가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놓으면 아담 열매의 자리, 예수 열매의 자리, 재림주의 열매까지도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⁴⁷¹⁾

“선생님 핏줄에서, 근본에서부터 사탄 앞에 굴복 안 당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젠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예수하고 문 총재의 혈통을 보면 예수님이 낫지 않소?’ 물어보는데, 말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타락한 핏줄을 뒤집어 박았지만, 문 총재는 열여섯까지 그냥 그대로 하늘의 본성,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천비, 지상 비밀을 다 알아 가지고, 준비해 가지

471) 『말씀선집』 563권 287쪽. 2007.5.22.

고 딱 칼을 들고 25세에 나선 거예요.”⁴⁷²⁾

김진춘은 창시자의 위 ‘말씀’의 본의를 왜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논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 강단에서 거의 30년 동안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논증해온 통일원리 전문가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신앙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탄생 때에 사탄 참소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죄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⁷³⁾

김진춘이 한학자의 독생녀론을⁴⁷⁴⁾ 논증하고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의 근거를 창시자의 교시에서 찾고 있지만,⁴⁷⁵⁾ 창시자 자신은 예수와 같이 원죄 없는 존재라고 여러 차례 분명하고 일관되게 교시하였다. 특히, 창시자는 자신을 유원죄로 출생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결국, 김진춘이 창시자를 유원죄 출생으로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한학자의 주장뿐이다.

그런데 김진춘은 창시자를 유원죄 출생의 존재로 규정해 놓고 무슨 이유에선지 “창시자가 유원죄 타락 혈통으로 출생했지만, 다른 타락 인간과는 다르며, 메시아가 되기 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애매한 사족(蛇足)을 달았다.

“참아버님은 타락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혈통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상황은 중요한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참아버님은 원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탄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둘째, 참아버님은 하늘 혈통의 측면도 함께 있기 때문에 타락 혈통만을 지니고 태어난 보통 타락 인간과는 전혀 다르게 탄생했다. 셋째, 참아버님은 하늘 혈통만을 지니게 되는 메시아 사명을 위해 예정 되었으며, 메시아가 되기 위한 가능성을 지니고 탄생했다.”⁴⁷⁶⁾

472) 『말씀선집』 494권 186쪽. 2005.5.2.

473)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42쪽.

474) 한학자의 설교, 2016.12.25.; 12.30.

475) 『말씀선집』 474권 327쪽. 2004.11.4.; 463권 170쪽. 2004.8.1.; 479권 143쪽. 2004.12.4.; 430권 185-186쪽. 2004.1.2.; 478권 216쪽. 2004.12.1.; 538권 26쪽. 2006.9.8.

476)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44쪽.

그러나 김진춘의 이 사족도 창시자가 유원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로 보이고, 독생자 자격에 비추어 결코 창시자는 독생자도 메시아도 아님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한학자가 창시자와 결혼해 줌으로써 창시자를 완성해 줌

김진춘은 아담·해와와 예수와 예수의 아내가 각각 독생자·독생녀로서 제2 축복을 완성해야 했던 것처럼 창시자도 준비된 창시자의 아내(한학자)와 제2 축복을 완성함으로써 생명나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참아버님은 독생자와 메시아의 신분으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참어머님을 만나 1960년 어린양잔치를 함으로써 창조 본연의 완성 인간인 참부모가 되었다. 장구한 복귀섭리의 역사 과정을 거쳐 비로소 참어머님과 함께 창조 본연의 완성된 인간 조상이 되었고, 무형의 참부모인 하늘부모임을 온전히 실체로 드러내는 천지인참부모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전체적으로 상고할 때 참아버님의 독생자 되심은 탄생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에 따라 메시아 사명을 인계받은 16세 때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1960년 어린양잔치는 독생자의 신분으로 제1 축복 노정을 완수하여 개성완성함으로써 독생자의 이상을 완성한 성혼식이었던 것이다.”⁴⁷⁷⁾

김진춘은 “창시자가 한학자와 어린양잔치를 함으로써 독생자의 신분을 획득해 개성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창시자를 “독생자와 메시아”가 아니라 “독생자와 메시아의 신분”이라고 언급하며, 하늘이 준비한 참어머니인 한학자와 어린양잔치를 함으로써 완성 인간인 참부모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차례 논증한 대로 김진춘의 주장은 창시자의 교시와 역사 다르다. 창시자가 한학자와 만나 어린양잔치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독생녀 사명자인 최선길과 두 번째 독생녀 사명자인 김명희가 어머니의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⁴⁷⁸⁾ 한학자와 어린양잔치를 할 때의 창시자는 이미 완성한 아버지의 입장이었던⁴⁷⁹⁾ 반면, 17세 한학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입장이었으며,⁴⁸⁰⁾ 성

477)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48쪽.

478) 『말씀선집』 30권 243쪽. 1970.3.24.

혼 이후 어머니의 입장을 완성하기 위해⁴⁸¹⁾ 거쳐야 할 탕감의 7년 노정이 남아 있었다.⁴⁸²⁾ 어린양잔치는 창시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한학자와 혼인하여⁴⁸³⁾ 참부모로 완성하는 최종 행사가 아니었고, 창시자가 세 번째 독생녀 사망자인 한학자를 잘 길러⁴⁸⁴⁾ 절대복종하도록 재창조하여⁴⁸⁵⁾ 어머니로 완성시켜 참자녀를 낳아 참가정을 완성해 나가는 제2 축복 출발의⁴⁸⁶⁾ 행사였다. 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부모 완성 성혼식은 기원절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학자는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최선길, 김명희가 사명에 실패하여 재림주의 아내가 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만약 한학자가 참된 어머니로 완성하지 못하면 재림주, 독생자, 참아버지인 창시자는 언제든지 한학자를 대신하여 다른 신부를 세울 수도 있었다.⁴⁸⁷⁾

2) 세 번째 독생녀 후보자 한학자

무원죄 순혈 독생녀로 출생한 한학자

김진춘은 한학자를 ‘하늘이 예정한 재림주의 유일한 아내이자 무원죄 출생의 독생녀’로 규정하고 있다. 창시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창시자의 아내이자 독생녀 후보자에는 최선길도 있었고, 김명희 등도 있었다. 김진춘은 두 명의 앞선 독생녀 후보자가 사명에 실패하여 그들 대신으로 한학자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학자가 6천 년간 하늘이 준비해 온 유일한 독생녀라는 근거는 한학자가 예

479) 『말씀선집』 9권 201쪽. 1960.5.22.

480) “재까닥하고 결혼해 버리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길러내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14년 후에 40이 된 도적놈 같은 사람이 만 열일곱 살 난 자기 딸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성진이가 열아홉 살이었어요. 열아홉 살인가, 스무 살인가? 세 살 위인데 동생 같은 이를 어머니로 모시려니 기본 좋겠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라구요.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선집』 175권 346쪽. 1988.5.1.

481) 『말씀선집』 68권 154쪽. 1973.7.29.

482) 『말씀선집』 73권 246쪽. 1974.9.22.; 170권 34쪽. 1987.11.1.

483) 『말씀선집』 39권 105쪽. 1971.1.10.

484) 『말씀선집』 90권 127쪽. 1976.10.21.

485) 『말씀선집』 67권 70쪽. 1973.5.20.

486) 『말씀선집』 100권 29쪽. 1978.10.4.

487) 『말씀선집』 499권 235-236쪽. 2005.7.3.; 312권 179-180쪽. 1999.10.15.

수와 같이 혈통 전환의 과정을 통하여 무원죄로 출생하였다는 한학자의 주장뿐이다. 김진춘은 한학자의 무원죄 혈통의 근거로 창시자의 아래 언급을 제시하였다. (김진춘의 인용문을 그대로 인용)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3대가 혼자 살아야 돼요. 사탄의 핏줄을 너저분하게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외딸입니다. 어머니도 외동딸이에요. 3대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천 11.5.2:6.; 89.11.7.)

“어머니의 배우는 3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래는 독녀(외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독자요, 예수님도 독자입니다. 재림주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독자입니다. 독자의 뜻을 세워 가니 만큼 독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2.4.3:2.; 91.11.10.)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대모님, 어머님 자신까지 3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의 자리에 못 섭니다. 외할머니는 성주교, 대모님은 복종교를 거쳤습니다.” (참 1.1.2.;43, 06.9.30.)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3시대의 제물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외동딸의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대모님이 홀로 어머니를 배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참 2.5.3.:9, 05.1.20.)

“대모님은 핍박받으며 새예수교회에서 복종교를 거쳐 통일교회까지 나왔습니다. 3 교단을 모시는 역사가 없어서는 어머니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 2.4.3.:8, 06.9.17.)

“어머님은 존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3개 교단을 거쳐 왔습니다. 대모님으로부터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모시려면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골수에 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가 못됩니다.” (참 2.4.3.:10, 08.6.16.)

“아무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딸까지 3대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심입니다.” (참 2.4.3.:1, 91.1.2.)

“성주교를 중심 삼고 어머니 계통을 이은 것은 김성도 씨가 1대조입니다. 또, 한 갈래가 복종교의 허호빈 씨입니다. 그 계통으로 신앙의 주류적 역사의 전통을 이어받고 오시는 재림주를 모시기 위해 선발 주자로 달려오는 분이 대모님입니다. 어머님을 낳아서 3대의 해와적 역사를 거쳤는데, 어머님 시대에 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뜻을 암암리에 알고 준비해 나온 할머니라는 것입니다.”

(참 2.2.3.; 16, 94.11.7.)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독녀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이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홍순애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참 2.4.3.;3, 91.10.20.)

“어머니의 3대가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신령한 역사와 한국의 골수들을 전부 연결시켜서 어머니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2.4.3.;4, 90.12.25.)

그러나 창시자의 이 언급은 최선길, 김명희의 사명을 이은 세 번째 독생녀 후보 한학자가 정성의 기반에서 출생했음을 언급한 것이다. 소녀 한학자를 선택하여 어린양잔치를 할 당시 한학자 외에도 3대 독녀 신부 후보자들이 더 있었다는 창시자의 아래 언급을 고려할 때 한학자의 3대 독녀 출생은 복중 혈통 복귀의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탄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양심적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있다. 여자들 뭐 뭐... 3대가 연결됐다. 3대,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독녀다. 그런 가정들이 있다. 몇 가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준비를 다 시켰다.”⁴⁸⁸⁾

뿐만이 아니라 한학자의 주장을 제외하고 <8대교재교본>을 통틀어 창시자의 교시 어디에도 한학자가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무원죄로 출생했다는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생녀의 혈통은 창시자에 의해 복귀된 것이 아니다

또, 한학자의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한 무원죄 출생을 주장한 김진춘은 창시자의 교시에서 한학자의 혈통이 창시자에 의해 복귀되었다거나, 예수의 신부가 예수에 의해 혈통 전환 혹은 원죄 청산이 된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⁴⁸⁹⁾ 만약 김진춘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즉 김진춘의 주장을 탄핵하는 창시자의 교시가 있다면 김진춘의 독생녀론과 한학자의 독생녀론은 창시자의 주장과 무관한 그

488) 『말씀선집』 220권 60쪽. 1991.10.14.

489)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52-253쪽.

저 독생녀교의 교리임이 증명된다.

결국 김진춘의 주장은 창시자의 아래 교시에 의해 반박되고 배척된다. 창시자는 원죄 없는 예수가 해와를 대신하는 예수 아내의 혈통을 밝혀야 하며, 창시자도 한학자의 혈통을 전환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 섭리는 아담을 재창조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찾았어요. 4천 년 만에 나온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예요. 독생자예요. 핏줄을 밝혀 가지고 왔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핏줄을 밝혀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원리 말씀을 들어 보면 핏줄을 밝혀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핏줄을 밝힌 그 남자가, 아담을 본떠서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서 핏줄을 밝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아담이 해와의 말을 들어 가지고 핏줄을 더럽혔으니 해와를 절대복종시켜 가지고 핏줄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줄을 받을 수 있는, 종적인 기준에서 90 각도의 여성이 될 때 여기서 사랑의 천지조화가, 혈족이 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벌어지고 전후좌우상하의 구형의 형태가 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수직과 연결되는 거예요.”⁴⁹⁰⁾

한학자 혈통에 대한 이중적 해석

김진춘의 논리대로라면 복중 혈통 복귀를 통해 출생한 한학자는 틀림없이 무원죄로 출생한 독생녀이기 때문에 김진춘은 창시자의 말씀을 근거로 한학자의 무원죄 출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학자의 우수한 혈통적 뿌리나 정성의 터전에서 한학자가 출생했다는 창시자의 언급을 제외하고 김진춘은 한학자의 무원죄 출생을 인정하는 창시자의 교시를 찾지 못했다. 정확히 말해 찾을 수가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창시자는 한학자가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았다고나 원죄 있는 존재라고 교시하였는데, 김진춘은 창시자의 이 교시를 아래와 같이 자의적이고 이중적으로 해석하였다.

“『말씀선집』에는 참어머님의 타락 혈통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이 한 집회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생님 자신도 타락한 혈통을 타고났어요. 그렇지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밝혀 가지고 나왔지만, 교차할

490) 『말씀선집』 325권 149쪽. 2000.6.30.

수 있는 데 있어서 선한 조상들을 이어 가지고 나왔지만 ...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요, 선생님까지도.’ (『말씀선집』 419권 2003.10.1. 미국 뉴욕커 호텔) 그런데 여기서는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이 함께 타락 혈통을 타고 났으며, 타락한 천사장 혈통을 받았다고 말씀했다.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참어머님의 개성완성 노정과 어린양잔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어린양잔치(제2 축복)는 창조 본연의 성장 과정을 통해 개성완성의 입장(제1 축복)에서 가능하며, 창조 본연의 개성완성 노정은 독생녀의 입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⁴⁹¹⁾

결국, 김진춘은 창시자가 타락한 조상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한 교시를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의 근거로 사용한 반면, 한학자가 천사장의 핏줄을 받아 태어났다고 교시한 창시자의 언급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하며 한학자의 유원죄 출생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창시자의 말씀을 해석하는 김진춘의 이중적인 태도는 오직 한학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창시자의 유원죄 출생을 기정사실로 하고 한학자의 무원죄 순혈 출생만을 합리화하기 위한 비논리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한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와 창시자 자신, 나아가 재림시대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있는 조상의 후손이라고 창시자가 교시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한학자의 무원죄 순혈 출생을 논증하기 위해 제시한 김진춘의 노력은 모두 허사이다.

창시자는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합리화하려는 김진춘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한학자의 혈통을 원죄 있는 타락한 혈통이라고 규정하였다.

“어머니는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말해 보라구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동산 가운데 구정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 답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려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물을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여과장치를 통해 가지고 여수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쉬워요?”⁴⁹²⁾

491)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53쪽.

492) 『말씀선집』 461권 26쪽. 2004.7.19.

김진춘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한학자의 혈통을 타락한 원죄 있는 혈통으로 규정한 창시자의 분명한 이 교시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김진춘의 이중적인 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참여머님의 혈통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은 잘못 해석·판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역사편찬위원회의 자료실에서 비디오를 확인한 결과 말씀 전후의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당시 청해가든에 참석한 부인들에게 심하게 꾸중하신 분위기였음을 알게 되었고, ‘전부 다다’라는 표현이 『말씀선집』에서 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어머님은 나면서부터 공주와 같이 태어나고 어머니와 같이 재림주의 사모님으로 태어난 줄 알아요? 말해 보라고요. 타락한 핏줄을 받고 태어났어요. 동산 가운데 구정물이 나오는데 돌 틈바구니에서 샘물이 솔솔 나오는 그 하나보다도 큰 여자가 되었느냐 할 때, 답변하기 힘들어요.” (461권. 04.7.19)⁴⁹³⁾

한학자의 개성완성과 어린양잔치

김진춘은 복중 혈통 복귀의 과정을 거쳐 무원죄 순혈로 출생한 한학자가 독생녀의 입장에서 개성완성을 완성한 후 창시자와 어린양잔치를 하였으며, 만약 한학자가 무원죄 순혈의 독생녀로 출생하지 않았다면 창시자는 개성완성의 노정은 물론 어린양잔치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⁴⁹⁴⁾ 한학자의 무원죄 순혈 출생을 기정사실로 하였다.

그러나 창시자의 교시는 김진춘의 주장과는 다르다. 17세의 소녀 한학자가 비록 좋은 혈통과 정성의 터에서 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림주, 독생자, 구세주인 창시자의 택함을 받았고, 창시자는 한학자를 잘 길러 (혈통을) 복귀하고 완성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되는 과정이 7년 노정이었고, 대부분 책임을 한학자 대신 창시자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뜻을 전부 다 알아 가지고 오느냐? 알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키워 나오는

493)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54쪽.

494) 김진춘,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255-256쪽.

거라구요. 결국은 사탄 세계에서 빼앗아 왔다 이거예요. 빼앗아 놓은 거예요. 데려왔다고 해서 하늘 기준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세계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이곳까지 탕감해서 나와야 됩니다. ... 다시 말하면 어머니로 실패한 모든 것을 재차 탕감해 가지고 실패의 조건을 넘어서 어머니로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선생님과 결혼하였지만 남의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3년 기간을 거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3년 기간을 거쳐 가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1차 7년 노정은 무엇이나 하면 선생님 가정의 기반을 닦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 되는 사람은 절대복종하고 순응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따라나와 7년 노정을 거쳐 나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 기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것이 이렇다면 1967년 권내로... 1968년 1월 1일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날 선포와 더불어 이 기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1차 7년 노정이 끝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⁴⁹⁵⁾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여자로서 남편이 가는 길 앞에 절대적으로 생명을 다 바쳐 순응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하늘을 통하여 공약을 세워야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⁴⁹⁶⁾

“이게 무슨 말이나? 1960년도를 중심 삼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셨는데 왜 10대의 어머니를 모셨느냐 이거예요. 완성기준을 못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데려와 가지고 7년 노정에 어머니를 내정적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편에서 빼앗아 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빼앗아 와야 돼요. 빼앗아 와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완성기준까지 올라올 기간에 해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심정적인 상대기준을 결정지어야 되는 것입니다.”⁴⁹⁷⁾

4. 참아버지 꼬리론

2022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평수련원에서 열린 ‘천일국 10년 천일국 지도자 총회’가 열렸다. 이때 한학자는 당시 하늘부모님성회의 실세였던 세계선

495) 『말씀선집』 73권 246쪽. 1974.9.22.

496) 『말씀선집』 39권 105쪽. 1971.1.10.

497) 『말씀선집』 159권 147-148쪽. 1968.3.7.

교본부장 윤영호가 기획한 교육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이기성과 김진춘에게 한학자 독생녀론의 특정 내용을 전 세계 간부들에게 교육하라고 지시했다.⁴⁹⁸⁾ 한학자는 이미 4월 17일 전 세계에서 모여든 하늘부모님성회 간부들에게 창시자가 사탄의 참소 조건인 “꼬리”를 달고 있다고 말하며, 특정 내용의 독생녀론을 암시한 바 있었다. 창시자는 사탄의 참소 조건인 “꼬리”를 달고 있으니 창시자를 위해 정성을 들이라고 지시하였다. 물론 이 “꼬리”는 창시자가 한학자를 만나기 전에 최선길과 혼인하여 아들, 성진을 둔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천일성전을 봉헌하기 전에(어-허-) 세상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참부모 가정에 일어날 결과를 놓고 볼 때 참, 하늘 앞에 면목이 없어요... 많은 축복가정을 탄생시키는 참부모로서 이상하게 꼬리를 달고 가는 일이 왜 생겼을까? 그래서 이번 2일간에 특별 정성을 들이면서(음성이 높아짐) 아버님을 해방해 드립니다.(네. 박수) 그래야만 돼! 이(것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 천일국 안착과 더불어서 이제 주권 복귀, 세계복귀를 해 나가는 노정에 있어서 걸림돌이 따라 다녀서는 안 돼! 여러분들의 정성이 영계에서(약 10초의 time) 지상에서 조건을 세워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사하시어 잘못된(?생략하심) 바로 잡아서 하늘부모님 본래 창조 이상 그 자리로, 실현하시는 그 자리로, 서실 수 있는 참아버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탄의 참소 조건을 받지 않는 참 아버님이 되도록 정성을 들여서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틀간 천심원에서 모든(것을) 회개(해결?)를 보고 완전히 참 아버지를 해방시켜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이틀간 교육을 잘 받으세요. (네) 전체 선교본부도 총동원돼서 교육 받아야 될 거야.” 한학자의 설교, 2022.4.17. 월드센터 오찬장; “아마도 우리 식구들 중에는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60년 역사에 그들이 있었다면 청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얘기한다면 19일과 20일이 되겠는데 천심천보수련원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특별한 정성을 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학자의 지시에 따라 청평수련원에서 그동안 강조해 온 독생녀론보다 더 노골적으로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강의를 이기성과 김진춘이 실시하였다. ‘참아버지 꼬리론’이었다.

498)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훈 62주년 기념 천원궁 승리 봉헌 결의식’ 한학자의 설교, 2022.4.17.

“참, 재림 입장에 또 꼬리가 있는 그 아버님께서, 초림의 꼬리가 없는 개성 완성한 신부 입장에 있는 어머니가 아버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게 원리에 맞는 거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끊을 것은 끊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 계속 꼬리를 달고 다니면 안 된다. 또 우리 교회도 이단 꼬리를 계속 달고 다니면 이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강조를 하였고. 그다음에 참부모가 꼬리가 달려 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축복을 해주고, 인류 천주 대가족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나도 너무 힘들다 어머니께서. 힘들다.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다 공개됐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다 아버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는데, 다 인터넷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다 연구하고 세미나 하고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가봐요. 앞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이런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⁴⁹⁹⁾

김진춘의 이날 강의는 누군가에게 녹취되어 통일교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엄청난 파문을 불러왔다. 한학자가 그동안 근신하고 있던 김진춘을 다시 불러서 한 단계 진보한 독생녀론 교육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창시자와 하나 되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한 독생녀론이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지만,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통일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한학자가 답답하게 여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독생녀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독생녀 신격화에 앞장서 왔던 하늘부모님성회 세계선교본부장 윤영호가 김진춘의 ‘창시자 꼬리론’을 사악한 견해로 공식 규정함으로써 한학자의 독생녀 권위는 크게 손상을 받았다.

5. 통일원리와 독생녀론 비교

구분	통일원리	독생녀론	
		한학자	김진춘
창조주의 명칭 (피조세계에 대한 존재 양상)	하나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남성적 주체, 일원론	하늘부모님: 하나님 아버지(주체), 하나님 어머니(주체), 이원론	
아담 아담·해와 창조 순서	아담(주체) 창조 후 해와(대상) 창조	하나님이 아담(남자, 주체)과 해와(여자, 주체)를 동시 창조	

499) 김진춘 강의, 2022.4.20.

가정	아담의 혈통		무원죄 출생		무원죄 출생	
	해와의 혈통		무원죄 출생		무원죄 출생	
예수	아담·해와 타락 순서와 동기		·해와 타락→아담 타락(독생자·독생녀 자격 상실) ·아담이 타락 안 했다면 복귀 용이 ·아담(독생자)을 찾는 섭리 시작		아담 해와 타락→독생자·독생녀 자격 상실	·아담 해와 타락, 독생자 독생녀 자격 상실 ·아담(독생자)과 해와(독생녀)를 찾는 섭리 시작
	부모의 혈통		유원죄 출생, 타락 혈통		유원죄 출생, 타락 혈통	
예수	혈통		무원죄 출생		복중혈통 복귀, 무원죄 출생	
	혈통 복귀의 책임		·하나님 ·예수 복귀→예수 아내 복귀(아담 창조→해와 창조와 동일 원칙)		하늘부모님 예수와 예수 아내의 혈통 복귀를 동시에 이룸	
예수	혈통 복귀 방법		·복중 혈통 복귀 ·하나님 아들의 씨(정자)		·복중 혈통 복귀 ·하나님 아들의 씨 언급 없음	·복중 혈통 복귀 ·하나님 아들의 씨 언급 없음
	첫 사명		·해와 복귀(해와 창조, 어린양잔치)		어린양잔치(준비된 해와를 만나 결혼)	
예수	부모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자격		사가라의 딸 혹은 사가라 집안의 한 여자(특정인을 예정하지 않음)		사가라의 딸(한학자?) 특정인을 예정 초기 설교와 후기 설교의 내용이 다름	
예수 아내 후보자 / 사가라의 딸	혈통		유원죄 출생		무원죄 출생 예정 → 유원죄 출생 (복중 복귀과정이 없어서 유원죄 출생)	·무원죄 출생 예정(복중 혈통 복귀 필연) → 유원죄 출생 ·독생녀의 자격: 복중 혈통 복귀 ·3대 복중 복귀과정이 없어서 무원죄 출생 독생녀 후보자가 없었다.
	복중 혈통 복귀 불필요		복중 혈통 복귀 불필요		복중 혈통 복귀 필연 (자세한 언급 없음)	
예수	혈통 복귀 방법		예수가 여자의 혈통을 복귀		예수에 의한 혈통 복귀 불필요	
	혈통 복귀 책임		예수		·하나님 ·마리아/사가라 책임실패→복중 혈통 복귀실패	
성혼 실패 이유		·마리아와 사가라 집안의 무관심, 책임실패(독생녀 후보자를 만날 수		·예수가 독생녀를 찾지 못함(있었는데 찾지 못했는지 없어서 못 찾았는지 확실하지 않음)		

			있는 기회 상실)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 ·복귀섭리 연장의 이유	·이유: 복중 복귀 무원죄로 출생한 여자가 없어서(마리아와 사가랴 집안 책임 실패) ·모순: 마리아와 사가랴 책임 완수와 독생녀 후보자 무원죄 출생은 무관 → 예수의 성혼 실패는 필연, 참부모, 참가정을 통한 복귀섭리의 실패는 필연		
창시자 가정	창시자	부모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혈통	·무원죄 출생 ·예수의 혈통보다 우수한 혈통		·유원죄 출생 ·독생자로 출생하지 않음 (독생자 아님, 독생자 입장, 독생자 책임자)	·유원죄 출생 ·복중 혈통 복귀 거치지 않음=독생자 아님
		혈통 복귀 방법	·하나님 아들의 씨를 통해 복귀 ·3 대 복중 혈통 복귀 불필요		·한학자를 만나서 원죄 청산 ·한학자가 결혼해 줌으로 씨 창시자 혈통 복귀	·누군가에 의해 혈통 전환 당할 운명
		혈통 복귀의 책임	·메시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창시자 혈통 복귀 책임			·독생녀와 성혼 후 완성(혈통 전환 의미 포함)
		독생자 (메시아) 자격	·나면서부터 무원죄 메시아		·16 세 독생자 자격 취득(무원죄 독생자 아님) ·16 세 혈통 전환의 입장, 복중 혈통 전환 없음 →독생자가 될 수 없음	
	최선길	부모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창시자가 한학자를 만나기 전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주장=창시자의 꼬리	
		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성혼의 가치	·해와 사명자 ·영계의 지시로 최선길 여사와 성혼 ·제 1 차 독생녀, 참어머니 후보자			
		책임분담 실패	·메시아의 공생애를 이해 못 해 이혼을 요구			
	김명희	부모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혈통	유원죄 출생의 타락 혈통			
		성혼예정	·마리아 사명자 ·제 2 차 독생녀, 참어머니 후보자			
		책임분담 실패	·해와를 다시 찾는 2 차 가정 섭리 ·책임분담 실패			
	한학자	부모혈통	·타락한 혈통 ·모: 홍순애, 부: 한승운 ·홍순애는 한승운과 혼례 없이 한학자를 낳음		·언급 없음	

		·홍순애는 정석천을 남편으로 인식		
	혈통	·타락한 혈통 ·모계 3대 정성의 좋은 혈통 ·여러 어머니 후보자 중 하나	·무원죄, 3대 독녀 복중 혈통 복귀=독생녀	·무원죄, 3대 독녀 복중 혈통 복귀 (『참부모경』 독생녀 설교가 근거) ·『말씀선집』 내(內) 한학자 무원죄 출생 언급 없음
	혈통 복귀 책임	·창시자가 한학자를 선택, 교육하고 길러야 한다. ·창시자가 한학자의 혈통을 복귀 ·창시자가 한학자를 축복(혈통 복귀) 해 주었다. ·독생자가 독생녀를 재창조한다. ·참남자가 참여자를 만든다. ·재림주는 상대를 재창조한다. 재창조는 재림주에게 절대복종이다.	·“독생녀를 교육한 사람은 없다.”	·창시자가 독생녀의 혈통을 복귀한 것이 아니다. ·모자협조로 복중혈통 복귀
	성혼과 책임	·제 3차 독생녀, 참여머니 사명자, 최선길, 김명희의 사명 실패로 한학자가 독생녀 후보자가 됨 ·어머니는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완성 못 한다”라는 생각 말라 ·어머니를 숭배하는 것은 원리를 벗어났다. ·재림주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머니가 할 수 없다. ·어머니의 책임이 3%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반역이다.	·독생녀는 6천 년 만에 탄생한 초림 ·한학자는 하나님에 준비한 예정된 독생녀 ·독생녀 탄생이 없으면 메시아 올 수 없다.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면 독생자가 아니다. ·재림 메시아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독생녀를 부정하면 구원이 없다. ·메시아 후보자가 많았다. ·구원을 주는 자는 독생녀	
	독생녀 사명 실패의 경우	·어머니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 ·어머니를 대신 창조하고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 정자가 자리를 못 잡았다. 어머니 대신 후보자 세워 훈련 시킬 수도 있다. ·어머니하고 다시 결혼 준비해야 한다. 사랑할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갔다.	언급 없음	
	기원절 선포의 주인공	·기원절은 창시자 없이 집전할 수 없다. ·기원절 타락 혈통 복귀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다. ·기원절에 참부모의 이름도 없어진다. 부모님이면 그만이다.	·독생녀가 기원절 선포 ·독생녀가 기원절을 선포해야 하니 참아 나왔고, 아버지 기원절 6개월 전 성화는 필연 ·아버지 시대는 탕감복귀시대, 기원절 천일국 시대의 중심은 독생녀 ·말씀선집 재편작업	

	·제 4 차 아담권 시대는 종교, 교주를 모시는 시대가 아니다.	·원리강론의 재림론을 참부모론으로 수정 ·여자를 무시해 아버지 섭리 실패
섭리 인식	·복귀섭리는 아들 찾는 역사다.	·기독교 섭리 2 천 년은 독생녀 찾는 역사다.
독생자 독생녀의 의미	·독생자: 개성을 완성한 남성을 대표 ·독생녀: 개성을 완성한 여성을 대표 ·만인 독생자 독생녀	·독생자: 아담, 예수 유일 ·독생녀: 해와, 한학자 유일
독생자 독생녀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	·가정완성	·하늘부모님성회 완성 ·독생녀 숭배
경전	〈8 대교재교본〉	〈천일국 3 대 경전〉
결론	독생녀론의 핵심인 창시자 유원죄 타락 혈통 출생, 한학자 무원죄 순혈 출생은 창시자의 말씀과 통일원리와 완전히 충돌함. 결국 하늘부모님성회는 통일운동과 별개의 종교임	

제3장 독생녀의 타락

제1절 한학자 타락의 정의

기원절이라는 복귀섭리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창시자가 한학자에게 기대했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했다. 한학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한학자는 창시자의 아내이자 문현진, 문형진, 문국진의 어머니로서 통일운동의 ‘참어머니’였으며, 참자녀와 하나 되어 창시자를 중심한 섭리의 중책을 다해야 했다. 특히, 한학자는 모자협조시대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부자협조시대와 2세섭리시대 그리고 제4차 아담권시대의 조력자로서 창시자가 섭리의 중심에 세운 문현진을 도와 그에게 창시자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이 성공적으로 상속되도록 참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했다. 이것은 문현진을 섭리의 중심에 세운 창시자의 일관된 바람이었고, 한학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한학자가 아들에 대한 질투심을 버리고 창시자의 뜻대로 문현진과 완전히 하나 되었다면, 참가정 분열도 통일운동 분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학자는 통일운동의 근본인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오래전부터 부정해 왔고, 창시자 성화 직후부터 독생녀 정체성을 주장했다. 독생녀론의 핵심은 아담형 인물로서 원죄 없이 태어난 창시자의 정체성을 한학자의 정체성으로 둔갑해 한학자가 창시자와 결혼해 줌으로써 유원죄 출생의 창시자를 복귀해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창시자의 메시아적 위상을 격하해 한학자를 메시아로, 나아가 하나님 부인이자 여자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이 독생녀론의 최종 목적이다. 이는 한학자 독생녀론을 중심한 독생녀 현상을 창시자의 종교운동과는 다른 정체성의 신종교현상 혹은 분파 과정으로 보는 이유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학자는 창시자 성화 전 문현진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공

공연히 창시자 앞에서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독생녀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이는 기원절을 앞둔 창시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다. 그러나 문현진과 충실한 제자들이 축출된 상황 속에서 90세를 넘은 고령의 창시자가 홀로 고립되어 한학자와 공모한 문국진 문형진, 그리고 반문현진 세력들로부터 섭리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현진 제거에 동조한 반문현진 세력들은 장자권 섭리를 반대한 한학자와 종파적 통일교회 유지를 주장하던 1세 기득권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자기 지분을 위한 이기적 야망으로 뿔뿔 뿔친 문국진, 문형진, 문인진 등 일부 참가정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동상이몽이었지만, 문현진 제거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문현진이 창시자의 섭리적 이상에 따라 제도화된 종파적 통일교를 개혁하려 했고, 도덕성을 강조하며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 특히 혈통적 정체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현진을 축출하는데 한학자가 한 역할은 창시자 곁에서 창시자를 속이고 창시자의 이름으로 문현진을 축출하는 1세 교권주의자들과 문국진, 문형진의 거짓을 감추는 것이었다. 그들이 한학자와 창시자를 동격으로 주장한 것은 신격화된 한학자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한학자의 지시를 참부모의 지시로 둔갑시켜 통일교인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1세 교권주의자들은 창시자의 종교적 이상과 섭리에 대한 한학자의 무지와 자기 연민 그리고 교만을 이용해 한학자 속에 잠자고 있던 반섭리적 정체성의 싹을 틔웠고, 그 싹은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생녀론으로 성장하였다. 어찌 보면 해와가 천사장에게 속아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와 교만으로 창시자와 하나 되지 못한 채 주관성 전도를 꿈꾸던 한학자는 1세 교권주의자들에게 속아 문현진을 축출함으로써 창시자와 통일교인들이 평생 쌓아온 통일운동의 전통과 기반을 무너뜨렸다. 부자협조시대의 섭리적 이상을 부정한 한학자의 협조로 장자권 섭리 대신 제자 승계를 도모했던 법통 주의자들의 천일국헌법과 최고위원회는 한학자가 천사장들에게 주관 당한 명백한 증거이다.

창시자의 교시와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파악되는 한학자의 언행과 독생녀 정체성은 주관성을 전도하고 참여머니의 위치를 떠났

으며, 천사장격인 교권주의자들과 하나 되어 그들의 주관 아래에서 참가정을 파탄냈고, 결국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학자의 타락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⁵⁰⁰⁾

주관성이란 대상적 격위를 상대로 창조목적 실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시하여 갖는 주체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말한다.⁵⁰¹⁾ 대상은 주체의 주관성을 창조원리로 인정하고 무한히 존중할 때 주체와 대상의 원리적 수수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일원리는 주체와 대상의 완전한 일체를 위해 주체와 대상의 격위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주관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따라서 통일원리는 해와에 대한 아담의 주관성과 천사장에 대한 해와의 주관성을 절대적으로 규정해 놓고 아담에 대한 해와의 주관성 전도를 해와 타락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⁵⁰²⁾ 이런 관점에서 한학자는 타락했다.

1. 주관성 전도

한학자는 제3 해와 후보자로서 창시자와 성혼 후 해와의 주관성 전도를 탕감 복귀하기 위해 100% 창시자와 하나될 때까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해야 했다.⁵⁰³⁾ 이것을 위해 창시자는 성화 직전까지도 한학자를 교육하며,⁵⁰⁴⁾ 5%, 3%의 책임이 남아 있다고 끊임없이 교시했다.⁵⁰⁵⁾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생긴다는 교시까지 했다.

500) 『말씀선집』 15권 193쪽. 1965.10.9. 여기에서 ‘타락’이라 함은 아담과 해와가 본래의 위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이 한학자가 참여머니의 위치에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501) 원리의 주관성이란 주위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작용을 말한다. 『통일사상요강(두익사상)』 213쪽.

502) 『원리강론』 101쪽.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된 데서 타락의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뒤바꾸는 데서부터 인간사회의 질서는 문란(紊亂)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503)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절대복종만 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다. 왜냐면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던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려면 해와가 아담에게 완전히 주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선집』 18권 272쪽. 1967.6.12.; “어머니의 전통은 절대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선집』 72권 200쪽. 1974.6.16.

504) 『말씀선집』 74권 271쪽. 1974.12.31.

505) 『말씀선집』 350권 196쪽. 2001.8.6.

“아담·해와의 하나님의 사랑에 품긴 그 몸뚱이를 가지고 사탄 세계를 굴복 시켜야 할 것이 부모님이 가야 할 길이에요. 다 아니까 말이에요. 어머니는 선생님을 절대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생겨요. 자기 말을 들었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주관성을 전도했으니까 어머니를 바로잡아 줘야지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요?”⁵⁰⁶⁾

그러나 창시자의 많은 교시와 한학자의 언행, 특히 독생녀론을 주장해 온 한학자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한학자가 주체인 창시자의 아내이자 대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일찍부터 창시자를 주관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어머니가 아버님을 교육해야 되겠나, 아버님이 어머니를 교육해야 되겠나?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님이 먼저 완성해야 되겠나, 어머니가 먼저 완성해야 되겠나? 아버님도 교육받아야 되고 어머니도 교육받는데, 아버님을 하나님이 교육한다면 하나님한테 교육받은 아버님은 어머니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라구요.

여러분은 어머니를 제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아버지를 빼놓고. 요즘에 미국 간나들 가운데 그런 간나가 있어요. 제일 가깝다는 사람이 ‘선생님이 가정에서 살게 될 때 어머니가 중심이냐, 아버지가 중심이냐?’ 그러더라구요. 그거 물어볼 게 뭐 있어? 쌍년 같으니라구! (웃음) ‘어머니가 중심입니까, 아버님이 중심입니까?’ 묻는데, 미국을 따라가야 되지, 한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쌍놈의 간나! 그놈의 간나 남편도 그러고 있어서 남편을 내가 불러다가 기합을 준 거예요. ‘너 여편네의 말을 말 듣고 사나, 네가 여편네를 훈계하고 사나? 이 못난 놈!’ 하고 말이에요.

그거 선생님 말이 맞아요. 끝까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거 같아요? 「예.」 천만에! 내가 시간을 조금만 넘기면 ‘약속은 한 시간 하기로 했는데 왜 두 시간을 했소? 아홉 시가 웬 말이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배가 아주 아파 가지고 죽게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니 그거 됐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랬으니 개인이 못 되었어도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이니...”⁵⁰⁷⁾

506) 『말씀선집』 348권 272-273쪽. 2001.7.10.

507) 『말씀선집』 370권 299-300쪽. 2002.2.22.

“그 식을 이번에 어머니를 중심삼은 환갑에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을 안 시켰어요. 금식도 못 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금식을 하면 되겠나? 아무것도 모르는 해와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길러 나가는 거예요. 아담을 대신해서 재창조해야 돼요. 아담을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해야 된다고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자 이놈의 간나들, 쪽다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축복가정왕 즉위식이 끝날 때까지는 여자들은 꿈무늬에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36가정이고 무슨 가정이고 해 가지고…. 다 쓰레기통들인데 말이예요. 너저분해 가지고 여기에 와 앉더라도 어머니를 감싸고 있어요. 2세가, 3세가 감싸야 돼요. 하나님이 뭐냐 하면, 1세 2세 3세가 안 됐으니, 여러분도, 축복받은 36가정도 1세 2세 3세가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된 3세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쌍짓들아! 원리가 그렇지요?”⁵⁰⁸⁾

“타락한 것이 아담·해와 하나지, 두 아담·해와가 뒤집어 박았나? 참부모 중심 삼고, 이 어머니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 중심 삼고 나가야지 자기 색깔이 있다가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넘어서 가지고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또 밀어주기 전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⁵⁰⁹⁾

“안 해 보라고요.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몇 번씩 공석에서 발표한 말, 선생님의 말을 절대로 믿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어머니 상속 대신자가 되느냐 이거예요.”⁵¹⁰⁾

2005년 2월 21일 창시자의 교시에 따르면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자신은 원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원리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한 한학자의 대답에 대해 창시자는 “더 이상 무서운 말이 없다”라는 말로 한학자를 심판하였다.

“통일교회에 중심이 있어요? 가정적 중심이 있어요? 선생님도 아직까지 어머니 중심 삼고 넘을 수 있는 고개를 넘기 위해서 악착같이 참는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헛발을 깨물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길러서 이상적인 아내를 만드는 것이 세계 통일보다 더 어려워요.

508) 『말씀선집』 403권 228-229쪽. 2003.1.23.

509) 『말씀선집』 464권 51쪽. 2004.8.6.

510) 『말씀선집』 465권 202-203쪽. 2004.8.21.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하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몰라요. 지금 듣고 있을 거라고요. 이제부터 알아야지. 잊그제 한 얘기, ‘선생님은 원리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어서. 서슴지 않고 선생님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잊어버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수가 있으면 잊어버려요. 이름을 잊어버리고 얼굴을 잊어버려요. 털고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⁵¹¹⁾

“어머니, 똑똑하게 알아보라구. 하나님이 어머니를 중심 삼고 선생님보고 하나 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마음자리에 남편을 중심 삼고 하나 된 후에 그 남편과 하나 된 하나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돼요. 천만인이 그렇게 믿고, 천만인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늘땅에 하나의 왕권 즉위식이, 평화의 왕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얘기해 봐요. 여기 간부랬지? 통일교회 간부야? 무슨 간부야? 여자 셋 쓴 간부(姦夫)야? 그래, 사탄 세계의 아들딸들이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은 왜냐? 어머니를 통하게 되면 무사하거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하거든. 그래 보라구요. 그거 전부 다 깨져 나가요. 그 후손은 이미 결판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⁵¹²⁾

“지금까지도 그래요. 고개를 넘어서 세계 공판정에 나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옳다고 판결한 것을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하늘땅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길이 생겨요. 어머니가 그럴 수 있는 것, 5퍼센트 책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해 줬어요. 때가 되기 전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내가 몇 번씩 잘못하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철부지한 어머니를 선택해 가지고 하늘 앞에 사랑을 맹세한 거예요. 그 맹세는 처음 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참아요. 세상에, 선생님의 성격에….

그릇된 입장에서 끝까지 변명하고, 입술을 파드득 떨면서까지 해 가지고 한때는 보파리를 싸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보파리를 싸 가지고 틀림없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나갔다가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듣지? 그러니 언제나 한 세상 앞에 나갔어요. 형적인 세계에서 이랬으면, 나는 종적인 세계 기준에서 대하

511) 『말씀선집』 488권 156-157쪽. 2005.2.21.

512) 『말씀선집』 489권 222-223쪽. 2005.3.2.

니만큼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본이 돼야 된다는 거지.”⁵¹³⁾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을 때 받아 가지고 하나님에게 봉헌해 드려야 돼요. 13년(2013년) 1월 13일이 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묶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나 지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가정이 모델 됐으면, 그 모델을 중심 삼고 이 자체를 어머니가 낳아야 돼요. 개인을 낳고, 종족을 낳고, 나라를 낳고, 세계를 낳는 이런 역사를 해야 돼요. 그건 어머니 외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세우는데, 어머니가 선생님 앞에 있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타락할 때 뒤집어진 그 한계선까지예요.”⁵¹⁴⁾

“세상 같으면 매일같이 싸움만 하겠어요? 작달해 가지고 대가리가 깨져나가고 팔이 부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만, 선생님은 알고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 일어날 수 있는 소질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를 중심 삼고 푹푹 뭉쳐 가지고 남자를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 남편 앞에 사탄과 같은 권한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자의 입장이예요.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분만은 어머니가 마음대로 못 해요. 아담을 타고 앉았지? 그거 하면 되겠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지? 어머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산을 넘어가 가지고 30년 미래에 가야 할 역사를 두고 조정하는 거예요.”⁵¹⁵⁾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담판을 해야 돼요. 여자가 음란의 씨를 뿌려놓고 자기를 주장해 가지고 남자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 가게 된다면, 그게 여자 세계예요. 음란의 왕국이에요. 레버런 문이 그 음란의 왕국에 어머니를 데려가서 ‘어머니도 선생님의 어깨 위에서 꼭대기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의 말에 대해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97퍼센트를 어머니에게 다 투입했지만, 3퍼센트만은…。 내가 절대 97퍼센트에 120퍼센트까지 했어요. 23도를 가해서 나한테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없게 될 때는 정자의 씨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통일교회 스승이 가는 최후의 고개, 경계선을 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⁵¹⁶⁾

513) 『말씀선집』 532권 255쪽. 2006.7.16.

514) 『말씀선집』 561권 217쪽. 2007.4.26.

515) 『말씀선집』 561권 225쪽. 2007.4.26.

516) 『말씀선집』 610권 139-140쪽. 2009.4.22. 한학자는 원본 『말씀선집』에서 이 말씀 전체를 삭제한 후 재발간하였다.

1) 주관성 전도의 동기; 문현진에 대한 시기 질투

창시자가 17세 소녀 한학자를 제3 해와 후보자로 선택해 1960년 4월 11일 성혼한 이후 창시자 자신의 완성은 물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소녀 한학자에게 전수하고 상속하며 종적, 횡적 8단계 책임을 다하게 해 창시자와 동위, 동등권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 나왔다.⁵¹⁷⁾

창시자는 1990년대 말경부터 한학자를 창시자와 대등한 자리에 세웠고, 2대 교주로 인정한다는 언급 외에 한학자와 아들이 함께 책임 하는 ‘모자협조시대’가 끝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섭리하는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였다. 창시자는 “어머니의 책임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교시하였다.

한학자를 중심한 모자협조시대에서 문현진과 창시자를 중심한 부자협조시대로의 전환은 창시자의 자녀가 장성함에 따라 부모시대에서 자녀시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섭리의 과정이었지만, 아들 문현진을 중심한 창시자의 ‘부자협조시대 선포’는 ‘2대 교주’로 인식한 한학자의 주관성 전도를 불러일으켰다.

여성이기 때문에 창시자, 즉 남성에 억압받아 왔다고 믿은 한학자가 현재 창시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독생녀론을 중심으로 하늘부모님성회를 이끌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남성인 창시자를 대신하여 아들인 문현진이 통일운동을 지배한다면 여성인 자신의 통일교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학자는 아들 문현진을 제거하기 위해 문현진을 중심한 통일운동 체제에 반감을 품고 자기 지분을 노리던 다른 자녀들, 문국진, 문형진, 문인진 등을 끌어들였고, 문현진의 강력한 리더십에 반발하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통일운동 1세 간부들과 공모해 반문현진 세력을 형성하였다.

2) 참가정을 파탄낸 한학자

한학자가 문현진을 중심에 세우려던 창시자의 뜻을 막기 위해 벌린 일련의 과정은 참가정 파탄으로 이어졌다. 자애롭던 참여머니 한학자가 환갑을 전후해 돌변했다는 심우옥의 증언처럼, 아들 문현진을 지지하고 변호해 주던 한학자는 아

517) 『말씀선집』 587권 75-76쪽. 2008.2.24.

들을 중심한 통일운동 체제를 뒤집어 한학자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 서기 위해 문현진, 문국진 두 아들을 끌어들였고, 참가정을 분열시켰다.

결국, 한학자는 참가정의 어머니 입장을 버림으로써 타락하였다.⁵¹⁸⁾ ‘부자협조 시대’와 ‘2세섭리시대’의 섭리적 의미를 망각한 채 과도한 욕망에 눈이 멀어 섭리의 중심에 세운 문현진의 섭리적 기반을 탐했다.

2006년 4월 23일 문국진이 일으킨 소동을 정리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창시자가 가족회를 주도했을 때 한학자는 창시자의 지시를 어기고 문현진과 문국진의 갈등을 부추겼다. 2006년 6월, 문현진의 UCI 기반을 빼앗기 위해 창시자 몰래 김효율과 문국진 등 반문현진 세력을 앞세워 선교회 조직을 부활, 이사장에 올랐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한학자가 영계 메시지를 조작한 것만 두 건이다. 2006년 2월, 한학자는 여의도 성지 파크원 개발권을 빼앗기 위해 김효율과 공모해 훈모 김효남을 시켜 거짓 영계 메시지로 창시자를 속이고 광정환을 몰아내려 했고, 2009년 3월, 김효율, 양창식, 김효남과 공모해 영계 메시지를 조작함으로써 문현진의 모든 공직을 박탈했다.

참가정은 복귀된 가정으로서 타락과는 무관하다고 믿는 것이 통일운동의 믿음이다. ‘사탄편 가인과 하나님편 아벨’이라는 복귀섭리를 위한 역리의 공식이 본연의 가정인 참가정에서 복귀된 것도 참가정의 사위기대가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 본연의 가정을 대표하는 참가정의 질서는 부모를 중심한 형제자매의 질서를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7월, 한학자는 문국진과 함께 문현진을 몰아내기 위해 동생 문형진을 형 문현진의 인사권을 준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임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한학자의 계획대로 문형진은 세계회장이 되자마자 문현진의 공직을 하나하나 박탈해 나갔다.

2009년 6월 5일, 잠에서 덜 깬 창시자를 다그쳐 문현진을 저주하는 선포문에

518) 창시자는 어머니의 위치를 망각한 해와의 자체 자각을 타락이라고 교시하였다. “타락이 뭐냐 하면 자체 자각이에요. 해와가 해와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될 것을 몰랐고, 아내가 될 것을 몰랐고, 앞으로 나라에서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여왕이 돼야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될 것을 몰랐다고요. 하늘땅의 어머니가 되어서 하늘땅의 모든 만물을 아들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할 여자일 텐데 사랑받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사스러운 것이.” 『말씀선집』 555권 108쪽, 2007.2.9.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동영상 속 한학자의 행위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했던 해와의 타락행위와 다르지 않다.

뿐만이 아니라 한학자는 통일교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 문현진을 비난했고,⁵¹⁹⁾ 문국진을 시켜 성화한 아버지를 찾아온 문현진을 문전박대했다.

뿐만이 아니라 문현진을 내쫓기 위해 문형진과 문국진을 이용한 후 이 두 형제를 창시자 성화 직후 파크원 소송 패소 등의 책임을 물어 내쫓았고,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의 디포지션에서⁵²⁰⁾ 자식들을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자식들에게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특히,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이 데려와 키워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만들어 준 아들 문형진을 “중학교 수준의 모자란 아들”이라고 비하했으며, 2010년 6월 5일 창시자 침실에서 한학자와 문형진이 창시자를 음박질러 받아 낸 ‘대신자 상속자 선포문’은 문형진의 요청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⁵²¹⁾

한학자와 통일교 교권주의자들에게 속아 참가정 분열의 중심에 섰던 문형진은 참가정 분열의 진짜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한학자인데 창시자도 속고, 자신도 속았다고 폭로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여러분 찍소리도 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말했다고! 3년 전에! 왜? 왜냐면 어머니가 진짜 뭘 믿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알게 됐죠! 알게 됐죠.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 (때) 누구도 몰랐죠. 완전히 미스터리! 잘 숨겼어요. 아주 잘 숨겼어요. 아버님을 진짜로 메시아 재림주로 믿지 않았어요. 아주 잘 숨겼어요. 아버님 보좌도 아버님 보좌도 장악하고 대상의 위치를 떠나면서 주체 아버님의 주체 위치를 장악하고 이거는 해와의 타락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이게! 창조 세계의 타락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⁵²²⁾

“이런 사기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사기 놈들. 한 씨 어머니부터 그 사기꾼이죠. 한 씨 어머니부터 그 사기꾼이죠! 다 속였지! 본인

519) 2010년 여름 한남동 공관에서 36가정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의 한학자 발언; 2013.9.10. 사길자의 설교; 2013.12.23. 정동철의 언급

520) 2018.7.13.-14. UCI 소송 원고 증언; 2019.3.25.-26. 문형진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고로 증언

521) 『통일교분열실록』 제10권 208쪽.

522) 문형진의 설교, 2015.11.17.

의 영광 사랑하는! 바벨론의 음녀! 세상에! 자기만 버렸으면 아버지 역사에 모든 영광 받을 수 있는 여성! 명청한 무너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짧은 3년 동안에 영생 버린! 영생 버린! 사기!”⁵²³⁾

3) 한학자와 이혼을 고민한 창시자

창시자는 해와가 타락했어도 종대이자 혈통의 뿌리인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귀섭리는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⁵²⁴⁾ 최선길(성진 어머니)과 김명희(희진 어머니)의 책임분담 실패로 한학자가 그들을 대신해 참여머니 후보자로 선택되었던 것처럼, 한학자가 책임을 못 하면 그 자리는 다른 어머니 후보자로 교체될 수 있다고 창시자는 보았다.

“그때 선생님을 모셨다면 그 일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어머니 됐을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성진이라고 선생님하고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성진이 어머니 최씨가 복 받아요, 최씨가. 최씨 일족이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들이 축복받아요.”⁵²⁵⁾

문현진을 중심한 부자협조시대와 2세섭리시대 정착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었던 창시자는 2004년 1월 26일에도 한학자와의 이혼과 재결합을 언급했다.

“여기에 어머니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이제는 어머니하고 갈라서 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지금까지 물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판 사람 가정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계속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산했다가 다시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⁵²⁶⁾

2004년 12월 4일 창시자는 “어머니 대신 다른 후보자를 세워 가지고 훈련을 시킬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한학자에 대해 하나님 혈통의 정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23) 문현진의 설교, 2015.12.30.

524) 『말씀선집』 128권 137쪽. 1983.6.11.

525) 『말씀선집』 272권 23쪽. 1995.8.30.

526) 『말씀선집』 433권 139쪽. 2004.1.26.

“정자 난자가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진 그 정자가 출발해 가지고 몇천만 년이에요. 자리를 못 잡았어요. 참여자의, 사랑의 상대의 난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 여자의 자궁에 그런 정자를 키워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혼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후보자를 세워 가지고 훈련을 시킬지 몰라요. 과부가 됐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선생님을 아는 사람은 선생님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도 알아요. 축복을 해 줘 가지고 사랑을 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해방을, 하나님의 문을 열어 줘 가지고, 궁전 문을 열어서 비밀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 놀음을 한다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왕후를 겁탈할 수 있어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틀림없이 틀어졌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모셔 가지고 진짜 아내의 자리에 모실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어린 어머니를 길러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마만큼 길러 오기에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을 모르지. 어머니가 다 들을 거예요. 또 들으면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는 어머니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안 할 수 없어요.”⁵²⁷⁾

2005년 7월 3일 창시자는 한학자가 어머니의 책임을 못 하면 갈아 치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를 택해서 어머니가 고개를 넘기 전까지는 못 하게 되면 갈아치울 수 있어요, 국가 기준에서. 세계 넘어갈 때까지 어머니가 완전히 아버님과 하나 돼야 돼요. 어머니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세상의 여자와 같은 입장에 금식도 안 시키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처음 듣지? 7일 금식을 안 했어요. 전도도 안 시켰어요.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⁵²⁸⁾

한학자의 불신, 특히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하던 한학자에게 창시자는 이혼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문형진은 2015년 3월 15일에 폭로했다.

527) 『말씀선집』 479권 156-157쪽. 2004.12.4.

528) 『말씀선집』 499권 235-236쪽. 2005.7.3

“또한, 참부모님의 관계가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지요. 아이피스트브(ipeace tv) 관련자들에게 ‘이 비디오는 유출되면 안 된다.’ ‘휴대폰을 다 꺼라. 찍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님께서 ‘어머니, 이렇게 계속 하면 당신과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천사장! 당신네들도 두 눈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할 만큼이나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식구들 앞에서 감쪽같이 숨겼지요. 이 투명의 정오정착의 시대에서 감쪽같이 숨겼지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자신들이 참부모님의 비밀을 보호해 드리고 있다고 생색내고 싶었을 테니까요. ... 제가 천복궁 시무 당시, 이 회장 이하 여러 국장들, 혼사님들과 천정궁에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참어머니와 함께하는 회의였지요. 다시 참어머니께서 ‘참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핏줄을 가지고 있으시다.’ ‘나만이 순결한 독생녀이며’ 등등.. 참어머니께서 다시 역설하셨습니다.”⁵²⁹⁾

2. 한학자의 패륜적 발언

창시자의 사촌 동생인 고(故) 문용현은⁵³⁰⁾ 2020년 2월 15일, 통일교 원로 36 가정 김영희를 만난 자리에서 창시자와 한학자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자신의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문용현이 고백한 내용은 ① 한학자는 창시자를 업신여기고 있으며 종교적, 섭리적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 ② 창시자가 한학자의 ‘참어머니’ 역할 실패를 암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③ 창시자 성화 후 한학자가 창시자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사실 등이었다.

문용현은 19세부터 창시자를 따라 통일운동에 동참해 온 통일운동 역사의 산증인이다. 창시자가 성화하기 전 여수에서 문용현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수시로 대화하는 동안 문용현은 창시자의 내밀한 말년의 사정을 직접 들었다.

1) 한학자가 창시자를 업신여김(아래 대화는 문용현의 진술 녹취)

[한학자] 통일교회의 사랑을 독차지한 문 장로님, 문 장로님. 요새 행복하시지

529) 문형진의 설교, 2015.3.15.

530) 문용현은 고백을 남기고 4개월 뒤인 2020년 6월 24일, 향년 89세로 성화하였다.

요?

[문용현] 네, 재림주님...

(문용현이 답을 하려 하자)

[한학자] 재림주가 무슨 재림주예요. 그게 무슨 재림주예요, 시골의..

[문용현] (이제 뭐라 그러냐)

[한학자] (한학자가 문용현이 대답하려는 말을 끊고) 골목길의 골목대장도 못 되는 게 무슨 재림주예요.

[문용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다가(있는 데) 계속 막말을 해요.

(다시 한학자 발언)

[한학자] 충모님 그만치 대접했으면 됐지. 무슨 충모님이나?

아니, 시골 노인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말이야. 그렇게 제사상 잘 차려주고, 잘했으면 됐지.

[문용현] 아 그러면서 막 충모님(을 놓고) 그 비행(비난)을 하고 말이야.

막 그래서. 그래서 참- 혀를 깨물고 말이 나오는 것을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용현] 어머님, 이제 제 말씀 좀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충모님이 아버님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학자가) 원래가 바쁘니까 밤에 벌떡 일어나서 막 도망가더라고.

하여튼 그거 아니래두(아니라도),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나는 마음이 떠났어요.

이제 어머님이.. 나는 솔직히, 아버님하고 이렇게 말이지 (어머니가) 성혼식을 올릴 때에, 참 그 젊은 나이에, 저런 나이 많은 노인네....

제가 알래스카에 갔을 때도 모시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울었지요. 아버님이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 왔느냐. 얼마나 참 마음이 안 들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난 사실, 내가 눈물이 조금 많은 사람인데, 아 이제 통곡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아, 그 말 들은 때부터 어머님이 내 맘에서 떠났어요. 나는 그렇게 정말 막 말을 할 줄은 난..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을 떠났다.

2) 이제 그만하시고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김영휘 회장을) 어제 그제 만났는데요, 어제 그제 만났는데, ‘김영휘 회장님,

나는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 회장님이나 우리 원로들이 협조를 안 해도 극단적으로 어머님한테 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는 그만하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그만하시지요.’ 하려고 이제 내가 작심을 하고,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김영휘 회장님이 암말도 안 해요. 암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참 생각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앞장 안 서면 안 됩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 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하려고 원주한테, ‘너희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 바꿔달래도 전화도 안 주고. 참 시간 내달래도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머님한테 얘기해라. 고만하고, 고만하고 아들한테 자리를 내주고 뒤에서 조용히 물러나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3) 선모(善母)감이 없다

[창시자] ‘내가 다 해 놓았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문용현] ‘그게 뭐니까?’ 그랬더니

[창시자] ‘선모(善母)감이 없다.’

나는 그것도 명칭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다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선모감이 없대요.

[창시자] ‘그걸 찾을래도 찾을 길이 없구나.’

아, 그래서, [문용현] ‘아니 선모는 충모님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명칭하게.. 이제 재앙이 오는데, 난 요새 그걸 이 재앙이 아닌가 걱정이 되요.

[창시자] ‘재앙이 오는데, 선모도 선모지만, 이 한국에 재앙이 오는데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 내 그 재앙을 막느라고 잠을 못 잔다. 밥맛이 없다.’

[문용현] ‘아버님 이제 낚시하고 다 끝났으니까 편히 좀 쉬세요.’

[창시자] ‘내가 쉬면 그만치 손해가 난다.’

참 이제 우리 아버님이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땡기다가(다니다가), 사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참 이제 그 아버님을 알게 되서, 이제 있는데, 결국 뭐 저(희)들이야 고생될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아버님이 살아온 거를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아버님은 진짜 불쌍하구나, 불쌍한 분이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날데고(날더러) 보자 그러더니 말어요. 나한테 막말을 퍼붓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어머님에게서 떠났어요.

4) 아버님 시신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나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내가.. 일단은 검찰에 가서 그걸 다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조사해서 그 현장을 가서 조사를 좀 해서 증거를 전부 다 확보하고.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광장에 갖다 놓고. 아니 시신을 말아야. 그 뭐가짜를, 세멘푸대 거기다 넣어 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또 빈 무덤에다가 절하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나는 솔직히 문 총재님하고, 내가 뭐라 그래야 되냐, 사실 사촌 동생으로서 일평생을, 나는 못났지만, 일평생을, 나는 나이 19살 때부터 따라나서 이제 90이 넘었는데,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인데, 이걸 이런 걸 보고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까, 나는 이제 법에서 해결하려고, 뭐냐면 법정에서 가서 나와서 이걸 조사해서, 이제 기자들 다 오라고 해서 전부 다 박살을 내려고(합니다.)”

3. 한학자 숭배는 타락행위이다

창시자의 교시와 2005년 초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근거로 볼 때 한학자는 이미 이때 창시자와 다른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었다. 2005년 2월 25일, 창시자는 한학자를 숭배하는 독생녀 현상을 예측한 듯하다. 한학자를 숭배하는 것은 원리를 벗어난 타락이라고 교시하였다.

“어머니, 알겠나? 어머니 책임, 아버지 책임을 알아야 돼요. 이 못된 것들, 왕권도 상속받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 사탄이 때려잡아요. 미국에 있어서 누군가? 요전번에 여성연합 회장 하던 사람이, ‘아버님이 어머님을 존경하느냐, 숭배하느냐?’ 할 때 이 간나가 숭배해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더라구요. … 요즘에는 여자들을 내세우니까 여자가 제일인 줄 알고 어머님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부모님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 광정환! 「예..」 김효율! 공금이 있으면 어머니가 달란다고 해서 아버지 몰래 갖다 지불 하면 문제

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최후의 결정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예.」 보고할 때도 반드시 와서 아버님이 같이 있거든, 아버님이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님이 같이 모셔 가지고 아버님 앞에 보고하게 되면 어머니와 하나 되지, 어머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이 하나 되는 것은 타락 아니예요? 원리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하고 약속한 것을 속이는 법이 없어요. 한 대로 했지. 내 하는 것을 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없어요.”⁵³¹⁾

이는 한학자 승배에 대한 창시자의 경고였다. 그리고 어머니 한학자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이 타락이라고 말하였다. 독생녀가 아버지의 혈통을 부정하고 독생녀 승배를 강요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의미이다.

한학자에게 승배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부추긴 자들은 자기 연민에 빠진 한학자와 비원리적으로 수수작용을 한 천사장격 한학자의 측근들이었다. 한학자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며 인간적 연민을 초월해 참여머니가 되라고 교육하였던 창시자의 섭리적 의도를 한학자는 물론이고 그녀의 측근들은 인간적으로 오해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훈모 김효남이었고, 김효율이었으며, 한학자를 수발하던 정원주를 비롯한 통일교인들이었다.⁵³²⁾

“한 씨 어머니가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비밀적으로 온 조직이 한 씨 어머니의 끊임없는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거 봤지? 너희들이 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하면서 양창식이 사기 놈들한테 가서 어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훈모한테 어 김효남이한테 가서 ‘어, 아버지는 왜...’ 이런 문화를 퍼뜨리고 아버지를 욕하는 문화 돼 버렸어요. 이게! 아버지 등 뒤에 욕하는 문화! 가정 파괴하는 문화!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는 문화, 천사장들이 억압할 수 있는 나라!”⁵³³⁾

문형진의 증언과 2005년 3월 22일 창시자의 교시에서도 한학자의 독생녀론이 발견된다.

“어머니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도 내

531) 『말씀선집』 489권 27-29쪽, 2005.2.25.

532) 『말씀선집』 413권 304-305쪽, 2003.7.24.; 문형진의 설교, 2015.3.15.; 문형진의 설교, 2015.3.29.

533) 문형진의 설교, 2017.7.26.

가 없으면 완성 못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구요. 그것은 다 선생님이 이루고 난 후에 따라오면서 할 말이지, 상대적 입장에서 대등한 백 퍼센트 기점을 받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답이 못 되는 것을 알지어다. 알겠나? …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다 절대가치를 연결했으니 내가 없으면 하나님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 하라는 대로 하소.’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한다 이거예요.”⁵³⁴⁾

2005년 초 한학자가 창시자의 면전에서 “내가 없으면 아버지도 완성 못 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통해 문국진과 문형진을 끌어들이 참가정 분열을 조장하던 2005년 초에 이미 한학자는 구체적으로 독생녀 정체성을 창시자에게 공공연히 발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학자를 주관한 천사장적 인물들

창시자나 한학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최측근들이 있었다. 창시자가 이들을 믿고 측근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 ‘참부모’와 사적, 공적으로 늘 함께 있었다. 통일운동 현장의 목소리나 소문을 창시자 부부에게 전달했고, 참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도 도맡았다. 통일운동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에서부터 창시자나 한학자의 대화와 고민, 그리고 참가정 내의 은밀한 이야기까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가정의 판도라 상자 그 자체이기도 했다.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들은 통일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그들의 역할이나 입장은 마치 태초의 천사장이나 후한(後漢)의 십상시(十常侍)와도 같았기 때문에 통일운동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그러나 통일운동 분열 과정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창시자의 가정이 창조목적을 완성하도록 가인권 자녀로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했지만, 한학자와 일부 참가정 구성원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창시자의 섭리적 이상을 파괴하는 타락한 천사장 같은 입장에 서기도 했다. 그래서였던지 창시자는 창시자를 속이는 한학자와 그녀의 측근들에게 “속닥거리며 공작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534) 『말씀선집』 491권 247쪽. 2005.3.22.

“그래, 어머니보고는 와서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소식 안 전하면 좋겠다.’ 하는 표시로서 눈을 이려고 도망가는 녀석 몇 녀석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를 마음대로 뒤에서 공작하지 말라구요, 여자나 남자나. 알겠어요? 선생님도 늙었는데 기분 나빠 가지고 흥두께로 대가리를 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손자들끼리 속닥거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 나, 할아버지 대왕이니 속닥거리는 것을 처리하는 대왕마마가 돼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울타리 너머에서, 세 울타리 너머에서 속닥거리는 말만 들으면 그 누구든 가서 볼기를 쳐서 보내야 통일교회 소문을 안 내요. 자기가 책임자인데도 입으로 ‘와와와’ 이래 가지고 별의별 싸움패를 만들고 말이에요.”⁵³⁵⁾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성신, 어머니의 영과 의논해 가지고 둘이 하나 돼 가지고 선생님을 밀어줘야지, 자기 멋대로 하려면, 여러분 뒤에서 속닥거리지 말라구요. 뜻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쁘고 어떻다고 보고하면 안 돼요. 선생님 외에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에게 보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뒷문으로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쫓아 버려야 돼요.”⁵³⁶⁾

1) 김효율

남자 천사장격 인물 중 대표는 김효율이었다. 그는 일찍이 창시자의 장남 문효진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며, 창시자 성화 직후에도 한학자가 ‘제도권 위의 남자’로 호칭한⁵³⁷⁾ 한학자의 최측근이었다. 김효율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나뉜다. ‘참부모’의 최측근이었음에도 절대복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겼고, 사사로이 공금을 횡령하지 않은 충신 중의 충신이라는 평가와 한학자와 함께 창시자를 속였고, 참가정 분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제자 승계로 통일운동의 전통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양면의 평가를 받고 있다.

2) 김효남

김효율이 남자 천사장격 인물의 중심이었다면, 여자 천사장격 인물의 중심은

535) 『말씀선집』 468권 214-215쪽. 2004.9.14.

536) 『말씀선집』 487권 173쪽. 2005.2.15.

537) 한학자의 설교, 2013.1.7.

단연 김효남이었다. 통일교회 집사(執事)였던 김효남이 1998년 1월, 기도단을 만들어 소위 ‘대모님 흥진님 역사’를 청평수련원에서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김효남이 통일교회 주류 영매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김효남이 창시자의 인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전 수택리 중앙수련원장 김중수와 한학자였다고 한다.⁵³⁸⁾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가르치는 어머니, 훈모’ 사명을 창시자로부터 부여받은⁵³⁹⁾ 김효남이 현금 모금 등 나름의 큰 역할을 했지만, 직간접적으로 창시자의 종교적 권위를 세속화시켰고, 통일교인들로 하여금 통일원리보다 무속의 기복적 신앙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창시자의 정체성과 다른 자의식을 한학자에게 불어넣어 독생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3) 윤영호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운동 분열의 최대 수혜자는 아들들을 내쫓고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며 참가정을 파탄 낸 후 통일운동을 차지한 한학자가 아니라, 한학자를 주관함으로써 한학자의 통일교(하늘부모님성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일파라는 주장이 통일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 등장하는 윤영호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 그가 한학자와 일부 참자녀를 내적·외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해 통일운동 전체를 장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⁵⁴⁰⁾ 특히 윤영호의 통일교 장악 시나리오로 보이는 세 개의 YHY 문건인 2018년 1월,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CEO 사업계획서 full version”과 2019년 2월, “2019 Strategy for YHY CEO and SHL CFO True Family Victory,”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 ‘청평가정연합교회’ 명의로 전국 통일교회 원로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YHY Strategy to 2020(Game Over)”가 바로 소위 세 개의 윤영호 문건이다. 이 문건 작성자는 윤영호의 통일

538)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한학자는 김효남을 환생한 자신의 어머니 홍순애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539) 『말씀선집』 353권 249쪽. 2001.9.10. 창시자는 훈모 김효남의 사명을 거의 절대화하였고, 통일교인들에게 훈모와 청평에 절대복종하라는 교시를 내리기도 했다.

540)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쓴 『통일교분열실록』 전집 11권을 참고하라.

교 지배를 견제하는 박진용 변호사 중심의 통일교 2세 그룹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한학자와 참가정을 포섭해 통일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후 한학자의 동생이나 아들로 입적해 참자녀의 종교적 지위를 얻어 통일교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려고 한 ‘통일교 장악 시나리오’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 내용과 더불어 문건의 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⁵⁴¹⁾

윤영호는 한학자의 지시로 김진춘이 2022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의한 한학자 독생녀론을 “비원리적인 사악한 견해”라는 이유로 폐기하였다.⁵⁴²⁾ 한학자와 문국진 문형진 등이 창시자를 주관하며 그의 권위를 파괴했던 것처럼, 이는 윤영호 일파가 한학자를 주관하며 그녀의 종교적 정체성과 권위에 도전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이다.

윤영호는 2023년 5월, 부정부패 비리 의혹과 술집 마담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의혹으로 한학자에게 축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3년 6월 현재 막후에서 한학자를 조종하여 복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⁴³⁾

많은 통일교인은 주동문, 양창식, 김석병, 황선조, 이기성, 김항제 등도 타락한 천사장격 인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한학자의 수행비서로서 그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정원주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한학자와 함께 수백억 원의 카지노로 현금을 탕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⁵⁴⁴⁾ 널리 알려진 의혹대로 정원주가 참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학자의 후광으로 어떤 부정과 비리를 일삼으며 통일운동 분열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통일운동 분열사에서 파악되는 ‘타락한 천사장들’의 행적은 『통일교분열실록』 각 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541)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분열실록』 나머지 책을 참고하라.

542) 세가세본 2022-311, 2022.8.13.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는 사건(邪見)에 대한 세계본부 공식 입장 및 지침.”; “천지인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는 사건(邪見)에 대한 신한국가정연합 제4지구 성명서,” 2022.11.28.

543) <https://cafe.daum.net/antiucorruption/ZX>, “자신이 해고한 윤영호 본부장이 두려워 윤영호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독생녀 TM”; <https://cafe.daum.net/antiucorruption/as2Y/18>, “마담 길러 윤영호 본부장과 도박중독자 정원주 비서실장의 생사여부는 오리무중”

544) <https://cafe.daum.net/W-CARPKorea/cSkJ/40609>, “통일교는 도박판으로, 통일교 인사는 도박중독자 정원주 제2 비서실장 마음대로”

제2절 독생녀론에 대한 통일교인들의 반응

한학자의 하늘부모님성회에 예상치 못한 사건과 비리 의혹이 터지고 독생녀론이 통일원리와 충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통일교인들은 각양각색으로 독생녀 현상을 이해하고 있다.

1. 심층 면접

독생녀 현상에 대한 통일교인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2018년 3월, 통일교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대면 혹은 전화)을 하였다. 17개의 질문을⁵⁴⁵⁾ 통해 연령대, 직업, 과거 신앙 이력, 현재 신앙 상태, 국적 등에 따라 독생녀 현상 관련 정보를 습득한 정도와 내용 그리고 이해도를 파악했는데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⁵⁴⁶⁾ 이들의 반응은 크게 4가지로 구별되었다.

1) 참어머님께 절대복종해야 한다!

첫 번째 반응은, 현재 하늘부모님성회가 주장하는 대로 한학자는 창시자와 완

545) 1.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3. 통일교회 입교 동기와 축복 받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4.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5. 만족도의 이유는? 6. 현재 축복가 정공동체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아버님 성화 이후 교회 분위기와 신앙생활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8.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아버님과 어머니의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아버님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믿습니까? 11.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12. 어머니는 독생녀라고 믿습니까? 13.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독생녀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혹시, 어머니가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5.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어머니와 아드님들이 만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참가정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18년 3월에 진행된 전화/대면 질문)

546) 답변자의 요구로 그들의 인적 사항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생략하였다.

전히 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비록 창시자의 정체성과 한학자의 정체성이 충돌하더라도 그녀의 교시를 곧 창시자의 교시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에게 독생녀 현상은 신앙적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창시자의 교시를 진리로 믿어왔던 것처럼 한학자의 설교도 진리이며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복종해야 할 신앙적 과제였다.

A의 반응이 대표적이었다.⁵⁴⁷⁾ A는 1960년대 초에 입교하여 과거 다년간 목회한 바 있고, 현재는 가정연합(하늘부모님성회) 소속 교회에 출석하며 통일교 원로 목회자 모임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가정연합에서 보조해 주는 약간의 사례금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현재 그는 자신의 신앙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고, 세명의 자녀 모두 축복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 현재 통일교 관련 기관 기업에서 직원으로 종사하며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는 10대 후반 고향으로 개척 전도 나온 전도 부인의 인도로 통일원리를 알게 되었고, 신비체험 후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A의 인생은 통일교 신앙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다. 산골 청년이었던 A는 통일교 목회 과정에서 풍부한 세상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A보다 학벌이나 조건이 더 좋은 배우자를 축복결혼을 통해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시자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때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A는 사회적으로도 존경 받는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A에게 “참아버님(창시자)을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 참아버지로 믿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는 주저 없이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 그리고 필자가 “그렇다면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지요?”라고 묻자 A는 즉답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16세에 메시아 사명을 받으셨다고 하니 태어날 때는 원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혹시 입교하셨을 때 참아버님의 원죄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답을 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필자는 인터뷰가 독생녀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기

547) 2018년 5월 중순,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이루어진 A와의 대화는 필기나 녹음 과정 없이 진행되었고, 귀가 후 필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되었다. 필기나 녹음 등을 A가 원하지 않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생녀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어머님(한학자)은 독생녀가 맞나요?”라고 묻자, “틀림없는 독생녀다”라고 답했다. “참어머님이 말하는 독생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독생자 참아버님의 아내일 뿐만이 아니라 조원모, 홍순애, 한학자로 이어지는 모계 혈통 복귀과정을 거쳐 태어났으니 독생녀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참어머님은 스스로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시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라고 묻자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필자: 어머님의 독생녀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나는 참어머님 말을 믿습니다.

필자: 참어머님이 참아버지의 원죄를 청산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A: 그런 얘기를 들어 보았다.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어머님의 말씀은 아버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원리해설』, 『말씀선집』에 아버님은 원죄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A: 아버님과 어머님이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으니 현재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한다.

A와 30여 분 더 대화를 이어갔다. 약간 달랐지만, 심층 면접에 응해 준 30명 중 A를 포함하여 4명 정도가 독생녀 현상의 주인공인 한학자의 설교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그들은 현재 한학자의 가정연합에 출석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청평 수련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 일부가 가정연합 내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독생녀를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한학자의 리더쉽과⁵⁴⁸⁾ 현재 가정연합(하늘부모님성회)의 신앙 기준이 독생녀 숭배라는 점을⁵⁴⁹⁾ 고려해 볼 때 필자의 질문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거 창시자로부터 배운 원리와 신앙적 기준과 근

548) 한학자가 문현진에게 보낸 편지, 2013.1.21. 한학자는 문현진에 보낸 편지에서 “오직 누구든지 말로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신앙성경 마태복음의 내용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절대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학자의 설교, 2014.11.20.; 2018.8.14.

549) 김진춘,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2018.2.23. 13-19쪽.

본부터 다른 한학자의 독생녀론에 완전히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창시자와 한학자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질문에 난감해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은 비록 그들이 독생녀에 절대복종을 외치고 있지만 독생녀 현상이 그들의 확고한 신앙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독기 어린 한풀이다

독생녀 현상에 대한 통일교인들의 두 번째 반응은 강력한 우려였다. 30명 중 9명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중 문현진의 가정평화협회 소속이 2명, 문형진의 생취리 통일성전 소속이 2명,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통일교인도 2명이었다. 뜻밖에도 3명은 한학자의 가정연합 예배에 출석하고 있었다.

독생녀에 대한 강력한 우려의 반응을 보이는 통일교인들의 공통점은 독생녀 현상의 핵심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⁵⁰⁾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B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내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필자: 당신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

B: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가정에서 혼독회와 기도회를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것 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

필자: 신앙생활에 만족하는가?

B: 매우 만족한다. 3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신앙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지금 나는 내 본심과 양심 그리고 원리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필자: 현재 축복가정공동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B: 입교할 때와 축복받았을 때 나는 정말로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식구들을 보고 싶어 했고 헌신 생활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아버님 성화 전후 교회는 많이 달라졌다. 친목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필자: 참아버지를 구세주, 재림주, 메시아로 믿나? 아버님은 출생 시 원죄를 갖고

550) 강한 우려를 표명한 9명의 통일교인 중 5명은 <http://cafe.daum.net/W-CARPKorea>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태어났나, 원죄 없이 태어났나?

B: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통일교인의 신앙이다. 그것이 흔들리거나 부정되는 신앙은 통일교인의 신앙이 아니다.

필자: 어머니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하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B: 어머니는 참어머니이다. 참어머니의 정체성 안에 독생녀의 정체성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독생녀 다음 단계가 참어머니다. 이럼에도 어머니가 독생녀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고 투정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원리에서 말하는 인간 완성의 최종 단계는 참부모인데 참부모에서 독생녀로 내려가신 것이다. 참아버님에 대한 참어머니의 ‘독기 어린 한풀이’로밖에 볼 수 없다.

필자: 참아버님의 혈통을 참어머니가 복귀해 주었다고 참어머니가 말씀하셨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나?

B: 유튜브와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들었다. 한마디로 어머니가 실성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없다. 결국, 독생녀론의 목적이 아버님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었음을 어머니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필자: 어머니의 독생녀론에 대해 축복가정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B: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효자의 도리가 아니다. 어머니가 독생녀론을 계속하고 아버님의 가치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참가정의 이상을 파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불효 중의 불효다. 보통 가정에서도 그런 법은 없다. 축복가정들이 참된 효자 효녀의 입장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천정궁에 찾아가서 시위라도 해야 한다.

3) 어머니이니 어쩔 수 없다

독생녀 현상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비록 독생녀론이 창시자의 정체성과 충돌하고 통일교 교리와 상충하지만, 한학자는 통일교인들에게 신앙의 동기가 된 ‘참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어머니’의 실패를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비롯하여 통일교 운영에 수많은 잡음이 있어도 한학자를 참어머니로 믿고 가겠다는 것이다. 설령, 이것이 잘못된 선택으로 판명

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C의 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C는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 때 통일교인 친구에게 전도되어 한국인 남편과 20대 중반에 축복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다. 일본 친정 부모가 통일교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자신은 신앙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약 3년간 전국을 다니며 미니버스에서 숙식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많은 현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의 남편은 과거 순전단을 수료한 후 몇 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C의 옷차림과 태도, 타고 온 승용차로 판단할 때 그녀의 삶의 수준은 중산층 이상으로 보였다.

현재 가정연합 소속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젊은 시절과 비교해 다소 열정이 식었다고 말했다. 창시자 타계 후 변화된 교회 환경과 간절한 신앙적 동기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 자신이 한국에 온 동기가 ‘복귀섭리’를 위한 책임분담 때문이었고, ‘참부모’인 창시자와 한학자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은 신앙의 처음 동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다면 어떻게?

C: 교회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다. 남편은 거의 안 나가지만.

필자: 당신은 현재 축복가정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C: 나도 참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참어머님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여러 부조리 등을 들어서 알고 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필자: 그렇게 느낀다면 축복가정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나?

C: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참어머님과 참가정은 섭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실패하여 잘못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참가정이 해야 할 책임에 내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특히 참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참어머님께 반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참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교회가 비원리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필자: 참아버님 성화 전과 성화 후 당신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C: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참아버님에 대한 말씀보다 참어머님

에 대한 말씀이 많아졌고, 참아버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필자: 당신은 여전히 참아버님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 믿고 있나?

C: 물론이다.

필자: 당신은 참아버님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믿나?

C: 절대 그렇지 않다. 아버님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전제는 통일원리와 말씀을 부정해야 가능하다.

필자: 혹시 참어머님이 독생녀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 의미를 알고 있나?

C: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신다. 독생자이신 참아버님의 아내로서 참어머님이 독생녀라는 말씀을 틀렸다가나 비원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목사님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았다.

필자: 어떤 사람은 참어머님이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타락한 혈통이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복귀해 주고 구원해 주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참어머님이 독생녀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C: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지만 나는 결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 아마도 어머님을 음해하기 위해 만든 유언비어일 것이다. 어머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필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C: 불가능한 가정에 내가 답을 할 필요가 없다.

필자: 참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C: 참어머님과 참가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 참가정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다. 참어머님은 참자녀의 부모이시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참어머님이 자녀들을 무조건 품고 이야기를 들어 주셔야 한다. 참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사탄이다.

4)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독생녀 현상에 대한 네 번째 반응은 완전한 냉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통일원리와 통일교회 축복결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창시자와 한학자는 물론이고 통일교 전체에 대해 강하게 불신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참가정의 분열과 불화를 근거로 참가정은 실패했고, 참부모도 실패했다고 답했다. 창시자, 한학자, 참가정 그리고 통일교는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통일원리를 무너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축복가정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필자: 당신의 현재 신앙생활에 관해 설명해 달라.

D: 교회에 안 나간 지 8년이 넘었다. 가끔 기독교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절에도 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정의 가치, 원리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의 이런 모습이라면 통일교회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필자: 이유가 있나?

D: 통일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참부모, 참가정이 참사랑을 실천했나? 통일교회에 참사랑이 있나? 미안하지만 지난 10년간 통일교는 거짓 사랑, 음모와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완전히 교회에 안 나간 것은 목사님이 참자녀를 저주하는, 무슨 충성맹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이다. 아마 2010년쯤 일 거다. 말로만 하는 참사랑? 통일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구나 내가 듣고 있는 대로 천정궁에서 꺾판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통일교는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범죄 집단이다. 특히 윤OO라는 놈과 그놈의 마누라, 정OO 등은 사탄 중의 사탄이다. 그놈 놈들뿐이겠나?

필자: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D: 한학자를 참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학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다 알고 있다. 아버님이 건강하게 계실 때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말 희망이 있었다. 아버님 성화 이후 통일교는 완전히 개판이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 미쳤다. 완전히.

필자: 혹시 어머님이 독생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나?

D: 파이오니아 카페를 보고 있고, H2, H1 쪽 친구들이 소식을 보내오고 있어 자세히 보고 있다. 참아버지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OOO의 말은 정

말이지 미친 말이다.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집사람과 다른 통일교인들이 불쌍하다. 사탄의 작전이 무엇일까? 사탄은 하나님의 혈통을 파괴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참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혈통이 전수되었다고 믿는 것이 통일교 신앙이다. 그런 참아버지의 혈통을 타락한 혈통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탄이 바라는 것이다. 000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000에게 완전히 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완전히 미친 말이다.

필자: 통일교의 혼란, 참가정의 혼란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나?

D: 방법이 있다. 통일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다 뒤집어엎어야 한다. 000의 먹살을 잡고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000 주변에 있는 간신들의 모가지를 쳐야 한다. 참가정이 하나 되라고 외쳐야 한다. 하나 안 되면 참가정 자격이 없다. 실패한 것이다. 참가정이 하나 안 되면 축복가정들이 들고 일어나 하나 만들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통일교는 망한다.

필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D: 대부분 통일교인은 진실을 모른다. 천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000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이 잘되는 줄 안다. 통일교인들은 수십 년간 절대복종하라고 세뇌되어 있다. 결국, 그들은 통일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계가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없다.

필자: 혹시 당신 개인적으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활동을 하고 있나?

D: 부끄럽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당신이 쓴 『통일교의 분열』을 읽어 보았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가정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있다. 통일교에 쏟아부은 내 청춘이 아깝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가정에 집중하겠다.

2. 통일교 간부, 교수들의 반응

한학자의 독생녀론에 대한 통일교 학자들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선문대학교의 신학순결대학과 신학대학원, 선학UP대학원대학교 그리고 미국 통일신학교(UTS)의 전·현직 교수들이다. 이들은 창시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통일원리와 창시자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다. 통일운동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원과 특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존경과 관심을 받아 온 사람들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생녀 현상에 대한 일부 통일교 신학자들의 반응도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된 통일교인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해 독생녀 현상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을 완전히 보류한 채 그 현상 자체에 대해 솔직한 언급조차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6년 7월 6일경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신종교학회에서 만난 선문대 강의전담교수 강OO는 필자가 통일운동과 독생녀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하여 책을 썼다는 이유로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다. 또 양OO은 필자가 쓴 『통일교의 분열』을 혹평하며 “똑바로 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것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충고를 듣고 혹시나 내 책을 읽었을까 생각하여 “교수님 혹시 그 책을 읽어나 보셨습니까?”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놀랍게도 “아니”였다. 또 선문대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렸던 김항제는 필자의 책에 자신의 이름과 논문이 언급되었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큰소리로 반발하였다. 그리고 김항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진 문선영도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내 책에 인용했다고 역시 강하게 반발하였다. 미안하지만 필자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독생녀 현상에 대한 통일교 신학자들의 전체적 반응을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창시자 타계 이후 한학자의 독생녀론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신앙적 주제에 대해 여러 통일교 신학자가 매년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 논문으로 미루어 그들의 입장을 유추할 수는 있다.

필자가 보기에 김진춘, 최OO, 진성배, 김항제 등 독생녀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 다수의 통일교 학자들은 한학자가 강조하는 새 진리

인 ‘독생녀 신학’의 핵심을 생략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⁵⁵¹⁾ 아니면 그저 독생녀 신학의 원조(元祖)인 김진춘의 주장을 반복하는 정도이다.⁵⁵²⁾ 특히 2016년 12월,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타락 혈통이자 원죄 있는 혈통이라 주장한 한학자의 언급을 자신 있게 입에 올리고 논증하는 학자는 위에서 언급한 4명을 제외하고 아직 없는 듯하다. 김진춘조차도 2017년 1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한학자의 주장을 따라 창시자는 유원죄 출생이라고 주장했다가 바로 그 주장을 감추었을 정도이다.

독생녀 현상에 대해 통일교 신학자들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원인은 2017년 4월 24일, 전국 교구장 정책회의에서 김진춘이 통일교 교구장들에게 고백한 내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교구장)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유연비어로 떠도는 애긴지, 카톡에서 떠도는 애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430가정 이상 어머니들을 불러 놓고, ‘아버님은 원죄 있게 태어났다. 원죄 없이 태어난 나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떠돌고 있구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아버님은 원죄 없이, 메시아는 반드시 원죄 없이 태어나고, 또 오택용 교수가 아버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본체론 교육에서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셨고 16세 때 ‘아, 내가 메시아구나’라는 자각. 예수님을 만나서 자각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우린 들어왔는데 지금 김진춘 총장님이 아버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앙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는 교구장들은……. 우리는 어떻게 식구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느냐. 결론이 그겁니다.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말씀은 없으나 ‘하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예요. 아버님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냐 한(恨)을 갖고 태어났냐, 그러한 명제 때

551) 주재완, “참부모 하나님론,” 2017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170-176쪽.; 문선영, “제3장 참부모 메시아론,” 2018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316쪽.

552) Tyler Hendricks, “True Parents’ Birth, and Our Attitude,” 2017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147-149쪽.; Andrew Wilson, “Further Reflections on The Only-Begotten Son and Only-Begotten Daughter,” 2017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27쪽, 31-32쪽.; 테오르드 심묘, “참부모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 점을 그들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18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57-62쪽.; 임현진, “제6장 참부모님론,” 2018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504쪽.

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가고 있는데…….

(김진춘 대답) 우선은 이 내용은 일단은 어머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교육을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것이구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교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라 해서 한 거고...”

결국, 김진춘과 통일교 교구장들은 한학자가 주장하는 독생녀 정체성의 문제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것이 창시자의 정체성과 충돌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창시자와 한학자 모두 원죄 없이 태어난 것으로 통일교인들을 교육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한다.⁵⁵³⁾

김진춘을 비롯하여 통일교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한학자의 독생녀론에 대해 이러한 고민과 애매한 선택을 한 것은 신학적 혹은 신앙적 차원이 아니라, “독생녀의 새 진리를 속히 전파하라”라는⁵⁵⁴⁾ 한학자의 불호령과 창시자를 무원죄 출생의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일반 통일교인들의 집단적 반발을 동시에 피하기 위한 묘책이었다.

한학자의 독생녀론이 창시자의 교시 및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김진춘의 독생녀론 체계화는 다른 통일교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017년 5월, 벨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어를 몰라 창시자의 원전(原典)을 이해 못 하는 미국 통일교 학자들의 발언을⁵⁵⁵⁾ 통해 통일운동과 창시자

553)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김진춘의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학자의 주장에 대해 창시자의 3 제자 중 한 명이었던 36가정 원로 김영휘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영휘는 2015년 9월 4일 천일국지도자특별총회에서 한학자는 원죄를 갖고 출생했다고 말했다. “어머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으로 특별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교육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 교단이 없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님을 만났겠습니까? 우리 교단을 세워서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뉴스가 전 세계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보고 대모님도 우리 교단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고 어머님도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터 위에서 아버님은 제3차 해와를 찾으시고, 제3차 해와, 그때 어머님은 원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해요. 원죄가 있는 어머님이시지만 ... 원죄는 있지만...”

554) “길게 할 수 있지만 짧게 해서 6천 년 만에 하늘은 이 한민족을 통해서 독생녀를 탄생시켰고 책임 하신 독생자와 독생녀가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 그런데 오늘날에 영성을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실 앞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입었던 것, 신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입고 신어야 하는 거예요.” 2017.9.9. 한학자의 설교.

555) Andrew WILSON(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Barrytown, New York), “Theological Developments in the Unification Church since the Death of Rev. Moon”; Michael MICKLER(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Gender Politics in the Post-Sun Myung Moon Unification

의 핵심 정체성이 어떻게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에 누가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스스로 한국어를 모른다고 밝힌 통일교회 역사학자 미클러의 발언은 통일운동 신앙자로서의 무지와 연구자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UTS 미클러(Michael MICKLER) 교수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⁵⁵⁶⁾

필자: 당신은 한국어를 아십니까?

미클러: 모릅니다. 나는 김진춘 교수님이 국제지도자컨퍼런스에서 설명한 것에 근거해서...

필자: 당신은 한국어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미클러: 저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필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문선명 목사가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미클러: 네, 네, 그렇습니다.

필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이야기 함]

미클러: 만약에 제가 안 믿는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자: 문선명 목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미클러: 저는 마치 다말의 승리가 성모 마리아로 연결되듯이 문선명 선생이 예수로부터 사명을 인계받은 그 순간 원죄가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김진춘 교수의 해석을 지지하는 쪽으로...

필자: 실례하지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클러: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문선명 선생이 원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준비된 혈통이기는 합니다.

필자: 당신은 문선명 선생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습니까?

미클러: 그렇습니다.

Movement”; Dan FEFERMAN(Board of Trustees of the Unification Theological Seminary), “Unification Political Theology: Past, Present and Future”
556) 『통일교분열실록』 제9권 『스스로 밝힌 독생녀의 정체』 89-90쪽.

미클러는 2022년 6월 16일-18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2 CESNUR Conference에서 발표한 논문을⁵⁵⁷⁾ 근거로 2022년 12월에 소책자 *The Unification Church Movement*를 발간하였다.⁵⁵⁸⁾ 이 책 전체에서 발견되는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어를 모르는 그가 영어로 번역된 일부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근거로 창시자의 초종교적, 초인종적, 초국가적 차원의 “통일운동”을 종파적 차원의 “통일교회 운동”으로 정의하여 통일운동의 정체성을 왜곡한 점이다. 그리고 미클러는 *The Unification Church Movement*가 통일운동 분열을 포함하여 1920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일교회 이야기를 사회학적,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통일운동 분열사 관련 책을 여러 권 저술한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인용한 창시자의 한국어 원전(原典)은 단 하나도 없다는⁵⁵⁹⁾ 점과 통일운동 분열 연구를 위해 극히 일부 번역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책 *The Unification Church Movement*가 부실한 통일교 역사서라는 점을 증명한다.⁵⁶⁰⁾ 특히 창시자의 수많은 언급,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언행과 사건의 기록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극히 일부의 내용으로 전체 역사를 기술한 것은 단순히 왜곡의 차원을 넘어 그의 악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생녀의 출현과 독생녀론에 대한 통일교인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자 한학자는 2019년 11월 13일 선문대 신학자들에게 “지금부터 신학자들은 독생녀를 연구하라. 재림메시아는 메시아 책임을 하는 입장이고, 독생녀는 6천 년 만에 초림으로 탄생했다. 신학자들은 독생녀 참여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하늘의 섭리 완성을 위해 노력함을 당당히 증거하라. 두고 보겠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독생녀론을 선문대 신학대에서 가르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선문대 총장 황선조를 해고하고, 신학대 교수들도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

557) “Recent Developments in Litigation Involving the Family Federation/Unification Church”

558) Michael L. Mickler, *The Unification Church Movement*, Published online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03 December 2022.

559) 그가 인용한 유일한 한국어 자료는 탁명환 저 『기독교 이단연구』(1986)이다.

560) 미클러는 필자가 통일운동 분열사를 심층 연구해 영어로 번역한 *The Split of the Unification Movement*조차 참고하지 않았다.

다. 한학자는 또 2020년 1월 신학대 교수들을 청평으로 불러 모아 놓고 21일 특별교육 수련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김인수, 문선애, 정시구, 김민지, 유인창, 황진수, 주재완, 이재일, 토마스 셀로버, 이기성, 조응태, 오택용 등이었다. 이들은 21일 동안 ‘독생녀는 무원죄, 순혈로 태어난 예수님의 아내이고, 창시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독생자가 아닌 예수의 아바타이며, 한학자 독생녀는 창시자를 선택해 결혼해 줌으로써 창시자의 원죄를 벗겨주었다’라는 독생녀론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눈치 빠른 통일교 간부들이 창시자로부터 교시받은 통일원리와 한학자의 독생녀론이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통일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바로 독생녀를 숭배하고 독생녀론을 지지하고 신앙화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 정점은 바로 한학자의 소위 ‘창시자 꼬리론’과 이에 대한 찬동이다.

한학자의 지시로 김진춘이 전 세계 통일교 간부들에게 ‘창시자 꼬리론’을 강의하자 한학자와 세력 다툼을 하던 윤영호가 ‘창시자 꼬리론’을 사악한 견해로 규정하는 공문을 발표하는 등 권력투쟁의 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통일교 원로 목사이자 전 일본총회장이었던 김명대가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교회에서 한 공개 발언은 창시자의 교시를 기억하는 통일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명대는 한학자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근거로 창시자는 유원죄 출생으로서 한학자에게 택함을 받은 여러 재림주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한학자가 창시자와 결혼해 줌으로써 원죄를 청산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창시자가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을 몰라본 것이 창시자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버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95%가 참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님 원죄 문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말씀 이야기 들었지요. 왜 아버님 형제들은 다 원죄가 있는데 왜 아버님은 원죄가 없어.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몇 개월 전에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는 말씀(을 하자), 그러니까 가까운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어머님의 입을 틀어막아 가지고 그런 말하면 식구 다 떨어집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취소하게 해달라. 천비의 말씀인데 취소돼요? 어머님 말씀 답이 ‘다음에 하자.’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왔나?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로서 택함

을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버님뿐이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들 들어보면, 아버님만 재림주 구세주 메시아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변에 나운몽 장로, 박태선 장로, 양도천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수십 명이 진짜 아버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신령한 사람, 신령한 집단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은, 잘 들으세요. 많았던 가운데 ‘내가 여럿이 보니까, 아버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몇십 명이라고 했어요. 몇십 명. 어머니가 참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 명이 있었다. 이해 가지요? 하나가 아니고. 그 가운데 아버님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아버님의 조상, 정성도 보고, 어머니로서는 여러 가지 대모님하고 이야기 없었겠어요? 아버님이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나와 같이 결혼을 하면 하늘의 섭리를 충분히 이루겠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원리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있지요. 아담-해와가 완성했으면 뭐가 됐냐? 참감람나무가 되었지요. 어머니가 원죄 없는 분이 원죄 있는 아버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1960년 천력 3월 16일 성혼식을 했지요. 성혼식으로 접붙였지요. 접붙이니까 그날 그 시각 아버님은 원죄가 해탈되었어요. 참어머니는 역사에 처음으로 실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재림 독생녀가 아니고 초림이야. 아버님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잖아요. 예수 이후 두 번째 오셨으니까. 예수가 온 게 아니고, 예수를 세워 이루려고 했던 세계를 못 이루었으니까 대신자로 아버님을 세웠잖아요. 2천 년 만에 아버님은 재림이고, 어머니는 초림이야. 예수 부인이 있었으면 재림이지만, 장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초림,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어머니는 초림이야. 초림이고, 원죄가 없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성혼을 하면 그날 그 시에 아버님의 원죄를 벗겨 가지고 원죄 없는 아버님과 원죄 없는 어머니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죄 없는 자녀를 잉태했고, 우리도 원죄 해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책임 못했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지요. 어머니가 아버님을 책임을 못 했다(고). 뭘 책임을 못 했냐? 살아생전에 아이들을 갖다 놓고 너희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아니고 너희 엄마가 독생녀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독생녀다. 엄마를 모셔라.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입니다.”

제3절 『독생녀 신학 연구』 비판

이 책은 2019년 11월 13일 한학자가 선문대 신학대 교수들에게 “지금부터 신학자들은 독생녀를 연구하라. 재림메시아는 메시아 책임을 하는 입장이고, 독생녀는 6천 년 만에 초림으로 탄생했다. 신학자들은 독생녀, 참어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하늘의 섭리 완성을 위해 노력함을 당당히 증거하라. 두고 보겠다”라는 지시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보이고, 공저자는 선문대 교수 황진수, 오택용, 주재완, 김민지, 안연희다.

2013-2014년부터 본격 시작된 한학자의 독생녀론에 김진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문대 신학대 교수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거의 1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통일교 학자로서 통일원리를 폐기하고 독생녀론을 믿으라는 주장을 담아 이 책을 펴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1. 독생녀론과 페미니즘

1) 성평등시대 맞지 않는 통일원리를 버려라

저자들은 통일원리(통일신학)는 한학자 독생녀의 독생녀론과 기원절을 통해 개문된 성평등시대와 창조본연의 천일국 시대에 맞지 않는 흘러간 패러다임의 신학이기⁵⁶¹⁾ 때문에 통일원리를 버리고 하늘 어머니의 실제로 현현한 독생녀(한학자)와 독생녀론을 신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⁶²⁾

561) 『독생녀 신학 연구』 17-19쪽.

562) 『독생녀 신학 연구』 52-53쪽.

독생녀론의 근거를 창시자의 말씀과 통일원리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던 김진춘과는 달리 이 책 저자들은 성평등의 패러다임 시대에 등장한 독생녀론을 통일원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⁵⁶³⁾ 독생녀론과 통일원리는 서로 모순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⁵⁶⁴⁾ 물론 저자들은 탕감복귀섭리 과정에나 필요했던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학자가 독생녀론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책 저자들이 독생녀론의 이원론적 하늘부모님론과 (이 책에서는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한학자의 혈통을 중심한 구원론이 창시자의 통일원리와 다르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늘부모님성회는 이 책을 통해 창시자의 통일운동과 다른 교리, 다른 정체성의 다른 종교운동임을 공식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진수는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성평등시대에 맞지 않는 흘러간 시대의 신학으로 규정하며 통일교인들에게 독생녀론과 하늘 어머니의 실체인 독생녀와 독생녀론을 신앙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학자 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독생녀론이 〈8대교재교본〉으로 대표되는 통일원리를 부정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리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자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자 피조세계의 남성적 주체가 아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라는 진리가 독생녀론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원리 중 창조원리는 창시자의 종교적 정체성의 뿌리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이에 따른 인간 창조의 과정은 복귀원리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시자는 창조주를 포함해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 양성체와 음성의 이성성상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자 일원론적 존재로서 모든 존재의 원인이자 인간의 부모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체 중의 주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대해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인 아버지로 부른다고 규정하였다.⁵⁶⁵⁾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남성적 주체이지만, 주체인 본양성과 대상인

563) 『독생녀 신학 연구』 200쪽.

564) 『독생녀 신학 연구』 27쪽.

565) 『원리강론』 27쪽

본음성, 즉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의 주체와 대상의 속성이 완전히 통일된 중화적 주체로서 일원론적 존재라고 창시자는 교시하였다.⁵⁶⁶⁾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한학자가 독생녀론을 통해 감추어진 하늘 어머니를 드러냈고,⁵⁶⁷⁾ 독생녀로 완성함으로써 하늘 어머니를 완성했다고⁵⁶⁸⁾ 주장한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통일원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늘부모이며,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두 속성의 일원론적 존재임을 창시자가 여러 차례 교시한 것은 물론이고, 한학자가 참어머니로서 창시자와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어머니의 완성과 복귀섭리의 종결이 가능하다고 교시한 바 있다.

아마도 이 책 저자들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한 목적은 남성적 주체이자 ‘아버지’로 표현한 하나님의 속성을 세속적 페미니즘이 비판하는 가부장제의 이미지를 씩씩 배척한 후 하늘 어머니의 실체라고 주장하는 한학자가 하늘부모님성회를 통치하고 나아가 천일국의 최종 지배자임을 논증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양성(남성, 남편)과 음성(여성, 아내)의 위계적 질서는 없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주체인 본성상과 대상인 본형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인 주체 본양성과 대상 본음성이 각기 수수작용에 의해 창조된 결과적 존재이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실체대상이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형상(몸)이 성상(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음성은 양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창시자가 교시한 통일원리이다.

결론적으로 상대적 관계 형성을 위해 주체인 양성(남성, 남편)과 대상인 음성(여성, 아내)이 창조원리적 질서 속에서 상대를 위해 수수작용하며 합성일체를 지향한다. 창시자는 주체-대상 관계는 주종이나 지배의 관계 혹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수수작용을 위해 사랑을 먼저 주고받는 동일한 가치의 상대적 관계라고 교시했다. 다시 말해 수수작용을 위해 사랑이나 힘을 먼저 주는 존재가 주체이

566) 『말씀선집』 182권 63쪽. 1988.10.14. “그 남성적 주체라는 게 뭣이나? 여성적 주체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여성적 주체가 있으면 또 다른 남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원론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원론에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일원론이 되려니 이 남성 여성의 중화체(中和體)로서 주체적인 성품을 가진 남자형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567) 『독생녀 신학 연구』 206쪽.

568) 『독생녀 신학 연구』 96쪽.

고, 받는 존재가 대상이 된다. 물론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면 주체와 대상의 구분은 사라지고 완전한 통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과 음성이 각각 주체와 대상이라는 창조적 질서를 따라 상대적 관계를 맺는다. 이와 함께 통일원리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와 주체 혹은 대상과 대상의 관계는 발전과 조화를 위한 수수작용이 아니라 배척과 반발의 상극작용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⁵⁶⁹⁾

그런데 이 책은 양성과 음성이 완전한 동격이자 각각 주체이며 어떠한 위계적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양성과 음성의 주체-대상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독생녀론자들이 창조목적 실현을 위한 남성과 여성의 주체-대상 관계의 수수작용조차 타락성에서 비롯된 위계적 질서이자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불평등 신학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3)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제인 통일원리를 버려야 한다

『독생녀 신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악마화하는 ‘가부장제’를⁵⁷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부장제’는 글자 그대로 남성 연장자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 제도를 말한다. 독생녀론자들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처럼⁵⁷¹⁾ 통일원리와 통일가의 전통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라고 극렬히 비난하며 폐기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참가정의 주체적 존재는 아버지인 창시자라는 인식과 남성 구원자인 창시자가 여성인 한학자를 선택해 혈통을 복귀해 줌으로써 독생녀로 완성시켰다는 통일원리적 인식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는 동등하고 아버지의 권한이 아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어서는 안 되며,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주체성을 가진 어머니에게 가정 통치, 나아가 천일국 통치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⁵⁷²⁾

569) 『통일사상요강』 476-477쪽.

570)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6%8C%EC%A0%9C>.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일종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가족 단위에서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많은 부권제 사회는 동시에 부계제 사회이며, 즉 재산과 가문의 명맥이 남성 혈통으로 계승된다. 이에 반대되어 여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혜, 재산의 통제권을 독점한 사회를 모권제 사회라 한다.”

571) 메리 데일리, 황혜숙 옮김, 『교회와 제2의 성』 53-54쪽.

인간 타락에서 비롯된 모든 부조리와 억압의 역사 가운데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억압과 폭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아담·해와의 타락으로 초래된 최악의 역사를 탕감복귀하여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경로를 설명한다. 그것이 창조원리에 바탕을 둔 복귀원리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체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대상인 어머니가 함께 회복해 나가는 가정의 질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저주하는 그런 가부장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것의 지배자요 억압자가 아니라, 희생하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머니와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고 위하는 존재로서의 중심이고 주체이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주체이자 아버지로서 전체를 투입하여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여 천지를 창조한 것과 같은 입장의 그 ‘아버지’인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 앞에 대상인 어머니의 불만은 비원리적이다. 주체인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대상으로서 책임을 다해 참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면 주체와 대상의 경계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체-대상에 대한 어머니의 불만은 창조원리적 질서와 아버지의 원리적 주관성 자체에 대한 불만이다. 이것이 해와의 타락 동기인 주관성 전도를 향한 불만이었다. 아버지에게만 주체의 권위와 주관성이 부여되고 어머니에게는 주체의 권위가 아닌 대상의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창조원리에 대한 불신과 몰이해가 초래하는 불만이다. 독생녀론자들이 통일원리적 ‘가부장제’를 세속의 ‘가부장제’와 동일시하여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이유로 악마화하는 것은 오로지 창시자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가정을 파탄 내서라도 창시자의 혈통과 모든 권위를 파괴하려는 한학자 독생녀의 주관성 전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독생녀론자들은 통일가의 장자 상속의 원칙을 역시 가부장제의 잔재이고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들은 가족 지배와 재산 대물림의 권한이 장자에게 있다는 의미로 통일원리적 가부장제를 왜곡하고 있다.⁵⁷³⁾ 이들의 주장처럼 복귀의 역사 과정에서 그 폐해가 다소 있었지만, 통일원리와 통일은

572) 『독생녀 신학 연구』 144쪽.

573) 『독생녀 신학 연구』 168쪽.

동은 그 폐해를 극복하고 창조본연의 전통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원리적 장자 상속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 가정의 전통과 혈통적 권위를 아버지로 부터 아들이 상속받아 아버지의 책임과 사명을 역사적으로 이어 나가는 책임분담 의 상속이다.

4)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성평등 시대에 버려야 한다

독생녀론자들은 한학자의 독생녀 정체성을 합리화하고 통일원리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비판하기 위해 통일교 학자로서 절대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설하고 있다.⁵⁷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인식은 성평등 시대에 맞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가부장제 폐지의 숨은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960년대 말 여성해방론을 내세워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하며 동성애자들의 바이블인 『성 정치학』을 쓴 ‘여성해방의 마오쩌둥’ 케이트 밀레트와⁵⁷⁵⁾ 그녀의 자매 맬로리 밀레트가 1969년 지하 여성조직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가부장제 폐지를 주장한 숨은 의도를 알 수 있다.⁵⁷⁶⁾

Kate: 우리가 오늘 왜 여기 모였지?

Others: 혁명을 위해

Kate: 어떤 종류의 혁명이지?

Others: 문화대혁명

Kat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화 혁명을 만들까?

Others: 미국 가족을 파괴함으로써!

Kate: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지?

Others: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함으로써

Kate: 어떻게 미국의 가부장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

574) 『독생녀 신학 연구』 163쪽

575) 맬로리 밀레트는 케이트 밀레트 자매이며 현재 미국의 pro-life, pro-family 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576) <https://www.frontpagemag.com/my-sister-kate-destructive-feminist-legacy-kate-mark-tapson/>

Others: 일부일처제를 파괴함으로써!

Kate: 우리가 어떻게 일부일처제를 파괴할 수 있을까?

Others: 난잡함, 에로티시즘, 매춘, 낙태, 동성애를 조장함으로써!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가부장제 악습의 폐해로 보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을 독생녀론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성의 “남성다움”과 여성의 “여성다움”은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에서 비롯된 창조본연의 성 정체성이며 학습하거나 강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성(sex) 정체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성 정체성 개념이 젠더(gender)이다. 이들은 인간의 성 정체성이 천부적으로 생식기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인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문제: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Gender Trouble: Feminism and Subversion of Identity』에서 “젠더의 위계질서와 강제적 이성애를 지지하는 성별 분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역할은 남성 중심주의와 강제적 이성애와 같은 고정적으로 정의된 제도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초점을 분산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목적이 단순히 억압된 여성의 해방이 아니라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을 무력화해 동성애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⁵⁷⁷⁾

독생녀론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부장제나 성 정체성 폐지의 출발은 가정과 혈족을 말살하는 페미니즘이며, 그 목적은 통일원리가 지향하는 참가정 이상과 정반대로 절대 성(性)을 붕괴시켜 사위기대를 중심한 가정과 가족을 파멸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참가정을 파탄 내고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한 한학자의 독생녀 인식은 정확히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인식과 일치한다.

5) 하늘부모님성회의 중심은 하늘 어머니이다

577) 가브리엘 쿠비, 『글로벌 성혁명』 75-76쪽.

한학자와 독생녀론자들은 한학자의 독생녀 선포로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하늘 어머니가 드러났고, 인류 최초로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인 하늘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⁵⁷⁸⁾ 또한, 이들은 하늘부모님성회의 중심인 한학자가 섭리를 완성한다고 주장한다.⁵⁷⁹⁾ 이는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독생녀론자들의 자체 모순일 뿐만이 아니라 창시자의 권위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참가정을 파탄 내고 차지한 조직의 주인이 다름 아닌 독생녀임을 자인하는 말이다.

또한 이 주장은 남성신(神) 중심의 탕감복귀시대의 종료와 여성신 중심의 창조 이상시대 도래의 주장과 함께 급진적 페미니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⁵⁸⁰⁾

6) 남성 메시아와 여성 메시아는 각각 주체이다

독생녀론자들은 ‘메시아는 참부모로서 남성 메시아(남성 구원자)와 여성 메시아(여성 구원자) 두 명이고, 각기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실체이자 각각 주체라고 주장한다.⁵⁸¹⁾ 즉, 그들은 여성 메시아가 남성 메시아에 의존하는 아내나 부인이 아니며, 남성 메시아를 주체, 여성 메시아를 대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통일원리는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 가치를 하늘 혈통의 정체성과 전체 인류의 혈통을 복귀해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복귀해 주는 혈통 복귀의 사명에 두고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했고, 아담을 대신해 예수를 보냈으며, 예수를 대신한 재림주를 제3차 아담으로 보냈고, 예수의 아내 후보자나 창시자의 아내 후보자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서 남성 메시아를 주체로 하여 완전히 하나 되어야 독생녀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원리의 관점이다.

남성 메시아와 별개의 주체로 여성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비롯되었다. 성서와 통일원리가 규정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해와에 앞서 주체로 창조했다는 인간 창조의 순서와 해와가 아담보다 먼저

578) 『독생녀 신학 연구』 121쪽.

579) 『독생녀 신학 연구』 97쪽.

580) 『독생녀 신학 연구』 133쪽.; 메리 데일리, 황혜숙 옮김,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262쪽.

581) 『독생녀 신학 연구』 130쪽.

타락했다는 타락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각각 주체로 이원론적으로 존재하며, 하늘 아버지를 대표한 아담과 하늘 어머니를 대표한 해와를 쌍태로 창조했기 때문에 남성 메시아와 여성 메시아를 동시에 지상에 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다.⁵⁸²⁾ 두 번째 근거는 창시자가 1992년 창시자와 한학자를 참부모로서 인류의 메시아라고 선언한 사실이다.⁵⁸³⁾

독생녀론자들이 두 번째 근거로 주장하는 1992년 참부모 메시아 선포의 진정한 의미는 독생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두 존재가 각기 독립된 주체의 두 메시아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상인 한학자가 완성한 해와의 입장에서 주체이자 완성한 아담의 입장인 창시자와 완전히 하나 된 상태의 참부모를 메시아로 선포한 것이다. 또한, 창시자가 참부모 메시아를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참부모의 메시아로의 책임이 어떤 경우에도 면제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각기 주체라는 이원론적 주장은 두 절대자 사이에서 원리적인 수수작용이 불가능해 창조의 힘이 발생하지 않으며,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⁵⁸⁴⁾ 마찬가지로 남성 메시아와 여성 메시아가 각기 독립된 주체로 지상에 존재해 두 주체의 메시아가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각각 다른 원리를 주장한다면 두 메시아에 의한 섭리는 파탄 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한학자의 독생녀론은 창시자의 통일원리와 상충하고 있으며, 주체라고 주장하는 한학자가 창시자의 가정과 창시자가 주도해 온 섭리를 파탄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학자와 독생녀론의 비원리성을 확인할 수 있다.

582)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여 생략한다.

583) 『말씀선집』 234권 251쪽. 1992.8.24.

584) 『통일사상』 477쪽.; 『말씀선집』 173권 18쪽. 1988.2.1. “글쎄, 참사랑을 하는데 누구하고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네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나와 가지고 기독교의 유일신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고치라고 한다구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조금은 일리가 있다구요. 조그만 털만 붙여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깃줄이 끊어지게 되더라도 발전소와 통하는 선에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털오라기 하나라도 통하면 말이에요, 그 전기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겁니다」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는 거예요.”; 『말씀선집』 182권 63쪽. 1988.10.14. “그 남성격 주체라는 게 뭣이나? 여성격 주체면 얼마나 좋겠나 그거예요. 여성격 주체가 있으면 또 다른 남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원론이 된다구요. 알겠어요? 이원론에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일원론이 되려니 이 남성 여성의 중화체(中和體)로서 주체적인 성품을 가진 남자형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7) 한학자가 구원의 중심이다

독생녀론자들은 ‘구원이 중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학자 독생녀의 역할이 구원의 중심이다’라고 주장한다.⁵⁸⁵⁾

중생(重生)이 사탄의 혈통인 타락한 인간이 재림주를 통해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이유와 자녀 출산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한다는 이유로 독생녀론자들은 중생의 주체는 여성(독생녀)이라고 주장한다.⁵⁸⁶⁾

이 또한 통일원리와 다르다. 통일원리에 따르면 타락한 인류를 중생해 주는 주체의 역할은 하나님 혈통(정자)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아버지 속성을 대신하는 참아버지가 하고, 중생을 위한 대상의 역할은 아버지의 혈통(정자)을 생명으로 잉태하는 하나님 어머니 속성의 실체 성신, 즉 참어머니가 한다.⁵⁸⁷⁾ 다시 말해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즉 주체인 참아버지와 대상인 참어머니가 완전히 하나 된 참부모로서 창조 이상 실현을 위해 복귀섭리를 경륜해 나갈 때 타락한 인류는 참부모와 심정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축복이라는 혈통 전환의 과정을 거쳐서 중생에 이른다.⁵⁸⁸⁾

따라서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처럼 구원과 중생의 주체가 한학자 독생녀라는 주장은 통일원리와 다르다.

8) 창시자의 통일원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신학이다

기성 기독교 신학을 전공하고 선문대 신학대 교수가 된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기독교 신학 이론으로 통일원리를 분석해 왔다. 마치 기독교 신학의 이론을 화려하게 늘어놓아야 좀 있어 보이는 글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창시자를 이단의 괴수, 통일원리를 이단 교리로 비난하는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 의존해서 통일원리를 논증할 수 있을까.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통일교 학자이다.

585) 『독생녀 신학 연구』 128쪽, 138쪽.

586) 『독생녀 신학 연구』 106쪽.

587) 『말씀선집』 7권 158쪽, 1959.8.30.

588) 『말씀선집』 137권 118쪽, 1985.12.24.

『독생녀 신학 연구』를 집필한 독생녀론 교수들도 오택용을 제외하고 기독교 신학 이론이나 종교학자의 주장, 특히 페미니즘 학자들의 여러 주장을 근거로 통일원리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신학이라 비판하였다.⁵⁸⁹⁾

주목할 부분은 통일원리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페미니스트 학자의 글이다. 독생녀론자들이 통일원리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한 페미니스트 학자들 중 강남순, 메리 데일리와 창시자의 장녀 문예진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남순은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에서⁵⁹⁰⁾ 제도화된 종교들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과 억압을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하는지의 관점을 담고 있다. 또 남성 중심주의적 가부장제가 종교와 사회에서 어떠한 기제로 작동하는지 드러내며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의 지향점은 종교가 젠더 감수성과⁵⁹¹⁾ 젠더 정의(正義),⁵⁹²⁾ 그리고 다양한 성적(性的) 지향을 지지하고 확산함으로써 성차별 없는 정의로운 종교와 사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⁹³⁾ 일반 대중은 페미니즘의 여러 개념이나 뿌리가 되는 사상에 관심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젠더 평등,” “젠더 정의,” “성인지 감수성” 등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성차별,” “정의로운 종교와 사회”와 같은 상식적 의미의 말만 이해한 채 페미니즘을 마치 현대 사회의 당연한 공리(公理)로 착각한다. 강남순을 비롯한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gender), 즉 남성, 여성, 동성, 양성 등을 포함해 수많은 성적 취향을⁵⁹⁴⁾ 모두

589) 『독생녀 신학 연구』 133-134쪽, 157쪽, 174쪽, 191쪽, 221쪽.

590) 강남순, 『개정판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경기도: 동녘) 2018.

591) gender sensitization, 性認知 感受性 젠더 감수성, Gender Sensitivity, 성인지 관점,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따르는 차별적 상황과 요소를 인식하는 인지적, 감성적 능력. ‘젠더 감수성’, ‘성인지 관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서 의미하는 ‘성(性)’은 생물학적인 성(sex)인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gender), 즉, 남성, 여성, 동성, 양성 등을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협의로는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 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하며, 좀 더 포괄적으로는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이며 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592) <https://211la.org/211-la-special-programs/explore-justice/gender-justice>, “젠더 정의(gender justice)는 가부장제,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등의 유해한 구조를 해체하여 모든 성별의 사람들에게 권력, 기회, 접근권을 체계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593) 『개정판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6-7쪽, 53쪽.

594) 이성애와 함께 소위 말하는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포괄하는 성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강남순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종교는 다양한 성적 취향과 성적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이 아니라 강남순은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의 활동과 역할을 비여성적이며, 반가정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가부장제적 가치를 반영해 평가하며, 가족 담론의 부활은 남성중심주의 사상, 고질적인 남아선호사상을 필연적으로 만들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⁵⁹⁵⁾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극도의 배타주의를 강화하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족이라는 용어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가족’이란 아주 넓은 의미에서 혈족으로 모두 쓰이기도 하지만, … 어떤 양태의 가족이 가장 ‘정상적’이고 ‘전통적’인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⁵⁹⁶⁾

강남순이 고상한 단어와 학술 용어를 조합해 ‘가족 이데올로기’ 어쩌구 하고 있지만, 통일원리의 관점으로 볼 때 강남순은 통일원리가 가르치는 절대 성(性)과 참사랑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룬 남편(남성)과 아내(여성),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혈연 중심의 가족은 아버지가 주체인 가부장제를 지지하고 있으니 이런 형태의 가족을 버리고 탈남성, 탈가부장제, 탈혈통을 지향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순이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는 동성애자의 가족, 아버지와 딸이 부부인 가정 등도 포함된다.

한편 메리 데일리는 레즈비언이자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알려졌고, 『교회와 제2의 성』에서 남성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혐오, 가부장제 혐오를 넘어 “하나님의 거세”를 주장하였다.⁵⁹⁷⁾ 그리고 그녀는 『여성/생태학』에서 양성적 인간의 이상을 거부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자유분방한 여성을 이상하며, 여성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여성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⁵⁹⁸⁾

595)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94쪽.

596)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296쪽.

597) 메리 데일리, 황혜숙 옮김, 『교회와 제2의 성』 53-54쪽.

598) 로즈마리 퍼트넘 통,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104-117쪽.

문예진은 2016년 8월, 천일국 학술원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양성평등 회복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이자 하늘 어머니로 언급하며 창시자인 아버지의 창조원리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을 ‘남성적 주체이며 아버지’로 교시한 것을 비판했다.⁵⁹⁹⁾ 창시자의 장녀인 문예진이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라는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강하게 비판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고, 『독생녀 신학 연구』는 문예진 논문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성(性)을 중심한 가정과 가족 해체를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을 이용해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비판하는 독생녀론자들의 행태는 마치 원수의 말을 인용해 아버지를 욕보이는 망나니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⁶⁰⁰⁾

9) 독생녀론은 완전한 여성해방의 시대를 열었다

아담·해와의 타락에서 비롯된 타락성과 인류 죄악 역사는 창조원리에 따른 복귀원리에 따라 중심인물들을 비롯한 인간의 책임분담을 통해 극복된다. 통일운동을 아담형 인물을 중심한 지상천국 실현의 메시아 운동으로 보는 이유도 중심인물 중의 중심인물이 바로 아담의 사명을 성사해야 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아담 사명자와 해와 사명자가 참부모, 참자녀, 참가정 이상을 실현하고 지상에 안착한 후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여성해방을 포함한 모든 인간해방이 자동으로 실현된다.

그 해방의 출발점이 기원절이다. 기원절의 절대조건은 해와 사명자인 한학자가 아담 사명자인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하여 완전히 하나가 된 참부모가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한학자가 창시자와 창조목적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참가정의 이상을 지상에 안착하는 것이 기원절의 절대조건이었고, 전체 여성을 대표한 한학자의 참어머니 사명 완수가 여성해방의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한학자는 타락한 천사장과 하나 되어 창시자를 배신하였고, 참가정을

599) 문예진, “양성평등 회복의 필요성,” 천일국 학술원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심포지엄, 2016.

600) 『말씀선집』 203권 219쪽. 1990.6.26.

파탄 났으며, 참자녀를 이간함으로써 참어머니 사명에 실패해 타락하였다. 통일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한학자의 타락으로 참부모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여성해방의 때는 멀어지게 되었다.

2. 한학자 신격화

1)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하고 혈통을 복귀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독생녀론자들은 ‘남성 메시아가 와서 타락한 혈통의 여성을 선택하고 교육해 참어머니로 완성한다는 창시자의 남성 중심 통일원리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남성(남편, 아담형 인물)을 중심한 복귀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주체라는 통일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창시자는 남편-아내 관계가 주체-대상 관계이지만 결코 주종의 관계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목적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기 위한 수수작용과 사위기대 형성을 위한 창조의 질서이고, 주체는 대상을 위해 대상을 주체를 위해 존재하니 주체의 주관성은 결국 주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위한 것임을 여러 차례 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녀론자들은 남성을 중심한 복귀원리를 가부장제의 잔재로 보고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2) ‘하늘부모님성회는 유일무이의 새로운 공동체이다

한학자는 2010년 6월 5일 새벽에 문형진을 축출하기 위해 남미 대륙회장 신동모의 요청에 따라 창시자의 침실에서 김효율과 문형진, 이연아와 합작으로 창시자를 다그쳐 소위 문형진 대신자 상속자 ‘선포문’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학자는 창시자에게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인정받으려 노력한 바 있다. 창시자 성화 직후인 2013년 1월, 한학자는 문형진을 내쫓고 자신이 바꾸어 준 ‘통일교’를 다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변경하였다. 게다가 법정에서 독생녀론을 주장하며 문형진과 공모하여 창시자를 속이고 가정연합을 통일교로 변경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다.⁶⁰¹⁾

그러던 한학자는 2020년 4월 1일, “통일교가 아니고 가정연합도 아닌 하늘부모님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트 처치로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각 나라에 뿌리를 내리세요”라고 지시하며 교명을 또다시 변경하였다. 그러나 ‘가정연합’을 버렸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한학자는 2020년 5월 8일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교명을 ‘하늘부모님성회’로 바꾸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라고 말하였다. 현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하늘부모님성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원론적 존재인 ‘하늘부모님’, 특히 ‘하늘 어머니’와 이것의 실체로 한학자를 숭배하고 있다는 점,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학자의 혈통을 신앙한다는 점, 그리고 하늘부모님성회 경전이 창시자가 만든 <8대교재교본>이 아니라 한학자가 만든 <천일국 3대 경전>과 핵심 내용이 변경될 <원리강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처럼 한학자의 ‘하늘부모님성회’는 창시자의 섭리적 이상과는 무관한 새로운 종교임이 분명하다.

3) 독생녀론은 최종 계시이자 완성의 진리이다

독생녀론자들은 ‘한학자는 창시자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고, 기원절 이후 한학자의 말씀(독생녀론)은 절대자 하나님과 창시자와 완전한 공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다. 따라서 독생녀론은 복귀섭리를 완성하는 최종적 계시이자 완성된 진리이다’라고⁶⁰²⁾ 주장한다.

독생녀론자들이 한학자가 창시자와 일체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0년 6월 19일과 2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창시자의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선포’이다. 그러나 앞에서 자세히 논증하였듯이 창시자의 이날 최종 일체선포는 기원절을 앞두고 한학자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하겠다는 ‘비밀 약속’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선포였다. 독생녀 신격화를 위해 창시자의 선포만 언급할 뿐 한

601) 2018.7.13.-14. UCI 소송 원고로 증언.

602) 『독생녀 신학 연구』 111쪽.

학자가 창시자에게 절대복종하겠다는 비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한학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창시자가 한탄했다는 사실을 독생녀론자들은 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학자가 약속을 불이행함에 따라 창시자의 최종 일체선포는 무효가 된 셈이다.

최종 일체선포 이후 창시자와 섭리를 대하는 한학자의 태도는 전형적인 주관성 전도였고, 문형진·문국진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격인 교권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창시자를 속이고 참가정을 파탄 내던 한학자의 언행은 타락행위 그 자체였다. 창시자와의 일체는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일체를 이루었다고 해서 한학자가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자녀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해야 할 책임분담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다. 주체인 창시자와 정반대의 길을 간 대상인 한학자를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독생녀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해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버렸다는 의미에서 한학자는 타락했다.

비원리와 반섭리, 나아가 주관성 전도를 주장하는 독생녀론을 복귀섭리를 완성하는 최종적 계시이자 완성된 진리라고 독생녀론자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한학자의 타락행위를 감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초림 독생녀가 탄생하는 곳에 독생자가 재림한다

독생녀론자들은 ‘독생자(남성 구원자, 재림주, 창시자)는 초림 독생녀(여성 구원자, 한학자)가 탄생하는 곳으로 재림한다. 재림시대의 중심은 한학자 독생녀이다’라고⁶⁰³⁾ 주장한다. 물론 이들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한학자의 주장뿐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태어난 초림 독생자와 초림 독생녀는 예수와 한학자뿐이기 때문에 한국에 태어난 독생녀의 어린양잔치를 위해 창시자는 유대인 예수가 한학자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에게 몸을 빌려준 예수의 아바타일 뿐 초림 독생자가 아니라는 한학자의 인식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려있다.

한학자가 창시자와 성혼 때부터 이러한 독생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학자가 타락한 해와를 대신해 고통스러운 복귀의 과정을 인간적으로 인식한 나머지 자신이 창시자에게 이용당했다고 여겼고,⁶⁰⁴⁾ 김효남, 김효율,

603) 『독생녀 신학 연구』 105쪽.

정원주 등 최측근들의 영향을 받아 한학자의 자기연민이 반창시자 정서로 발전했다는 문형진의 주장을⁶⁰⁵⁾ 통해 독생녀 인식의 발단이 창시자와 성혼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재림시대의 중심이 한학자 독생녀라는 주장도 통일원리와 정반대일 뿐만이 아니라 반남성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재림시대의 출발은 창시자를 중심한 참부모이며 재림시대의 완성은 참부모, 참자녀, 참가정 이상의 사위기대 완성과 이를 통해 전체 인류가 참부모, 참자녀, 참가정 이상을 보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독생녀론의 모순

1) 아담과 해와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담과 해와는 쌍태로서 동등하며 각각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해와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내용과 창시자의 통일원리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⁶⁰⁶⁾ 그리고 해와가 천사장과 먼저 타락한 후 아담과 타락했다는 성경과 통일원리적 관점도 버려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관점들이 성불평등과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신학적 이론이기 때문이다.⁶⁰⁷⁾

독생녀론자들은 하나님이 남성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해와를 창조했고, 해와가 먼저 타락하고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통일원리의 관점을 극렬하게 배척한다. 특히 남성 아담이 주체이고, 여성 해와가 대상이라는 통일원리의 설명과는 달리 독생녀론자들은 아담과 해와의 관계를 주체-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주체의 관계로 보고, 제3차 아담, 남성 구원자인 창시자와 초림 독생녀인 여성 구원자 한학자도 주체-대상이 아닌 독립적 주체-주체의 관계라고 주장한다.⁶⁰⁸⁾

604) 『말씀선집』 597권 163쪽. 2008.9.9.

605) 문형진의 설교, 2015.3.15.

606) 『독생녀 신학 연구』 29쪽.

607) 『독생녀 신학 연구』 191쪽.

앞서 언급한 대로 한학자를 창시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주체-대상의 관계를 억압과 주종의 위계질서로 보기 때문이며, 한학자 스스로 독생자에 대해 주체인 독생녀로 인식하는 독생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생녀론은 앞으로 창조목적 실현을 위한 수수작용은 필히 주체-대상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주체-주체, 대상-대상 관계는 상극작용을 일으킨다는 창시자의 교시와 통일사상의 설명을 전부 버려야 할 것이다. 통일운동 분열의 과정을 돌아볼 때 한학자가 창시자를 속이고, 아들을 질투하며, 참가정과 섭리를 파탄낸 현상은 창시자에 대해 주체로 인식한 주관성 전도에서 비롯된 상극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생녀론자들이 주체-대상의 창조원리적 질서를 성 불평등과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신학적 이론이라는 이유로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 창시자는 창조의 기본 질서인 주체-대상을 부정하는 개념을 악마의 개념이라 규정하였다.

“창조한 과정을 보면 환경창조는 태양과 4대 원소를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없어 가지고는 존재 세계에서 제거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천운과 우주력이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칙에서 보면 이런 관계가 아니고 투쟁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상에서는 절대 용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의 개념입니다.”(609)

2) 예수는 보냈고, 예수 아내는 보내지 않았다

독생녀론자들은 ‘하나님이 무원죄의 독생자를 보내면 반드시 무원죄의 독생녀도 함께 보내신다. 그러나 2천 년 전 하나님은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독생자 예수는 보냈고, 독생녀는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책임을 다할 수 없었다. 창시자는 예수를 대신하는 재림주(남성 구원자)이고 한학자는 무원죄 초림 독생녀(여성 구원자)이다’라고 주장한다.

독생녀론자들이 한학자 독생녀가 창시자와 무관하게 무원죄 순혈의 하나님 딸

608) 『독생녀 신학 연구』 84쪽, 110쪽.

609) 『말씀선집』 275권 305-306쪽. 1996.1.1.

로 초립했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독생자 예수와 예수의 아내에 대한 독생녀론은 모순에 빠져있다.

이미 앞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독생녀론자들은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의 아내가 될 독생녀를 보내지 않았고⁶¹⁰⁾, 예수는 사명에 실패했다고⁶¹¹⁾ 주장한다. 이는 모순이다.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독생자 예수는 하늘이 보낸 원죄 없는 독생녀와 어린양잔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 미비로 독생녀를 보내주지 않았으니 예수는 자신의 책임분담 수행과 무관하게 참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었으니 사명 실패는 태생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른다. 이는 독생자를 보내면 반드시 독생녀도 보내야 한다는 독생녀론자들의 주장과도 모순이다.

예수의 아내 후보자는 사가라의 딸이나 사돈의 팔촌 중 한 여성이라는 창시자의 교시와 함께 무원죄의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유원죄 독생녀 후보자를 만나 혈통을 복귀한 후 독생녀로 완성시키는 것은 독생자의 책임이라는 통일원리의 설명이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이다.

결국 무원죄로 출생한 예수 아내 후보자인 독생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독생녀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3) 천일국은 만왕의 왕 독생녀가 다스린다

독생녀론자들은 ‘기원절 이후 창조본연의 세계는 어머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지상에 실제로 현현한 독생녀가 치리한다. 따라서 독생녀는 천일국 시대 지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섭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라고 주장한다.⁶¹²⁾

독생녀론자들의 이 주장은 한학자가 주관한 기원절을 통해 창시자가 본래 고대했던 섭리적 대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참부모의 제3차 완성 성혼식을 통한 참가정의 지상 안착과 축복가정의 완성 입적축복식이 이루어졌고, 이것의 확대로 인류를 하나님의 직계 자녀로 복귀하는 때가 되었다는 전제이다.

610) 『독생녀 신학 연구』 72쪽.

611) 『독생녀 신학 연구』 77쪽.

612) 『독생녀 신학 연구』 5쪽.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기원절은 제3차 참부모 완성 축복식 없이 진행된 독생녀 즉위식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한학자 주관의 기원절은 창조본연의 세계를 개문하는 섭리적 행사가 아니었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보여준 한학자의 언행을 종합해 통일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원절은 한학자가 타락한 천사장들과 하나 되어 주관성을 전도한 채 참부모, 참자녀, 참가정 이상을 완전히 파괴했음을 사탄에게 보고하는 행사였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또한 독생녀론자들은 창조본연의 세계를 어머니 하나님과 그 실체인 한학자 독생녀가 만왕의 왕이 되어 치리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한다.⁶¹³⁾ 그들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실체인 독생자 중심의 섭리를 가부장제의 비대칭 불평등 섭리라고 주장하면서도⁶¹⁴⁾ 역시 비대칭의 불평등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하나님과 그 실체인 여성 한학자 중심의 섭리를 창조본연의 섭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독생녀는 태어나면서 원리도 섭리도 다 알았다⁶¹⁵⁾

한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독생녀론자들의 주장이 우선 창시자의 교시와 다르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출생과 함께 원리를 알았고,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지만, 섭리와 원리를 알았다는 독생녀의 주장을 독생녀론자들은 그대로 인용하고 지지한다. 물론 독생녀가 말하는 ‘원리’는 그녀와 독생녀론자들이 부정하는 창시자의 ‘통일원리’가 아니라 바로 한학자의 ‘독생녀론’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엄청난 모순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남성 구원자인 재림주를 보냈고, 어머니 하나님이 여성 구원자인 독생녀 한학자를 보냈는데 재림주의 통일원리와 한학자의 독생녀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주체인 이원론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학자가 창시자의 혈통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독생녀가 창시자와 함께 이룬 참가정과 참자녀는 무엇인가? 독생녀가 창시자 성화 전까지 수많은 축복가정과 함께 이룬 섭리적 업적은 과연 모두 부정되는가? 독생녀가 창시자의 통일원리를 인정하며 남겨 놓은 수많은 공개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나?

613) 『독생녀 신학 연구』 143쪽.

614) 『독생녀 신학 연구』 234쪽.

615) 『독생녀 신학 연구』 75쪽.

문현진 축출을 위해 끌어들이 이용하고 폐기처분을 하다시피 버린 문형진과 문국진의 증언처럼 한학자는 자신의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고 급기야 안락사를 계획했다는 말인가? 한학자와 독생녀론자들은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에필로그

통일운동은 지난 십수 년 동안 그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급변의 상황을 헤쳐왔다. 통일운동 정체성의 동기이자 최대 가치인 창시자의 ‘참가정’은 갈라져 통일운동 분열의 발단이 되었고, 분열의 한 동기이자 결과로 나타난 한학자의 독생녀 현상은 창시자의 정체성과 정반대의 종교인 ‘하늘부모님성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의 독생녀론은 하늘부모님성회의 중심 교리가 되었다.

① 기독교 2천 년은 독생녀인 한학자를 찾기 위한 섭리였다. 즉, 한학자는 이미 해와의 타락 때부터 독생녀로 결정되었으며, 예수 시대에는 복중에서 혈통 복귀가 된 독생녀가 존재하지 않아 예수는 결혼을 못 했고 성신이 올 수 없었다. 따라서 6천 년 만에 하나님이 보낸 한학자는 초림 독생녀이며, 독생녀가 한국에 출생했기 때문에 재림주인 창시자도 한국에 출생하게 되었다.

② 창시자는 타락한 핏줄과 원죄를 갖고 출생했으므로 독생자가 아니다. 반면 한학자는 3대 복중 혈통 복귀를 거쳐 모태부터 원죄 없는 핏줄로 태어난 독생녀이다. 창시자는 독생자가 아니지만 16세 때 예수로부터 사명을 인계받은 순간 독생자의 자격을 얻어 독생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③ 한학자 독생녀가 여러 메시아 사명자 중 하나였던 창시자를 선택해 결혼해 줌으로써 원죄를 복귀해 주었다. 창시자가 한학자 독생녀를 만나기 전에 최선길과 결혼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것은 창시자의 탕감조건이자 꼬리이다. 그래서 하늘은 창시자에게 공산정권 북한으로 가라 명령했고, 흥남 감옥에서 고생을 시켰다.

④ 창시자가 한학자 독생녀를 가르치고 기른 것이 아니다. 한학자 독생녀는 태어날 때부터 원리와 섭리를 알았고, 독생자와는 별도의 주체이다. 한학자 독생녀는 한평생 원리공부를 해 본 적이 없다. 성경공부를 해 본 적도 없다.

⑤ 한학자 독생녀로 인해 하나님이 해방되고 인류가 구원된다. 타락의 혈통을 벗기는 일은 한학자 독생녀 밖에 못 한다. 독생녀가 창시자를 참부모로 완성시켰다.

⑥ 한학자 독생녀가 아니면 섭리가 불가능하다. 오로지 독생녀가 기원절과 천일국을 완성해야 함으로 기원절 6개월 전에 창시자가 성화했다.

⑦ 절대자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나 남성적 주체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과 하늘 어머니 두 존재이다.

⑧ 독생녀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고, 천일국 만왕의 왕이다.

통일원리로 보았을 때 독생녀론은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드러난 한학자의 아래 행적과 함께 한학자가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① 한학자는 일찍부터 창시자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해 왔다.

② 한학자는 부자협조시대의 섭리적 의미에 무지해 참여머니의 위치를 떠나 주관성을 전도한 채 참여아버지인 창시자와 불화했고, 장자권자인 문현진의 섭리적 책임과 기반을 질투했다.

③ 한학자는 종교를 초월해 혈통과 참가정을 중심으로 평화이상세계를 실현하려는 창시자의 섭리에 불만을 품은 교권주의자들과 하나 되어 문형진과 문국진을 끌어들이며 형제를 이간하고 부자(父子)를 이간했다.

④ 한학자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저주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타락한 해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았다.

⑤ 한학자는 장자권자인 문현진의 섭리적 책임과 기반을 찬탈하기 위해 김효남, 김효율, 양창식 등 타락한 천사장들을 앞세워 영계 메시지를 여러 차례 조작했다.

⑥ 창시자는 절대복종하고 하나 되겠다고 한 한학자의 비밀 약속을 믿고 한학자 신격화의 근거가 된 참부모 최종 일체를 선포했다. 그러나 한학자는 약속을

깨고 주관성을 전도하며 불복종하여 참가정과 섭리의 파탄은 물론이고 창시자의 이른 성화를 초래했다.

⑦ 한학자는 김효율과 함께 2012년 4월, 독생녀론의 걸림돌이 되는 창시자의 말씀을 삭제하기 위해 성화사를 방문하여 말씀선집 수정을 지시했다.

⑧ 한학자는 창시자가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2012년 8월 말, <8대교재교본>, 특히 『천성경』 개정을 지시했고, 안락사를 언급했다.

⑨ 한학자는 창시자의 성화식이 끝나자마자 자신과 공모하여 아버지를 죽이며 문헌진 축출에 앞장섰던 문국진과 문형진을 내쫓았다.

⑩ 2013년 음력 1월 13일, 한학자는 기원절의 절대조건인 참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으로서 창시자 없이 홀로 기원절을 집전했고, 기원절을 독생녀 즉위식으로 변질시켰다.

⑪ 한학자는 2013년부터 독(생)녀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창시자의 혈통과 통일원리를 파괴하는 독생녀론을 주장했다.

⑫ 한학자는 측근 간부들의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다. 과도한 현금과 교인 빈곤이 원인이 된 아베 암살 사건 때문에 일본 하늘부모님 성회의 법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건축 비용이 필요한 독생녀 궁궐인 천원궁 건립에 교단의 모든 자원을 쏟고 있다.

⑬ 한학자는 장자권자 문헌진의 섭리적 기반을 찬탈하기 위해 30여 건의 소송을 주도했으나,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학자의 비도덕, 비원리, 반섭리적 행위는 통일운동과 참가정 그리고 섭리에 큰 짐을 만들었다.

독생녀론과 한학자의 타락을 해와 타락의 동기와 과정과 비교해 볼 때 ① 해와가 자신이 대상으로서 수수작용할 주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천사장과 수수작용했다는 점, ② 해와가 천사장과의 타락 후 아담을 역주관해 타락시키려 했다는 점, ③ 해와가 타락 후 가인-아벨 섭리에 무지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가정환경을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해와의 타락과 너무도 유사하다.

필자는 이 책 초판 말미에 한학자가 왜 창시자를 불신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50년을 ‘참아버지’ 옆에서 ‘참어머니’로 살아오

며 1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었고, 말할 수 없는 섭리적 책임의 압박 속에서도 수많은 종교적 선언과 선포, 영광과 환희에 동참하며 복귀섭리를 함께 책임져 온 한학자가 창시자와 함께한 모든 종교적 사건을 부정하고 완전한 변심과 변신으로 자신을 독생녀라 주장하는 이유”는 의외로 자명하다. 극복하지 못한 한학자의 타락성, 즉 자기연민과 교만, 질투심 그리고 원리와 섭리와 자기 책임분담에 대한 무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책 머리말에서 언급한 대로 통일운동의 분열은 모든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끝이 났다. 그렇다고 한학자가 독생녀론을 당장 포기하고 하늘부모님성회를 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기 때문에 전체 인류가 독생녀를 숭배할 것이라고 믿는 한학자의 과대망상 때문만은 아니다. 한학자를 둘러싼 기득권자들이 한학자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학자와 하늘부모님성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헌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할 것이다. 아마도 창시자의 섭리적 기반이 모두 매각되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한학자의 과대망상과 기득권자들의 타락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섭리가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직계 혈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섭리와 정렬된 양자 가정인 축복가정도 남아있다. 어머니의 타락으로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섭리는 아버지를 대신한 아들이 이루면 된다.

성경(마태복음 7장 16절-20절)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진실과 현재의 모습은 누가 참아버지의 참된 자녀인지, 누가 참가정의 참된 아벨인지, 누가 참가정의 전통과 아버지의 섭리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통일원리는 우리 축복가정에게 호소하고 있다. 복귀된 가인권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중심으로 참가정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호소하고 있다. 선과 악, 섭리와 반섭리, 원리와 비원리를 분별하고 가정맹세의 가르침을 따라 통일가의 전통을 지키며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자.

참고문헌

〈단행본〉

- 강남순.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경기: 도서출판 동녘. 2018.
- 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경기: 도서출판 동녘. 2017.
- _____. 『21세기 페미니스트 신학』. 경기: 도서출판 동녘. 2018.
- 곽정환. 『사필귀정』. 서울: 아주미디어. 2019.
- 김종석. 『한국의 육신영생신앙』. 서울: 청년사, 2009.
- _____. 『통일교의 분열』. 천안: 아우내, 2016.
- _____. 『통일교 경전의 비밀』. 천안: 아우내, 2016.
- _____. 『통일교분열실록』 전집 11권. 천안: 아우내, 2021.
- _____. 『통일교 분열과 생명나무』. 천안: 아우내, 2023.
- 김종석 역. 『종교인류학』 (Anthony F. C. Wallace, *Religion An Anthropological View*: New York, Random House, 1966.) 천안: 아우내, 2011.
- 김진춘. 『통일원리 1부 총론』. 천안: 선문대학교신학부, 2001.
- 김진춘.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 서울: 성화출판사. 2018.
- 문선명.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서울: 김영사, 2009.
- 문형진의 설교 동영상 디테이션 자료, 미발행 자료. 2015.1.18.-2018.7.22.
- 방정원. 『기록, 2대왕과 독생녀』. 천안: 아우내, 2017.
- 선학역사편찬원 편, 『참부모님 실록』. 서울: 성화출판사, 2017.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참부모님 생애노정』. 서울: 성화출판사, 1999.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統一教會 實錄』. 서울: 성화출판사, 2007.
- 세계기독교통일신협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1-593권.
- 세계기독교통일신협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594-615권.(원본)
- 세계기독교통일신협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594-615권.(위본)
- 세계기독교통일신협회. 『문선명선생말씀』.(미발간 자료), 2009.9.17.-2010.7.5.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4.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해설』. 서울: 세종문화사, 1957.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통일교 발자취』. 서울 : 成火出版社, 1996.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통일교회사 상』. 서울: 성화사, 1978.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님 생애와 섭리 1,2,3』. 서울: 성화출판사, 2009.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통일세계』. Vol. 1.-Vol. 508.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역사간행위원회. 『사보』. 제1호-제189호.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참부모님 생애노정 4』. 서울: 성화출판사, 2000.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傳統』. 서울: 성화출판사, 1997.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統一教會 實錄』. 서울: 성화출판사, 2007.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주요의식과 선포식 I』.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 『천성경』. 서울: 성화사, 2005.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改定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5.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역사편찬위원회. 『참부모님 생애노정』. 서울: 성화출판사, 1999.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서울: 성화출판사, 2009.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서울: 성화출판사, 2009.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일국헌법』. 서울: 성화사, 2014.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말씀연구원&세계전산센터, TP Speech 300, 2000.
- 역사편찬위원회. 『성훈식과 축복의 역사』. 서울: 성화출판사, 2003.
- 조응태. 『하늘부모님 성회의 역사』. 평택: 우리출판 기획사업부, 2021.
- 천일국학술원. 『2017 효정 국제학술심포지엄』. 2017.
- 천일국학술원. 『2018 효정 국제학술심포지엄』. 2018.
- 통일교. 『참어머님 생애노정』. 서울: 성화사, 2012.
- 통일교. 『평화신경』. 서울: 성화사, 2009.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교사연대표』. 서울: 통일사상연구원 출판부, 1994.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의사상)』.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통일신학교 말씀연구회. 『통일교사 연구 가이드 II』. 미발간도서, 1986.
- 한학자. *Forgive, Love, Unite*. 한학자 설교 모음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영어로 발간한 자료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음. 2012.9.17.-2014.12.22.까지 한학자의 설교 포함.
- _____. 『사랑의 세계』. 서울: 성화사. 1987.
- _____. 『인류의 눈물을 닦아 주는 평화의 어머니』. 경기: 김영사. 2020.
- 효정학술원. 『2018 국제학술심포지엄』. 2018.

- 황진수, 오택용, 주재완, 김민지, 안연희 공저. 『독생녀 신학 연구』. 서울: 천원사. 2023.
- GPUI. 『천일국창국섭리사』. 미발행 자료, 2013.
- 로즈마리 퍼트남 통.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메리 데일리, 황혜숙 옮김. 『교회와 제2의 성』. 서울: 여성신문사. 1994.
- _____. 황혜숙 옮김.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서울: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1996.
- 가브리엘 쿠비. 정소영 옮김. 『글로벌 성 혁명』. 서울: 밝은 생각. 2018.
- Michael L. Mickler. *The Unification Church Movement*, Published online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03 December 2022.

〈논문〉

- 김민지, “가부장제의 위기와 참가정사상에 대한 연구”. 『통일사상연구』 Vol. 9, 2016.
- 김진춘. “『평화신경』, 『천성경』, 『원리강론』의 통일적 구조화에 관한 연구,” 『청심논총』 제 4집. 2009.
- _____. “이상세계창건을 위한 천일국 경륜-천일국헌법을 중심으로”. 천일국학술원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심포지움. 2016.
- _____. “참부모님의 생애: 성혼과 독생녀.”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기원절 3주년 기념. 2016 천일국지도자 총회 특강.
- _____. “참부모님의 독생자·독생녀 연구.” 효정학술원 창립총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7.
- _____. 「2016 천일국 지도자 총회 특강 “참부모님 생애: 참어머님의 성혼과 독생녀”」. PPT 자료.
- 문예진. “양성평등 회복의 필요성.” 천일국 학술원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심포지엄, 2016.
- 임현진. “제6장 참부모님론.” 2018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2018.
- 주재완. “하나님 참부모론.” 2017 천일국 학술원 국제 심포지엄. 2017.
- _____. “참부모 하나님론.” 2018 천일국 학술원 국제 심포지엄. 2018.
- 테오르드 심묘. “참부모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 점을 그들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18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2018.
- Andrew Wilson. "Theological Developments in the FFWPU since the Death of Rev. Moon," *Acta Comparanda*, SUBSIDIA VI. 2018.
- _____. "Further Reflections on The Only-Begotten Son and Only-Begotten Daughter," 2017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2017.

Michael MICKLER. "Gender Politics in the Post-Sun Myung Moon Unification Movement," www.academia.edu.
 Tyler Hendricks. "True Parents' Birth, and Our Attitude," 2017 효정천일국학술원 국제학술심포지움. 2017.
 이승구. "퀴어 신학의 주장과 그 문제점들." 『성경과 신학』. Vol. 89. 2019.

〈비문서 자료〉

아이피스티비. ipeacetv.com.
 세계평화통일성전 홈페이지. www.kwpus.org.
 가정평화협회 홈페이지. korea.family-peace.org.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하늘부모님성회 홈페이지. www.ffwp.org.
 파이오니아카페. <http://cafe.daum.net/W-CARPKorea/>
<https://truemother-speech.glideapp.io/dl/d0a5f4?full=t>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30623744651/en/D.C.-Superior-Court-Dismisses-All-Claims-Against-UCI>, "D.C. Superior Court Dismisses All Claims Against UCI, Ruling ends 12 years of groundless litigation against religious organization"
<https://www.frontpagemag.com/my-sister-kate-destructive-feminist-legacy-kate-mark-tapson/>
<https://www.youtube.com/watch?v=nh-gwvR-U28>. 천복식 행사. 2012.1.24.
<http://cafe.daum.net/W-CARPKorea/cSkJ/29033>.
<https://youtu.be/cyZdDdunAsc>.
<https://youtu.be/pMvK1vJFF34>. 창시자의 교시, 2012.7.19.
<https://youtu.be/imSqcGb-rIs>.
<https://youtu.be/-kGVXJQu8a8>.

〈한학자 법정 진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ouX3Gavhs0&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kH-JyVX8c&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BUmZL5k6AuM&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_bP-tLwqy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UTMV8Aa0v9A&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2L-M5hqyVg&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T2L-M5hqyV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2c-kjdL3Fg&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v2c-kjdL3F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pQqt_u0CXI&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IpQqt_u0CXI&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qnbUz4Lmues&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qnbUz4Lmue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_YElfIsids8&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_YElfIsids8&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7AL2cIgHEXy&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7AL2cIgHEXy&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5MSXumfnDTM&feature=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5MSXumfnDTM&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6hMcL7PMeA&t=486s&frags=pl%2Cwn.](https://www.youtube.com/watch?v=l6hMcL7PMeA&t=486s&frags=pl%2Cwn)

